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문화유산의

김영재 박지은(편)

지속 가능한 보전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PACIFIC
HERITAGE STUDIES



1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 평가: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
기준에 따른 연구
Sara Izrar Aziz

2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
Benny Baskara

3
스웨덴과 태국에서 보존 이념의
발전 - 비교 연구
Susanna Barros Eriksson

4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의 문화적 포장
Nicanor L. Guinto
Brian D. Villaverde
Amiel Jansen Demetrial
Shiela M. Manzan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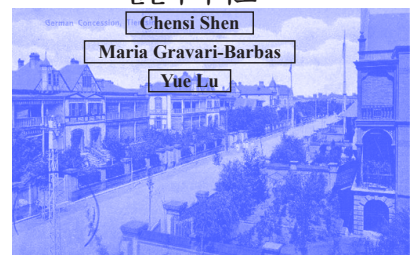


5
관광 공해는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서울과 스톡홀름의 비교 사례 연구
Sandra Ságer

6
박물관의 물입적 전환:
텐진의 과거 조계지
Maria Gravari-Barbas
Yue Lu
Chensi Shen
Sandra Guinand

7
텐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복합화, 그리고 소비(제2부)
Yue Lu
Maria Gravari-Barbas
Chensi Shen

8
식민지 이후 문화유산의 유산화
및 관광화의 “왕흥” 역사:
텐진 우다다오
Chensi Shen
Maria Gravari-Barbas
Yue Lu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네스코 석좌

문화유산의

김영재 박지은(편)

지속 가능한 보전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PACIFIC HERITAGE STUDIES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

2024 유네스코 석좌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복원 역량강화 연구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PP.
004-
023

들어가는 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UNESCO Chair Program)은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2년 제2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7년 3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유네스코와 석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현장방문 조사, 연구지원, 워크숍·웨비나·포럼 개최, 출판 등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유네스코 석좌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 축적을 가능케 하였고, 관련 데이터 자산의 확충과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산 분야의 정책결정자, 교육·연구자들은 아시아-태평양을 기술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인류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유산 연구는 전 지구적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전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의 문화유산은 서구와는 다른 고유한 역사·사회적 맥락을 지니고 있어, 보존 철학과 정책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식민 지배와 급격한 근대화를 겪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특수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접근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유럽 중심의 기념물 위주의 보존관과는 구별되는 패러다임으로, 유산은 결국 공동체 정체성과 무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양 전통을 반영하기도, 또는 경제나 이념적 목적 속에서 역사·문화를 혼종화하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의 문화유산은 급속한 도시화와 관광 개발,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로 인한 토지 수요 증가로 구도심의 역사 건축물이 철거되고 비공식 취락이 정비되면서 전통 기술과 지식의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일컬어지지만, 많은 국가에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하여 전통문화 상당수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음이 지적된다(박성용, 2012). 다시 말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라는 과제가 절실하며, 특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활력과 문화자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영향은 양면적이어서, 과도한 관광은 문화유산 훼손과 지역 공동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잘 관리된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 성장과 문화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화유산 관광 분야에서는 경제적 이익, 문화적 가치 보존, 환경 관리의 균형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핵심 요소로 강조하는 추세가 뚜렷하며(Rachmawati et al., 2024), 관광

수용력(carrying capacity) 개념과 윤리적 관광 캠페인 등이 도입되어 관광객과 지역 사회가 공생하는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유산지에서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역사도시나 마을이 단기간에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혼잡도 증가, 공공서비스 과부하, 임대료 상승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관광 상업화로 기존 상권이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일색으로 재편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관광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유산의 보존·복원은 물론 해석과 활용 방식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동반함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2024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네스코 석좌 연구 논문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특히 유형과 무형, 보존과 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국제 거버넌스 등의 핵심 이슈를 논의의 축으로 삼았다. 본서에 수록된 8편의 연구는 역사도시 경관 지표의 지역 적용부터 해양 무형유산 전승 모델, 지역 축제의 관광화와 담론 변화, 동서양 보존 이념 비교, 도시 문화유산의 과잉관광 관리, 근대 유산의 몰입형 전시 활용, 식민도시 경관의 혼성성, 디지털 시대 유산 관광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폭이 매우 넓다. 이는 오늘날 문화유산 연구가 거시적 이념에서 미시적 현장까지 포괄하며,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이라는 공통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의 유사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체 연구 성과가 제시하는 보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석좌 연구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의 지속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관련 연구지원 성과

본 논문집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의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행해 온 현장조사-연구지원 성과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유산의 가치 설정과 경관 관리, 관광과 공동체의 균형, 디지털 전환과 전승을 핵심 축으로 삼아, 동/서 비교와 도시·지역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한다.

본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제1부는 보존과 복원, 그리고 전승으로, 어떻게 유산의 가치가 정의되고 보존·복원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HUL 적용과 확장 지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타만 타식 사례에서 진정성·완전성·후(탈)식민 정체성을 통합 평가하고 과정 중심·변화 관리 지표를 제안한다(2.1). 또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전승과 해석, 관람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다루는데, 긴급보호 모델을 통한 인도네시아 바조족 이코 이코를 기록-교육-공동체 참여로 연결한 전승 체계를 제안, SDG 4.7·11.4에 기여 가능성을 논증한다(2.2).

마지막으로 보존 이념의 동/서 비교는 스웨덴의 최소 개입·충위 존중과 태국의 의례 연속성·공동체 실천 존중을 대비, ‘살아있는 유산’ 관점의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2.3).

제2부는 해석과 활용으로, 유산의 해석과 전시, 그리고 관광의 관계가 유산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 설계를 탐구한다. 우선 축제의 관광화와 담론 변화는 필리핀 파히야스의 지역 담론과 관광 미디어 담론 교섭을 분석, 원재료 지원·전승 워크숍·디지털 아카이브를 병행 제안한다(2.4). 도시 유산지의 ‘관광 오염’을 주제로 한 서울 북촌과 스톡홀름 감라스탄의 소음·사생활 침해·상업화 비교는 관광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을 수용력 관리·동선 분산·상생협약·혜택 공유로 완화하는 프레임을 제시한다(2.5). 그리고 2023년도에 이어 진행되는 중국 텐진 연구는 몰입형 전시의 두 얼굴(2.6)과 혼성(殖民/현대) 경관의 현재(2.7), SNS ‘왕홍’ 명소의 명암(2.8)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한다.

우선 전시 연구는 텐진 옛 조계 건축의 스토리텔링·롤플레이팅 기반 체험이 접근성 확대와 함께 역사 맥락 희석을 초래할 위험을 지적, 사실 검증·균형 서사·상업화 규율을 요구하고, 공원 연구는 텐진 옛 조계 공원의 역사 희석·젠트리피케이션·이용자 갈등을 진단하고 스토리텔링·이용관리·이익 환수 등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왕홍 연구는 텐진 우다다오의 단기 붐-장기 왜곡 딜레마에 대응해 창의공간 전환·미니뮤지엄/AR 투어·이익 공유 등 포스트 왕홍 전략을 모색한다.

2.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타만 타식 공원의 역사도시경관(HUL) 적용 사례

첫 번째 연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도시공원 타만 타식(Taman Tasik)에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법을 적용하여, 이 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고 국가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타만 타식은 1880년대 식민기 폐광산 부지를 복원하여 조성된 호수공원으로, 말레이시아 다민족 시민들의 일상 속 여가 녹지로 140여 년간 기능해 온 장소이다. 연구자는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조경가연맹(IFLA)이 개발한 HUL 지표에 따

라 이 공원의 가치를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탈식민/후식민 정체성(post-colonial identity)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1) 식민기 폐광산을 공원으로 재생한 본래 조성 목적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역사적 진정성이 높고, (2) 호수·산책로·열대 식생 등이 온전히 보전되어 도시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기능함으로써 완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3) 식민지 양식의 경관을 수용하되 독립 후 루쿤 느가라(국가이념)의 가치에 따라 다문화 공존의 장소로 재해석됨으로써 후식민 시대 공동체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zrar, 2024).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그동안 물리적 형태 중심이던 유산 등재 기준을 넘어 과정 중심의 진정성, 사회·경관적 통합성, 변화 관리 역량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HUL 지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동남아의 근현대 조성 공원과 지역 공동체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산업·도시 유산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 서울의 선유도공원은 노후 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2002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재생 생태공원으로, 산업시설 구조물 일부를 남겨두고 물 정화 과정을 접목함으로써 “기능에서 가치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공원은 산업유산을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 역사성을 보존한 점에서 타만 타식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2005년 복원된 서울 청계천은 도심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부활시켜 도시 생태계를 되살린 프로젝트로서, 자연지형의 물길부터 도시의 인공 구조물까지 역사도시경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회복한 사례이다. 청계천 복원은 홍수 조절과 열섬 현상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5.8km 길이의 수변 공간을 돌려주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들은 산업·자연·문화적 가치를 통합 고려한 확장형 HUL 지표가 동아시아 복합경관 유산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도시재생 정책에서 역사경관 보존과 주민 참여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분야에서는 역사공원 개념을 세분화하여 보존·활용 전략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길지혜·박희성(2020)은 영국·미국·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도시공원을 ICOMOS·IFLA 지침에 부합하는 역사도시공원(historic urban park)으로 유형화하고, 역사성·생태성·장소성·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맞춤형 보존 관리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각 공원의 조성 목적과 맥락에 맞는 주민 참여형 가치 평가와 통합 보존관리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인도네시아 바조족 해양 무형유산 이코 이코(Iko Iko) 전승과 긴급보호

두 번째 연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연안의 바조(Bajo)족 해양 유목민 공동체

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통 구전서사시 이코 이코(Iko Iko)의 소멸 위기와 전승 활성화 전략을 다루었다. 바조족의 이코 이코는 바다 생활을 노래하는 장형(長形) 서사시로 한때 널리 전승되었으나, 현대에는 이를 온전히 구연할 수 있는 원로 예인이 두 명만 남았을 정도로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Baskara, 2024). 연구자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화-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단계별 긴급보호(safeguarding)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지조사를 통해 이코 이코의 음성·영상 자료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서사 가사를 문자화하여 인도네시아어·영어로 번역하는 등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서사 내용에 담긴 생태 지식과 공동체 가치를 분석하여 교육 자료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 대상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마을 예술공방을 거점으로 한 창작 공연 창설, 연례 이코 이코 경연대회 개최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급속히 쇠퇴하는 해양 무형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구제 로드맵으로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고령의 전승자 구술에 의존하던 구전 유산에 기록-전수-활용이 결합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동남아 소수민족 무형유산 보존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자는 아울러 이 사례가 문화다양성 교육(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7)과 문화유산 보호(SDG 11.4)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 판소리, 가곡 등 소멸 위기의 전통 예술 전승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판소리의 경우 한때 전승 인구 감소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이수자 제도 시행 이후 명맥을 되살려 오늘날 여러 명창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UNESCO, 2008). 한편 제주 해녀문화 사례도 바조족 이코 이코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주 해녀들은 전통적으로 물질 작업 중 해녀노래를 부르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왔는데, 산업화로 해녀 수가 급감하면서 이러한 생활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 2016년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등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해녀들의 물질 요령과 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해녀학교를 통해 청소년 체험교육을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전승 지원에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유원희 외, 2018; UNESCO, 2023).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뒷받침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결합된 이러한 노력은 사라질 뻔한 해녀문화를 되살렸고, 나아가 전승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전수교육시설로 이어지는 3축 전승 시스템과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험은 바조족의 상황에 맞게 변용된다면

이코 이코의 부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한국 국립무형유산원의 협력, 공동 워크숍 개최, 전송 자료 공유 등의 현실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3. 필리핀 루크반 파히야스(Pahiyas) 축제의 관광화와 지역 정체성 재구성

세 번째 연구는 필리핀 루크반(Lucban) 지역의 대표 축제인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San Isidro Pahiyas) 축제가 전통 종교의례에서 관광 상품으로 재포장(re-branding)되는 과정에서 지역 담론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원래 파히야스 축제는 매년 5월 농경의 수호성인인 성 이시드로에게 감사하는 가톨릭 축제(피에스타)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속적 볼거리 위주의 이벤트로 변모하면서 축제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Nicanor L. Guinto 등(2024)은 담론-관광-문화 교차 프레임(Jaworski & Pritchard, 2005)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로컬 내러티브(지역 담론)와 미디어·관광산업 담론이 축제 의미를 둘러싸고 어떻게 충돌하고 교섭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참여 관찰, 주민 인터뷰, 축제 홍보영상·SNS 게시물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난 핵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담론에서 주민들은 집 외벽을 키팅(kiping)이라 불리는 형형색색의 쌀전병과 농산물로 장식하는 전통을 통해 “신에 대한 감사, 가족 협동, 공동체적 미적 창의”라는 가치를 지속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관광 미디어 담론에서는 TV 방송과 SNS 홍보물에서 파히야스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화려한 이벤트”로 부각함으로써, 정작 축제의 종교적 뿌리와 농민 삶의 이야기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셋째, 축제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협도 드러났다. 축제 상징인 키팅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장식 기술을 전수해 온 장인들은 고령화되었지만 젊은 세대의 계승 참여는 저조하여, 향후 축제 전통 단절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루크반 지자체는 키팅 제작 재료를 보조하고 경연대회 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물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정체성에 양면적 영향을 미쳤다. 축제의 전국적 명성은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관광 수입 증대라는 긍정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종교성과 전통성이 희석되어 원주민 공동체의 응집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이 사례가 지역 축제가 관광화되는 과정에서 담론적 포장(discursive packaging)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학술적 의의를 강조한다. 아울러 지자체·공동체·미디어가 협력하여 원재료비 지원, 세대 간 전송 워크숍,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병행하면 SDG 11.4(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필리핀 파히야스 사례는 전통 축제가 관광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담론 변화를 한국의 지역 축제들과 견주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 탈춤을 기반으로 한 축제로, 전통성과 관광홍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한양명, 2008; 조정현, 2009; 이진교, 2013). 주춤은 탈춤 고유의 제의적·예술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낮 시간대에는 전통 탈놀이 공연을, 저녁에는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신앙성과 오락성의 병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보령머드축제는 지역 특산 자원인 머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축제로 유명한데, 머드 채취·가공 비용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자체와 기업 후원을 통해 참가비를 억제하고 머드 화장품 판매 수익을 축제 재원으로 환류하는 창의적 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머드 축제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제 행사로 성장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약 5천만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돌리고 있다(Korea.net, 2023). 이처럼 민관 협력 및 수익 환원 모델은 파히야스 축제가 직면한 재정난(원재료비 상승과 장인 보상 문제 등)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많은 축제들은 축제 서포터즈, 청소년 예술단, 디지털 홍보 크리에이터 등을 운영하며 MZ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안동탈춤페스티벌에서는 청년들이 SNS를 통해 축제를 홍보하는 ‘탈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R 필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 파히야스 축제에도 적용 가능하며, 전통성과 경제성, 세대 상승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4. 스웨덴과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 이념 비교 연구

네 번째 연구는 서구와 동양의 문화유산 보존관(보존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변화해 왔는지를 스웨덴과 태국 사례를 통해 비교하였다. 흔히 서구는 유형유산(물리적 형태와 미감)을 중시하고 동양은 무형유산(의례와 실천)을 중시한다고 이해되지만, 실제 각국의 보존 정책과 담론은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복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두 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령, 보존 운동의 전개, 종교·왕실의 역할 등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666년 고적령 제정 이후 한때 중세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 통일적으로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20세기 초 시구르드 쿠르만(Sigurd Curman)에 의해 시대별 층위를 존중하고 최소 개입을 지향하는 근대 보존 철학이 확립되었다. 이후 전후 산업화로 인한 도시 개조 압력 속에서도 오베 히데마크(Ove Hidemark) 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 재료에 입각한 수리” 등 과학적 보존기법이 발전하였다. 반면 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교의 공덕 사상에 따라 사원·불탑을 헌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역사적 원형보다는 의례의 연속성이 중시되었다. 19세기 라마 5세 치세에 서구 고고학 영향으로 일부 원형 보존 개념이 도

입되고 1930년대 미술부(FAD) 창설 등 근대적 문화재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왕실과 승려 주도의 재건·미화 사업이 활발했다. 1960~70년대 이후 태국도 베니스 헌장 등 국제 기준을 수용하여 수코타이 유적 등에 고중에 입각한 복원과 역사공원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마하간 요새 공동체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간 갈등도 나타났다 (Rujivanarom, 2018). 비교 분석 결과, 두 나라 모두 초기에는 정부·전문가 주도의 보존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사회적 참여와 가치의 다원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영향(베니스 헌장 수용, ICCROM 교육훈련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존 개념을 고도화하고, 유형과 무형의 통합 담론(예: 살아있는 유산 개념 부상)이 중요해진 것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 스웨덴은 종교의 세속화로 교회 등 종교 유산을 역사적·미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반면 태국은 사찰 등 종교유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례 수행 자체를 보존 개념의 정당성으로 삼아 종교적 기능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무형 요소의 비중도 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의식과 공동체 실천이 물리적 형상보다 앞서는 사례가 빈번했다.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통념적으로 여겨지던 동·서 보존관의 이분법을 역사 속에서 재검토하였다. 특히 “살아있는 유산” vs “죽은 유산”이라는 개념이 정책 결정과 기술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조명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종묘, 서원, 사찰 등에서 종교 의례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동시에 조선왕조나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서구식 보존 기법도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스웨덴과 태국의 경험은 한국의 보존정책 수립에 복합적 교훈을 준다. 첫째, 종교유산 활용 측면에서 태국식 접근은 우리의 종묘, 종택, 사찰 등에서 전통 의례를 지속하면서 관광·보존을 조화시키는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는 조선왕조의 제례를 매년 재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례악 연주와 일부 공연 등을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하면서 일반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이원적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 참여형 가치평가 측면에서 스웨덴은 2014년 문화유산 가치 평가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하였다. 한국 문화재청도 최근 국민 참여 보존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 협의체를 통한 가치평가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마하간 요새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 개발이 초래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기억과 삶을 존중하는 보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Rujivanarom, 2018). 셋째, 유·무형 통합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과 무형문화재법(2016년 시행)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으나, 근현대 산업유산이나 생활사 유산 등 새로운 유형의 유산을 다루기 위해 양 분야의 연계가 중요하다. 태국은 2017년 무형유산법 제정으로 전통공예, 공연예술, 생활관습 등을 국가 보호체계에 편입하였다. 한

국도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전승공동체 지원, 이수자 인정 등 새로운 지원 장치를 도입하였다. 앞으로는 유형 유산 관리 기관(문화재청·지자체 등)과 무형 유산 전승 기관(국립무형유산원 등)이 협력하여, 특정 장소와 그곳에 깃든 내러티브 혹은 무형적 가치를 함께 해석·활용하는 통합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유산 보존 정책도 스웨덴의 “최소 개입, 가치 공개, 투명 절차” 원칙과 태국의 “공동체 실천 존중, 공덕적 참여 유도” 전략을 균형 있게 결합함으로써, 근현대 종교유산이나 생활유산 분야에서 “살아있는 보존”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5. 서울 북촌과 스톡홀름 감라스탄 사례로 본 관광 오염(tourism pollution) 문제

다섯 번째 연구는 도시 역사경관 지역에서 과잉관광(overtourism)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관광 오염” 개념으로 정의하고, 한국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웨덴 스톡홀름의 감라스탄(Gamla Stan, 구시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관광 오염이란 전통적 의미의 환경오염(쓰레기·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관광 과밀로 인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문화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 권고(2011)와 ICOMOS 문화관광현장(1999) 등 국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 참여, 관광수용력 관리, 경제 균형 등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두 사례를 이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촌 한옥마을(서울)은 600년 역사의 전통 주거지로 약 900가구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공간이지만, 현재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관광지로 변모하였다(Choi & Yi, 2024). 그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각해져 골목마다 관광객의 큰 소음과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담 너머 사진촬영 등)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고, 일부 관광객이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일까지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었다(Choi & Yi, 2024). 한편 감라스탄(스톡홀름 구시가지)은 중세 이래 형성된 역사 도심으로 약 3천 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스웨덴의 대표 관광지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역사 경관을 비교적 잘 보존하였다. 그러나 관광 수요 급증으로 상업화도 진행되어, 감라스탄 중심부 상점들은 생활필수품 가게 대신 기념품 상점과 관광식당 위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상주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거주자는 주로 고소득층이나 단기임대 사업자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두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가 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상인 대상의 상생 협약 및 경제 지원, 관광 동선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제안한다. 아울러 “관광 오염

은 단순 통제가 아니라 주민 삶·유산 가치·관광 체험의 삼자 간 균형 설계를 통해 완화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관광객 수를 물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분산과 조정,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보장을 통해 공생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6. 텐진 옛 조계지 건축물의 몰입형 전시 전환

여섯 번째 연구는 중국 텐진시의 근대 유산, 그 중에서도 옛 외국인 조계지 건축물들이 현대 박물관에서 몰입형(immersive) 체험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조명하였다. 텐진은 19세기 말부터 9개국 조계지가 설치되어 “중국 속의 국제도시”로 성장한 곳으로, 현재도 약 300여 채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불편한 유산(dissonant heritage)”을 현지 당국과 민간이 스토리텔링형 몰입 체험관으로 재가공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역사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중국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사례로 분석된 곳은 1920~30년대 영국 조계에 있던 장위안(张园, Zhang Garden)과 프랑스 조계에 있던 장쉐량(장학량) 고택(少帥府) 두 공간이다. 장쉐량 고택에서는 관람객이 1930년대 양복을 입고 추리극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마치 당시 사회의 탐정 또는 인물이 된 듯 역할극을 즐기게 한다. 한편 장위안에서는 네 채의 저택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몰입형 연극을 선보여, 관객들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각기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따라가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몰입형 전시에서는 첨단 디지털 기술보다 실제 역사 공간과 각본이 핵심 매체로 작용하였고, 관람객은 객관적 사실 전달보다는 “대체 역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vari-Barbas et al., 2024). 예컨대 장쉐량 고택의 몰입 체험은 서양식 살롱 문화와 친일 음모 사건을 소재로 하여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만주군벌 게임”을 즐기도록 꾸며졌는데, 실제 역사에서 존재했던 식민 권력의 폭력과 착취 맥락은 이러한 몰입 콘텐츠에서 의도적으로 단순화되거나 배제되었다. 대신 체험의 쾌적성과 애국 서사만 강조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몰입형 박물관들은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며 2023년 국경절 연휴에만 수만 명이 방문하는 등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텐진 당국도 이를 ‘홍색관광(red tourism)과 경험경제’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며, 국영·민영 자본이 합작으로 몰입 공연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ravari-Barbas et al., 2024).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건축물이나 근대 산업유산을 해설·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텐진의 사례는 유익한 참고가 된다. 먼저 식민유산의 해석에 있어서 중국처럼 일방적 향수나 역사왜곡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군산, 목포 등지에서 옛 일본식 건물들을 역사 탐방로로

조성하고 일부는 카페·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텐진처럼 몰입형 게임화할 경우 흥미는 높아지더라도 역사 맥락 상실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군산의 히로쓰 가옥에서 미스터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전·사후에 해당 장소의 실제 주인과 일제 수탈의 역사를 알리는 장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 전시 혁신 측면에서 텐진 사례는 정적인 전시를 벗어나 관람객 참여형 내러티브와 놀이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근현대사 박물관들도 이러한 스토리텔링+체험 기법을 도입해 볼 만하다. 다만 중국에서는 주로 정부가 기획·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역 시민과 청년 문화기획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도 콘텐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도한 상업화 규율도 필요하다. 텐진의 몰입 관광 거리가 무분별한 상업시설과 굿즈 판매로 “디즈니화”가 진행될 경우 유산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스타그램 명소가 된 익선동 한옥거리 등이 상업화와 소음 문제로 원주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역사 공간에 체험 시설을 도입할 때 지자체가 건축 심의나 영업허가 단계에서 역사왜곡 금지, 방음 및 교통관리 대책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는 몰입 체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잘 활용하면 젊은 세대에게 유산을 흥미롭게 알리는 수단이 되나, 그 과정에서 불편한 역사마저 지워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Gravari-Barbas et al., 2024). 한국도 근현대 유산의 몰입형 활용에 있어 사실 검증과 피해·저항 서사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즐거움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7. 텐진 옛 조계지 공원의 혼성 경관과 현대적 소비

일곱 번째 연구는 텐진에 남은 근대 조계지 공원들의 변천을 추적하고, 오늘날 시민들의 이용 양상과 갈등을 분석한 비판적 사례 연구이다. 1860년대 이후 텐진에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각국 조계에 공원들이 조성되어 서양식 정원 양식과 중국 현지의 기능이 융합된 독특한 혼성 경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문화대혁명과 1976년唐山 대지진을 거치며 상당수 공원이 훼손·소실되어, 현재는 6곳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현존 공원들의 역사 흔적과 공간 구조를 직접 답사하고, 관람객 인터뷰와 SNS 후기 분석을 통해 공간 소비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공원에서 옛 식민 흔적은 의도적으로 희석되고 일반 도시공원처럼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노년층이 태극권·댄스 등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중앙공원에서 정부 주도의 순국선열 기념식이나 인구·마약퇴치 캠페인 등 정치 선전 행사가 열리며, 평소에는 공원 입구에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이 들어서 등 비공식 경제 활동도 목격되었다. 방문객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접근 편의성, 경관 쾌적성, 사회적 교류, 향수 정서 등이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 방문객 중

일부는 “어린 시절 이곳에 놀러 왔다”는 향수를 표했지만, 대다수 젊은 층은 공원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순 산책 공간으로 여겼다. 이는 몇몇 공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탓에 “기억의 공백”이 생긴 데 더해, 남은 공원들도 역사 해설판이나 안내가 부족하여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연구는 또한 공원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1) 진정성 훼손: 중앙공원에 현대식 분수대가 신설되는 등 과도한 재개발로 역사적 경관이 변형되었고, 야마토 공원(일본 조계)은 원형이 아예 멸실된 사례가 있었다. (2) 젠트리피케이션: 해방북로(解放北路) 공원 주변에 고급 복합단지 ‘타이안로 5호 정원’과 리츠칼튼 호텔이 들어서면서 전통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주택 임대료가 급등했다. (3) 이용자 충돌: 일부 공원에서 춤추는 팀과 체조하는 팀이 스피커 소음과 자리 다툼으로 마찰을 빚거나, 축제 기간 관광객 운집으로 인근 주민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혼성 유산 경관인 텐진 조계 공원들이 한편으로는 근대 개항의 긍정 서사로 소비되고 있지만, 동시에 부실한 관리로 역사적 진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경관의 동질화와 지역 주민 소외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공원별 유산 가치 평가와 스토리텔링 체계화를 통해 (예: AR 디지털 해설, 옛 사진 전시) 방문객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노년층·청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용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 시간대·음향 등을 조정하며, 주변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윤을 환수하여 공원 유지 및 주민 편익에 재투자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도시 유산을 하드웨어 중심의 미화 개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사회적 지속성에 바탕을 두고 보존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조경 일부가 남아 있는 서울 남산공원, 반환 예정인 용산공원(옛 미군 기지) 등이 향후 유사한 이슈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민 참여 조사를 통해 해당 공간들의 역사성을 기록·연구하고, 공원 계획 시 역사 해설과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8. 텐진 우다다오(Wudadao) 근대 주거지의 왕홍(網紅) 관광화와 포스트 왕홍 전략

여덟 번째 연구는 텐진의 우다다오(Wudadao, 오대도) 지역을 사례로, 소셜미디어 기반 관광(일명 왕홍 관광)이 근대 유산의 활용 방식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였다. 우다다오는 1900년대 초 영국 조계 확장지에 조성된 저층 주택가로 다양한 유럽풍 건축물 300여 채가 밀집한 곳이다. 텐진시는 1980년대 경제 침체를 겪자 우다다오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유산화(heritagization) 및 관광지화 전략을 추진했다. 2009년 역사문화명성(名城)으로 지정하고 2014년 국가 4A급 관광지로 인증받았으며, 고급 부티크와 카페 거리를 조성한 결과 한때 연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특히 2019년 이후 중국의

틱톡 더우인(Douyin)과 샤오홍슈(Xiaohongshu) 등 단영상 플랫폼에서 우다다오가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왕홍 명소”로 급부상했다.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인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들어 한때 한적하던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차면서 지역 분위기가 일변했다. 이러한 SNS 주도의 관광 붐은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긍정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상적 소비”와 과잉 관광 논란을 불러왔다 (Fu & Verdini, 2025). 방문객들은 건축물의 역사보다는 카페 인테리어와 사진 촬영에만 몰두하여 정작 유산의 고유한 의미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그 결과 “우다다오의 역사적 가치가 상업적 인스타그램 배경으로 전락한다”는 학계·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다(Fu & Verdini, 2025).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소상공인이 내몰리고 거리 곳곳이 음식점과 의류점으로 획일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었다 (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텐진시는 2021년경부터 “포스트 왕홍”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시적 SNS 인기만 노리는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창의산업 및 생활관광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우다다오 내 일부 블록(민위엔시리 등)을 지역 예술가와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는 창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의미 있는 문화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또한 1920년대 체육시설이던 민위엔 경기장을 복원하여 시민들을 위한 플리마켓과 스포츠 이벤트를 여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 문화지구화는 다시 임대료를 올리고 원주민을 배제할 우려도 있어, 2차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나 관리 위원회 등의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는 우다다오 사례를 통해 디지털 관광 붐이 도시에 단기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산의 정체성 훼손과 지역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아가 “명소화(wanghong화)된 유산”을 지속 가능한 도시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거버넌스와 이익 공유 메커니즘, 콘텐츠의 다층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우다다오에서 발생한 관광 수익의 일부를 주민 복지나 교육 기금으로 환원하고,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마이크로뮤지엄과 AR 투어를 도입하여 방문객들이 단순 사진 촬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이야기를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 익선동·을지로 골목,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국내 도시재생 관광지도 최근 SNS를 통해 급부상했다가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우다다오의 경험은 이러한 지역들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단기 붐 대응 측면에서 지자체는 해당 장소의 고유한 스토리를 강조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익선동 한옥마을도 청년 상권으로 유명해졌지만, 본래 1930년대 조선인 한옥보급운동의 산물이라는 역사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안내판·웹

콘텐츠 등을 통해 “왜 이곳에 한옥이 모여 있게 되었나”를 홍보하여 관광객이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해당사자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급속한 상업화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 건물주, 상인, 행정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임대료 상승 억제, 영업시간·소음 규약 등을 합의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 분산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인기 장소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에 숨은 매력지를 함께 홍보하거나 예약제·이동 동선 관리를 도입하는 등의 분산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 대상 에티켓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순한 인증샷 소비를 넘어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왕흥화된 유산도 지역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들의 종합적 의의 및 발전 방향

2024년도에 진행된 8편의 연구에서 드러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활용 논의의 공통된 함의는 “통합과 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다. 문화유산은 물리적 유산과 더불어 그 안에 담긴 무형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삶까지 아우를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가 드러난다.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과거 유산을 현재 맥락에서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하려면 공동체 참여와 정체성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Rujivanarom, 2018). 이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유산은 장소만이 아니라 그곳의 전통 지식, 사회적 가치, 공동체 기억을 포괄한다”는 관점과 상통한다(UNESCO, 2011).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타만 타식 연구는 자연·문화 요소를 통합하는 HUL 프레임워크를 현지에 적용함으로써 환경 복원, 역사 보존, 다문화 공존을 하나로 엮는 통합 경관 관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바조족 이코 이코 연구는 무형유산 기록과 교육, 축제를 아우른 전승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스웨덴-태국 비교 연구는 유형과 무형,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통해 보존 이념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분절적 보존에서 통합적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보존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과 조화의 원칙이다. 이는 보존과 활용, 전통과 현대, 지역과 외부 관심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보존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대 사회와 유리된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대로 관광 수익 등 경제적 활용만 앞세울 경우 유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만다(Rachmawati et al., 2024; Gravari-

Barbas et al., 2024). 따라서 여러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생활 공동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광 오염 연구에서 보았듯 복촌 한옥마을 사례는 주민 삶의 질과 관광객 경험의 질을 함께 높이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공동체 삶 - 유산 가치 - 관광 체험” 세 요소의 균형 설계 없이는 결국 어느 한쪽도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Choi & Yi, 2024). 필리핀 파히야스 축제 사례 역시 종교성(전통)과 상업성(관광) 사이 균형이 무너질 때 축제 지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한편 텐진 우다다오 사례는 디지털 시대 도시에 브랜드를 키우는 데 성공했지만, 과잉 상업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대가를 치렀다(Fu & Verdini, 2025). 이는 관광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방증한다(The World of Chinese, 2021). 앞으로 한국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 관광 정책은 경제 효과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성 지표를 설정하여 균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유산 도시나 관광지에서는 수용력(capacity) 개념을 도입해 관광객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윤리적 여행 행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여행 문화 확산은 관광 오염을 예방하고 유산과 공존하는 관광을 뒷받침할 것이다.

셋째, 정책과 제도의 진화이다. 본 논문집의 여러 연구들은 각국의 정책 변화상을 함께 조명하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2010년대 들어 문화유산 평가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무형유산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다. 한국 역시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법 시행과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등으로 무형유산 정책을 혁신하고, 2020년대에는 “생활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근현대 생활유산까지 아우르는 보존 체계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산의 범주 확장과 포용적 보존으로 요약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 국가에서는 아직 근대유산이나 산업유산, 식민유산이 공식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집에서 보았듯, 식민지 시대 공원이나 건축물도 오늘날 다문화 정체성의 일부이며 후대의 교훈이 되는 유산이다(Gravari-Barbas et al., 2024; Fu & Verdini, 2025).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의 불편한 유산이라도 이를 제거하기보다는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며 치유와 화해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학계의 뒷받침이다. 예컨대 텐진 몰입 박물관 연구는 정부 주도의 역사 서사 연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책이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여지를 마련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건조물의 보존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있는데, 학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억을 보존하되 미화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시민 교육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측면에서 이해당사자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유산 관리에는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

민, 민간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만큼, 공식 협의 기구와 참여 절차를 마련해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Rujivanarom, 2018; 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는 향후 문화유산 관리 패러다임이 정부 독주에서 협치(co-governance)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한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다.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었다. 바조족 사례에서 디지털 기록화가 없었다면 이코 이코 부활은 요원했을 것이다. 우다다오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이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R·VR 등 기술은 몰입형 박물관에서 새로운 교육·엔터테인먼트 수단이 되었고(Gravari-Barbas et al., 2024), 한편 북촌 같은 전통마을에서는 방문객용 앱으로 코스 분산 안내나 소음 신고를 구현하는 스마트 관리가 시도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은 양날의 검으로, 유산의 접근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잉 소비와 상업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할 때는 콘텐츠의 깊이를 확보하고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텐진 몰입 관광의 경우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한국에서는 AR·메타버스 등으로 유산 콘텐츠를 개발할 때 사전에 전문가 고증과 시민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셜미디어상의 관광 붐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임계치를 넘으면 대응책을 가동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도 고려할 만하다.

끝으로, 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라는 점이다. 문화유산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의 기억과 삶 속에서 비로소 살아 숨 쉰다. 문화유산 보존의 궁극적 목적도 과거를 현재와 이어 미래로 전수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에 이로움을 주는 데 있다. 그렇기에 주민이 떠난 유산, 의미를 잃은 축제, 공동체가 배제된 개발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반대로 지역 주민이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고 참여할 때 유산은 비로소 지속가능성을 획득한다(Rujivanarom, 2018; Rachmawati et al., 2024). 이는 SDG 11.4 “문화유산과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목표의 핵심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더욱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가령 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산을 재해석하고 알릴 기회를 줌으로써 젊은 세대와 유산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을 다른 분야(환경, 복지 등)와 연계한 통합 가치 창출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옛 마을 공동체를 관광 자원화하면서 그 수익으로 노인 돌봄이나 전통기술 전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The World of Chinese, 2021). 이러한 융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향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집 서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관광 활용에 관한 8편의 최신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핵심 메시지는, 문화유산 관리에서 거버넌스의 혁신과 가치관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과거의 일방향적 보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유산의 현재적 의미를 재창조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개발의 장애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담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본 연구집에서 소개된 여러 사례들은 그러한 변화의 조짐을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작은 호수공원에서 거대한 메가시티에 이르기까지 각 현장에서 시도된 보존과 활용 전략들은 맥락은 다르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한다. 이는 문화유산 연구자와 실무자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잘 나타낸다.

본 연구집의 논문들은 기존의 명망 있는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로, 2024년도의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유형-무형, 자연-문화, 지역-글로벌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보존-활용의 균형, 이해당사자 협치, 디지털 윤리를 중심 원칙으로 제안한다. 이 책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에게 지표 설계(HUL 확장·수용력 등), 거버넌스 모델(참여·이익공유), 해석과 활용 전략(마이크로뮤지엄·AR/VR·디지털 기록화) 등의 실천적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아라·양승우 (2021).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서울연구원 도시연구보고서. 서울: 서울연구원.
- 길지혜·박희성 (2020). 「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전략 사례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8(2), 20-33.
- 김경태·송재민 (2015). 「청계천 복원사업이 도시열섬현상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0(4), 139-154.
- 김소라·이병민 (2014). 「산업유산 활용 사례를 통해 본 인문학적 도시재생 방향 모색 -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 선유도공원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26(1), 67-79.
- 박성용 (2012).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동향과 과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발간물. 대전: 아태무형유산센터.
- 유원희·서세진·최병길 (2018).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89-96.
- 이진교 (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 실천민속학연구, 22, 69-104.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해녀문화 보전·전승 계획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청.
- 조정현 (2009). 「하회별신굿의 지역성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제화 추구의 양면성」. 한국민속학, 50, 405-436.
- 한양명 (2008). 「지역축제의 전승과 민속의 변용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 비교민속학, (35), 445-475.

국외 문헌

- Choi, J., & Yi, B. (2024). "Tourism Pollution" in Heritage Districts: A Comparative Study of Bukchon Hanok Village and Gamla 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9(1), 14-30.
- Fu, S., & Verdini, G. (2025). Creative Placemaking at Heritage Sites between Material Improvements and Selective Memory: The Case of Wudadao in Tianjin. *Built Heritage*, 9(1), Article 38.
- Gravari-Barbas, M., Guinand, S., Lu, Y., & Shen, C. (2024). Museographic Narrating of Dissonant Heritage in Tianjin's Former International Concessions. *Built Heritage*, 8(1), 18.
- Guinto, N. L., Manzanilla, S. M., & Villaverde, B. D. (2024). Discourse on Pahiyas: Cultural Packaging and the Experience Economy in a Philippine Festival.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22(3), 210-228.
- Jaworski, A., & Pritchard, A. (2005). *Discourse, Communication and Tourism*. Clevedon: Channel View.
- Nicanor, L. G., et al. (2024). "Cultural Packaging of a Religious Festival: The Pahiyas of Lucban" in *Proceedings of the 2024 Asia Tourism Forum*. Lucban: SLSU Press.
- Rachmawati, R., et al. (2024). Community Involvement for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in Asia.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9(2), 101-119.
- Rujivanarom, P. (2018, April 23). Mahakan Fort Community to Live on in the Virtual World. *The Nation* (Thailand).
- The World of Chinese. (2021, May 10). The Rise and Fall of Tianjin's Wudadao as an "Internet-famous" Spot. *The World of Chinese Magazine*.
- UNESCO. (2008). Pansori Epic Chant.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 UNESCO.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Paris: UNESCO.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Report on Activ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C/23/45.COM/10A). Paris: UNESCO.
- UNESCO. (2023). Jeju Haenyeo Cul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Evaluation of Safeguarding Efforts. Paris: UNESCO.
- UN-Habitat & UNESCAP. (2019). *The Future of Asian and Pacific Cities 2019: Transformative Pathways toward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angkok: United Nations.
- UNESCO (UNESCO/ICH).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1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 평가: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
기준에 따른 연구

Sara Izrar Aziz
|
PP. 026-055

2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

Benny Baskara
|
PP. 056-071

3 스웨덴과 태국에서 보존 이념의 발전
- 비교 연구

Susanna Barros Eriksson
|
PP. 072-095

4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의
문화적 포장

Nicanor L. Guinto, Brian D. Villaverde
Amiel Jansen Demetrial, Shiela M. Manzanilla
|
PP. 096-115

5 관광 공해는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서울과 스톡홀름의 비교 사례 연구

Sandra Såger
|
PP. 116-135

6 박물관의 몰입적 전환:
텐진의 과거 조계지

Maria Gravari-Barbas, Yue Lu,
Chensi Shen, Sandra Guinand
|
PP. 136-155

7 텐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복합화,
그리고 소비(제2부)

Yue LU, Maria Gravari-Barbas,
Chensi Shen
|
PP. 156-203

8 식민지 이후 문화유산의 유산화 및 관광화의
“왕홍” 역사: 텐진 우다다오

Chensi Shen, Maria Gravari-Barbas, Yue Lu
|
PP. 204-233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 평가: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 기준에 따른 연구

Sara Izrar Aziz

공학 박사

*교신저자: saraziz2007@gmail.com

PP.
026-
055

본 연구는 ICOMOS-IFLA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HUL)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유산으로서 타만 타식(Taman Tasik)의 적격성을 살펴본다. 타만 타식은 주석 폐광지를 개조한 말레이시아의 전형적인 공공 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은 단순한 미적 즐거움보다 사회적 역할과 실용적인 기능을 우선하며,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역사 및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Taman Tasik Titiwangsa)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Taman Tasik Permaisuri)를 분석하여 역사적 및 현대적 관련성, 특히 도시 정체성 형성, 다문화 사회의 통합 촉진,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역할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미적 및 기능적 자질과 함께 과정, 성과, 식민지 이후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본 접근법의 핵심은 도시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공원의 지속적인 기여를 고려하는 무결성이라는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식민지 시대의 영향에서 독립 이후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적 궤적의 일부로서 자연과 문화 요소의 통합을 강조한 타만 타식 공원이 HUL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중요성과 지속적인 사회적 열망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을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가치는 물질적 진정성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반영하며 적응하고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장된다. 본 연구는 향후 유산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타만 타식의 국가유산 지정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역사적인 공공 공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에 기여한다.

소분류가 있다.

유산이란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를 뜻한다. 반면 국가유산이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적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 또는 문화재에 대해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유산과 국가유산 모두 자연 유적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지정된 곳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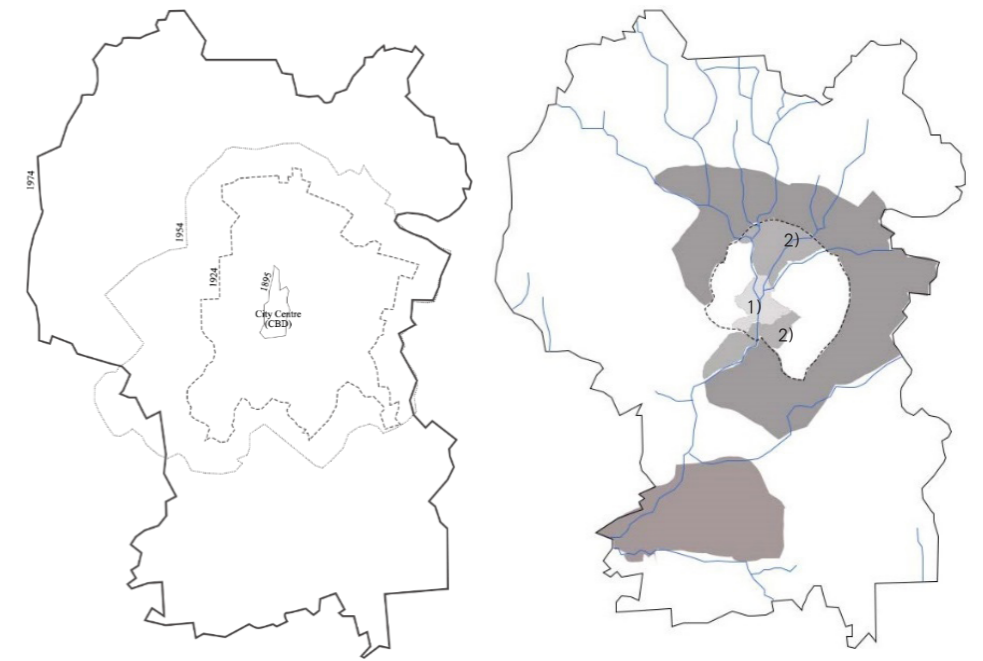
자연 유산 범주로 지정된 호수 공원은 두 곳뿐이다. 유산으로 지정된 타이핑 호수 공원(Taiping Lake Park)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페르다나 식물원(Perdana Botanical Garden)이다. 두 공원 모두 독립 이전 시대에 만들어져 그 디자인에는 더 강한 서구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독립 이후 23년이 지났을 때 쿠알라룸푸르는 *타만 타식*(호수 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설계된 조경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넓은 도시 환경 내에서 이러한 공원들의 미적, 기능적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 이 공원들은 여전히 영국 정원 양식과 관련된 대형 수경시설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양의 공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 공원들은 방치된 주석 광산 지역의 재건, 사회적 결속 강화, 건강한 생활방식 촉진, 홍수 완화, 주변 온도 개선을 통한 도시 열 감소 등 여러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했다(Jabatan Perancang Bandar dan Desa, 2000).

이러한 공원의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타만 타식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타만 타식을 쿠알라룸푸르 도시 유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는 것을 방해했다. 향후 보존과 잠재적인 유산 등재를 위해 이들 공원이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와 발전에서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제정된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은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중요성을 지닌 유형 및 무형 요소를 포함하여 유산을 폭넓게 정의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된 유산의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을 독립 이후 시기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은 외국 영향의 잔재에만 국한해선 안 되며, 주권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성취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독립 이후 유산은 말레이시아만의 문화 및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 주며, 국가적 우선순위와 열망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이후 *타만 타식*(호수 공원)을 조성한 것은 사회적 통합, 환경 지속 가능성, 공중 보건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기능과 미학의 균형을 이룬 공간을 설계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유산법」의 틀 안에서 독립 이후의 기여를 인정하여 과거 식민지 시대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의 발전, 창의성, 주권을 기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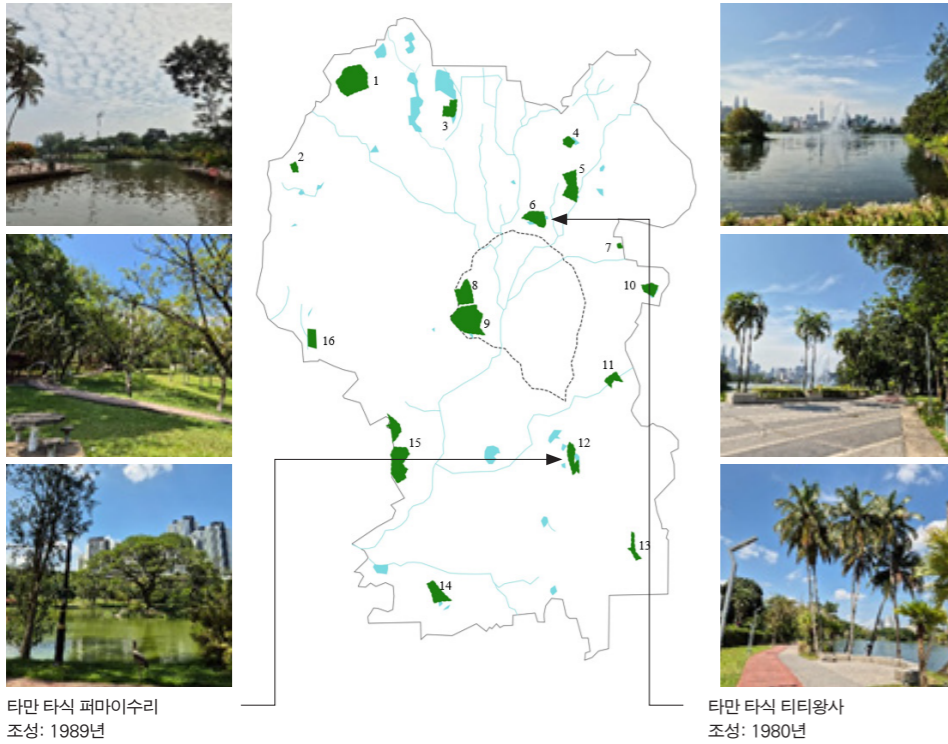
- 1) 1850년~1890년
- 2) 1890년~1920년
- 3) 1920년~1970년

그림 1. 쿠알라룸푸르의 4가지 시기별 도시 경계(왼쪽), 쿠알라룸푸르의 1850~2020년의 물리적 및 공간적 개발. Gullick (2000) 및 2040년 쿠알라룸푸르 구조 계획에서 수정함. (출처: Nagatsu, 2017에서 인용 및 수정)

영국,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잘 확립되어 있는 유산 보존 관행과 비교할 때 쿠알라룸푸르의 유산 보존 접근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시의 역사 보존 노력은 주로 도심 지역, 특히 상업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교외 지역의 산업 시대 유적들은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가 성장함에 따라 교외 지역의 지역성과 정체성에 미치는 재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 유산 가치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현대의 교외 환경에서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지역민이 주변 환경에 대한 소속감, 애착, 친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외 유산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적 다양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러한 연결을 증진하기 위한 유망한 접근법은 *타만 타식*의 기능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다. *타만 타식*을 지역 유산 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격상함으로써, 이 공원들은 지역사회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과거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



타만 타식 페르마이수리
조성: 1989년

타만 타식 티티왕사
조성: 1980년

그림 2.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 분포

표 1.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 목록

번호	녹지 공간/공공 공원	1904년 기준 토지 용도	공공 공원으로 조성된 연도
1	타만 메트로폴리탄 케풍	광산	2001
2	타만 타식 만잘라라	알 수 없음	
3	타만 메트로폴리탄 바투	농지/고무	
4	타만 타식 다나우 코타	농지/고무	2019
5	타만 케지라난 에어 파나스	광산	1980
6	타만 타식 티티왕사	광산	
7	타만 타식 다희 케라마트	광산	
8	타만 투구	이차림	
9	타만 보타니 페르다나	광산	1888
10	타만 타식 암팡 힐리르	광산	
11	타만 타식 푸두 울루	광산	2007
12	타만 타식 페르마이수리	광산	1989
13	타만 알람 다마이	광산	2007
14	타만 부킷 잘릴	농지/고무	1998
15	타만 림바 부킷 케린치	-	
16	타만 림바 키아라	농지/고무	

현대의 쿠알라룸푸르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확장되어 오늘날 교외의 경계를 점차 형성하게 되었다(그림 1). 초기 개발 단계에서 쿠알라룸푸르 도시는 주로 무역과 행정에 중점을 두었고, 교외 지역은 광산, 농장, 철도 작업장 등 노동 집약적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산업 중심지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반영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석 광산업이 쇠퇴한 이후 많은 폐광지가 신규 주택 단지 및 휴양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성장에 대한 쿠알라룸푸르의 적응적 접근법을 반영하며, 역사적인 경제 변화가 쿠알라룸푸르의 공간적 및 사회적 역학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준다.

1970~1980년대 쿠알라룸푸르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면서 가장 변화가 큰 시기 중 하나였다. 이 시대에는 도시 구조가 재정비되었고 도시 인프라의 필수 요소인 녹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80년에 쿠알라룸푸르는 처음에는 타만 자란 쿤탄(Taman Jalan Kuantan)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타만 타식 티티왕사(Taman Tasik Titiwangsa)로 이름이 변경된 두 번째 공공 공원을 조성했다. 이후 1989년에 타만 타식 페르마이수리(Taman Tasik Permaisuri)가 개발되었다.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은 도시의 삶의 질을 위해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파악하고 재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녹색 인프라를 강조하는 쿠알라룸푸르의 정책과 일치하는 이러한 노력은 교외 지역의 공원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림 2는 쿠알라룸푸르의 현재 녹지 공간 분포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며, 표 1은 쿠알라룸푸르 시청 산하 공공 공원 '타만 타식'의 목록을 보여준다.

2.2. 국가유산으로서 공공 공원

많은 국가에서 설계된 조경은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정원과 공원은 유산, 역사적 중요성, 자연 보존, 애국심에 대한 표현으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이러한 정원 및 공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설계된 조경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정원 및 공원을 세심하게 보존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공간에는 국가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으며, 조경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의 경우, 역사적 정원들이 그렇게 높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Osiri, 2023). 저자가 언급했듯이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정원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되었지만, '타만 타식'의 기본 개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타만 타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1) 중앙에 있는 호수, 2) 다양한 디자인 컨셉의 조경

원칙의 혼합, 3)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 4) 다양한 식물 중, 5) 체계적인 공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쿠알라룸푸르의 유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만 타식 같은 설계된 조경이 어떻게 유산의 핵심 요소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까?

쿠알라룸푸르의 유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과거 식민지 시대와 독립 이후 발전으로 형성된 도시의 역동적인 문화적, 역사적, 공간적 정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2005년 「국가유산법」 및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HUL) 접근법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인정하는 주요 유산 요소에는 문화적 연속성, 역사적 무결성, 공동체 가치가 있다. 다만 타식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타식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기원하고 도시 녹지 계획의 초기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후의 발전으로 현대화와 문화 보존의 균형을 맞추려는 말레이시아의 노력을 반영한다.

타만 타식의 중앙 호수, 다양한 식물, 주변 산책로와 같은 디자인 요소들은 역사적 및 생태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며, 공동 공간으로서 역할은 말레이시아의 다인종적 통합을 반영하여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선 공원의 유산 가치가 국내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물질적 진정성, 문화적 관련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유산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경관 보존을 도시 개발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유네스코의 HUL 원칙을 충족할 경우, 타만 타식은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타식 공원을 인

표 2.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역사 정원의 특징에 대한 영향 요인

대륙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지리	• 중요한 산과 강을 갖춘 넓은 대륙			• 본토와 섬이 혼합된 넓은 해안선으로 인한 해양의 영향	
역사적 발전	• 고대 문명 • 제국 시대 • 현대화 및 갈등			• 초기 왕국 및 제국 • 식민지 시대 • 식민지 시대 이후	
종교	• 유교 • 샤머니즘	• 불교 • 신도	• 도교	• 힌두교 • 이슬람교 • 불교 • 도교	• 유교 • 기독교 • 애니미즘/ 민속 신앙
정치 시스템 및 상호작용	민주주의 국가 지역적 긴장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입헌 군주제	권위주의적 일당 국가	군주제	공화국
경제 개발	• 경제 강국 • 기술 리더			• 농업 • 산업	• 경제 강국 • 기술 리더
문화 및 역사적 요소	• 황궁 • 문학 및 예술			• 사원 단지 • 공연 예술	• 다문화 유산 • 식민지 역사 • 실험적 및 최첨단

정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적 역할이 쿠알라룸푸르의 발전하는 정체성에 핵심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특히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비교할 때 유산 시스템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Gao & Jones, 2021). 서구의 유산 담론에서 보존은 물리적 유물을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존하는 물질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법은 나이, 물질성, 예술적 장인 정신 등 유형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아시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유산은 개인주의적 또는 기념비적인 이상보다는 정신적 가치와 집단적 경험의 표현으로 설계된 정원을 통해 지역의 지혜와 철학을 구체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시아 유산은 물질적 연속성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문화적 연속성과 같은 무형적 의미에 더 집중한다.

유산 담론은 권력, 이념, 기념비주의 등 장엄한 내러티브를 우선시하여 일차원적이며, 경관의 더 깊고 지역적인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Sykes & Ludwig, 2015). 이러한 편견 때문에 타만 타식처럼 고대 건축물이 없고 정원 예술 철학에 대한 의존이 제한적이며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경관은 전통적인 유산 프레임워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쿠알라룸푸르의 다인종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말레이시아의 맥락에서는 여전히 모호한 설계된 조경에 대해 “국가유산”을 일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Tahir & Kaboudarahangi, 2014). 본 논문은 한국, 일본, 태국 등의 유산 분류 체계와 정원 디자인의 기본 철학을 정치적 및 종교적 맥락의 영향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기초 연구들은 타만 타식의 발전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비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통찰을 종합하여 현장 관찰에 필요한 주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만 타식을 쿠알라룸푸르의 국가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3. 쿠알라룸푸르 사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원 조성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공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및 사회적 기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녹지 공간을 유산 또는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인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역사 공원’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연령, 배치, 특징, 요소 측면에서 설계 무결성, 문화, 예술, 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가치 및 독창성 유지와 같은 여러 주요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도시 공간 관련 법률에는 1976년 「도시국가계획법」(법률 제 172호), 1976년 「지방정부법」(법률 제171호), 1982년 「연방영토(계획)법」(법률 제 267호), 1974년 「도로·배수·건축법」(법률 제133호), 1974년 「환경품질법」(법률 제 127호) 등이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젊은 도시로 여겨지지만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를 반영하는 유적지를 가진 풍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지는 현대적 성장을 추구하는 쿠알라룸푸르의 신규 개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성은 점차 줄어들고 도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교외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동질화되어 주거 지역이 활기차고 번성하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여 쉬는 공간이 되었다. 한때는 사회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녹지 공간은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규제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녹지 공간은 단순한 도시 인프라로 여겨지며 지역사회와 더 깊은 관계를 촉진하기보다는 주로 여가 및 운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영국,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의 공원과 정원을 비교해보면, 공원의 개념과 평가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 식물 및 원예 기술의 발전, 세계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공원과 정원은 국가적 자부심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쿠알라룸푸르의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및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공공 공원이 예술적, 과학적, 생태적 추구로 오랫동안 시민 정체성의 중심이 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식민지 시대에 뒤늦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서 공원의 예술적 및 국가적 상징성을 강조하였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초기 녹지 공간은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에 따라 정의되었다. **파당**¹과 개인 정원과 같은 휴양 공간은 엘리트 계층을 위한 것이었고, 녹지 공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시장, 상점, 강변, 기타 부수적인 공간으로 제한되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의 조성과 같은 독립 이후 노력은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경관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도시화 우선순위에서 밀려 역사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 문화 다양성 및 유산 다양성에 관한 국제 표준

본 연구와 관련된 국제 협약은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주요 원칙에는 진정성 문제, 문화 경관 분류, HUL 접근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여 도시 경관의 유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쿠알라룸푸르의 맥

1 파당: 탁 트인 잔디밭

락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식민지 유산, 도시화,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및 태국의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 공원이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본다. Gil, Park, and Park (2016)은 한국의 역사 공원을 관련 역사 자원과 중요성에 따라 유산 공원, 기념 공원, 역사 테마 공원, 역사 공원의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식적인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지침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역사 공원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부 분류는 문화적 및 역사적 내러티브를 보존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법을 반영한다. 태국의 경우, 역사 공원, 특히 왕실 정원은 느리게 조성되고 있지만 태국의 문화적 유산을 대표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면서 현지 맥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타만 타식의 경우 단순한 휴양 공간이 아닌 쿠알라룸푸르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서 다면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 특수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만 타식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유람지로 시작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의 일반적인 설계된 문화 경관 유형이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도시인 쿠알라룸푸르는 무역, 자원 채굴, 인프라 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이러한 식민지 유산은 도시 경관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으며, 지역 내러티브를 가리고 진정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타만 타식의 진정성 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기원과 지역사회 공간으로서의 현대적 역할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국제 협약에서는 독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은 독립 이후 나타난 역동적이고 다문화적인 정체성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를 문화 경관에 관한 국제 협약과 HUL 접근법에 따라 유산으로서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진정성 문제를 다루고, 유산으로서 공공 공원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며,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및 도시 구조에 중요한 녹지 공간을 인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

(1) 신뢰성	(2) 문화 경관 분류	(3) 접근법
<p>1994 나라 의정서</p> <p>2005 호이안 의정서 (아시아 지역)</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확히 정의된 설계된 조경 · 유기적으로 진화된 조경 · 연관 문화 조경</p>	<p>2011 역사적 도시 경관</p>

그림 3. 유산으로서 타만 타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된 국제 협약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의 역사적 중요성, 문화적 유형, 환경 내 변화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동남아시아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쿠알라룸푸르 개발의 도시 계획에서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1980년대에 조성된 타만 타식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의 역할과 유산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역사적 자료, 기록 지도, 지역 연대기 등이 포함되며, 보다 폭넓은 도시 맥락에서 공원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역사 지도: 말레이시아 연방 슬랑오르 주(1904, 1929) 및 쿠알라룸푸르 구조 계획(1984, 2020, 2024)과 같은 지도를 분석하여 주변 도시 구조의 변화와 토지 용도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지도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녹지 공간으로서 타만 타식의 원래 설계 고려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 ii. 지역 연대기 및 전문가 증언: 시민 및 전문가의 구전 등 지역 내러티브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타만 타식의 의미를 맥락화한다. 이러한 자료는 공원의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과 도시 경관에서 그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iii. 역사도시경관(HUL) 접근법: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이 도시 유산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 HUL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 HUL 접근법은 물리적 구조물의 보존을 강조하고 공원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차원도 고려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에 기여하는 도시 공간으로서 공원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 iv. 인프라로서 녹지 공간: 현대 담론에서 녹지 공간은 중요한 도시 인프라로 점차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만 타식이 휴양 및 생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교외 지역에서 도시 인구의 기능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탐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 공원으로서 타만 타식이 도시 계획 및 개발의 맥락에서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기대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v. 역사 공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기존 보존 프레임워크, 특히 Gil et al. (2016)이 설명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역사 공원 분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타만 타식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이 적절히 인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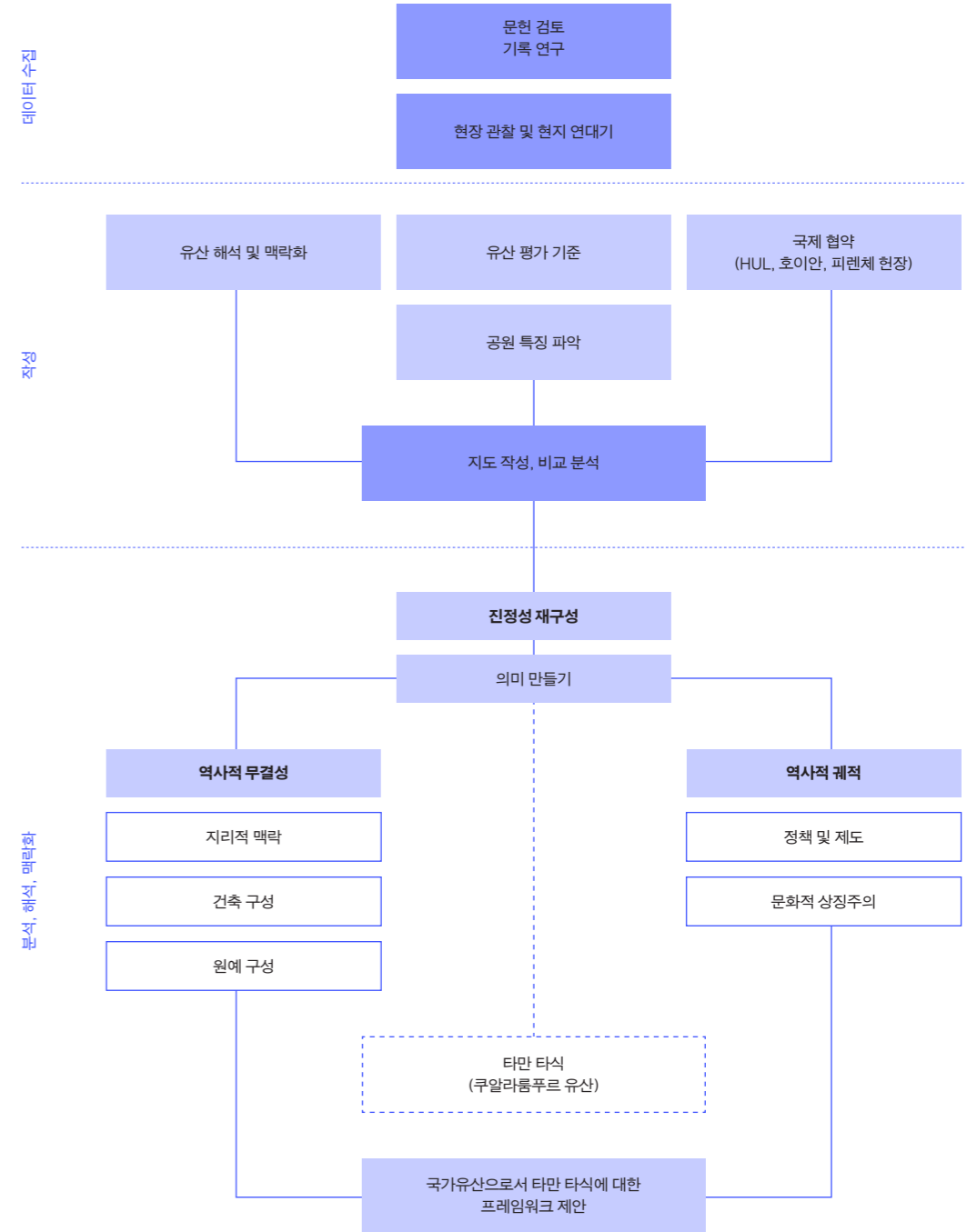


그림 4. 타만 타식의 국가유산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과정

4. 진정성 재구성 - 동양 및 서양 간 이분법

보존 철학에 대한 동양 및 서양의 접근법은 특히 진정성을 정의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초기 보존 이념은 주로 서구에서 등장했으며, 보존 노력은 물질성과 과학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서양의 접근법은 역사적 중요성과 미학을 중심으로 하며, 해당 시대의 유명 인물과 관련된 개별 문화재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원래 형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동결”하거나 기념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양의 보존 철학은 건축 보존과 도시 보존을 중심으로 과학과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한다(Gao & Jones, 2021).

이와 반대로 동양의 가치관은 자연 세계와 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균형, 상징, 사색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도교, 유교, 불교 등 철학적 전통은 동양 정원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주변 자연을 반영하는 정교한 상징으로 경관을 풍요롭게 만든다.

동양의 정원과 공원은 명상, 사색, 외부 세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다. 단순함과 평온함에 중점을 두어 음양, 풍수, 선 등 철학적 개념을 설계 원칙으로 삼아 깊은 영적 연계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양의 정원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적인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공원을 역사 또는 유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서구의 많은 프레임워크에서는 특정 역사적 시기나 인물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다층적이고 잔화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간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만 타식은 인근 주거 지역을 위한 공원으로 여겨지지만, 분명한 지역적 특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 휴양 및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원의 지속적인 사용은 유산의 정의와 부합한다. 하지만 현대 기준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의 공원을 역사 유적지 또는 유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존 평가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말레이시아 내 “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유형 유산: 물리적 유물, 유적지, 기념물, 경관
- ii. 무형 유산: 언어, 문학, 관습, 공연 예술, 전통
- iii. 문화 유산: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관행과 관습
- iv. 자연 유산: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 및 생태계
- v. 건축 유산: 역사적 또는 건축적으로 중요한 구조물 및 도시 지역

정원과 공원은 이러한 분류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크기나 위치만 고려하기 보다는 기능과 주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비교 접근법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Gil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 공원은 보존을 위한 유산 공원, 기념을 위한 기념 공원, 휴양을 위한 역사 테마 공원, 특정 이야기 또는 사건을 구현한 역사 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태국은 관광과 문화 교육을 위한 고대 유적 및 왕실 유람지 보존을 중심으로 역사 공원의 대표적 사례를 제공한다. 태국의 접근법은 왕실 역사 또는 고대 건축 등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유산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류를 쿠알라룸푸르의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할 경우, 타만 타식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공원의 고유한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태국의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긴 하지만,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복잡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산 공원 분류는 잘 정립된 유산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타만 타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로 분류되거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태국이 고대 유적 보존을 중시하는 것은 쿠알라룸푸르 도시 경관에 고대 유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알라룸푸르 공원의 현대성과 시민 지향성과는 연관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산 분류를 어떻게 조정하여 쿠알라룸푸르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와 같은 공원들은 역사를 담은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산을 계속 재형성하는 역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현대의 평가 프레임워크는 물질적 진정성을 넘어 무형의 가

표 3. 한국 및 태국의 '유산' 관련 공원 분류

국가	분류	자료 관리	내용
한국	1) 유산 공원	보존	유산 및 경관(또는 보호)을 위해 구축
		재건/복원	발굴 또는 역사 기록 연구를 통해 복원된 유산
	2) 기념 공원	기념	역사적 장소, 사건 또는 역사적 인물 기념
	3) 역사 테마파크	재창조	역사적 이야기, 인물 또는 유산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또는 관광을 위해 재창조
	4) 역사 공원	보존	특별한 역사적 이야기, 사건 또는 유산이 있는 공원
태국	역사 공원 (고대 왕국/왕실 유람지)	보존	관광을 위한 고대 유적지 보존

치와 이러한 공간의 다양한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다문화 사회의 영적 차원과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유산 평가에 보다 전체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4.1. 역사 공원 및 유산 공원의 차이점

앞서 설명한 진정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역사 공원과 유산 공원의 구분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이념적 관점을 반영한다. 역사 공원은 보통 50년 이상 된 것으로 정의되며, 연령이 역사성의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이와 달리 유산 공원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역사 공원은 특정 역사적 시기를 담아내어 당시의 가치와 미학을 반영하는 반면, 유산 공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이 발전하는 문화, 자연, 건축 요소를 담아내어 그 범위가 더 넓다.

유산 공원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가치를 기리며, 전통, 생물 다양성, 랜드마크를 통합하여 장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 공원은 사회 및 환경 간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역사 공원은 특정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며, 국가적 상징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역사 공원의 예로는 영국의 그림 같은 정원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 정원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 공원이 왕실 영지와 귀족 경관을 반영하는 오랜 군주제 지역 및 구조화된 사회 계층 지역 간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하지만 특히 분류가 덜 명확한 신생 국가에서 역사 공원과 유산 공원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도시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역사 공원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아 이러한 분류가 복잡하다. 태국과 같은 왕실 전통이 오래된 국가에서는 정교한 왕실 정원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지만(Osiri, 2023), 쿠알라룸푸르의 공공 공원은 주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타만 타식을 포함한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공원에는 영국의 그림 같은 모델(picturesque model)의 영향을 받았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 및 역사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혼합된 유산의 변화하는 정의를 반영하며, 두 분류 간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란 문제가 단순히 공원을 역사 또는 유산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진다. 타만 타식의 진정성 평가에서는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로 인해, 역동적인 도시 환경 내에서 공원 공간의 변화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는 보다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적 진정성의 엄격한 정의만으로 타만 타식의 유산 적격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물질적 및 무형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쿠알라룸푸르의 사회적 및 문화적 구조에서 타만 타식의 폭넓은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역사적 무결성

5.1. 지리적 맥락

쿠알라룸푸르 북동쪽에 위치한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과거 주석 광산과 고무 농장으로 이루어진 교외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쿠알라룸푸르가 말레이시아의 수도로 성장하면서 주거 개발을 위해 매립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원 주변 지역의 특징은 산업, 군사, 주거 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철도 마을, 군 부대, 경찰 훈련소 근처에 위치하여 여러 마을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여했다. 이러한 토지 용도의 혼합으로 과거 중공업 및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지역에 공원이 나타났고 독특한 환경이 나타났다.

오늘날 타만 타식 티티왕사 주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고층 및 중층 주거 개발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많은 예배당이 있는 것은 문화적 및 종교적 애착이 강하고 활기차며 서로 긴밀한 지역사회를 반영한다. 또한 공원은 도심과 가까워 국립극장(이스타나 부다야),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등 여러 주요 문화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현지 건축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랜드마크들은 티티왕사와 인접한 잘란 툰 라작(Jalan Tun Razak)을 따라 위치해 있어, 공원의 지리적 중요성을 높이고 쿠알라룸푸르 내 주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반대로 쿠알라룸푸르 남동쪽에 위치한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두 공원 모두 과거 광산과 농장 부지에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역사적 기원이 비슷하다. 특히 하카족이 유입된 것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크게 발전했다.

이 공원은 체라스, 타만 미다, 반다르 툰 라작 등 가족 중심 지역사회인 여러 주거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도심의 녹지 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에 기여한다. 한때 불법 거주지 문제를 겪었던 이 지역은 계획에 따른 도시 주거 지역으로 변모했다. 주변 지역과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공원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활기찬 시설로 가득찬 변화한 지역으로, 주말에는 지역민에게 인기 있는 여가 장소다. 성장하는 교외 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입지는 쿠알라룸푸르의 계속되는 도시 확장과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지역에 녹지 공간을 통합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두 공원의 공통점은 독립 이후 쿠알라룸푸르 도시 계획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여 과거 광산 지역을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버려진 산업 부지를 기능성과 접근성을 갖춘 공공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따른 수요와 환경 보호 모두에 대응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 일치한다.

두 공원 모두 도시의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의 산물이지만, 사회문화적 중요성



그림 5.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배치도



- 기관용
1. 문화공전, 국립미술관, 국립혈액센터
 2. 경찰훈련센터
 3. 국방부, 공과대학교 축양지적학과
 4. 국립도서관, 국가뉴스통신사
 5. 쿠알라룸푸르 병원

- 기관용
7. 쿠알라룸푸르 축구경기장, 반다르 툰 라작 수영단지, 대학 병원
 8. 학교

그림 6.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배치도

측면에서 그 역할은 다르다. 국립극장, 국립미술관 등 주요 문화 기관 근처에 위치한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도시 내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 시설들과 가깝기 때문에 휴양 공간과 문화적 참여와 연계된 장소로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끌어들인다.

반면,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가족 중심의 교외 환경에서 지역 휴양지로서 역할이 더 크다. 주민에게 여가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가까운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체라스 교외 지역과 주변 지역민에게 의미가 크다.



그림 7. 도심에서 타만 타식 배치

이러한 공원은 도시 성장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쿠알라룸푸르의 폭넓은 노력을 보여준다. 두 공원 모두 도시의 녹색 인프라에 기여하지만 기능이 서로 달라서 문화, 휴양, 지역사회 기반 용도를 도시 구조에 혼합하는 도시 계획의 적응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5.2. 건축 구성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구조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현지와 외부의 영향이 혼합된 다양한 건축 및 공간 패턴을 반영한다. 하지만 조경 디자인 측면에서 도시의 양식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원의 역사적 및 양식적 발전을 자세히 기록한 포괄적인 연구나 방법은 상당히 부족하다. 정원 대부분은 마을 정원(라만), 궁전 또는 왕실 정원, 영국, 일본, 중국 전통의 영향을 받은 테마 정원으로 분류되어 말레이시아만의 정원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말레이시아의 정원 디자인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기후, 문화적 전통, 미적 가치에 대응한 설계 철학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능과 미학을 우선시하는 특유의 열대 조경 양식이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 도시 생활의 필요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제공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독특한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8. Taman Tasik Titiwangsa(왼쪽) 및 Taman Tasik Permai Suria(오른쪽)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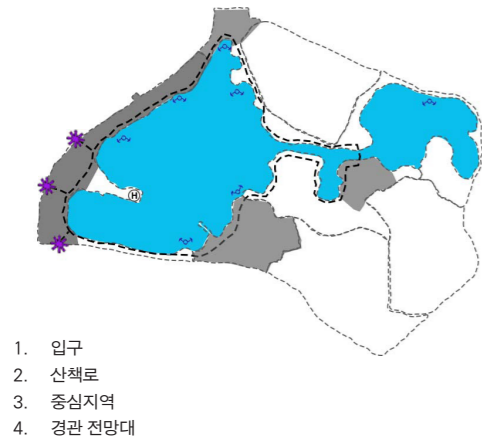


그림 9. Taman Tasik의 특징: 입구, 경관,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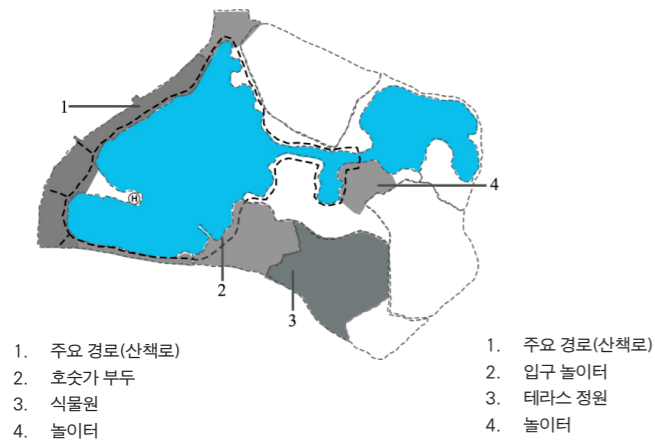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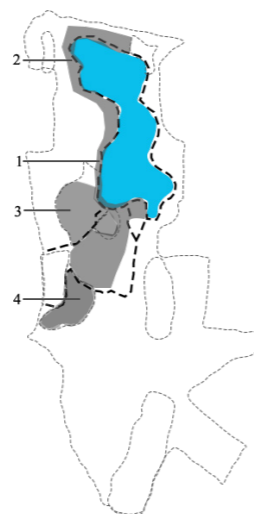


그림 10. Taman Tasik의 원예 구성: 가장 자주 사용하고 인기 있는 공간 기준



1980년대 개발된 Taman Tasik Titiwangsa는 Taman Tasik Permadana의 과도한 사용을 완화하고 쿠알라룸푸르의 휴양 공간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스포츠를 통합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공원 내 스포츠 경기장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종합운동장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구조화된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면, Taman Tasik Titiwangsa는 넓게 배치되어 조경, 산책, 관광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두 공원 모두 설계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미학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한다. 1986년 Taman Tasik Titiwangsa는 전통적인 켈란탄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수상 어부 레스토랑을 지어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수상 어부 레스토랑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TA) 컨퍼런스 기간 동안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여, 말레이시아의 예술, 전통 무용, 요리 유산을 선보였다. 하지만 수상 어부 레스토랑은 철거되었고, 남은 공원의 디자인은 쿠알라룸푸르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했다.

이에 비해 '여왕'이라는 뜻의 Taman Tasik Permai Suria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왕실 정원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이 공원은 원래 라만 이스칸다르 푸테리(Laman Iskandar Putri)라고 불렸으며, 7층에 달하는 왕실 안뜰에 심어진 난초, 바틱 모티브로 장식된 스테인리스스틸 조각품이 있는 세람비 다양(하녀의 현관)과 같은 독특한 요소로 말레이시아만의 경관 미학을 구현했다.

두 공원은 서로 다르지만 산책과 조경을 위한 산책로, 휴식 공간인 와카프(말레이시아식 정자), 공원과 주변 스카이라인을 반영하는 넓은 수경 시설, 휴식을 위한 벤치 등 반복되는 공통적인 조경 요소들이 있다.

Taman Tasik Titiwangsa는 멀리 보이는 티티왕사 산맥의 아름다움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차용한 '빌린 경치(borrowed scenery)'라는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Taman Tasik Permai Suria는 내부에 조성된 경관을 강조하며, 공원의 경관과 특징에 중점을 둔다. 두 공원 모두 특히 그림 같은 풍경, 나무 덩어리, 넓은 열린 공간을 강조하는 케이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과 험프리 랩턴(Humphry Repton)의 작품을 포함한 영국 정원 전통의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식 정원의 섬세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공원의 시각적 및 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5.3. 원예 구성

Taman Tasik Titiwangsa와 Taman Tasik Permai Suria의 원예 구성은 토종 및 도입종 식물을 의도적으로 조화시켜 풍성하면서도 구조화된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배치는 미적 매력을 제고하고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생태적 및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열대림 나무부터 관상용 관목까지 실용적인 측면, 생태적 기능, 휴양 요구를 충족하는

식물의 선택은 공원을 생물 다양성과 인간과의 연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는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구조에서 중요한 녹색 허파 같은 공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표 4.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의 식물 종

구역	타만 타식 티티왕사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		
	토종	비토종	토종	비토종	
1	풍가미아 피나타 (장식용 꽃)	사마니아 사만(장식용)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말레루에카 (관상용 꽃)		시르토피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칼리스테몬 시트리누스 (관상용 꽃)	
	피쿠스 벤자미나 (관상용 과일)		라거스트로미아 스펙시오사 (L.) 페르. (관상용 꽃)		
	포메티아 피나타 (관상용 잎)				
	펠토포룸 프테로카르푸 (관상용 꽃)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플리알티아 롱기폴리아 (장식용 잎)			
2	라거스트로미아 플로리분다 (관상용 꽃)				
	코코스 누시페라 (해안, 실용적)	리비스토나 치넨시스	시르토피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프테로카르푸스 인디쿠스 (장식용 잎)	
				사마니아 사만(장식용)	
				팔카타리아 팔카타	
				라거스트로미아 스펙시오사 (관상용 꽃)	
			카슈아리나 이퀴세티폴리아 L.	잔토스테몬 크리산투스 (관상용 꽃)	
			포메티아 피나타 (관상용 잎)		
	3	몬테나 에리카시우스 포레스트 레플리카		오르키다케이아	
		4	시지움 파필로섬	리비스토나 치넨시스	라거스트로미아 스펙시오사
	미무습 엘렝기 (향기로운 식물)				시르토피룸 프래그란스 (향기로운 식물)

6.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의 역사적 궤적

도시가 커지고 현대화됨에 따라 도시 고유의 문화와 뿌리의 본질을 보존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 경관이 개성을 잃고 획일적으로 변하면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유산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이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사회적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쿠알라룸푸르의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는 전통적인 공원의 역할을 넘어 말레이시아만의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독립 이후 시대의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식민지 역사의 잔재 속에 자리잡은 이러한 공원은 국민의 풍요로움, 다양성, 회복력을 기념하는 유산을 조성하기 위한 쿠알라룸푸르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음 절에서는 역사 공원의 적격성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알라룸푸르는 인정받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표 5는 이러한 쿠알라룸푸르만의 기준을 보여준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의 역사적 궤적은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식민주의의 유산과 현대 국가의 야망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면서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열망으로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공공 공간은 통합, 진보,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공원들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문화 통합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두 공원은 1970~1980년대 급격한 도시 변화 중에 도시화 속에서 쿠알라룸푸르에 녹색 허파를 위한 폭넓은 도시 계획 비전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산업 부지를 공동 공간으로 변모시킨 쿠알라룸푸르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타만 타식 페마이수리는 왕실 유산을 구체화하고 신경제정책(New

표 5. 역사공원의 주요 기능 및 상징

			쿠알라룸푸르	
1) 건축 구성	철학	지역 우주론 및 세계관	✓	
	예술 및 미학	국제적 영향력	✓	
	문화적 상징주의	문화적 상징주의	✓	
2) 원예 구성	식물 선택	식물 선택	✓	
	기능	기능	✓	
	영성	영성	✓	
	지식 발전	외교 협력	✓	
3) 나이	✓			

Economic Policy, NEP)에 부합하는 공원이다. NEP는 도시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공동체가 공공 공간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공공 공원의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적 맥락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적용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서양과 동양 모두 공원은 시민을 위한 개선이라는 이상을 공유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그 해석과 구현은 공원을 사회 개혁과 국가적 이상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양적 이념에 더 가깝다. 정원 예술 운동으로 형성된 서구의 공원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공원은 독립 이후 당국이 시민적 열망을 반영하며 지역민의 필요와 가치에 맞춰져 있다.

1957년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문화적 자긍심을 내세우기 위한 국가 사업을 추진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문화적 표현, 지역적 가치, 조경 설계가 융합되어 식민지 시대의 영향과는 다른 독특한 유산으로서 현 시대의 살아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은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과거를 강조하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의해 가려질 때가 많다.

이러한 공원의 초기 설계에는 서양 정원 예술 운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과거에 말레이시아가 식민지였던 상태에서 공원 설계는 식민지 당국의 직접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가 독립하면서 이러한 디자인은 현지 환경과 문화적 맥락에 맞도록 조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공원의 조성이 급속한 산업화, 교외화, 인프라 개발, 문화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1970~1980년대 변화의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리는 주요 국제 행사의 개최로 더욱 강조되었다. 쿠알라룸푸르는 이러한 물리적 발전과 함께 공원 개발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식재 계획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정원과 달리 타만 타식의 식재는 실용성, 상징성, 국가적 자부심과 영광을 제고하려는 독립 후 국가의 가치를 반영하여 직관적으로 설계되었다. 주로 상록 열대 종을 선택하였으며, 외래 식물은 최소화했다. 피쿠스 벤자미나, 펠토포룸 프테로카르푸, 코코스 누시페라, 라거스 트로미아 스페시오사와 같은 큰 나무가 경관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종들은 주로 서양 전통의 전형적인 미학 중심 관행보다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선택되었다.

하지만 두 타만 타식에서 나무 배치와 선택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으며, 미묘한 열대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를 들어, 코코넛 나무(코코스 누시페라)는 전략적으로 수역 근처에 식재하여 열대 환경을 개선하면서 토양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치 있는 나무 중 하나인 코코넛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문화적 및 실용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큰 나무도 강렬한 열대 햇빛을 피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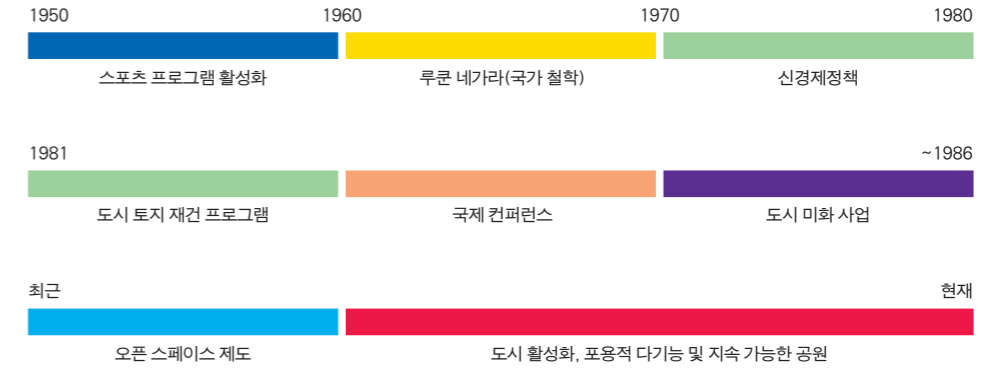


그림 11. 타만 타식 개발의 목표와 우선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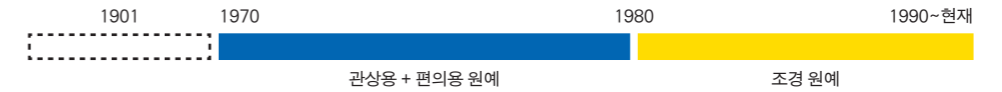


그림 12. 1970년부터 현재까지 호수 공원에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 변화

있는 그늘을 제공하므로 선호된다.

수십 년 동안 두 타만 타식의 식재는 1970년대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열대 정체성을 기리며 기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재 계획의 원래 의도는 여전히 뚜렷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타만 타식에 미친 정원 예술 운동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 타만 타식 공원에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정원 개념에서 차용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원 예술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만 타식의 양식은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원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은 타만 타식만의 지역적 맥락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독특함은 1981년 말레이시아 조경가협회 설립으로 더욱 확고해졌다(ILAM, 2022).

말레이시아에서 정원 예술은 주류 문화 관행이었던 적이 없다. 서구적 의미에서 정원은 전통적으로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즉, 군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재산 및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1974년 이후 쿠알라룸푸르의 통치 체제가 시장 체제로 전환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공공 장소를 통해 왕실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은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 정원은 문화 수도를 대표하고 예술, 원예, 건축의 정교함을 보이는 반면, 타만 타식의 설계는 예술적 표현보다는 국가를 정의하려는 국가의 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기 설계는 철학적 및 예술적 원칙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이후 설계는 발전하는 국가의 가치를 반영했다.

타만 타식은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이상을 대표하며, 특히 *타나 멜라*(말레이시아 반도)의 가치와 루쿤 네가라(국가 원칙)의 교리를 반영한다.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구현하며,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헌법의 우월성”을 반영한다. 이 공원들은 자연과 문화적 상징이 어우러져 국가의 집단적 가치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공원이다. 이 공원들은 정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변화하는 예술 형식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1986년 PATA 컨퍼런스 동안 타만 타식 티티왕사는 레스토랑 넬라얀(Restaurant Nelayan)을 개장하여 국제 대표단을 위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말레이시아의 환대와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 정치적 및 문화적 역할을 수행했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생태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른 공원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공원들은 실용성, 영적 특징, 문화적 표현을 통합한 공동체적이고 적응적 접근법의 대표적 사례다. 토착 경관으로서 이 공원들은 경적된 디자인 규칙을 넘어 조화와 집단의 가치를 촉진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지역사회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결론적으로 타만 타식은 현재의 국가유산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존 기준에 부가가치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HUL 접근법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과거 식민지 국가의 필요를 담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등 공공 공원을 평가하기 위해 확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진정성
2. 지리적 맥락 및 건축 구성을 포함한 역사적 무결성
3. 원예 구성
4. 공원의 발전, 상호 영향, 연속성, 변화,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역사적 궤적

HUL은 전통적으로 도시 유산과 현대적 수요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경험, 전통, 가치를 고려하여 물질성을 넘어 진정성을 포함시켜 살아있는 문화 자산으로서 공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한다. 역사적 무결성은 지리적 맥락, 건축 및 원예 구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 인식한다.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탐구는 설계 의도 및 계획의 발전과 함께 사회 조직, 문화적 상징, 예술적 미학을 모색하면서 철학적 및 사회적 차원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접근법은 타만 타식과 같은 동남아시아 도시 공원만의 사회문화적 내러티브와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HUL의 전체적인 유산 관리와 일치한다.

이렇게 확장된 방법론은 공원의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역사, 정체성, 현대

표 6. 쿠알라룸푸르 타만 타식의 유산 고려를 위한 추가 요건 제안

요건	내용	목적	
1) 진정성	물질성을 넘어 과정, 경험, 전통, 가치를 포함하는 진정성	무형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유산의 진정한 본질을 유지	
2) 역사적 무결성	지리적 맥락	장소의 특성, 개발, 중요성을 형성함에 있어 위치, 자연적 특징, 활동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기술	유산의 물리적 및 문화적 환경이 역할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
	건축 구성	통로, 정자, 기타 공원 요소를 포함한 건축 구조와 공간 배치 분석	사용자 경험과 기능 형성에서 역사적 디자인 원칙과 그 역할을 파악
	원예 구성	공원 디자인에서 식물 종, 배치, 상징 또는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연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과의 문화적 연계를 디자인 요소에 반영
3) 역사적 궤적	철학적 및 사회적 차원	공원에 구체화된 사회 조직, 문화적 상징, 예술, 미학을 모색	공원의 조성과 발전에 반영된 가치와 사회적 열망을 보임
	디자인 의도 및 계획	공원 디자인의 원래 목표, 철학, 의도된 용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의 적응력 및 예측력을 평가

적 유용성을 연계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을 적극적으로 기념한다.

피렌체 헌장(1981)에 명시된 역사 정원의 맥락에서 정원은 일반적으로 연령과 과학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정원은 정체성, 권력, 적응의 복잡한 계층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관은 단순한 식물이나 예술적 성취가 아니라, 식민지 영향, 지역 저항, 식민지 이후 재해석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유산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 공간의 역사적 궤적을 인식하고 식민지 맥락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다루면서 진정성을 보존하는 피렌체 헌장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원의 미적 또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회역사적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7. 결론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에 대한 연구는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의 도시 녹지 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열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공원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통합, 정체성, 문화적 자부심을 향한 여정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말레이시아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등장한 이 공원들은 현대성과 뿌리 깊은 지역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쿠알라룸푸르의 비전을 보여주며,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쿠알라룸푸르의 독특한 문화적 내러티브에 기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서구의 공공 공원 개념에 영향을 받았지만,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토속 조경 설계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말레이시아의 맥락에 맞게 독특하게 적응했다. 식재 계획, 공간 계획, 기능적 발전은 국가적 가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포용적 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을 보여준다. 각 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 및 현대 다문화 사회의 열망을 연계하는 역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공원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공원의 기여는 식민지 유산이라는 주류 내러티브에 가려져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타만 타식 공원이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인정은 공공 공간으로서 공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내러티브, 문화적 발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록하는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지정을 뒷받침하고자 물질성을 넘은 진정성, 역사적 무결성, 원예 구성, 역사적 궤적 등을 통합하여 식민지 이후 맥락에 맞춰 확장된 유산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기준은 회복성, 적응력, 시대의 열망을 구체화한 문화 경관으로서 타만 타식의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는 단순히 공원을 넘어 쿠알라룸푸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다. 타만 타식 공원을 국가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리적 및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뿐만 아니라 역사, 정체성, 지역사회가 융합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타만 타식 티티왕사와 타만 타식 퍼마이수리가 지정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유산의 상징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봉사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rtholomew, J., 1831-1893 (Cartographer). (1904). Selangor, Federated Malay States, 1904 / John Bartholomew & Co ; W.T. Wood, chief draftman. Retrieved from <https://collections.library.yale.edu/catalog/15827242>
- Gao, Q., & Jones, S. (2021). Authenticity and heritage conservation: seeking common complexities beyond the 'Eastern' and 'Western' dichotom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7, 90-106.
- Gil, J. H., Park, H. S., & Park, J. M. (2016).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 130-142.
- Gullick, J. M. (2000). A history of Kuala Lumpur, 1857-1939: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 UNESCO. (2009). Hoi An Protocol. Retrieved from UNESCO Bangkok Office
- IFLA, I. a. (2011).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Dynamic and Changing Urban Environments*.
- ILAM, I. o. L. A. M. (2022).
- Jabatan Perancang Bandar dan Desa, J. (2000). *Garis Panduan dan Piawaian Perancangan Kawasan Tasik*.
- Kuala Lumpur City Hall, Kuala Lumpur structure Plan 2040.
- Kuala Lumpur City Hall, D. Kuala Lumpur structure Plan 2020.
- Kuala Lumpur City Hall, D. (1984). Kuala Lumpur structure Plan 1984.
- Osiri, N. (2023). Historic gardens and parks in Southeast Asia: typologies and common characteristics. *Landscape History*, 44, 81-108.
- Survey Department, S. 測. S. S. D. (Cartographer). (1926). Selangor, Federated Malay States, 1926. Retrieved from https://www.nas.gov.sg/archivesonline/maps_building_plans/record-details/f97e41f5-115c-11e3-83d5-0050568939ad
- Sykes, O., & Ludwig, C. (2015). Defining and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Reflections on the English experience and some stories from Liverpool. *European Spatial Research and Policy*, 22.
- Tahir, O. M., & Kaboudarahangi, M. (2014). The Challenges, Potentials, and Experts' Opinions on Developing a Malaysian Garden Identity.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

Benny Baskara

강사, 할루 올레오 대학교

*교신저자: benbasku@gmail.com, +62 81215945216

PP.
056-
071

바조족은 과거에 해양 유목민으로 알려진 고유한 민족 집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해안가, 산호섬, 또는 작은 섬에 호상 가옥을 짓고 정착해 있다.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의 형태인 이코이코는 전통적인 노래 시다. 현재 이코이코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코이코는 바조족 노인만 부를 수 있고 바조족 청년은 더 이상 이코이코를 부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의 형태인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인도네시아 남동부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바조 마을이다. 연구 결과 술라웨시 남동부의 수십 개 마을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바조족 중 이코이코를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을의 노인 두 명뿐이었다.

이코이코의 보존과 보호는 서면 및 오디오 형식으로 정리하여 이루어진다. 서면 형식의 경우, 이코이코의 가사를 필사하여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추가된다. 오디오 형식의 경우, 이코이코는 오디오 형식으로 녹음되어 저장된다. 이는 보존 목적 외에도 바조족의 청년 세대에게 이코이코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다.

1. 서론

바조족은 동남아시아의 고유한 민족이다. 바조족은 과거 전통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며 살던 바다 유목민 또는 방랑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이 정착하여 해안가, 산호도, 작은 섬에 호상 가옥을 짓고 있다. 과거 바다 유목민이라는 배경 때문에 바조족은 인도네시아 해역 외에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해역 등 동남아시아 해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인도네시아 동남부 술라웨시 주에 거주하는 바조족으로 한정된다. 동남부 술라웨시 섬의 여러 수역과 작은 섬에 퍼져 살고 있는 바조족의 상황도 비슷하다.

바조족은 고유한 민족으로서 여러 문화의 “공생”² 또는 “크리올화”³를 형성하는 자신만의 문화를 소유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바조의 문화적 표현의 형태로는 바조의 전통 시 또는 노래의 일종으로 구전 전통의 표현 형태이며 문화 유산으로 간주되는 *이코이코*⁴가 있다.⁵ *이코이코*는 바다를 향해할 때 또는 배와 어구를 수리하는 활동 사이에 바조족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코이코*는 바조족 여성들이 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처럼 부르기도 한다. *이코이코*에는 영웅, 조상, 여러 지역의 바조족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 등 바조족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코이코*의 노래에는 바조 사회의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가치도 담겨 있다.⁶

바조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이코이코*의 교육적 및 교훈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코이코*를 부르는 것은 기성 세대가 청년에게 가치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⁷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코이코* 노래의 형태에 대한 말레이시아 전통 문학의 영향을 설명했다.⁸ 다른 연구에서는 바조족 사회의 구조, 가치관, 사회적 기능을 분석했다.⁹ 또 한 바조족의 역사적 배경 분석과¹⁰, 바조족의 생태적 및 문화적 가치를 *이코이코* 내

용에서 분석하고¹¹,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이코이코*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지방 정부의 노력 등 *이코이코*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¹²

하지만 바조족의 구전 전통 표현으로서 *이코이코*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이코이코*는 바조족 노인만 부르며,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르는 바조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부를 수 없으며, 심지어 *이코이코*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대중문화의 발전과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통적인 바조족 문화의 표현, 특히 *이코이코*의 생존과 보존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보다는 유명한 대중가요를 선호한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시대에 뒤쳐졌고 오래된 예술 형식으로 간주하여 최신 예술인 대중 예술을 더 선호한다.

*이코이코*는 일반적으로 악기 반주 없이 노래하며, *이코이코* 시는 엄격한 운율로 구성된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를 난해하고 부르기 어려운 시로 보는 듯하다. 그들은 더 쉬운 대중 예술을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바조어(바용 사마)로 쓰여진 바조족 노래가 여러 곡 존재한다는 것이 그 증거다. 바조족 청년은 이러한 노래를 현대 악기, 특히 솔로 오르간 반주와 함께 부르고 연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코이코*의 내용과 바조족 사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조족의 유산으로서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원래 바조족의 구전 전통의 형태였던 *이코이코*를 문자 및 오디오 녹음 형태로 저장, 변환, 정리하여 보존 및 보호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바조족이 부르는 *이코이코*의 가사를 필사한 후 서면 형태로 정리된다. *이코이코*를 외우는 과정 자체도 기록하고 오디오 형식으로 저장하고 정리한다. *이코이코*를 문자와 오디오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코이코* 자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바조족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일반인에게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으로 소개하고 배포하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

2.1. 소멸 위기에 처한 이코이코

본 연구 대상지는 인도네시아 남동부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바조 마을이다. 이들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바조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술라웨시 남동부의 수십 개 마을의 수천 명의 바조족 중에서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마을의 노인 두 명뿐이었다. 마을은 남동부 술라웨시 주의 주

2 Nagatsu, K., "Social Space of the Sea Peoples: A Study on the Arts of Syncretism and Symbiosis in the Southeast Asian Maritime World", *The Journal of Sophia Asian Studies* Vol.33 (2015): 111 – 140.

3 Nagatsu, K., "Maritime Diaspora and Creolization: Genealogy of the Sama-Bajau in Insular Southeast Asia",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95 (2017): 33 – 62.

4 other Bajau also spell it as "ikiko", see Zăcot, F.R. *Orang Bajo, Suku Pengembara Laut*, trans. Fida Mujiono and Ida Budi Pranoto (Jakarta: Gramedia-EFEO-FJP, 2008)

5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France, 2003)

6 Adri & Anwar, "Iko-iko Sebagai Media Pembelajaran Dalam Lingkungan Masyarakat Bajo di Desa Bokori Kecamatan Soropia Kabupaten Konawe", *Historical Education, Jurnal Penelitian Pendidikan Sejarah* Vol.4, No.1 (Jan. 2019): 1–12.

7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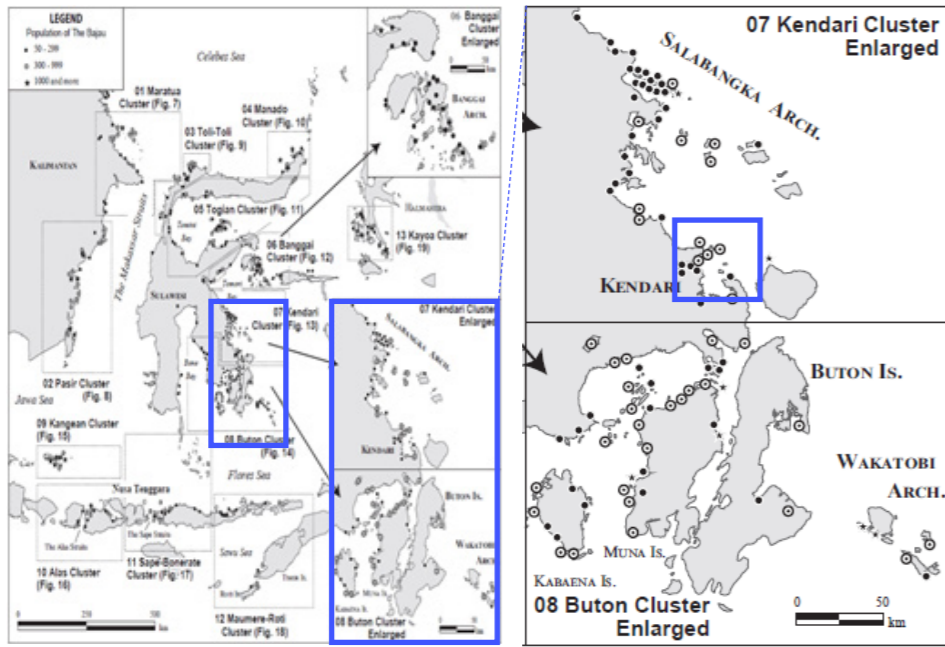
8 Suardika, K. & Hafid, A. (2016). "Peran Tradisi Lisan Iko-iko Berbasis Sastra Melayu dalam Penguatan Komunitas Etnis Bajo", *MUDRA*, Vol. 31, No.1 (Feb. 2016): 87–97.

9 Putra, H.D., Martha, I.N. & Yasa, I.N., "Sastra Lisan Iko – Iko dan Pakannahan di Kepulauan Sapeken Sumenep: Analisis Struktur, Nilai, dan Fungsi Sosial", *Jurnal Pendidikan Bahasa dan Sastra Indonesia* Vol.11, No.2 (Jun. 2021): 216–228.

10 Nuraini, C., "The Intangible Legacy of the Indonesian Bajo", *Wacana* Vol.17, No.1 (2016): 1 – 18.

11 Mahsyar, R., Tabrani, A. & Ambarwati, A., "Ekologi Budaya dalam Sastra Bahari Iko-iko Masyarakat Bajo di Kepulauan Sapeken", *NOSI* Vol.9, No.2 (Sep. 2021): 75–100.

12 Hakim, A., "Kolaborasi Pemerintah Daerah dalam Pelestarian Tradisi Lisan Iko-iko Suku Bajau di Sulawesi Tenggara", *Journal of Governance and Local Politics (JGLP)* Vol.4, No.1 (May 2022): 118–124.



설명
 • / ○ = 바조 마을
 □ =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켄다리 인근 레페 및 와카토비의 몰라)
 □ = 연구 현장(동남부 술라웨시의 바조 마을)

그림 1. 동남부 술라웨시 바조 마을에서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출처: Nagatsu, 2017에서 인용 및 수정)



그림 2. 동남부 술라웨시 섬에 남아 있는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출처: 저자 문서)

도인 켄다리(Kendari) 인근의 레페(Leppe)와 와카토비 제도(Wakatobi Islands)의 몰라(Mola)다. 두 마을의 위치는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동남부 술라웨시 주의 모든 바조족 마을들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동남부 술라웨시 주의 주도인 켄다리 인근 레페 마을에 사는

박 은다디(Pak Ndaddi, 72세)와 동남부 술라웨시 주 남동쪽 와카토비 제도의 몰라 마을에 사는 박 아토르(Pak Ator, 76세) 두 명뿐이다. 다른 마을에 사는 바조족의 진술에 따르면, 켄다리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보피낭(boepinang) 마을의 막 코도(Mak Kodoh), 무나 섬(Muna Island) 근처 만디케(Mandike) 마을의 박 몽캄마(Park Mungkamma) 등,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명 모두 불과 몇 달 전에 사망했다. 한편, 아래 그림 2에서 박 은다디 및 박 아토르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박 자이즈(Pak Jaiz)라는 두 번째 이름으로도 불리는 박 은다디는¹³ 1952년 북오리 섬(Bokori Island)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부 술라웨시 방가이(Banggai)로 이주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1977년 보코리(Bokori)로 돌아와 결혼했다. 이후 개발로 인해 북오리 마을은 여러 개의 새로운 마을로 나뉘어졌으며, 그는 최근까지 레페 마을에 살았다. 한편, 박 아토르는 1948년 칼레두파 섬(Kaledupa Island) 인근의 바조족 마을인 만티골라(Mantigola)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이슬람 강경파의 반란(DI/TII)¹⁴이 발생했을 때 몰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몰라에서 살았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는 이코이코를 부르는 것을 직접 듣고 가사를 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코이코를 배웠다. 안타깝게도 다른 바조족 청년은 물론 이들의 자녀들조차 이코이코를 부르는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다.

2.2. 이코이코 전사 및 설명

이코이코 가사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영웅 이야기, 조상이나 중요 바조족 인물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항해, 여행 또는 여러 장소에 대한 이야기 등 역사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코이코는 구체적인 제목이 없으며, 주제에 따라 이름을 식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¹⁵는 다음과 같다.

박 은다디	박 아토르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 (아버지가 사망한 암초)	1. 주라간 아봉 및 음보 파나이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	2. 사하마 및 카카카 맘모
3. 바조족의 결혼	3. 라싱 및 시티카마리아
4. 토벨로족과의 대결	
5. 아산 선장	
6. 라타게 선장	
7. 바바왕 선장	
8.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	

¹³ 바조족 사회의 두 번째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kara, B. *Islam Bajo: Agama Orang Laut* (Jakarta: Javanica, 2016) 참조.
¹⁴ DI/TII 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kara, B. *Islam Bajo: Agama Orang Laut* (Jakarta: Javanica, 2016) 및 Stacey, N. *Boats to burn: Bajo Fishing activity in the Australian Fishing zone* (Canberra: ANU Press, 2007) 참조.
¹⁵ 이코이코 전사 녹음 내용은 참고문헌에 명시된 링크와 함께 Google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다.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 및 번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박 은다디)

원본 필사본	번역
Eee.. ditarikne pamannang, Ngiri' ne sangai, nggai lagi takole na mamea doi' mamea kalullumang Eee.. mau kita sukar daha sanang karidaang marennu, daha du karidaang Lamung darua batitu, ansini kami ma pore sanang kadilao Dayah dantolo duantolo sanang matakole bele...	에... 육지에 도착했네(어업용 보트)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 돈을 벌러 갈 수 없네 먹고 살 거리를 찾고 있다네 에... 슬프지만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어쨌든 낚시를 하러 바다로 간다네
Eee... damung batiru nggai lagi ginna sanang na pa pugai ongkos Ma ruma bele... Eee.. ailagi na boa ana'na sikola napa balanja damong dalle mimitta' rua songo sanang, ooo... bele... Allao na mamia kita darua dolu nggai lagi na nia bele sanang apa dayah nggai lagi para sanang ma dilao, nggai lagi darua dolu pallibu kita masi je kole na si karapi kalullumang. Ooo... aine itu lamong batitu dayah nggai lagi para lamo missi nggai lagi para takole sanang nggai lagi darua dolu.	(생선) 꼬치 하나, 꼬치 두 개를 잡았네 에... 그런 식이라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것은 또 뭐가 있나 맘 흘려 생계가 유지된다면, 우... 에... 과거에는 낚시를 하러 가면 (최근에는) 더 이상 없다네 물고기가 더 이상 풍부하지 않다네 이전과는 달라 낚시를 하러 가면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네 우...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물고기가 더 이상 풍부하지 않다네 낚시하러 가면 몇 마리밖에 못 잡는다네 이전과는 달라

주라간 아봉 및 음보 파나이(박 아토르, 단축 버전)

원본 필사본	번역
Ooo... eee... dinda Bajo. Dipititoto'ne susurang si Abung, di ala' malingauna, dinda Bajo. Ooo... eee... ele'nane patilauko. Ooo... eee... alo' neko panginjamang, Alo' kabangi, dua mbangi si Abung, dinda Bajo. Nak bagong o ngala didikki atai lebba nyawa padingarko pakaleko, dinda Bajo. Ooo... eee... aladine sanang bulang walu, dinda Bajo.	우... 에... 바조족 소녀여 이야기하렴, 시 아봉 빨리 하거라, 바조족 소녀여 우... 에... (자신이) 물어본 것이니 우... 에... 빌리기 좋은 곳이다 시 아봉, 바조족 소녀여 바공 꼬마는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네 듣는 사람들 중 바조족 소녀여 우... 어... 울다가 8개월차에 선택되었네, 바조족 소녀여 며칠 아니 사흘 동안, 바조족 소녀여

Ngala kabangi tullu mbangi dinda bajo. Ooo... eee... rurupo'ne massisiamah amabara' lilla Bajo, Dilanmis susurang si abung atuk. Ooo... eee... inggako anak lapanang si Pata, baka Salah. Nalapanangna Suasa' inggako lapanang Mas Bonang. Lapanang bukanu ne ma' bualawahta, boku dutai patele' tele' ne milah ancor ko, dinda Bajo. Pakale ko anak padingarko. O lamong na bunangku jara natibaku kadia', inta'na ele binatah ele' mano', dinda Bajo. Ma' poro boe'ta dakaca, Daha lagi boe' dakaca lamong niako ku tiba iya kadia inongna ele binatah, dinda Bajo. Ninggene si Abung tare'na ne purusangna. Ooo... eee... tare'na ne pasinnah si Abung nasilupassne bittahna ka buku'na, dinda Bajo. Dumalang nea katinga' alanane Qoraangna, bona ngaji, dinda Bajo. Katidurangne ma'na, o ngge sabe bibitta, dinda Bajo. Lapanang Qoraang tutu'ku ko mau ngajiku nggai lagi kitaku, dinda Bajo. Alo'na tidor ma' na batongna ne ndi'na.	우... 에... 루루포네 마시시아마는 바조족 남자에게 말하네 딜란미스는 시 아봉에게 말하네, 오 아톡 우... 에... 시 파타의 아이들과 살라는 어디 있나 더 나은 수아사, 더 나은 마스 보낭이 있다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네 올라가서 세어보자, 바조족 소녀여 잘 듣거라! 너에게 주면 바닥에 던지는 것이 좋을 거야 동물이 먹고 닭이 먹도록 말이야, 바조족 소녀여 어머니, 물 한 잔 있나요 물 한 잔 있으면 동물이 마시는 것이 낫다, 바조족 소녀여 시 아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끈을 당긴다네 우... 에... 시 아봉이 배에서 등까지 당긴다네, 바조족 소녀여 그는 가운데로 가서 꾸란을 챙기고 암송한다네, 바조족 소녀여 그의 어머니는 곧 잠들게 했다네, 바조족 소녀여 꾸란을 덮는 게 낫겠어, 난 암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바조족 소녀여 어머니가 잠든 것은 좋지만, (어머니는) 그의 동생이 깨운다네 오, 어린 동생아, 어머니와 잘 지내거라, 너는 사랑받고 있단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말해주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알려주거라 시 아봉, 바조족 소녀여
O ndi' si piara neko ka ma' nu kau madi karimang.	

Alangna lamong batong ya baraangnu ya
ndi'.

Barah nia berena bona pangaramangna iya
si Abung, dinda Bajo.

3. 분석 및 논의

3.1. 내용 분석을 통한 이코이코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대상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며 맥락을 찾는 분석 도구로 내용 분석
을 사용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
의 내용 분석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비교
하며, 이코이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¹⁶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4).

3.1.1. 박은다디의 이코이코

박은다디가 부르는 *이코이코*는 8개가 있다.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아버지가 사망한 암초),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 (3) *바조족의 결혼*, (4) *토벨로족과의 대결*, (5) *아산 선장*, (6) *라타게 선장*, (7) *바바왕 선장*, (8)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 첫 번째 분석은 모든 *이코이코*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1) “*팀푸수 투링가 보요 우와나*(아버지가 사망한 암초)”는 쿠달라라낭(Kudalamanang)이라는 바조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이코이코*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카칼랑 티문(Cakalang Timun)이라는 암초에서 사망했다. 어른이 되자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카칼랑 티문 암초로 가고 싶었다. 암초에 도착했을 때 배가 큰 파도와 강풍에 부딪혀 그는 토벨로 땅(Tobelo)에 갇혔고 토벨로족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탈출에 성공하여 삼촌의 마을로 향했다. 그의 삼촌은 실제로 마을의 *다투*(지도자)이며, 쿠달라망은 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2)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은 제목 그대로 바조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강풍으로 인해 배를 해안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것이었다.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해도 몇 마리밖에 잡을 수 없었고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했다. 이 *이코이코*에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바조족의 한탄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물고기가 많고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고기가 없어 잡기 어렵다.

(3) “*바조족의 결혼*”은 시 덴렝 라오(Si Denreng Lao)라는 바조족 인물이 카카카 맘모(Kacaka Mommo)라는 소녀와 결혼하고 싶지만 곤경에 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 덴렝 라오는 카카카 맘모에게 청혼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고 대신 시 덴렝 라오에게 방랑하라고 말했다. 시 덴렝 라오가 방랑을 떠나는 길에 아버지와 누나가 그를 배에 태웠다. 아버지가 시 덴렝 라오를 집으로 데려오고 마침내 카카카 맘모와 결혼할 수 있었다.

(4) “*토벨로족과의 대결*”은 방가이 섬(Banggai Island) 주변 바다로 낚시하러 갈 계획이었던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둔 바조족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가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 가족은 그들을 위협하는 토벨로족을 만났다. 두 아이를 토벨로족이 찾지 못하도록 화물칸에 숨겼다. 마침내 토벨로족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5) “*아산 선장*”은 제목은 아산 선장이지만 선장의 세 아들의 삶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아산 선장은 죽기 전 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배고프기 전에 먹지 말고 졸리기 전에 자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막내만 선장의 조언을 따랐고, 나머지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다. 막내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마을의 *다투*(지도자)의 노예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두 형을 *다투*에게 돈을 지불하여 해방시켜 주었고 형들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했다.

(6) “*라타게 선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라타게 선장(Captain Latage)이라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그에게 크리스(kris)를 물려주었다. 어른이 된 후 그는 마을의 *다투*(지도자)였던 삼촌의 집에 갔다. 거기에 도착한 그는 삼촌의 딸인 시티 아봉강(Sitti Abongang)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시티 아봉강에게 청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라보롱 선장(Captain Labolong)이 그녀에게 청혼을 한 상태였다. 라타게 선장은 라보롱 선장을 찾아가서 시티 아봉강을 두고 결투하자고 했다. 결투에서 라타게 선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크리스를 사용해 라보롱 선장을 죽였고 라타게 선장은 시티 아봉강과 결혼하게 되었다.

(7) “*바바왕 선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바바왕 선장(Captain Babawang)이라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토벨로족에게 납치당했다. 자라서 어른이 되자 그는 아버지가 납치된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음보 파나이(Mbo Panai)도 동행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토벨로족이 이들을 막았다. 하지만 음보 파나이가 모두 물리쳤다. 바바왕 선장도 토벨로족에게 잡혀 묶여 있던 아버지를 찾았다. 결국 바바왕 선장은 아버지를 구하고 마을로 다시 모셔왔다.

(8)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한 바조족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편은 자신이 다른 친구들처럼 운이 좋지 않아서 불만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의 운이 나빠졌다는 말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내에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를 따르지 않자 그는 아내를 떠나서 마을로 돌아갔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3.1.2. 박아토르의 이코이코

박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1) 주라간 아붕과 음보 파나이, (2)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 (3)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 등 3가지가 있다. 박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길이가 매우 길다. 박아토르는 *이코이코* 하나만 부르는데도 2박 3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아토르가 부른 각 *이코이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녹음된 *이코이코*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녹음 내용은 *이코이코* 전체 길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박아토르의 *이코이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주라간 아붕과 음보 파나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라간 아붕(Juragan Abung)과 음보 파나이(Mbo Panai)라는 바조족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녹음된 *이코이코*만 보면 주라간 아붕의 초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만 있

고 음보 파나이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주라간 아봉은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며, 그가 말할 때면 사람들은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꾸란을 읽는 장면에서 독실한 무슬림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한 인물이다. 하지만 주라간 아봉은 도박, 내기, 닭싸움을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 음보 파나이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단지 주라간 아봉과 함께 항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는 제목에서 보듯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라는 바조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녹음된 *이코이코*에서는 아직 두 주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라징(Rajing)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만 있으며, 그와 두 주요 인물과의 관계도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라징은 칼에 능숙한 강한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라징은 어린 소녀를 취하는 장면에서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다. 나중에 라징은 그의 친척인 아지(Aji)라는 인물에게 패배했다.

(3)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는 제목 그대로 라싱과 시티 카마리아라는 바조족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녹음된 *이코이코*에서는 라싱에 대한 초기 이야기만 있고, 시티 카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기 전이다. 라싱은 자바로 이주하였으며 집을 떠나 살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묘사되어 있다. 라싱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라싱을 임신하여 출산하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준 어머니의 노고를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라싱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고,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고 싶어한다. 라싱은 이주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3.1.3. 박은다디와 박아토르의 이코이코 비교 분석

박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는 8곡으로 꽤 많지만 10분에서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 한편, 박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는 3곡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매우 길다. 박아토르는 *이코이코*를 완전히 외울 경우 하나에 최대 2박 3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박아토르의 *이코이코*를 들어본 적이 있는 제보자 박다우드에 따르면, 과거 박아토르가 집 테라스에 앉아 등유 램프로 불을 켜고 *이코이코*를 부르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배를 타고 테라스 아래로 모여 들었다고 한다. 박아토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이코이코*를 불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박아토르의 *이코이코*는 실제 녹음 시간 30분 내외의 일부 또는 단편에 불과하며 실제 *이코이코*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박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과거 상황과 비교하여 바조족이 낚시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코이코*가 있다. 이 *이코이코*는 물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물

고기를 구하기 어렵다고 묘사한다. 따라서 낚시만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잇기에 부족하다. 이 *이코이코*는 바조족이 배를 물에다 대고 더 이상 바다로 고기잡이를 가지 않는다고 묘사한다. 바조족은 낚시를 포기하고 직업을 어업에서 육지 작업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바조족은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더 이상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 등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조족의 낚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

박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 중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남성 인물의 고난을 묘사한다. 첫째, 쿠달라마낭(Kudalamanang)은 산호초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홀로 남겨졌다. 둘째, 라타게 선장(Captain Latage)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 크리스를 물려받았다. 셋째, 바바왕 선장(captain babawang)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벨로족에게 납치당했다. 넷째, 시 덴렝 라오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났고 자바로 이주했다. 이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성인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궁금해져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거나 추적하고 싶어 한다. *이코이코*는 아버지가 사망한 암초에 가고 싶었던 쿠달라마낭, 토벨로족 영토에 가고 싶었던 바바왕 선장, 아버지의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라타게 선장과 시 덴렝 라오 선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이코이코*에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항해 수단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삼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박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 중에는 토벨로족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이코이코* 외에도 바조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에서 토벨로족은 과거에 배와 물품을 갈취하는 해적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벨로족은 납치범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해안 마을로 가서 여성, 어린이 등 주민을 납치한 후 노예로 팔아 넘긴다고 한다. “토벨로족과의 대결”에서 부모는 바조족 아이들을 토벨로족에게 납치당하지 않도록 배 안의 화물칸에 숨긴다. 한편, “바바왕 선장”에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벨로족에게 납치되어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홀로 남겨진다.

박은다디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인생에 유용한 조언이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또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다. “아산 선장”에서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또한 아산 선장이 “배고프기 전에 먹지 말고 졸리기 전에 자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남긴 중요한 조언도 있다. 너무 많이 먹고 자는 것은 게으름의 형태이므로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이코이코*에서 막내 아들은 성공하지만, 두 형은 아버지의 조언을 실천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언을 실천하는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시카 아세아세(안타까운 일)”에서는 조화로운 관계,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에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남편과 아내의 조화로운 관계는 가족의 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이코이코*에서 운이 좋지 않고 수확량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적어서 아내에게 불평하는 바조족 남성이 등장한다. 그의 친구는 그 원인이 자신도 몰랐던 그에 대한 아내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아내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이 *이코이코*에서는 지속 가능한 가족의 핵심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쌓고 서로 의심과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박 아토르가 부른 모든 *이코이코*에는 등장인물의 인생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을 묘사하는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영웅, 초자연적인 힘, 등장인물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마을 사람들을 물리친 주라간 아붕 또는 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라징이 있다. 또한 모로왈리로 간 주라간 아붕, 자바로 이주한 라싱 등 각 장소로 떠난 바조족의 탐험과 여행도 묘사되어 있다.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에는 라싱의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노고를 항상 기억하고, 라싱이 이주한 자바에서 성공했지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조언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박 은다디 및 박 아토르가 부른 *이코이코*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이 부른 *이코이코*에 비슷한 이름 또는 인물이 등장한다. 첫 번째 인물은 음보 파나이다. 음보 파나는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주라간 아붕 및 음보 파나이”에서 제목 또는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에서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에서 음보 파나는 항해 지식, 기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묘사되며, 항해할 때 항상 주인공과 동행한다.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 중에서 음보 파나는 토벨로족 땅의 많은 토벨로족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두 번째 인물은 카카카 맘모다. 카카카 맘모는 박 아토르의 *이코이코* “사하마와 카카카 맘모”에서 제목 또는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녹음된 *이코이코* 내용에는 카카카 맘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또한 카카카 맘모가 박 아토르와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다. 박 은다디의 *이코이코*에서 카카카 맘모는 다투 또는 마을 지도자의 딸인 여성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나중에 카카카 맘모는 다투 또는 아버지의 조카인 시 텐렝 라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는 그녀의 사촌이기도 하다.

3.2. 고찰

3.2.1.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

바조족은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 등 여러 바조족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배우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박 은다디와 박 아토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코이코*를 들어서 배우고 가사를 외워야 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코이코* 가사를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사본이 없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을 읽지 않고 *이코이코* 노래를 직접 들어서 가사를 외우고 부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대의 발전,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조족 청년도 이러한 발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와 같은 전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여가 시간을 많이 쓴다.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과 노래도 바조 청년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코이코*보다는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즐긴다. 어렵고 이미 시대에 뒤쳐진 *이코이코*보다는 부르기가 쉽고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셋째, 항해와 배 기술의 발전도 *이코이코*의 소멸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바조족 배에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바조족 배에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엔진이 장착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보통 항해 중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코이코*를 불렀다. 요즘은 바조족 배 대부분에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으며, 이에 따라 *이코이코*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다. 또한 배 엔진의 소음도 너무 커서 *이코이코*를 부르는 소리가 “묻힌다”. 이에 따라 항해 중 *이코이코*를 부르는 일이 드물어졌다.

3.2.2. 이코이코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전략

앞서 설명한 *이코이코*의 문제점과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특히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배울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보다 쉽게 배우도록 돕고, 가사를 직접 들으며 외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배워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코이코*는 다시 발전할 것이다.

둘째, 레페의 마을 지도자 박 하자르가 바조족의 예술과 문화적 표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집 앞에 예술 스튜디오 등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도 좋은 징조다. 그의 계획은 그림, 공예 등 각 형태의 예술과 문

화적 표현을 대상으로 하며, 이코이코 외에 음악, 무용 또는 기타 공연 예술 등 다른 형태의 예술도 포함될 수 있다. 스튜디오 내부에는 벽에 걸린 그림 등 바조족 예술 작품, 나무로 만든 미니어처 배, 조개껍질로 만든 장식 공예품 등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박 은다디를 주요 강사로 하여 바조족 청년이 필사본으로 가사를 익혀 이코이코를 배우는 장소로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

셋째, 마을 당국, 지방 정부, 기타 당사자의 지원을 통해 여러 바조족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이코이코 축제, 대회 또는 예술 행사를 주최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8월에 진행했으며, 바조족 등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여러 활동, 행사, 축제로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시기였다. 예를 들어, 몰라 마을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요 축제와 노래 대회가 열렸고 많은 바조족 청년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념일이나 기타 국경일, 중요한 날에 이코이코를 부르는 축제나 대회를 소개하고 주최할 수도 있다.

4. 결론

이코이코는 노래 시의 형태이며 바조족의 문화적 표현 중 하나이지만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 결과 남동부 술라웨시 지역의 수십 개 마을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바조족 중 아직도 이코이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레페 마을의 박 은다디와 몰라 마을의 박 아토르 두 명뿐이다. 이코이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 가사를 필사본 없이 외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배우기를 꺼린다. 둘째, 대중문화의 도전이다. 바조족 청년은 이코이코보다 대중가요를 선호한다. 셋째, 항해와 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바조족 배에 엔진이 장착되어 항해 중에 이코이코를 부를 시간이 없어졌다.

본 연구는 이코이코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코이코 가사의 필사본은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이코이코 가사를 암기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레페 마을 지도자가 조성한 예술 스튜디오는 바조족 청년이 이코이코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정부, 기타 당사자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이코이코 축제 또는 예술 행사를 주최하고 조직할 수 있다.

참고문헌

Adri & Anwar, “*Iko-iko* Sebagai Media Pembelajaran Dalam Lingkungan Masyarakat Bajo di Desa Bokori Kecamatan Soropia Kabupaten Konawe”, *HISTORICAL EDUCATION, Jurnal Penelitian Pendidikan Sejarah* Vol.4, No.1 (Jan. 2019): 1-12.

Baskara, B. *Islam Bajo: Agama Orang Laut* (Jakarta: Javanica, 2016).

Hakim, A., “Kolaborasi Pemerintah Daerah dalam Pelestarian Tradisi Lisan *Iko-iko* Suku Bajau di Sulawesi

Tenggara”, *Journal of Governance and Local Politics (JGLP)* Vol.4, No.1 (May 2022): 118-124.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4).

Mahsyar, R., Tabrani, A. & Ambarwati, A., “Ekologi Budaya dalam Sastra Bahari *Iko-iko* Masyarakat Bajo di Kepulauan Sapeken”, *NOSI* Vol.9, No.2 (Sep. 2021): 75-100.

Nagatsu, K., “Social Space of the Sea Peoples: A Study on the Arts of Syncretism and Symbiosis in the Southeast Asian Maritime World”, *The Journal of Sophia Asian Studies* Vol.33 (2015): 111-140.

Nagatsu, K., “Maritime Diaspora and Creolization: Genealogy of the Sama-Bajau in Insular Southeast Asia”,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95 (2017): 33-62.

Nuraini, C., “The Intangible Legacy of the Indonesian Bajo”, *Wacana* Vol.17, No.1 (2016): 1-18.

Putra, H.D., Martha, I.N. & Yasa, I.N., “Sastra Lisan Iko – Iko dan Pakannahan di Kepulauan Sapeken Sumenep: Analisis Struktur, Nilai, dan Fungsi Sosial”, *Jurnal Pendidikan Bahasa dan Sastra Indonesia* Vol.11, No.2 (Jun. 2021): 216-228.

Stacey, N. *Boats to burn: Bajo Fishing activity in the Australian Fishing zone* (Canberra: ANU Press, 2007)

Suardika, K. & Hafid, A. “Peran Tradisi Lisan *Iko-iko* Berbasis Sastra Melayu dalam Penguatan Komunitas Etnis Bajo”, *MUDRA*, Vol. 31, No.1 (Feb. 2016): 87-97.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France, 2003)

Zacot, F.R. *Orang Bajo, Suku Pengembara Laut*, trans. Fida Muljono and Ida Budi Pranoto (Jakarta: Gramedia-EFEO-FJP, 2008)

Google drive link for the *iko-iko* recordings: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_4iHvIRyuZc-OyPhEbYKtjss4Iy9Hhg?usp=sharing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스웨덴과 태국에서 보존 이념의 발전 - 비교 연구

Susanna Barros Eriksson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 조교수

PP.
072-
095

보존 관행은 계획과 실천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며, 적절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려면 우선적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견해는 서양과 동양에서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스웨덴과 태국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보존 이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는 것이다.

역사에 따르면 스웨덴과 태국은 비슷한 경로를 거쳤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발생했으며, 이 시기에 보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수립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는 더 큰 감독 권한을 얻었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립되었다. 스웨덴과 태국 모두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유산 관리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태국에서 종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기념물과 죽은 기념물 간 구분은 유산의 여러 측면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통 서양에서는 폐허, 버려진 유적지 등 죽은 유산에 관심을 더 보이지만, 동양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사원과 같은 살아있는 유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유형 및 무형 유산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유사점도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스웨덴과 태국은 무형의 가치, 특히 사회 및 시민권과 관련된 가치를 점차 강조하는 접근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유산 관리의 중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회화 보존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작품에 대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일상적이거나 기존 관행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복사 붙여넣기’ 방식을 피하려면 각 보존 사업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재료 외에도 무형의 가치에서 기존 회화와는 다른 거리 예술과 그래피티를 접하게 되었다. 예술 형식에서는 시간성, 상징성, 정체성 등 개념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 회화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다른 보존 방법이 필요할 때가 많다.

본 연구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적용되는 이념과 원칙을 연구하여 보존 원칙에 대해 도전하고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스웨덴의 보존 원칙이 다른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원칙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각기 다른 관점을 비교하여 다양한 보존 관행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산 작업을 위한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법적 맥락을 간략히 논의하긴 하지만 법적 제도보다는 이론적 이념과 가치에 중점을 둔다. 실질적인 개입은 채택할 이념적 원칙에 대한 사전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은 보존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작품의 가치를 모두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적, 문화, 종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작품을 보존할지 여부와 보존 방법은 작품에 부여된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2. 방법

본 연구는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성적 텍스트 분석이다. 태국을 선정한 이유는 회화 보존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헌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영어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존 노력의 지침이 되는 명시적인 원칙도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회화에 대한 보존 원칙이 있을 경우, 실제 실행이 보존 담론의 광범위한 추세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했다.

1.2.1. 선정

스웨덴과 태국의 사례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사례는 군주제 또는 귀족제와도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스웨덴의 대규모 교회 복원 사업은 비평가와 일반인 모두 관심을 보인 대표적 사업이었으며 광범위한 문서화와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속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근본적인 이념은 교회 맥락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회화 보존에 관한 문헌은 벽화로 국한되어 있으며, 필

자의 경험에 따르면 벽화는 다시 칠한 회화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태국에서 문화 유산은 역사적으로 종교 또는 군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Khanjanusthiti, 1998; Siriphatthanakun, 2022). 따라서 역사 보존 사업 논의는 주로 사찰과 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도시의 세속적 보존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간략히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은 주로 종교 건물이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건물도 있다.

1.3. 이론

본 논문은 서구 전통에서 교육을 받은 보존 전문가인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세속적 관점에서 태국의 유산 보존을 조사하고 해석했다. Weeraphan Shinawatra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의 생각에 따르면, 서구는 전통적으로 유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유산 보존의 맥락에서 종교와 전통 생활 방식과 같은 무형의 측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2006).

1.3.1 용어

스웨덴어와 태국어로 된 보존, 복원, 재건과 같은 용어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될 수 없다. 스웨덴어와 태국어 용어는 해석이 서로 다르고 해당 분야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 용어의 뉘앙스를 파악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Hathaya Siriphatthanakun이 설명하듯 태국어 용어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2022). 본 연구에서는 본문 전체에서 보존(*conervation*)이라는 영어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존은 유산 및/또는 유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적극적인 개입 모두를 뜻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용어도 스웨덴어와 태국어에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보존의 관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지녔던 모든 사물 및 환경을 뜻한다.

2. 보존 이념의 역사

2.1. 스웨덴

스웨덴의 문화유산 보존은 세계 최초로 역사적 기념물 보존에 관한 규정이 수립된 17세기부터 규제되어 왔다. 1666년에 제정된 해당 법률은 물질적 유산과 비물질적 유산을 모두 다루며, “고대 유적, 건축 랜드마크, 전설, 전통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유물위원회(*Antikvitetskollegium*)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Bedoire, 2013).

19세기에 분명한 이념과 원칙이 등장하였고 20세기 초에 들어선 보존 원칙과 보정 방법이 구체화되었다. 벽화 보존은 주로 종교 건축물 관련 폭넓은 복원 논의와 함께 발전했지만, 그립솔름 성(Gripsholm Castle)과 같은 일부 세속적인 건물도 포함되었다. 벽화 보존은 대규모 복원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그 처리는 복원 건축가가 결정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티프는 그 위에 색을 칠하기 전에 문서화할 수 있었지만 종합적 문서화가 표준 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화나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원칙이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하나의 예외는 예술가이자 미술사학자인 Nils Månsson Mandelgren이었다. 오래된 건물과 환경, 특히 중세 건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중세 회화의 디테일과 전체 인테리어를 문서화했다. Mandelgren은 스웨덴 최초로 1850년대 비에레세 교회(Bjäsjö Church)의 벽화 보존 작업을 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문서화하여 출판했다. 그는 원본을 존중했고 당시로서는 매우 세심하게 보존 작업을 했다(*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2001).

19세기 후반 들어 교회 복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념적 접근법이 등장했다. Helgo Zettervall과 같은 유명 건축가들은 기독교 예배에 적합한 하이 고딕(High Gothic) 미학에 따라 종교 건축물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세기 시작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은 복합적 디자인, 뾰족한 아치, 높은 첨탑, 풍부한 장식이 특징이며, 가능한 한 많은 빛이 실내로 유입되도록 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랭스(Reims)에 있는 대성당과 같은 유럽의 대형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스웨덴은 이전의 변경을 무시하고 고딕 양식의 건축 양식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을 진행했다. 고층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시멘트, 강철 등과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양식 복원(*stylistic restoration*)으로 알려진 이러한 복원 방식은 과거의 층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웨덴에서 대형 신문사 하나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복원된 건물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복원을 “현대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 낭만주의(National Romantic)¹⁷ 흐름은 천연 재료 사용, 장인 정신을 주장하면서 양식 복원에 사용된 재료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다(Bedoire, 2013).

이 시대의 벽화 처리는 비슷한 원칙을 따랐으며, 장식 화가는 미적 통일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양식 추세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덧칠하고 자유롭게 완성하는 것이 흔했다. 원본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잔여물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세 회화는 구상한 교회 내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에레세 교회에서 만델그렌의 세심한 보존 노력은 19세기 후반 장식 화가가 벽화를 “개선”하여 가려졌다(*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2001).

당시 건물은 죽은 건물 또는 살아있는 건물로 분류하여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¹⁷ 민족낭만주의 운동은 스웨덴의 전통과 소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건축의 경우 벽돌, 자연석, 스웨덴 토종 목재가 흔히 사용되었으며, 토속 민속 전통, 스웨덴 성 건축에서 영감을 얻었다.

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구분은 공식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유적과 같은 죽은 건물은 역사적 또는 시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건물은 기능적 용도가 우선되어 보다 많은 변경과 개조가 가능했다. 두 분류 모두 기존 상태로 보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달랐다. 이러한 구분은 20세기 들어서도 보존 관행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Geijer, 2004).

오늘날 대부분 계속되고 있는 현대의 보존 원칙은 20세기 초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Sigurd Curman은 이러한 생각을 공식화한 핵심적 인물로 여겨진다. 20세기 들어 미술사와 건축 공학을 전공하던 유럽 유학생이었던 Curman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산 마르코 대성당 복원, 베네치아의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의 고딕 벽화 보존 사업을 연구했다. 이러한 사업에서 Curman에게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중요한 점은 복원 전에 진행한 철저한 사전 연구, 그리고 측정과 벽화 보존에 관한 당시의 새로운 생각이었다(Edman, 1999).

2.1.1. 현대적 원칙의 형성

프라리키르칸의 벽화 보존은 당시 스웨덴에서 흔히 행해지던 양식 복원 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Curman은 프라리키르칸의 벽화 보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접근법을 관찰했다.

- 오래된 색조에 대한 존중
- 여러 과거 층의 수용
- 특정 모티브의 선택적 재구성

색이 바래거나 변색된 부분은 다시 칠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두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Curman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보강 없이 “진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Edman, 1999). 여러 역사적 시대의 회화의 보존도 Curman의 관심을 끌었다. 양식에 맞지 않는 회화를 제거하는 스웨덴의 양식 복원 작업과 분명히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층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나중에 입힌 덧칠을 보존하는 것은 스웨덴의 보존에서 비교적 현대적인 개념이었다. 인물 묘사, 종교적 주제 등과 같은 비유적 요소는 선, 나뭇잎 모양과 같은 장식적 틀과 다르게 처리되는 등 보정과 재구성은 주제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장식적 틀은 폭넓게 완성시켜 회화에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상화(*figurative painting*)는 “오래된 것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Edman, 1999). 이러한 원칙은 Curman이 베네치아에 방문한 시기와 같은 시대에서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건축가 Camillo Boito의 생각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Bedoire, 2013).

2.1.2. 현대 복원 원칙 및 새로운 직업

Curman은 스트랭나스 대성당(Strängnäs Cathedral)에서 그의 발전하는 방법에 따라 벽화를 보존하여 이러한 원칙을 더욱 발전시켰다. 꽃 패턴, 나뭇잎, 선 같은 장식적인 모티브는 원본에서 반복적이고 복제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하여 완성하였고 이에 비해 인물은 그대로 두었다. 특히 얼굴, 손, 옷의 경우 색을 채우지 않고 색을 보다 분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할 때는 선 또는 줄무늬로 표시하여 멀리서 보면 균일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장식 화가가 수행했던 회화 보존에는 이제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존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Bedoire, 2013). 요약하면 Curman의 원칙은 원본 층에 대한 주의, 최소한의 개입, 원본과 추가 덧칠을 구분하는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이 원칙들은 오늘날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1.3. 전후 기간

1차 세계대전 이후 손상된 건물과 기념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테네 헌장(*The Athens Charter*)으로 이어진 아테네 회의에서는 양식 복원은 피해야 하며 오래된 구조물에 새로 추가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래도 강철, 콘크리트 같은 현대적인 재료는 허용되었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관점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19세기에 진행된 양식 복원은 거부되고 일부 경우에는 허물기도 했다. 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미각 복원(*taste restorations*)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돌이켜보면 19세기에 추가된 것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양식 복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여 필요한 경우만으로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양식 복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Edman, 1999).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축가 Erik Lundberg는 기존 교회 인테리어에 현대적 건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Lundberg는 복원을 통해 명상과 헌신을 위한 영적 공간이라는 교회의 본래 의도를 살리면서 교회 공간의 건축적 특성과 빛의 중요성을 존중하려고 했다. 전후 시대에는 예배에 변화가 발생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해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Lundberg는 실용적인 혁신을 통합한 현대적인 접근법을 앞장서서 주장했다. 일부 경우 인테리어를 상당히 바꾸고 건축가의 개인적인 비전을 반영하여 교회 공간 전체를 주류 이상에 맞게 재설계하기도 했다.

Lundberg는 복원의 개념을 2가지 주요 생각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했다. 첫째, 역사적 기념물은 보존해야 한다는 박물관학 및 보존 중심 관점이었다. 둘째, 현대적

필요에 따른 사용을 강조하여 보존은 교회 공간을 재해석하는 건축가의 능력에 부차적인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다. Lundberg는 두 번째 접근법이 설득력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틀에서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건물 또는 공간의 상태를 철저히 이해하고 나서야 복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원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새로운 디자인과 재료가 기존 소재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렇다고 페인트 샘플을 채취하고 정확한 색조를 파악하더라도 반드시 원본 색상을 정확하게 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Lundberg는 기존 재료에 담긴 정신을 해석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 모습으로 정확히 되돌아가는 것은 공간의 진정한 본질이나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 의도적인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Edman, 1999). 과거 층의 보존보다 건축가의 비전을 우선한 이러한 취향 기반 복원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교회 전통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지만, 찬성론자들은 현대화가 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보존의 관점에서 예술가로서 배경을 지닌 고틀란드 출신의 “보존가”인 Erik Olsson과 비교할 수 있다. 1950~1970년대 Olsson은 고틀란드 섬의 여러 교회에서 폭넓게 일하면서 인테리어와 벽화에 자신의 기법을 적용했다. Olsson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방법과 재료를 차별화했다. 그는 중세 벽화를 17세기 이후의 인테리어 또는 벽화보다 훨씬 존중하여 취급했다. 중세 석회 기반 회화는 대부분 Curman의 원칙에 따라 보존되었다. 구상적 요소(figurative elements)를 다룰 때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선, 잎사귀와 같은 틀은 보다 폭넓게 복원되었다.

Olsson은 선을 긋어 새로 추가하여 자세히 보면 원본과 구별할 수 있는 스킨토(sgraffito) 기법을 사용했다. 다른 유형의 예술품이 보존된 다른 교회에서 Olsson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덧칠하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을 활용했다.

Olsson의 작품의 대표적인 예는 1950년대 중반에 착각 그림 기법으로 칠한 천장(illusionistic painted ceiling)을 재건한 폴링보 교회(Follingbo Church)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제작된 이 회화는 정교하게 장식된 치장 벽토 천장을 모방한 그리자유(*grisaille*) 작품이다. 특히 Olsson은 천장 일부에 자신의 자화상을 천사의 모습으로 포함시켰다. 현대의 보존 논의에서 분석해 보면, 폴링보 교회에서 그의 보존 작업은 유머러스한 관점을 통해 걸러지긴 했지만 Lundberg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다.

2.1.4. 1970년대의 새로운 이념

1960년대 스웨덴에서는 생활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구도심을 철거하고 혼잡한 도심 외곽에 새로운 현대적 주거지를 지어 국민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도심이 상업화되고 상점용 및 사무실용 고층 빌딩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게 발생하였으며 수 세기에 걸쳐 조성된 유기적 환경을 존중하지 않고 통일성과 교통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너무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Edman, 1999).

건물 보존의 해로 지정된 1975년 모든 형태의 도시 계획에 건물 보존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통합 보존 개념이 도입되었다. 문화 환경의 개념에 포함해야 할 유물의 범위가 확장되어 개별 건축물이든 전체 환경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문화사적으로 관심 대상인 모든 건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사회 정의가 높게 평가되며 건축 환경의 변화는 사회 및 시민 참여와 다양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Robertsson, 2002).

당시 이념을 형성한 복원 건축가로는 Ove Hidemark가 있다. 그는 독창적인 재료와 자연스러운 노후화 과정을 강조했다. 350년 동안 존재한 스코클로스터 성(Skokloster Castle) 건물은 시간이 지나도 잘 견디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원본과 같은 유형의 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 재료는 노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기존 소재의 자연스러운 노후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불필요한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이념이었다(Lindahl, 2008). 1968~1978년에 Hidemark는 스코클로스터 성의 작업을 담당했다. 스코클로스터 성은 17세기에 지어진 대형 건물로 개보수를 거의 하지 않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였다. 그의 목표는 특정 손상 등 모든 시대와 성의 마모를 보존하여 성 자체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17세기에 쓰인 것과 동일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했다(Ahlgren m.fl., 2004).

Hidemark의 원칙을 요약하자면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개입과 진정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각 유물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회화의 보존과 관련하여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보정은 피했다.

2.1.5. 2000년대

21세기 초 스웨덴의 문화유산 작업은 주로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유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했다. 과거에는 전문가 중심 분야였지만 이제 지역사회가 중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등, 일반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문화 환경은 이제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유산은 사회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었다. 문화유산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지역 정체성을 보호해야 했다. 또한 기존 건물을 현대식 건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도 있었으며, 현대적인 환경과 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점은 오늘날 현대식 건물이 내일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종류의 지식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복원의 발전은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치 기반 과정으로 향했다. 이러한 과정 동안 가치를 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몇몇 모델이 개발되었다. 2014년 스웨덴 국가유산 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반 모델인 *문화사적 평가 및 선정 플랫폼(Platform for Cultural-Historical Evaluation and Selection)*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문서의 목표는 각 결정에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주장이 투명한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성찰적 접근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화사적 측면이 중심이 되며 미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관점을 통해 설명되고 정의된다. 해당 플랫폼은 여러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으며 스웨덴 국가유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Génétay & Lindberg, 2014).

이러한 플랫폼에 따른 가치 기반 관리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8년 작성된 스톡홀름의 스토키르칸(Storkyrkan, 대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이 문서는 스톡홀름 교구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근거로 개발된 것이며, 가치 식별과 유지 보수 및 기타 개입의 결과를 논의한다. 여기서 문화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가치의 보유물로서 유물을 언급한다(Laserna & Nilsson, 2018). 일반적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할 때 문화유산 관점에서 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결과 분석도 포함하여 작업의 잠재적 영향 또는 작업의 부족이 유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플랫폼에 따라 2022년에 야외 환경의 공공 예술을 중심으로 한 *건물 관련 공공 예술: 문화사적 및 미적 측면에 기반한 가치 평가 방법*¹⁸이 발표되었다(Mellander Backman m.fl., 2022). 여기서는 작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지만 가치 평가 원칙에 대해 논의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의 국립 보존가 단체인 NKF-S에서는 자체 윤리 지침은 개발하지 않았지만 유럽 보존가-복원가 단체 연합(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Restorers' Organizations, ECCO)에서 설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적극적인 보존을 하는 보존가는 ECCO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보존가(conservator)*라는 직책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보존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 요건은 없다. 이는 기존 보호자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NKF-S 회원 사이에서 면허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ECCO의 직업 지침은 첫째, 직업에 대한 정의, 둘째, 윤리 강령, 셋째, 교육에 관한 내용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부분인 윤리 강령에서는 보존가는 “수행 능력이 있는 작업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존가는 “유산의 미적, 역사적, 정신적 중요성과 물리적 무결성을 존중하며 [...] 문화유산, 환경 또는 인간에게 해를

18 Translated by the author from Swedish: *Byggnadsanknuten offentlig konst. Metod för värdering utifrån kulturhistoriska och estetiska aspekter*

끼치지 않는 제품, 재료, 절차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입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작업만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용된 재료는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원 가능하고 원본 재료와 호환되어야 한다. 또한 보존가는 유물의 사회적 사용을 존중하고 보존과 사용을 조화할 수 없는 경우 복제본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Restorers' Organisations, 2003). 지침에서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딜레마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지만, 어떤 가치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지침은 실질적인 시행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2.1.6. 규정 및 법률

문화유산 분야에서 스웨덴의 법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이며, 대신 규제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현재 문화유산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의 문화유산 관련 법률은 1666년에 처음 제정되어 400년 동안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기념물 및 유물(건물 제외)을 명시하고, 고대 기념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문학, 지역사, 교회사와 같은 유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기관인 유물협회(Antiquities Collegium)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성, 룬스톤(runestones) 등과 같은 유물 목록이 작성되기 시작했다. 연구는 주로 중요한 인물과 군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유물을 중심으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배 문제를 다루고 교회 건물과 그 목록을 보호하는 교회 관련 법률이 있었다.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은 18세기 후반 구스타프 3세(King Gustav III)가 공공 건물의 모든 주요 수리를 국왕이 임명한 최고 감독관이 검토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구스타프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물협회는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Vitterhetsakademien)로 통합되었다.

19세기 전반에 교회가 목록화되고 문서화됨에 따라 교회 건물과 유물의 관리가 발전했고,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의 스웨덴 교회와 그 가치에 대한 감독권이 커지게 되었다. 교회 외에 고대 성, 유적지, 비스비(Visby)의 성벽과 같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중점을 두었다. 19세기 후반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는 철거 위기에 처한 교회 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교회를 취급하기 시작했다(Geijer, 2004).

20세기 초 어떤 건물이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조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국은 문화사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건물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1920년 새로운 법이 통과

되어 공공 건물의 문화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건축 기념물(*building monuments*)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부여되었다. 교회 이외의 건물에 대한 보호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곧 건축 기념물과 일반 기념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인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서 세속적인 건물 사례가 늘어났다. 1943년에 이 법률은 오래된 교회 유물과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960년 추가 개정으로 개인 소유의 유산 건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1989년 문화유산 보존에서 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전 법안을 반영한 문화유산법(Kulturminneslagen, KML)이 도입되었다. 같은 시기 환경과 천연자원, 토지, 수자원, 건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화유산 관리 관련 2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Geijer, 2004).

국제적 틀과 현장과 관련하여 유산의 정의와 보호 조치를 다룬 그라나다 문서(Granada Document)는 스웨덴이 약정한 유일한 문서다(*konvention-om-skydd-for-byggnadskulturarvet-i-europa-granada-den-3-oktober-1985.pdf*, u.å.; Robertsson, 2002). 베네치아 헌장(Venice Charter)과 같은 다른 문서들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2.2. 태국

태국의 경우 복원에 관한 이념은 60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법률로 규제되거나 문서화되지는 않았다. 예술과 건축 작품은 주로 불교 하에 만들어졌으며 불교에서 선행으로 간주되었다. 유물이 닳거나 망가졌을 때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유물의 상태를 보존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유물과 건물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은 불자라는 표시이며 공덕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불교 신자가 따르는 윤회 사상의 이점을 가져와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기존 유물을 꾸미고,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과거 복원에 대한 정보는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고 복원 및 보존 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부족했다(Sac-Wang, 2017). 하지만 1345년 마하테라 스리사타(Mahathera Srisattha) 왕자가 실시한 복원을 자세히 기록한 석조 비문이 남아 있다. 마하테라는 폐허가 된 왓 마하닷(Wat Mahat) 사원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사리탑을 세우고 치장 벽토 장식을 추가하는 등 건물을 복원했다(Baker, 2013). 종교 조각품의 복원은 분리된 여러 부분을 여러 사람이 들어서 수레로 운반하고 석회 모르타르로 각 조각을 재조립한다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Khanjanusthiti, 1998).

1447년 불교 전통에 따라 옛 건축물 위에 새 건축물을 지어 재건한 람퐁(Lamphun)의 마하 닻(Maha That) 개보수 등 다른 수리 작업도 기록되어 있다. 거의

200년 후 쿨라 사카라트(cular sakarat) 10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아유타야(Ayutthaya)의 프라삿 통 왕(King Prasat Thong)은 왕국의 주요 사원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기존 사원을 재건하고 수리하면 신을 달래고 섬길 수 있으며 백성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공사는 일부 원래 구조물을 보존하고 특정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등 당시 시대의 관점에 따라 사원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600년대 룽부리(Lop Buri) 지역의 모든 사원에서 수리 시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 건물과 세속적 건물 모두 바꾸지 않은 상태로 복원해야 했다(Baker, 2013).

또 다른 문서화된 사건으로는 1727년 불상이 무너지는 강둑 근처에 위치하여 파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있다. 불상은 벽돌과 석고에 도금한 20미터 길이의 누워 있는 불상으로, 타이사 왕(King Taisa)은 불상을 해체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당시 자문 역할이었던 승려들은 불상이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상을 해체하는 것은 실제 부처님을 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상은 통째로 옮겨야 했다. 불상이 있는 건물인 사원의 비하라 부분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처님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철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물질적 가치는 단순히 불상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변 구조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부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Khanjanusthiti, 1998).

라마 1세(King Rama I)는 1782년 방콕을 수도로 지정하고 아유타야 시대(약 1350~1767년)의 장엄함에 걸맞은 수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유타야에서 수천 개의 불상을 가져와 방콕의 새로운 사원 건물에 넣었다. 불상 중 상당수는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좋게 보이기 하기 위해 새로운 부분을 만들고 얼굴을 변경하여 복원했다(Khanjanusthiti, 1998). 비슷한 방식으로 수코타이(Sukohai)의 대형 좌불상이 복원되어 왓 수탓(Wat Suthat)의 새로운 위한 루앙(Wihan Luang) 사원에 배치되었다. 라마 1세는 손과 얼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손과 얼굴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Baker, 2013).

이후 몇 년 동안 복원 사업은 오래된 층은 존중하지 않고 건물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보수를 진행했다. Khanjanusthiti는 물질적인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본질인 원본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재현하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입의 본질은 항상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시대의 양식으로 새로운 건축물로 대체하는 것이다.”(1998)

Baker는 방콕의 모든 사리탑을 보수하고 벽화를 다시 그렸던 수도 방콕의 100주년을 언급하며 비슷한 말을 했다.

“...기존 보존 방법은 기념물의 원래 상태를 통합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재건과 재건축이 규범이었다.”(Baker, 2013)

2.2.1. 종교 건물 관리

전통적으로 태국의 종교 건물 관리는 승려가 고문 역할을 하고 군주가 관리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카 프라(Kha Phra)라고 하는 사원 노예가 수행했다. 이 노예들은 버마와의 분쟁에서 군대에 가기를 원치 않거나 전쟁 포로인 경우가 많았다. 1874년 태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사원의 중요도에 따라 사원을 4 종류로 분류하는 제도가 구축되었다.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은 왕이 왕실 사원으로 지은 사원이었으며, 건물과 유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여러 금액을 받았다. 다른 3가지 분류는 중요도에 따라 연간 고정 금액이 지원되었다(Khanjanusthiti, 1998). 그런데 약탈자, 피해 등 사찰과 사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제도도 있었다. 1854년 라마 4세(Mongkut)는 건물에서 80m 이내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피해 또는 사고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인이 피해를 먼저 신고한 경우, 인근 주민이 수리비를 내야 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물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 동안 복원 이유는 종교적 동기만 있다가 민족주의적 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Baker, 2013).

2.2.2. 이념의 변화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재임한 라마 5세(Chulalongkorn)는 복원 방법과 이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태국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국민이 아니라 왕실의 소유였으며 사원 구역 개보수에 대한 공개 논의는 없었다(Sac-Wang, 2017; Siriphatthanakun, 2022). 라마 5세는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을 시작하여 유물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물은 오늘날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 옛 왕궁에 보관되어 있다. 유럽 고고학자들이 태국의 이러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프랑스 공무원은 1850년대 이후 이곳에 머물며 오늘날 캄보디아의 앙코르 같은 유적지를 연구했다. 외국 고고학자들은 석조 유적에 관심이 많았고, 사용 중이던 사원이나 사원 단지 등 목조 구조물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목조 구조물은 너무 화려하고 흥미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고학자와 승려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Khanjanusthiti, 1998).

프라 프랑(Phra Prang) 사원의 복원은 이탈리아의 복원 건축가 Camillo Boito 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 라마 5세의 지시에 따라 왕과 상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으며, 원본 재료와 형식 모두 존중해야 했다. 왕은 낡은 부분을 새 것처럼 보이도록 바꾸지 않아야 하며 현대적으로 보이도록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건축물은 전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이러한 중점이 더욱 변화하게 되었다 (Baker, 2013).

2.2.3. 새로운 세기, 새로운 관리

20세기 초, 바지라부드 국왕(King Vajiravudh)은 보수와 새로운 불상 제작에 중점을 두고 왕실 사원을 관리하기 위해 미술부(Fine Arts Department, FAD)를 설립했다. 몇 년 후 고고학부를 추가하여, 고고학 유적지와 고대 유물을 기록, 연구, 복원하고 유산 관리 책임을 국가로 옮겼다. 담롱 왕자(Prince Damrong)가 소장을 맡은 왕립연구소가 이 작업을 감독했다.

1930년 형태 또는 장식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원본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 유적지와 유물 보존을 위한 원칙을 선포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기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왕립연구소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철거된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버팀벽과 같이 제안을 통한 보존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개보수는 기존 재료와 새로운 재료를 조합하여 이전 기념물을 재건하는 아나스틸로시스(anastylosis)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Baker, 2013).

1932년 태국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혁명을 겪었다. 미술부(FAD)는 초대 대표를 임명하고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1934년 유산의 실질적인 보존을 위한 정책서인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Siriphatthanakun, 2022).

2.2.4. 규정 및 법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은 이전의 규정을 대체하여 유적지와 유물 모두를 다루는 최초의 종합적인 법이었다. 문화재, 특히 종교 문화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법률 중 하나는 14세기 「삼법인법」이 있었다. 「삼법인법」은 주로 불상이나 사찰 구역 등 유물의 도난, 파괴, 변경에 대한 처벌을 다루며 관리나 복원 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사찰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한 신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근처에 사는 이들은 규정 위반을 신고해야

했다. 기념물 및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23년 제정되었으며, 기념물 보존 방법과 재료를 제시하는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926년 FAD는 새로 설립된 예술, 문학, 고고학 왕립연구소의 하위 기관이 되었으며, 유물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외로 밀수된 문화 유물이 많아 사원과 왕실 지역의 약탈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1932년 혁명 이후 왕립연구소는 분리되었고 FAD는 독립 조직이 되었다.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모든 규정을 대체하는 주요 법률이 되었다. 이 법에서는 이전 법률처럼 문화재 파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유물, 문화 기념물, 박물관 등 용어를 정의했다. 소유권에 관계없이 특정 목록에 기념물과 유물을 등록해야 했다. 소유권을 알 수 없는 유물의 경우, FAD는 이를 적절한 박물관에 배정하는 책임이 있었다. 관리의 경우 소유자가 확인되면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개입을 할 경우 FAD의 허가가 필요했다(Sakulpanich, 2012).

1961년에 법에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기념물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고, FAD에게 문화 유물 대상 개입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었고, 문화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Baker, 2013). 태국에서는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이 문화유산 관련 작업의 기준 법률이다.

하지만 2017년 「무형 문화유산 진흥 및 보존에 관한 법」이라는 유산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무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며, 태국의 유산 거버넌스에 추가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의 “고대 기념물”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역사적 도시가 기념물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아유타야만 도시 환경으로 보호받고 있다(Siriphatthanakun, 2022).

이 법 외에도 오래된 건물, 도시 환경, 기념물 등을 다루는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환경 질 향상 및 보존 법」이 있는데, 지방 당국이 FAD가 지정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념물 등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다(Akagawa, 2005).

2.2.5. 혁명 이후

1932년 이후 태국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강력한 국가 건설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목표 중 하나는 옛 수도 아유타야를 활성화하고 신규 주민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3개의 사원이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다. 보존이 중점 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49년 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하면서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많은 보존 사업이 진행되었다(Baker, 2013). 1953년 수코

타이(Sukhothai)에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많은 사원을 개보수했다.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개입 방식을 따랐지만 실제 적극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 외관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했다. 일부의 경우 새로운 석고 층을 바르고 치장 벽토 장식을 추가하여 형태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건물은 원래 형태를 알 수 없는 유적 건축물은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재건되었다(Khanjanusthiti, 1998). 많은 건물의 원래 모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완전한 건축물의 양식으로 재건되어 “수코타이 양식”이 생겨났다. 그 결과 비슷하게 보이는 건물이 많았다. 1960년대에는 재료를 강화하고 건물을 보강하는 대신 아나스틸로시스 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른 지역도 대대적인 복원을 진행했다. 1964년 베네치아 현장이 무시되었다거나 보존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이가 개입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태국에서 광범위한 사회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인프라 사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여러 지역이 파손되기도 했다. 철거를 강력하게 비판한 건축가 중 한 명인 수멧 줌사이(Sumet Jumsai)는 철거 대신 보존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복원을 수행하고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건축가 협회를 설립하는 일에도 관여했다(Baker, 2013).

1970년대에 FAD는 조직 개편을 거쳐 베네치아 현장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유적지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이 언제나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원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현장의 다른 조항에는 중점을 상대적으로 덜 두었다. 이 시대에서 중요한 복원 사업은 건물을 복원하고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전 시대의 행사를 부활시켜 수코타이를 역사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아유타야 및 수코타이의 벽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건되었으며,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었어도 손상된 그림은 보완했다. 1961년 개정된 「고대 기념물, 유물, 예술품, 국립 박물관에 관한 법」은 특히 종교적으로 신성시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 문화유산 해석의 여지를 더 두었다. 적극적인 복원 방법과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폭넓은 추가를 허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비판은 외국에서 제기되었다. 1967년 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ICCROM을 통해 1980년대 들어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이 도입되었다. 벽화 보존가인 완니파 나 송클라(Wannipa Na Songkla)는 승려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론의 균형을 맞추면서 회화의 예불 내러티브를 가독성 있게 유지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라테지오(tratteggio)*라는 기법¹⁹을 사용하여 누락된 부분을 채웠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가까이서 보면 추가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표면이 균일하게 보인다(Bayle, 2011).

수코타이와 비슷한 계획이 1970년대에 방콕 중심부에 수립되었다. 오래된 건

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 또는 재건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철거 후 재건하는 등 역사적 수정이 계획되었다. 신규 건설은 금지되었고 활기 찬 시장 공간으로 변한 과거 개발 공원 지역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역사화 비전 하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1985년 *방콕 헌장(Bangkok Charter)*은 복원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용어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복원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로 정의되었으며, 이전의 복원 작업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을 제거하고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기념비의 “연륜(annual rings)”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Baker, 2013).

2.2.6. 2000년대

2006년 쿠데타 이후 문화유산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생겼고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향은 민주화되었다. FAD는 농업 경관, 역사적 도시, 건축유산 등 새로운 유산 분류 제도를 개발했다. 무형 유산과 유형 유산은 함께 분류하지 않고 별개의 분류로 분리했다. 분류를 위한 가치 기반 제도가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그 예로는 방콕이 수도가 되었을 때 요새 체계의 요새 중 하나였던 마하칸 요새(Mahakan Fort)가 있다. 20세기 초 요새 주변 지역은 중요한 무역 지역으로 발전했고 부유해진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흥미로운 건축 개발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변화했고 2000년대 초 요새를 복원하기로 했다. 태국과 유럽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을 철거하고 공원을 재건하고 주민을 이주해야 했다. 장기간 논의와 여러 집단의 상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2018년 시행되었다(Siriphatthanakun, 2022).

역사주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었던 마하칸 요새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수멧 줌사이는 21세기는 보다 많은 사회적 참여가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형 문화유산은 재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제방과 수문이 강의 흐름을 막아 과일 농사, 수상 시장, 강 관광 등에 의존하는 지역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피해 주민들과 다른 사람들의 항의로 강변 추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생활 방식이 무형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어 인프라 개발 사업보다 우선했다(2013).

Bayle은 벽화 및 그 보존과 관련하여 객체 기반 방법론에서 평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치 기반 제도에 의존하는 주체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Bayle은 기후 변화를 과제로 언급하며 습해지는 기후가 벽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

¹⁹ 이 기법은 균일하게 혼합된 단일한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색상의 작은 붓칠을 사용한다.

했다. 보존 주기의 빈도를 높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입을 위해서는 어떤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011).

3. 결론

스웨덴과 태국은 보존 이념이 발전하고 계속 기능하는 방식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 개요를 제시하기 위해 몇몇 주요 특징을 설명하여 논의를 정리했다.

3.1. 유사점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확인했다.

- 시대 및 글로벌화
- 전문가 주도에서 사회 통합으로
- 병행 트랙 -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노력함

현대의 보존 이념은 스웨덴과 태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진행되었으며, 규정 및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계속 발전했다. 스웨덴과 태국은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없지만 태국의 이웃 국가들은 식민지배를 받아 서구의 영향에 노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태국의 유적지에 관심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학자들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으로 유학을 떠나 문학 및 강연을 통해 새로운 생각이 퍼졌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협업과 지식 교환이 보다 쉬워졌다. 대학, 프로젝트, 기관을 통한 학술 교류는 각기 다른 국가의 작업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및 국제 지침 개발에도 기여했다. 스웨덴과 태국은 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에서 활동하는 유네스코, ICCROM 등 대규모 국제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Weeraphan Shinawatr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서구 문화의 물결이 국가 문화유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2006)

이러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형 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다. 보존에 찬성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년 세대는 무용, 음식 또는 의식에 대해 기성 세대와 같은 수준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공식 기관에서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보존 작업은 전문가가 주도하였으며, 고위 인사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 승려들과 협의하여 취한 사원과 문화유산 지역의 조치에 대한 권한이 가장 크다. 스웨덴과 태국에서는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는 등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논란을 일으켰고, 스웨덴과 태국 모두 철거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주요 인물이 있었다. 이는 하향식 관점에서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일부의 경우 규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유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지향하는 추세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 없이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하지만 정보 교환이 빨라지고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여론에 영향을 미쳐 이목을 끌고 있다.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이념과 사고방식이 동시에 있었으며, 그 동안 문화유산 관리는 완전히 다른 견해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존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등장하면 서도 기존 원칙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은 바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정 사고방식이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새로운 원칙을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존에 대한 여러 접근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주기적인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과 태국에서는 이념적 변화가 있었으며, 과거 복구 노력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거부되었던 과거 방법이 나중에 재검토되어 다시 적용된 사례가 있다. 각기 다른 사업에서 다른 원칙을 동시에 따랐다. 이러한 공존은 유물의 역사적 나이와 기간 긴장 관계를 보여주었다. 역사적 나이는 주로 미적, 물리적 가치와 연결되고 기능은 무형의 문화적 중요성과 연결되었다.

3.2. 차이점

- 사용 중인 유적/건물
- 종교의 지침에 따라 개입
- 무형/유형

19세기 말 서양 학자들이 태국의 역사적 유적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주로 태국 당국이 관리하는 거주 사원이나 궁전보다는 유적이거나 버려진 사원 지역 등 “죽은” 건물을 연구했다. 이렇게 버려진 장소는 옆에서 거주하고 땅을 경작하며 주변을

이용하며 이들에게는 죽지 않은 건물일 것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사원을 짓거나 기존 사원을 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생활 공간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되어 서양 학자들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태국에서 국가는 죽은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 서양 학자들이 승려들이나 왕과 충돌 없이 유적지를 연구할 수 있었다(Khanjanusthiti, 1998). 스웨덴의 경우도 정부 기관이 보존해야 할 유적지를 선정할 때 죽은 문화 환경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스웨덴 문자, 역사, 골동품 학회는 19세기 동안 주로 죽은 유물에 중점을 두었으며(Geijer, 2004), 사용되지 않고 단지 기념물로만 여겨질 경우 주요 교회 복원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차이점은 태국에서 자원은 주로 생활 공간을 유지에 투입되었지만 서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소와 건물에 관심이 더 컸다.

스웨덴과 태국에서 종교는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대에 스웨덴은 세속화되어 교회 건물 수에 비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몇몇 교회에는 방문객이 많지만 예배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용 중인 교회도 그 나이의 가치를 고려하여 다른 유적지와 동일하게 존중해야 하는 문화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용 중인 많은 유물은 오래되고 낡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교가 주요 종교인 태국에서는 공덕 쌓기라는 개념이 여전히 사원에서 예불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재료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상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개안식(eye-opening ceremony)”을 통해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Nichiren Buddhism Library, u.å.). 다시 칠하거나 도금 등 유물을 관리하는 것은 주로 유물을 유지하고 기증자에게 윤회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역사적으로 복구 작업 수행 시 교회의 신도와 사원의 승려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없이 개입이 이루어졌다.

서구 접근법의 주요 관점은 물리적 유산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아시아는 무형 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재료를 새롭게 하는 것이 관습의 일부이며 유물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종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스웨덴의 관점은 이와 반대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유물의 노후화를 허용하는 것이 유물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유지보수 및 개보수는 전면 허용되지만 녹청(patin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질적인 문화유산만 살펴볼 경우 환경과 건물이 박물관처럼 원래 맥락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일상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소외될 수 있다. 한편 이는 유형적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실제 건축 유산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역사주의 관점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새로운 전통과 생활양식을 무시하고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유형적 및 무형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관리로 여겨선 안 된다. Chris Baker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재를 파괴하여 과거를 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거는 태국 문화의 일부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2013)

물론 스웨덴에서도 이러한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래된 도심 등에서는 더 오래되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문화유산이 비공식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는 지역민이 버려진 사원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식, 도시 소수 민족이 광장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통은 무형이지만 유형의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는 공식 및 비공식 유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하다.

물론 모든 환경, 유물, 건물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정은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국가와 문화의 관점을 이해하여 배울 수 있는 이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이며, 이러한 기회를 국가유산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Ahlgren, K., Ahnborg, J., Bergström, A., Bielawski, J., Brandt, P., Ellfolk, J.-E., Gartz, H., Hansing, S., Hanson, D., Hedkvist, S., Hellekant, M., Holmström, M., Hällström, J., Kock, C., Kvastad, K., Legars, M., Lindstedt, K., Månsson, O., Nordman, J., ... Wilund, P. (2004). De stora restaureringarna: Från Uppsala domkyrka till Skokloster. <https://urn.kb.se/resolve?urn=urn:nbn:se:kkh:diva-321>
- Akagawa, N. (2005, september 27). *THE CURRENT ISSUES ON URBAN CONSERVATION IN BANGKOK*. The 2005 World Sustainable Building Conference, Tokyo.
- Baker, C. J. (Red.). (2013). *Protecting Siam's heritage*. Siam Society.
- Bayle, B. B. (2011). Contemporary mural conservation in Thai and Sri Lankan Buddhist monasteries: Some thoughts on culturally integrated conservation policies. *Preprints 16th triennial conference of ICOM-CC, Lisbon*. https://www.academia.edu/4163598/Contemporary_mural_conservation_in_Thai_and_Sri_Lankan_Buddhist_monasteries_some_thoughts_on_culturally_integrated_conservation_policies
- Bedoire, F. (2013). *Restaureringskonstens historia*. Norstedt i samarbete med Kungl. Konsthögskolan.
-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1. [uppl.]). (2001). National Heritage Board [Riksantikvarieämbetet].
- Edman, V. (1999). *En svensk restaureringstradition: Tre arkitekter gestaltar 1900-talets historiesyn*. Byggförlaget.
- 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Restorers' Organisations. (2003). *E.C.C.O Professional guidelines (II) Code of ethics*.
- Geijer, M. (2004). *Ett nationellt kulturarv: Utveckling av en professionell vård och förvaltning av statliga byggnadsminnen*. Institutionen för infrastruktur, Kungl Tekniska Högskolan.
- Génétay, C., & Lindberg, U. (2014). *Plattform Kulturbeskrivning och urval [Elektronisk resurs]: Grundläggande förhållningssätt för arbete med att definiera, värdera, prioritera och utveckla kulturarvet*. Stockholm: Riksantikvarieämbetet.
- Khanjanusthiti, P. (1998).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 in Thailand. *Manusya, 1*(2), 47–71. <https://doi.org/10.1163/26659077-00102005>
- Konvention-om-skydd-for-byggnadskulturarvet-i-europa-granada-den-3-oktober-1985.pdf*. (u.å.). Hämtad 06 november 2024, från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89d2141107b242079fa5ae03761eac18/konvention-om-skydd-for-byggnadskulturarvet-i-europa-granada-den-3-oktober-1985.pdf>
- Laserna, M., & Nilsson, H. (2018, december 1). *Storkyrkan antikvariskt vårdprogram*. Stockholms domkyrkoförsamling.
- Lindahl, U. (2008, augusti 20). Ove Hidemark. *Svenska Byggnadsvårdsföreningen*. <https://byggnadsvard.se/ove-hidemark/>

Mellander Backman, C., Génétay, C., Dahlström Rittsél, E., & Orrje, H. (2022). *Byggnadsanknuten offentlig konst metod för värdering utifrån kulturbeskrivning och estetiska aspekter*. Riksantikvarieämbetet. <http://urn.kb.se/resolve?urn=urn:nbn:se:raa:diva-6331>

Nichiren Buddhism Library. (u.å.). eye-opening ceremony Dictionary of Buddhism | Nichiren Buddhism Library. Hämtad 15 november 2024, från <https://www.nichirenlibrary.org/en/dic/Content/E/109>

Robertsson, S. (2002). *Fem pelare—En vägledning för god byggnadsvård* [Elektronisk resurs]. Riksantikvarieämbetet.

Sae-Wang, R. (2017).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Thailand: Common Barrier and the Possible Way to Survive. *E-Journal of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17*, 133–160.

Sakulpanich, R. (2012). The Development of Law on Tangible Cultural Heritage: Case of the Law on Ancient Monuments, Antiques, Objects of Art and National Museums.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100*, 83–90.

Shinawatra, W. (2006).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ailand: The Drafting of the Charter. *Manusya, Journal of Humanities, 9*(2), 95–102.

Siriphatthanakun, H. (2022). Ancient Monuments or Cultural Heritage: Understanding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Thailand. *Antropologia. Revista interdisciplinaria del INAH, 12*, Article 1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의 문화적 포장

Nicanor L. Guinto²⁰, Brian D. Villaverde²¹,
Amiel Jansen Demetrial²², & Shiela M. Manzanilla²³
남부 루손 주립 대학교, 루크반, 케손, 필리핀
*교신저자: nguinto@slsu.edu.ph, +639910073088

PP.
096-
115

파히야스 축제(Pahiyas Festival)는 필리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축제로 수천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다. 루크반(Lucban) 주민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중요한 문화 행사인 파히야스 축제와 그 현대적 문화 가치는 실증적 조사의 주제로서 간과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Lucban San Isidro Pahiyas Festival)가 지역, 참여 세대와 지방 정부, 전 세계에서 대중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포장되는지 분석하여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주요 담론을 조사하고자 했다. 담론, 관광, 문화 간 융합을 조사하기 위해 Jaworski & Pritchard(2005)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민족지학적 현장 조사를 통해 각 관점, 생생한 경험, 참여자 관찰, 관찰 가능한 표현 등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 결과 지역민들은 파히야스 축제를 키팅, 토착 재료,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이미지 등 주요 상징물을 통해 신에 대한 감사, 공동체 협력, 예술적 표현을 기리는 행사로 담론으로 포장했다. 종교적 뿌리가 그 중심에 있지만 미디어에서는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그 정체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절을 초래한다. 재료비 상승, 참여 감소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적 관련성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세대 간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 교수 III 겸 연구서비스실장
21 조교수 IV & 언어커뮤니케이션인문학부 학과장
22 강사 I
23 부교수 V & 예술과학대학 학과장

1. 서론

오늘날 인기 많은 파히야스 축제(Pahiyas Festival)는 농부의 수호 성인인 산 이시드로 래브라도(San Isidro Labrador)를 기리기 위한 축제로,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의 영향을 받은 종교 축제다(Antolihao, 2014). 케손 주의 루크반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 행렬 동선을 따라 집 밖에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장식된 다채로운 농산물 장식으로 유명하다.

파히야스 축제의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파히야스에 대한 알려진 정보는 대부분 홍보를 위한 것이다. 루크반(Lucban) 주민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중요한 문화 행사인 파히야스 축제와 그 현대적 문화적 가치는 실증적 조사의 주제로서 간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담론으로 포장되어 지역 문화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문화 공동체를 묘사하고 상징하는 파히야스 축제의 담론적 포장에 사용된 언어적 및 시각적 전략을 조사한다.
2.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 형성할 때 기존 및 현대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지역 문화 공동체의 표현을 연구한다.
3. 파히야스 축제의 담론적 포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여 이러한 표현이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결속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전 세계적 자원의 흐름이 '지역' 및 '세계' 간 단절을 발생시키는 현 시대에서(Appadurai 1990 참조), 파히야스 축제 등 문화 행사를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제(현지인, 주최자, 참여 상업 시설, 관광객)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담론을 분석하여 파히야스의 문화적 포장, 특히 이러한 담론 포장의 결과가 지역 문화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루크반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제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주의적 개념에 대한 반해게모니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예: O'Sullivan과 Jackson, 2002 참조).

2. 파히야스 축제의 역사와 발전

필리핀 케손 주의 루크반은 농업 마을로, 웅장하고 푸르른 바나호 산 기슭에 위치해 농업에 이상적인 기후를 갖추고 있다.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농업은 주요 생계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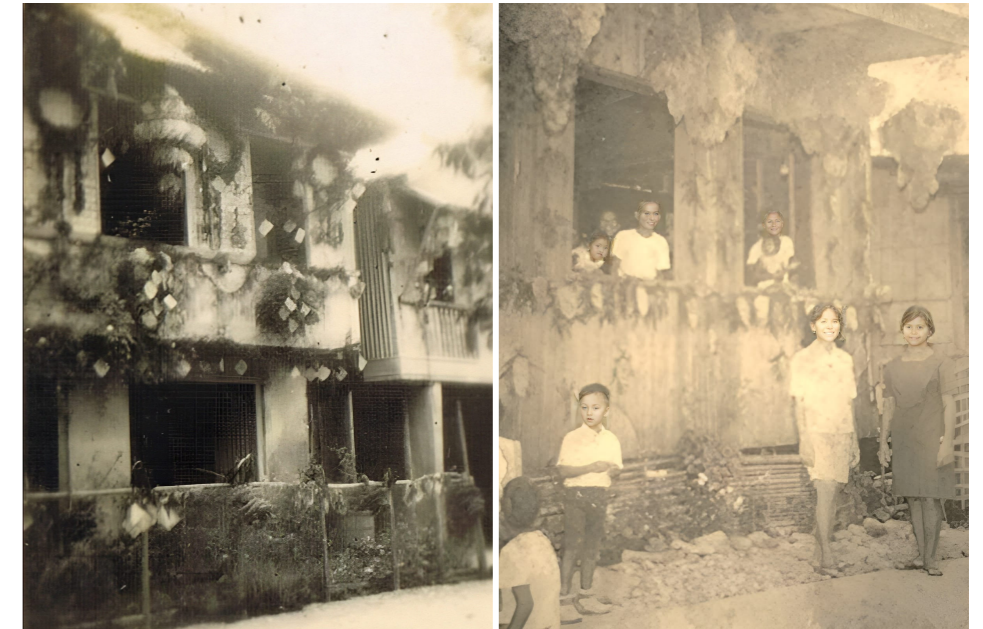


그림 1. 산 이시드로 피에스타의 과거 사진(왼쪽, 1920년, 오른쪽, 1960년대)
(출처: Marvin Calimutan Verano)

으로 자리 잡았다.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로 인해 기독교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의식과 전통은 현재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파히야스 축제)의 토대가 되었다.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파히야스 축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열렸다(Del Rosario 2019, p. 209). 농부들은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축일(5월 15일)에 수확물을 교회로 가져와 농부 이시도르 성인에 감사를 표하고 한해 풍년을 기원했다. 그런데 매년 참석하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성당 부지가 가득 차자 성당에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을 들고 신부가 지나갈 때 축복을 받도록 신자들에게 집 앞에 농작물을 걸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역민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집 앞에 농산물을 전시했다.

1973년 “산 이시드로 피에스타”는 작은 마을의 축제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파히야스 축제”(Antolihao, 2014)로 변모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축제 지역 외부인이 문화유산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 ‘체험 경제’(Pine II and Gilmore, 1998)에 참여하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는”(O'Sullivan and Jackson 2002, p. 325) ‘축제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Alejandria-Gonzalez, 2016).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세속적인 활동과 대회를 통해 축제를 길게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축제 활동은 보통 5월 초부터 시작되지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축일인 매년 5월 15일에 열린

다. 1990년대 지방 정부에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물 경품을 제공했고 이후 축제 후원사가 제공하는 현금으로 경품으로 제공했다. 매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파히야스 축제는 참여 가족과 관광 이해관계자 사이에 '지역'의 문화적 포장 또는 담론적 구성을 연구하고 방문 관광객의 문화적 인식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지난 50년 동안 파히야스는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명소로 빠르게 변화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종교적, 농업적 의식이라는 기원이 불확실해졌고 (Antolihao 2014; Del Rosario 2019, p. 209), 최근 수확량이 좋지 않은 농부들의 곤경을 간과했다(Santos 2020, p. 84). 현지인과 관광객이 모두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프레임워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담론, 관광, 문화의 교차점 연구는 Adam Jaworski와 Annette Pritchard (2005, 5:3-7)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담론 연구와 관련된 연구 설계, 즉 민족지학적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되는 해석학적 연구 설계를 사용한다. Blommaert와 Dong(2010)에 따르면, 민족지학적 현장조사는 커다란 사회적 구성 개념(즉, 거시적)에 대한 지역적 합리성(즉, 미시적)에 주목하여 사회적 구성개념이 실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고, 알리고, 형성하는지, 또는 이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민족지학적 현장조사에는 표준 데이터 수집 도구가 없지만 인터뷰, 도보 조사, 참여자 관찰, 문서 분석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추출한다.

파히야스 축제 담론과 문화적 상관성 분석의 중심에는 이념, 장르(수사학), 실천 공동체 등 담론 연구 개념이 있다.

이념(*Idelology*)이란 “사회적 ‘현실’ 일부와 관련된 근본적이거나 상식적인 주로 규범적인 생각과 태도”이다(Blommaert & Verschueren, 1998, p. 25, Jaworski & Pritchard, 2005, p. 5에서 인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 파히야스 축제 주최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구성원, 관광객, 미디어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을 진행했다. 이러한 질적 접근법은 축제 및 축제 표현과 관련된 인식, 태도, 경험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 파히야스 축제의 이미지, 비디오, 기타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적 요소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의미와 표현을 전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축제의 홍보 자료, 광고, 문서에 사용된

상징, 색상, 이미지를 분석했다.

장르(*Genre*)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제작되는 여러 형태의 매체다. 본 연구에서는 파히야스 동선을 따라 도보 조사, 집 장식, 문화 상품에 대한 사진 기록, 행사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장르를 살펴보았다. 또한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기록 자료, 역사 문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파히야스 축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담론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했다.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란 공동의 목적과 공동체 실천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축제의 담론적 포장과 동원을 형성하는 관행, 의식,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축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경험하며 표현하는지 참여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인터뷰, 도보 조사, 참여자 관찰, 문서 및 시각적 분석 등이 있다. 참여자는 관광객 40명, 문화 전달자 7명, 정부 관계자 2명이었다. 데이터 출처로는 지난 10년간 녹음 및 필사된 인터뷰, 사진, 현장 노트, 언론 보도 등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수칙은 SLSU 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참조 번호: ER-2024-01).

다음 세 절에서는 현장 조사에서 얻은 데이터의 결과와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4. 언어적 및 시각적 요소

파히야스는 루크반족의 유산, 예술성, 종교성을 풀뿌리 수준에서 보여준다. 각 참가 가정에서는 키픝, 토착 재료 등 고유한 상징을 보여주는 기준에 따라 파히야스 축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반영하는 요소를 디자인에 포함할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파히야스 축제의 특징인 언어적 및 시각적 요소는 키픝(*kiping*)과 농산물(4.1절), 종교 의식, 이미지, 텍스트(4.2절) 등 주요 요소의 창의적 재구성을 통해 여러 세대 동안 발전했다.

4.1. 축제의 주요 상징인 키픝과 농산물

다른 추수 축제와는 다른 파히야스 축제의 상징은 쌀, 토착 재료(예: 쌀겨, 채소)로 만든 밝고 다채로운 색에다 잎사귀 모양의 쌀과자인 키픝이 있으며, 참여 현지인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식품 중에서 예술 작품(예: 아란야, 모자이크)이 돋보인다.



그림 2. 키팡과 키팡으로 만든 예술 장식

“Una, ah, yung pinakang-material... edi kiping tapos ay ‘yung mga harvest katulad nung mga gulay, prutas, kung ano-ano pa...”
 (재료는 키팡이고 그 다음은 채소, 과일 등 수확물이 있죠...) - 참여자 5(문화 전달자)

“Ay di nagpapayyas laang kami ng mga ano, native na mga gulay (laughs), mga kalabasa, di ang pinakasentro namin ay yung kiping.”
 (토종 채소(웃음), 스퀴시 등 가진 것으로 장식을 만들지만 키팡이 디자인의 중심이에요.)
 - 참여자 1(문화 전달자)

참여 가정 중 상금을 받는 가정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 명시한 것처럼 디자인에서 키팡과 토착 재료가 중요하다. “키팡의 중요성”과 “토착 재료 사용”은 각각 30%를 차지하며, “예술성 및 창의성”(30%), “전반적인 영향력”(10%)과 함께 평가된다.

그러나 파히야스 축제에 전시하는 키팡의 제조자와 지역 농가 수가 감소하면서 키팡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파히야스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림 3. 농산물과 농산물로 만든 예술 장식

“...sobrang mahal ng kiping ngayon trese dose pambili na ng pagkain ng ibang tao yon...”
 (...키팡(쌀과자)은 지금 12~13페소로 누군가에게는 음식을 살 가격이어서 매우 비싸요.)
 - 참여자 2(문화 전달자)

“Baling mahal ng gulay...ee...bilang magsasaka ay hindi ko pwedeng ipayas lang lahat at ipagbibili ko syempre para sa aking pamilya.”
 (채소는 비싸서... 농부인 저는 모든 채소를 전시하진 않고 가족을 위해 일부는 팔았어요.)
 - 참여자 12(문화 전달자)

“Wala naman kaming taniman, kaya bibili kami sa mga magsasaka para laang magpahiyas...ay wag mo ng itanong kung magkano at mahal talaga...ang mahalaga ay kami ay nagpahiyas.”
 (저는 농장이 없어서 파히야스 축제를 위해서 농부에게 사와야 해요... 정말 비싸니까 얼마냐고 묻진 마세요... 중요한 건 ‘파히야스’를 한다는 거예요) - 참여자 13(문화 전달자)

참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키팡 제조자와 협력하여 키팡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 번 협의한 후에 지방 정부에서는 키팡의 생산 비용을 보조하고 제조자에게서 구매하여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키팡의 시장 가격은 개당 12~15페소지만, 지방 정

부에서는 개당 5페소에 판매하고 있다. 아구스틴 빌라베르데 마을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도가 파히야스 축제가 이시도르 성인을 기리는 다른 축제와는 다른 파히야스 축제만의 상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키팅 생산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4.2. 종교성 표시: 의식, 이미지, 텍스트

종교적 기원과 가치를 찾기 힘든 필리핀의 다른 종교 축제와 달리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는 인터뷰 중 여러 문화 전달자가 강조한 것처럼 종교적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

“Ang Pahiyas festival yung sa Isidro, yan ay simula ng makagisnan ko na dito sa Lucban, yan ay bilang pasasalamat ng mga magsasaka sa kanilang good harvest at saka yung mga, ano, ipinapabibigay na kaloob ng Diyos para sa Lucban.”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는 제가 루크반에서 처음 알게 된 이래로 풍년과 루크반에 대한 신의 은혜에 대한 농부들의 감사를 표시하는 축제였어요.) - 참여자 2(문화 전달자)

“...yan ay sa umpisa pa lang ay yaan ay kay San Isidro Labrador, ng magsasaka. Siya ang nagbibigay ng ano sa tao, para ang ating bayan ay para maging masagana.”

((파히야스 축제는) 농부들의 일꾼인 이시도르 성인의 시작이에요. 루크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지역이 풍요로워지게 했죠.) - 참여자 1(문화 전달자)

5월 첫날 지역의 농부들이 모여 이시도르 성인에게 감사의 의식을 지내고, 지난 한 해의 풍년을 기리고 또 다른 풍년을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은 타가얀(술 마시기) 의식 춤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날에는 십자가 행렬, 산타 엘레나 행렬, 미사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종교 행사가 열린다.

이시도르 성인 축일인 5월 15일에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수백 년 된 세인트 루이스 주교 교회에서 아침 미사로 축제가 시작된다. 미사가 끝나면, 교구 사제와 신자는 농부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 행렬이 축제 동선을 따라 진행된다. 교구 사제는 성수로 각 집을 축복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한다.

행렬 외에도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은 파히야스 축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참조). 보통 참여 가정은 농산물로 집을 꾸미지만, 장식의 중심에는 이시도르 성인의 조각상 또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이시도르 성인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참여 가정은 성인의 이미지 외에도 파히야스에 “일꾼 산 이시드로”라는 큰 글씨를 써서 방문객에게 파히야스 축제가 무엇보다도 이시도르 성인을 기리는 축제임을 보여준다.

파히야스 축제에서 종교성과 창의성 간 연계는 장식 디자인에 표현되어 있다. 루크반에 소재한 카마이 니 헤수스 힐링 교회의 이시도르 성인 농부와 구세주 그리스도 이미지와 같은 종교적 이미지와 “Ipanalangin mo po kami”(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등 신에게 헌신하고 감사하는 문구가 축제의 깊은 영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그림 5 참조). 지역민의 종교는 다양하지만 가톨릭 신자와 일부 비가톨릭 신자는 마을의 풍년을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다.

“I am not after kung anong religion, kung anong ganun, kasi kaya ang message ko ay ‘Thank you Lord’, before ay nung dumaan ang nakamessage ko ay ‘Jesus is the Lord of harvest’, kase although tayo ay may iba-ibang paniniwala, meron naman tayong iisang God sa Kanya tayo nag-o-offer” (저는 한 종교만 추구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사용하는 메시지는 ‘주님 감사합니다’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을 사용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죠.) - 참여자 3(문화 전달자)



그림 4. 다양하게 표현된 이시도르 성인의 모습



그림 5. 감사와 믿음의 언어적 표현

참여 가정에서 종교적 이미지를 넣기로 한 것은 의도적인 결정이다. 그들이 강조했듯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에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Yung San Isidro Labrador kasi s’ya ang pinaparangalan... As much as possible may poon, or image kung wala nung mismong poon.”
(일꾼 이시도르 성인을 기념해요. 가능한 한 성인의 조각상으로 표현하고 조각상이 없는 경우 이미지로 표현해요.) - 참여자 5(문화 전달자)

“Yung ano, yung pangalan ng San Isidro, yun ang pinagdiriwang ng ano, ng Lucban. Yun ang dapat na hindi nawawala sa design.”
(루크반에서 기념하는 이시도르 성인의 이름은 디자인에 항상 포함되어야 해요.) - 참여자 7(문화 전달자)

파히야스 축제는 루크반의 아름다움과 신앙을 보여주어 지역민에게는 신의 축복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고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와 영적 성장을 장려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전통, 창의성, 영성이 조화된 파히야스 축제는 참여자와 참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강력한 경험을 제공한다.

5. 토착, 기존, 뉴미디어의 역할

파히야스 축제의 인기는 토착, 전통, 뉴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루크반인”, 지난 해 축제에 참여했던 이들, 지역 및 전국 방송국, SNS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보고 전국 및 전 세계의 관광객이 케손 주의 루크반 마을을 방문한다.

5.1. 토착 및 기존 미디어

토착 미디어는 파히야스 축제를 주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은 축제를 직접 본 지인, 친구, 가족, 연인의 입소문과 추천을 통해 축제에 대해 알게 되고 축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nalaman ko ang Pahiyas Festival dahil sa kanya sa partner ko. Inindorse niya lang ako dito kasi, talagang first time ako nakarating ng province kaya, sabi ko sige punta tayo. So dun ko nalaman, dun ko naistart malaman kung ano ang Pahiyas.”
(...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파히야스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추천해 주었고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올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파히야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 참여자 3(관광객)

“Ayun, bukod dun, sa word of the mouth na, ma-malalaman- na alam na nila yung Pahiyas Festival, talagang nakakaabot din siya kahit sa mga hindi pa alam.”
(그 외에도 입소문을 통해서 파히야스 축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파히야스 축제를 알게 돼요.) - 참여자 11(관광객)



그림 6. 2024년 5월 15일 방영된 GMA 네트워크의 모닝 쇼 우낭 히릿의 2024년 파히야스 축제 전국 텔레비전 보도 화면

또한, 기존 미디어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파히야스 축제는 필리핀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취재하는 행사다. 축제 당일 아침에는 다양한 언론에서 뉴스 및 잡지의 한 코너로 축제를 소개한다.

“Siguro dati sa ano sa, GMA. And then ngayon kasi is diba siyempre lumalawak na yung social media so kumbaga may mga vloggers na rin na nagsho-showcase nung ano about sa Pahiyas Festival ayun.”
(이전에는 GMA를 통해 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SNS 보급으로 인해 파히야스 축제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도 있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 참여자 4(관광객)

“최근 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아들은 축제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아들이 제가 나스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5월 15일에 이곳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말해줬어요.” - 참여자 8(관광객)

“I ah already heard about the fe-this festivity, in Quezon, Lucban Quezon, particularly in Lucban City no? So dati nakikita ko lang siya on, TV on, commercials...”
(케손 주의 루크반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었어요. 예전에는 TV나 광고로만 축제를 봤어요...) - 참여자 9(관광객)

토착 및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는 지식 전파의 도구 이상으로 미디어의 세 가지 이념적 기능인 재현, 정체성, 관계를 통해 지식, 신념, 가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정체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Fairclough, 2006, p. 2). Fairclough(2006)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할 때 Halliday(1994)의 체계적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을 통한 변증법적-관계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Kress



그림 7.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라이브 방송에서 키팡(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상단: 2016년 우마강 케이 간다, ABS-CBN; 왼쪽 하단: 2016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1~2024년 오라스 위크엔드, GMA 네트워크)

와 Van Leeuwen(2006)은 Halliday의 언어의 메타기능(관념적, 대인관계적, 텍스트적)에서 표현적, 대인관계적, 구성적 기능 등 시각적 문법의 3가지 메타기능을 도출했다. 시각적 문법의 메타기능 중 표현적 기능은 미디어 텍스트(이미지)가 특정 주제와 이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한다.

이 절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파히야스 축제 방송에서 나타난 상징적 구조를 통해 기존 국가 미디어에서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와 지역 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존 국가 미디어의 생방송에서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동안 집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요소 중 키팡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도되었다.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GMA 네트워크의 아침 뉴스 쇼인 우낭 히릿에서 여러 색의 키팡(쌀과자)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했다. 2021년 케손 주 루크반 지방 정부는 페이스북에서 축제를 생중계했으며, GMA 네트워크에도 소개되었다.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키팡으로 만든 *아랑야*(상들리에)가 축제 생중계 현장을 둘러싸고 있다.

언론에서 축제 보도에서 강조한 또 다른 요소는 집 장식으로 사용된 현지 농산



그림 8. 루크반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방송에서 전경에 등장한 농산물(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상단: 2016년 우마강 케이 간다, ABS-CBN; 왼쪽 하단: 2023년 아이주안데르,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2년 발리탕 남부 타갈로그, GMA 지역 TV)



그림 9.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취재에 전경에 등장한 현지 제품(오른쪽 상단: 2013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왼쪽 상단: 2015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오른쪽 하단: 2023년 아이주안데르, GMA 네트워크; 왼쪽 하단: 2024년 우낭 히릿, GMA 네트워크)



그림 10. 2015년 산이시드로 파히야스 축제 보도 (Unang Hirit, GMA Network)

“Mayroon din syempre na mga ibinibidang mga ani nila, kanilang mga ani, bilang pagbibigay pugay at pasasalamat kay San Isidro Labrador, ang kanilang patron saint...” (00:52-01:03)

(물론 수호 성인이자 일꾼 이시도르 성인에게 바치는 공물이자 감사의 표시로 수확물을 바쳤다.)

물이었다. 여기에는 집 밖에 꿰매거나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한 룬티앙 아니(녹색 수확물)라는 다양한 채소가 있다. ‘긴통 부틸(황금 곡물)’이라고 하는 말린 벳짚도 취재에 사용된 디자인 몽타주에 등장했다.

또한 현지 제품도 보도에 포함되었다. 특히 랑고니상 루크반(돼지고기 소시지)은 하디네라 및 판싯 하팍(국수)과 함께 거의 모든 보도에 등장했다. 다른 제품으로는 브로아스(레이디 핑거), 엠부티도, 티코이 등이 있었다.

기존의 국내 언론은 파히야스 축제를 종교적 행사가 아닌 케손 주의 루크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세속적인 축제로 표현했다. 그 예로 일꾼 이시도르 성인이 화면에 등장하지만 내레이션과 화면의 이미지 간 단절이 관찰된다.

Kress와 van Leeuwen(2006)은 미디어에서 아이디어를 시각적 및 텍스트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프레임에는 축하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내레이션이 있지만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속적 활동이라는 언론 보도 분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모두 로마 가톨릭 신자는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5.2. 뉴미디어: 파히야스의 축제 및 영적 핵심 알리기

방문객은 생생한 장식과 진심 어린 신앙의 표현이 영적인 경험을 조성하는 파히야스만의 축제에 몰입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신앙과 깊이 연관된 다채로운 디자인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영적 형태를 제시한다.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 “인스타에 올릴 만한(Instagrammable)” 그림 같은 집들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서 경험을 공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공유는 파히야스 축제의 축제성과 영적인 특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과급 효과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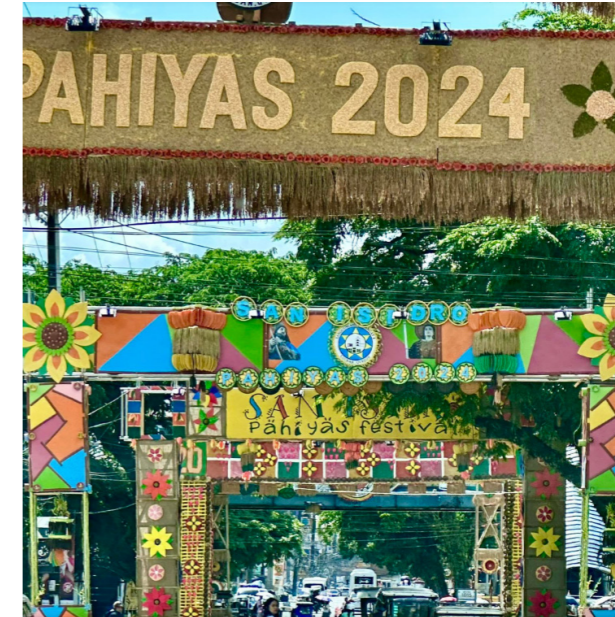


그림 11. 필리핀의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미디어인 필리핀 스타의 페이스북 게시물

“Ahm I just heard about it through, mga ano, mga online communications, things like that, and I’ve-I’m an avid traveler so I get to hear about these things.”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소식을 자주 찾아봐요.) - 참여자 7 (관광객)

“Yes, totoo. Malaking factor talaga ngayon yung social media para, sa-makaengganyo ng mga ano, ng mga pupunta sa isang bayan. So yun.” (네, 맞아요. 요즘 SNS는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요.) - 참여자 10 (관광객)

실제로 4월 마지막 날부터 필스타(Philstar)와 같은 매체가 축제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면서 파히야스 축제는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특히 SNS에서 정보를 찾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 페이스북, 틱톡, 기타 SNS 등의 게시물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정체성 형성 및 지역사회 결속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파히야스 축제는 해마다 유치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농산물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왔다. 이러한 현실은 집의 디자인과 장식을 주도하는 키팅 제조자 및 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도보 조사한 거리에서 장식이 없는 많은 가정을 발견했다. 과거

바랑가이(마을) 공무원이었던 제보자에 따르면, 바랑가이 공무원들은 일부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지 않는 집의 외관을 간단하게 꾸몄다고 한다. 이는 관광객에게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참여에 대한 관심이 줄고 상금이 장식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일부 참여 가정도 있지만, 참여는 단순히 상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가족의 창의적인 표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파히야스 축제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집을 꾸미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12.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와 가족

“Aba ay ang pinakamahalaga ay marunong kang magbigay, tumanggap, at magpasalamat. Yuon ang ano natin.”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예요.) - 참여자 2 (문화 전달자)

“Siguro po yung mga ganito, yung mga pagpapahiyas po talaga kasi parang nagkakaroon din ng parang tradisyon po ba sa pamilya na nagkakasama-sama, nagtutulong-tulong.”

(장식하는 관행은 가족끼리 모여 서로 돕는 것이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 참여자 4 (문화 전달자)

“Sa practices, mas okay sana siguro yung ano, yung pagtutulongan ng family o kaya ay nung mga kamag-anak o kaya kapitbahay kasi yun talaga yung kalimitang nakikita ko before eh.”

(이전에도 이런 관행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가족 또는 대가족, 심지어 이웃 간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 참여자 5 (문화 전달자)

파히야스 축제는 예술의 수도라고 불리는 케손 주의 루크반인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며 루크반인의 수호 성인인 일꾼 이시도르 성인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다. 파히야스 축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돕고 수호 성인에게 감사를 표하여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하는 축제이기도 하다(그림 8 참조).

7. 결론

파히야스 축제는 신에 대한 감사, 공동체 협력, 창의적 표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언어적, 시각적, 물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민들이 담론적으로 구성하고 매개한다. 파히야스 축제는 지역사회가 단결하여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 장인을 지원하며, 신앙과 창의성을 다채롭고 진심으로 표현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활기찬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파히야스 축제는 종교적 및 공동체적 뿌리가 있음에도 대중매체와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종교성, 가족 단결, 공동체 결속을 강조하려는 현지인의 노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이시도르 성인에 대한 헌신은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지역의 의도와 전 세계적 표현 사이의 이러한 단절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보다 상업화된 내러티브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역민의 축제 참여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장인들에게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파히야스 축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매력과 문화적 의미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lejandria-Gonzalez, M.P. (2016).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An Analysis of Challenges and Orientations. *Journal of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ity & Tourism* 17 (4): 496–515. <https://doi.org/10.1080/1528008X.2015.1127194>.
- Antolihao, L. (2014). From Fiesta to Festival: Tourism and Cultural Politics in the Philippines.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no. 15. Retrieved from <https://kyotoreview.org/yav/from-fiesta-to-festival-tourism-and-cultural-politics-in-the-philippines/>.
- Appadurai, A. (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Theory, Culture & Society* 7 (2–3): 295–310. <https://doi.org/10.1177/026327690007002017>.
- Blommaert, J. & Dong, J. (2010). *Ethnographic fieldwork: A beginner's guide*. Multilingual Matters.
- Boquet, Y. (2017).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The Challenges of Tourism. In Boquet, Y. (Ed.), *The Philippine Archipelago*, by Yves Boquet (pp. 737–77). Springer Geography.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51926-5_21.
- Del Rosario, P. B. (2019). Hermeneutic Analysis of the San Isidro Pahiyas Festival as a Development Communication Medium in Lucban, Quezon, Philippin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Insights*, 2(2): 203–20. <https://doi.org/10.1108/JHTI-01-2019-0002>.
- Fairclough, N. (1996). *Media discourse*. Arnold.
- Gonzalez, N.V.M. (1998). The Maker of Dreams in Filipino Life and Letters. *Amerasia Journal*, 24 (3): 115–25. <https://doi.org/10.17953/amer.24.3.rr35876j1r18j826>.
- Jaworski, A. & Pritchard, A. (2005). *Discourse, Communication, and Tourism*. Channel View.
- Kress, G. & van Leeuwen, T.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Routledge.
- O'Sullivan, D. & Jackson, M.J. (2002). Festival Tourism: A Contributor to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0(4): 325–42. <https://doi.org/10.1080/09669580208667171>.
- Pine II, B.J. & Gilmore, J.H. (1998). Chapter 2: The experience economy: past, present and future. In Sundbo, J. and Flemming, S. (Eds.), *Handbook on the Experience Economy* (pp. 21–44). Edward Elgar.
- Santos, J.P. (2020). Crisis of Values' in Rhetorical Architecture: Creative Cities Discourse and the Urban Landscapes of the Philippines. In Gu, X., Lim, M.K., & O'Connor, J. (Eds.), *Re-Imagining Creative Cities in Twenty-First Century Asia* (pp. 77–94).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030-46291-8>.

이 프로젝트의 기타 산출물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pahiyas/home>

5년 지속가능성 계획:

<https://drive.google.com/file/d/1RgjbFnw4MYTzhIv8q9cU7gxexuUvfGvG/view?usp=sharing>

시청각 프레젠테이션:

<https://drive.google.com/file/d/1CdJGyn7Cw33wKaQtE7ADDnzzdMAjLcNV/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9fm-K920xXS4sQMB0jTWdWo32xfcX3Jo/view?usp=sharing>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관광 공해는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서울과 스톡홀름의 비교 사례 연구

Sandra Såger

미술사학과 보존학 과정 담당자 및 대학 강사,
SAWA 안티크바리에 AB CEO 겸 보존학 책임자

*교신저자: Sandra.sager@konstvet.uu.se / sawaantikvarier@gmail.com

PP.
116-
135

초록

관광과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 관광지는 전 세계 관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유산의 진정성, 유적지의 무결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관광 공해”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감라스탄을 중심으로 도시 문화유산 유적지가 관광 공해의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본 연구는 관리 관행을 비교하여 진정성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며 관광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파악한다. 본 분석은 유네스코 및 ICOMOS의 국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며, 각 보존 이념이 관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보존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사회 참여,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색인어: 관광 공해, 도시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국제 제도, 사례 연구

1. 서론

필자는 2024년 봄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던 중 방문객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다. 변화한 관광지가 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표지판이었다(그림 1). 이러한 경험은 도시 문화유산이 관광의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표지판이 없어서 연구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문화유산 유적지는 관광 공해의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문화 유산은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산 목적지는 전 세계 관광 산업의 40%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초기 개념에서 CO2 배출 및 폐기물 등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여겨지는 관광 공해 현상을 연구한다. 그렇지만 연구 범위는 확대되어 과밀, 부적절한 방문객 행동, 지역민을 희생시킨 관광객 중심 서비스 우선 등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까지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배출량이나 인프라 부담 등 환경적 영향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본 연구는 어떻게 관광 공해의 개념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감라스탄 같은 도시 환경의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계획과 전략에 통합되는지 조사한다. 이 유적지들은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은 비슷하지만, 관광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리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두 유적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도시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리 계획에서 관광 공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존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맥락을 비교하여 각기 다른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 증가하는 관광 압박에 대응하여 유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유네스코 및 ICOMOS 국제 문서에서는 관광과 문화유산이 국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존 맥락에서 관광에 대한 논의는 스웨덴보다 한국에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1.1. 연구 목표

서울과 스톡홀름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 유산에서 관광 공해가 어떻게 정의되고, 인식되고, 관리되는지 연구한다.

1.2. 연구 목적

- 유네스코 및 ICOMOS 등 국제 제도가 관광 공해와 그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다.

- 서울 북촌 한옥마을과 스톡홀름의 유적지 사례를 통해 두 유적지의 관리 전략을 연구한다.
- 지역 보존 및 관광 전략에서 관광 공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지 파악한다.
- 본 연구의 목표는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존하는데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평가한다.

2. 문헌 검토

문헌 검토의 목표는 관광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관광 공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관광 공해,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및 관련 국제 지침을 검토한다.

2.1. 관광 공해의 개념

처음에 관광 공해는 CO2 배출, 폐기물, 지역 인프라에 대한 부담 등 관광 활동의 증가로 인한 환경 악화로 개념화되었다. 하지만 관광 공해라는 용어는 인구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사회의 생활 방식 붕괴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것으로 발전했다. 관광 중심 개발은 지역 문화 가치의 보존보다 방문객의 요구를 우선하여 이러한 영향은 유적지의 진정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관광 공해라는 용어에서 이는 사회적 영향을 말한다.²⁴

2.2. 관광과 문화유산과 관계

관광은 세계 최대 경제 부문 중 하나이며,²⁵ 문화유산 관광은 전체 관광의 40%를 차지하고 2023~2027년 매년 20.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⁶ 관광 부문은 유형 및 무형 문화재를 연구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연계를 촉진한다.²⁷ 이전 연구에 따르면 관광은 성공을 위해 중요한 관광지로서 문화유산에 의존한다고 한다.²⁸

관광은 문화유산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관광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유

²⁴ Dallen J, 2011; Germier-Hamel, 2018; Nilsson & Johansson, 2017; European Commission, 2019;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²⁵ Brooks, 2001-2002

²⁶ Akel & Shairf, 2024; Grigol Robakidze University, 2024

²⁷ Ahmed, 2023, ss. 45-46; Grigol Robakidze University, 2024

²⁸ European Commission, 2019, ss. 16, 24

적지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방문객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서 지역의 유산을 체험하도록 한다.

하지만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은 상당하며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²⁹

- **진정성 상실:** 관광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산을 상업화할 경우 진정성이 상실되고 방문객 경험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³⁰
- **과밀화:** 너무 많은 관광객은 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에 부담을 주어 과밀화를 초래하고 관광 체험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과밀화는 유적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³¹
- **젠트리피케이션:** 관광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 인플레이션, 지역 상업화 등에 따라 오랜 기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밀려나게 될 수 있다.³²
- **문화적 혼란:** 관광객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파괴하여 문화적 역학을 변화시키고 전통, 무결성, 중요성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³³
- **상충되는 목표:** 보존 우선순위와 관광 개발 간의 격차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미적 가치가 가려질 수 있다. 이는 지역민과 방문객의 기대 간 갈등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³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은 관광객과 방문객 사이에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유적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민은 정체성의 일환으로 유적지를 보며 관광객은 상품으로 본다.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많은 사례를 보면, 관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다.³⁵

2.3. 이해관계자 및 그 역할

문화유산 유적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 간 다음의 협력이 필요하다.

29 European Commission, 2019; Dallen J, 2011; Brooks, 2001-2002; Ahmed, 2023; Akel & Shairf, 2024; Jong, 2018
30 Dallen J, 2011
31 European Commission, 2019; Germier-Hamel, 2018; Dallen J, 2011
32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Dallen J, 2011
33 European Commission, 2019
34 European Commission, 2019; Akel & Shairf, 2024; Brooks, 2001-2002
35 European Commission, 2019; Dallen J, 2011

- **국가 관리 당국:** 정책 및 전략 프레임워크를 감독한다.
- **지역사회:** 많은 유적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³⁶
- **관광 사업자 및 개발자:** 지속 가능한 관행과 지역 참여를 담당한다.³⁷
- **문화유산 분야:** 보존 및 보전을 담당하는 실무자, 기관, 조직³⁸
- **방문자:** 지역사회와 유산 보존을 존중하여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³⁹

2.4.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을 위한 관리 전략

연구에서는 관광 개발과 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 지속 가능한 관리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관광 수요와 유산 보존 간 균형을 맞추면서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것이다.⁴⁰ 다음은 주요 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 **지역사회 참여:** 관광 계획 및 관리에 지역사회 참여는 유산 보존 노력이 지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돕는다.⁴¹
- **수용력 관리:** 방문객 수에 제한을 두고 비수기 관광을 홍보하여 과밀화를 완화하고 유산 유적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통합 관리:** 효과적인 관리에는 지방 당국, 유산 전문가, 관광 사업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⁴²

이전 연구와 국제 문서에서 관광지이기도 한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은 일관성을 보인다.

- **포용적 거버넌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관점⁴³
- **증거 기반 계획:** 관광 영향 및 유적지 수용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⁴⁴ 균형 잡힌 유적지 관리: 방문자 접근과 보존 목표를 융화하는 전략⁴⁵
- **교육 및 인식:** 관광객, 지역민,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⁴⁶

36 Brooks, 2001-2002; European Commission, 2019; Dallen J, 2011
37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38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39 European Commission, 2019
40 European Commission, 2019
41 Brooks, 2001-2002; European Commission, 2019
42 Ahmed, 2023; European Commission, 2019
43 European Commission, 2019
44 European Commission, 2019
45 Ahmed, 2023; European Commission, 2019
46 European Commission, 2019

- **현지 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유적지별 사업 및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⁴⁷
- **시즌별 분포:** 관광 시즌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유적지 부담 감소
- **부문 간 협업:** 문화, 경제, 지역 정책을 통합하여 목표를 조정⁴⁸

이러한 전략과 권고사항은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의 핵심이며, 지속 가능한 관리, 사회경제적 효과, 문화적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⁴⁹

2.5. 관광이 도시 유산에 미치는 영향: 유네스코 및 ICOMOS의 관리 원칙

UNESCO와 ICOMOS의 국제 제도에서는 문화유산 유적지 관리에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유적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존중하면서 관광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점도 중요하고 강조한다. 또한 관광 개발을 지역사회의 필요와 유산 가치 보존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속 가능한 관행, 지역사회 참여, 유형 및 무형 유산 보호를 우선한다.⁵⁰

2.5.1 유네스코

도시유산은 도시 유적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세계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결속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 및 무형으로 정의된다.⁵¹ 유네스코가 2012년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지속 가능 관광 사업의 목표는 관광과 세계유산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여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관광 모델을 수립하고 관광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복지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과제가 정의되었다.

-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책의 부족
-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 지속 가능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지 주인의식과 역량의 한계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이해 부족⁵²

47 European Commission, 2019

48 European Commission, 2019; Nilsson & Johansson, 2017, s. 13

49 European Commission, 2019; Nilsson & Johansson, 2017

50 UNESCO, UNESCO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2012;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2011; ICOMOS,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1996), 1996

51 UNESCO, 2011

52 UNESCO, 2012; Nilsson & Johansson, 2017

유네스코는 지속 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협업 및 핵심 가치:**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유적지 고유의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강조한다.⁵³
- **전략적 단계:** 관광에 대한 이해, 문화유산 유적지에 대한 이해, 실행 가능한 전략화, 이해관계자 조직화, 지역사회 참여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과 인프라 개발을 확보한다. 그리고 현지 상황을 인정한다.⁵⁴
-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의 참여는 진정성 제고, 문화적 무결성 보호, 공동의 책임감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⁵⁵
- **경제 개발:** 관광 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복지와 균형⁵⁶

2.5.2 ICOMOS

유산 관광 국제 헌장은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관리를 목표로 한다. 문화유산 유적지의 관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유산 관광 국제 헌장에서는 사회적, 미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및 경제적 측면 등 문화유산 유적지의 유형적 및 무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관광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 등 사용을 무한정 할 수 없는 지구 자원의 일부다. 문화유산 유적지에서 관광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하다.⁵⁷

여러 문서와 헌장에서는 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⁵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산 중심 관리:** 문화유산은 전략적 관광 계획과 유적지 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관리에는 각 이해관계자, 정부, 여행사, 관광업체, 여행지 관리자, 유적지 관리 당국, 기획자, 유산 및 관광 전문가, 시민사회, 방문객이 참여한다.⁵⁹
- **지속 가능성 및 지역사회 회복력:** 회복력 구축, 기후 행동, 위험 평가를 통해 관광의 이익과 과잉 관광으로 인한 위험 간 균형을 맞춘다. 문화유산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⁶⁰
- **지역사회 권리:** 지역 이해관계자를 유산 관리에 다시 연계하고 참여시켜 관광

53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4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5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6 33 Nilsson & Johansson, 2017; UNESCO, 2011; UNESCO, 2012

57 ICOMOS, 2022

58 ICOMOS, 2022; ICOMOS, 2008

59 ICOMOS, 2022; ICOMOS, 1996

60 ICOMOS, 2022; ICOMOS, 2010; ICOMOS, 2011; ICOMOS, 2018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한다. 지역사회의 유형 및 무형 유산에 대한 권리 또한 확보한다.⁶¹

- **전통 지식 반영:** 지속 가능한 유산 관리를 달성하는 데 전통 관행의 역할을 인식한다.⁶²

2.6. 문헌 검토 요약

“관광 공해”는 관광이 인구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진정성에 대한 위협 등 문화유산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 지역사회 참여, 환경 보존과 경제 개발 간 균형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재정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문화유산 유적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이면서 경제성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3.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와 사례 연구 분석을 포함한 정성적 방법을 융합하여 활용했다. 다음 절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 사례 연구 선정 기준, 분석 방법 등 방법론적 접근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1. 데이터 수집 접근법

데이터 수집의 1차 방법은 문헌 검토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2차 데이터를 수집했다. 문헌 검토에서는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관광 공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게재된 연구, 보고서 등 학술 문헌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후 현장, 프로그램, 보고서 등 유네스코 및 ICOMOS 문헌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를 조사했다. 문헌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관광, 관광 공해, 문화유산이며, 이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인했다. 사례 연구의 경우, 현지 관리 전략, 관광 영향, 이해관계자 데이터와 함께 유적지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사례 연구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정부 보고서와 웹사이트였다.

3.2. 사례 연구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비교 접근법에 따라 서울과 스톡홀름의 두 사례 연구 유적지를 신중하게

61 ICOMOS, 2022; ICOMOS, 1975; ICOMOS, 2008; ICOMOS, 2010; ICOMOS, 2014; ICOMOS, 2017; ICOMOS, 2018

62 ICOMOS, 2022; ICOMOS, 2017

선정했다. 두 사례 간 비교 가능성과 관련성을 위해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했다.

- **유적지 유형:** 중요한 관광지인 문화유산 유적지
- **역사적 사용:**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성과 원래 기능
- **현재 사용:** 관광 활동과 관련된 현재 기능
- **국가적 인지도:** 유적지의 국가적 인지도 또는 중요성 정도
- **문서화된 문화적 가치:** 기존 문헌이나 유산 등록부에 문서화된 문화적, 역사적 또는 상징적 가치
- **관리 전략:** 유적지와 관광의 영향을 모두 관리하기 위한 전략
- **관광지 상태:** 주요 관광지로 지정된 유적지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본 연구는 선택된 사례 연구들이 비교 가능하고 유사한 수준의 관광 및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들을 대표하도록 보장한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각 사례 연구 유적지의 연구는 다음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 **역사적 맥락 및 발전:** 각 유적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하고 시간에 따른 발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했다. 과거와 현재의 유적지 인구 구조를 조사했다. 이 절에서는 유적지의 중요성에 기여하는 유형 및 무형 유산과 젠트리피케이션,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밀화 등 문제도 다룬다. 이는 시간에 따라 유적지의 사회적, 문화적 무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관리 전략:** 지역사회 참여 등 보존 전략을 평가하고, 전략이 관광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한다. 현지 관리 계획은 늘어나는 관광 압력 하에 유적지의 문화적 및 물리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비교 분석:** 두 유적지를 비교하여 관광 공해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파악하고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비교 분석에서는 유네스코 및 ICOMOS의 제도, 지침, 현장을 비교 분석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또한 관광 공해라는 용어는 두 유적지 간의 비교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3.4. 방법론적 한계

방법론의 종합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 **1차 데이터 부재:**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1차 현장 조사

또는 사례 연구 유적지에서 직접 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방문객, 유산 및 관광 관리자의 직접적인 관점을 수집하지 않았다.

- **사례 연구 선택 및 비교:** 선정된 사례 연구는 가치 있는 비교가 되지만 비슷한 관광 관련 문제를 겪는 모든 유형의 유산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 또는 문화유산 유적지에 일반화할 수 없다. 두 유적지(북촌과 감라스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국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관광 관리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관광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해석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 **데이터 가용성:** 게재된 연구와 보고서에 의존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종합성이 공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유적지에는 관리 계획이나 인구 통계 데이터가 충분히 상세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아 분석의 정확성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례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사례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한국 서울에서 선정한 유적지 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 관리 계획의 존재 여부, 데이터 접근성, 관광의 영향을 받는 거주민의 존재 여부 등이 있다. 표 1에는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적지들에 대한 평가가 요약되어 있다.

4.1. 북촌 한옥마을

북촌은 북쪽 마을이라는 뜻이며, 낮은 높이의 주택이 모여 있고 좁은 골목은 마을의 공공 공간 역할을 하며⁶³ 높은 담장 안쪽에는 주민의 사적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 절에는 유적지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중요성,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관리 전략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요약했다. 이는 관리 계획,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공식 웹사이트,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4.1.1 역사적 맥락 및 문화적 중요성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인 한옥이 밀집한 역사 지구다. 북촌 한옥마을은 조선 시대(1392~1897년)에 조성된 마을로, 양반 가문이 살던 곳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를 보면 그 역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촌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및 20세기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⁶³ Min, 2023

표 1. 사례에 대한 기준

기준	북촌 한옥마을	감라스탄
유적지 유형	역사적인 주거 마을	역사적인 주거 마을
역사적 사용	조선 시대 지배층을 위한 주거용 주택	스톡홀름 왕가의 성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
현재 사용	거주 지역 및 관광지	거주 지역 및 관광지
국가적 인지도	역사 및 문화유산 지구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
문서화된 문화적 가치	예	예
관리 전략	예	예
관광지 상태	예	예

북촌 한옥마을은 과잉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경관과 지역사회 역학을 변화시킨 문제를 겪고 있다. 1970년대 전통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⁶⁴

전통 한옥은 조선 시대와 이성계의 건축적 및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⁶⁵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민영화 및 한옥 건축에 근대적 재료의 도입이 진행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개화파 구성원 및 독립운동가로서 여전히 권력과 연계되어 있었다.⁶⁶ 독립 이후에도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도시 변화에 따라 북촌 한옥마을의 인프라가 변화했다. 1970년대 서울의 재정비는 북촌마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북촌마을의 기존 건물은 용도가 변경되었다.⁶⁷

북촌마을은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산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한옥과 거리 등 유형적 요소와 지역사회의 전통과 정체성 등 무형적 요소가 융합되어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북촌마을은 그 보존 노력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와 활기찬 지역 사회 생활은 북촌 한옥마을의 문화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⁶⁸

4.1.2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북촌 한옥마을은 주거 기능 및 관광 관련 상업 활동이 합쳐진 복합 용도 지역으로 발전했다. 한옥은 현재 개인 주택,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장인 공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 중 약 73%는 주거 용도, 9%는 다목적 건물, 6.4%는 상업 활동 용도로

⁶⁴ Min, 20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d.

⁶⁵ Hanok Village: Bukchon, u.d.

⁶⁶ Hanok Village: Bukchon, u.d.

⁶⁷ Hanok Village: Bukchon, u.d.

⁶⁸ Min, 2023; The Bukchon plan, u.d.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다세대 주택 등 여러 건물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⁶⁹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그 문화유산이 핵심이다. ‘공정 여행 캠페인’ 등은 과잉 관광을 완화하고, 역사 체험 등 지속 가능한 방문객 경험을 촉진하고,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을 위한 마을 전략에 통합했다. 서울시는 유적지 원래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촌 한옥마을 부동산을 매입했다. 관광 산업으로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과밀화와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일부 지역민이 이주하고 지역사회의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한옥의 위상 유지, 관광지 조성에 노력을 집중했다.⁷⁰

4.1.3 관리 전략 및 보호

1970년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건물 보존에 대한 우려로 보존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하향식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정부 당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다. 1983년 서울시는 북촌 한옥마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 다층 건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경되어 마을 경관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었지만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전통 건물이 철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후 정책은 지역 협회의 요구로 지역민, 시민단체,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했다.⁷¹

21세기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 전략은 2001년 이후 “도심 관리 계획” 및 2001~2004년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중 압박을 해결하도록 발전했다. 현재 관리 계획에는 지방 정부, 주민, 유산 전문가 간 협력, 건물 높이 규제, 유산 보존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철거 위험 최소화 등이 있다. 2018년 다른 관광 관리 조치와 함께 관광 시간 제한 등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관광객 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과 지역사회의 필요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² “도심 관리 계획”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통 가옥을 등록하는 것을 도입했다. 관리 계획은 문화 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성공적이었다.⁷³

69 Min, 20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d.; Jong, 2018; The Bukchon plan, u.d.

70 Germier-Hamel, 2018; Min, 2023; The Bukchon plan, u.d.; Min, 2023

71 Jong, 20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d.; Hanok Village: Bukchon, u.d.

72 Min, 2023; Jong, 20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d.; The Bukchon plan, u.d.

73 Min, 2023; Jong, 2018

한국에는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등 문화유산은 4가지로 분류된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건축물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제와 구역 설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는 고층 건물을 금지했다. 북촌 한옥마을을 규제하는 보존 전략은 한옥과 현대식 주택을 융합하여 미적 및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민감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비한옥 건물을 한옥으로 바꾸고, 유적지 본래의 특성을 복원하고, 전통 건축 보존에 노력한 것도 전략의 일환이다.⁷⁴

4.2. 감라스탄

감라스탄은 구시가지라는 뜻이며, 높은 주택들이 줄무늬 패턴으로 강변에서 높은 중앙 지역의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다. 작은 폐쇄된 안뜰이 있는 몇몇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완전히 개발되었다.⁷⁵ 다음 절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중요성,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관리 전략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요약했다. 이는 관리 계획,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공식 웹사이트, 보호 근거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4.2.1 역사적 맥락 및 문화적 중요성

감라스탄은 중세에 뿌리를 둔 보존이 잘 된 도시 지역이다. 중세 시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 보호되었으며 상인 주거지 등 건축물이 있었다. 초기부터 스웨덴의 상업,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13세기 중반부터 존재한 스톡홀름 역사의 중심지다. 스톡홀름의 북쪽과 남쪽 사이의 섬에 위치한 감라스탄은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자동맹 무역 시대에는 중세 정착지가 스웨덴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감라스탄 구시가지는 스톡홀름이 스웨덴의 수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라스탄은 오랫동안 왕가와 귀족의 집, 의회, 스토키르칸(대교회)이 입지한 권력의 중심지였으며, 전략적 무역 요충지이기도 했다. 감라스탄은 고고학적 유적과 거리 구조 등 중세 시대부터 대형 석조 건물 등 17세기, 18~19세기 이후 개발까지 여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성은 감라스탄 유적지에 역사적 다양성을 부여하고 독특한 문화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⁷⁶

또한 시대성은 현존하는 17세기 건물 건축의 출발점이 된 1625년 도시 대화재 등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한다. 또한 19~20세기 당시 감라스탄은 지금처럼 높이 평가받지 못했고 당시 재료와 기법으로 유지보수가 충분하지 않아 황폐했다. 이 시기에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다. 1960년대에는 구시가지

74 The Bukchon plan, u.d.; Min, 2023

75 Stockholm Stad, 2024; Stockholm Stad, Översiktsplan för Stockholm stad, 2018

76 Riksantikvarieämbetet: Stockholm Stad, 2018; Stockholm Stad, 2024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행히 철거는 진행되지 않았다. 스톡홀름의 비위생적인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에게 보다 건전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위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⁷⁷

감라스탄은 유형 및 무형 유산이 모두 있으며, 이는 감리스탄에서 발생한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스톡홀름의 정체성은 감라스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문화적 중요성은 주로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로 표현된다.⁷⁸

4.2.2 현재 사용 및 관광 영향

감라스탄은 여전히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현재 많은 역사적 건물에 카페, 기념품 가게, 호텔이 들어서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또한 역사적인 랜드마크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민이 감라스탄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관광 산업은 도시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지역 상권이 손실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약화되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거주민을 위한 주택과 함께 거주민 수는 계속 감소했다. 도시의 권력 중심지는 여전히 국회의사당과 왕궁이 있는 구시가지에 있으며, 현재 이 두 곳은 이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이다.⁷⁹

감라스탄은 스톡홀름의 주요 관광지로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스톡홀름의 다른 지역민도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방문객은 스톡홀름의 역사를 담은 역사적 도시 유적지를 볼 수 있다.⁸⁰

4.2.3 관리 전략 및 보호

지금도 여전히 사용 중인 1978년 구시가지의 건축 계획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침 문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유적지의 설계와 사용을 규제하고 구시가지는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어떠한 변경이든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스톡홀름시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보존 자문과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자는 해당 행위가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⁸¹ 스톡홀름시에는 계획 및 건설 과정의 지식 기초로 활용되는 전략 문서인 공동 건축 조례가 2020년 이후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에서는 도시 개발은 문화유산을 고려하고 기존 건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역사적 도시 경관에 대

77 Stockholm stad, 1978; Lijja, 2016; Stadsbyggnadskontoret, 2020

78 Stockholm Stad, 2018

79 Stockholm Stad, 2023; Stockholm Stad, 2018

80 Stadsbyggnadskontoret, 2020

81 Lijja, 2016; Stockholm stad, 1978

한 권고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관리 전략에는 주로 건물과 경관을 고려한 물리적 제한이 포함된다.⁸² 스톡홀름의 종합 계획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인 기능을 융합하는 것이 전략이며,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라스탄의 경우, 해당 계획에서 풍부한 유산, 분명한 장소 정체성, 역사적 건물 등 3가지 핵심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전략에서는 감라스탄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써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³

감라스탄은 국가 제도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이다. 시립박물관에서는 감리스탄 유적지가 유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적 관심사인 “유르고르텐이 있는 스톡홀름 도심”이 핵심 가치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환경법」에 따라 보호된다.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재 건물로 지정된 여러 건물이 있어, 도시는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스웨덴 「계획건축법」에서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그 특성을 왜곡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여 유지보수 및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도심 전체는 문화적 및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의 지침은 이 지역에도 적용된다.⁸⁴

5. 결과 고찰

사례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두 유적지 모두 관광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통의 과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표 2에서는 과제 및/또는 기회를 각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유적지 모두 과밀화,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혼란, 진정성 상실과 같은 관광 공해 관련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당국과 지역주민, 방문객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목표가 상충하는 시기를 거쳤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는 정도는 각자 다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지역주민, 정부 당국, 유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권리, 유산 중심 관리,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회복력, 전략적 단계, 지역사회 참여를 인정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와 ICOMOS의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 계획, 방문 시간 제한,

82 Stadsbyggnadskontoret, 2020

83 Stockholm Stad, 2018

84 Lijja, 2016

표 2. 과제와 기회

과제 및 기회	북촌 한옥마을	감라스탄
상업화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장인 공방이 증가하면서 관광 관련 상업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전통적인 용도는 보다 상업화된 용도로 대체되었다.	역사적 건물에 카페, 기념품 가게, 호텔이 들어서면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주민이 밀려나는 등 지역사회의 역할 관계 변화로 이어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과 주민이 밀려나고 장소 정체성이 약해졌다.
용도 변경	한옥은 주거용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상업용 건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의 구조가 변화해왔다.	감라스탄의 건물들은 상업적 용도로 변경되었고, 특히 관광 관련 사업이 주거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협력 모델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관광을 수용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민, 유산 전문가 간 협력이 장려되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유산 보존	유적지의 문화 및 건축 유산은 인정 및 보존 전략 등 다양한 규칙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유적지는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재법」과 같은 국내 법률 및 규칙에 따라 보호 대상이다.
보존 및 현대화	도시 계획을 통해 전통 가옥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능과 미학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시에서는 역사적 보존과 현대적 기능을 융합하여, 건물과 경관에 물리적 제한을 두어 유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관광 및 문화 박람회	관광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만, 과밀화로 인해 지역주민과 긴장을 유발한다. "공정 여행 캠페인"과 같은 전략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만, 지역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전략의 초점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
경제	관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지역주민의 이주가 발생했다. 유산 보존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관광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관광의 성장에 순응하면서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전통 건축물 보존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출해냈다. 감라스탄은 스웨덴 문화유산법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지만 맞춤형 관광 관리 전략에서 북촌 한옥마을과 유사성이 낮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전통 지식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와 ICOMOS의 지침에 맞는다. 스웨덴 모델의 주요 단점은 관리가 국제 문서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한 그것이 북촌 한옥마을처럼 유적지 관리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적 틀에서는 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두 사례 모두 이러한 원칙에 부분적으로 부합하지만, 관광의 폭넓은 사회적 영향을 다룸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관광 공해 개념은 주로 과밀화와 사회적 긴장을 통해 인식되며, 적응형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정 여행"과 같은 프로젝트를 포함한 북촌 한옥마을의 선제적 조치는 관광 관행을 지역사회의 웰빙(well-being)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의 효과를 보여준다. 감라스탄은 전통적인 계획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관광 관련

과제에 대한 참여가 적다. 이는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유연한 유적지별 전략을 시행하여 관광 영향 관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윤리적 관광 관행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제고도 유적지의 문화적 및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6. 결론

국제 현장, 권고, 초기 연구 또는 관리 계획에서는 "관광 공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관광이 유적지에 미치는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관광의 효과는 "공해"와 "이익"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리는 관광의 이익을 위해 공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관광 압박을 받고 있는 도시 유적지를 관리하기 위한 섬세하고 포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촌 한옥마을 사례는 관광 공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기반 보존 전략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감라스탄의 경험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 프레임워크를 기존 법적 보호 조치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관광 공해"는 관광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관광이 진정성, 무결성, 지역사회의 웰빙(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및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Ahmed, N. (2023). Tourism Impact on the Cultural Heritage of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Applied Geographical Studies (JAGS, Vol. 3(Issue No. 1), 41-53.

Akel, A., & Shairf, M. (den 15 February 2024). Industires in depth - Turning tourism into development: Mitigating risks and leveraging heritage assessts. Hämtat från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24/02/turning-tourism-into-development/>

Brooks, G. (2001-2002). (I. I. Chairman, Red.) Hämtat från Heritage at Risk from tourism : www.icomos.org/public/risk/2001/tourism.htm den 05 July 2024

Dallen J, T. (2011).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An introduction (Vol. 4 of Aspects of Tourism Texts). Channel Veiv Publications.

European Commissson. (2019).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Luxemburg: Publication Office of European Union. doi:10.2766/400886

Germier-Hamel, C. (den 21 September 2018). Seoul Spearheads Global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Urban Tourism. Hämtat från Sustainable Brands: <https://sustainablebrands.com/read/behavior-change/seoul-spearheads-global-efforts-to-promote-sustainable-urban-tourism>

Grigol Robakidze University. (den 5 January 2024). Impact of Global Tourism on Cultural Heritage. Hämtat från Grigol Robakidze University: <https://grigolrobakidzeuniversity.org/impact-of-global-tourism-on-cultural-heritage/>

Hanok Village: Bukchon. (u.d.). Hämtat från Seoul Hanok: <https://hanok.seoul.go.kr/front/eng/town/town01.do>
ICOMOS. (1975).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maller Historic Towns. ICOMOS.

ICOMOS. (1996).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1996). San Antonio: ICOMOS.

ICOMOS. (1999).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HARTER - Managing Tourism at Places of Heritage Significance. Mexico: ICOMOS at the 12th General Assembly .

ICOMOS. (2008). QUÉBEC DECLARATION, ON THE PRESERVATION OF THE SPIRIT OF PLACE. Québec: ICOMOS.

ICOMOS. (2010). LIMA DECLARATION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Lima: ICOMOS.

ICOMOS. (2011). Paris Declaration on heritage as a driver of development. Paris: ICOMOS.

ICOMOS. (2014). The Florence Declaration on Heritage as Human Values. Florence: ICOMOS.

ICOMOS. (2017). Delhi Declaration on Heritage and democracy. Delhi: ICOMOS.

ICOMOS. (2018). Buenos Aires Declara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na Rights. Buenos Aires: ICOMOS.

ICOMOS. (2022). ICOMOS International Charter for Cultural Heritage Tourism (2022): Reinforc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responsible and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Bangkok: ICOMOS.

Jong, S. (2018). Seoul experience in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and Urban Reger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World Bank.

Lilja, K. (2016). Vård och underhåll av fastigheter i Gamla stan . Stockholm: Stadsmuseet.

Min, H.-S. (den 17 april 2023). Policies - Bukchon Conservation Project (2001-2004). Hämtat från Seoul Solution: <https://seoulsolution.kr/en/content/urban-regeneration-historic-neighborhood-bukch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d.). History>Joseon Dynasty. Hämtat från Korea.net: <https://www.korea.net/AboutKorea/History/Joseon>

Nilsson, D., & Johansson, L. (2017). Hållbar turism : Inspiration, erfarenhet och metodutveckling från arbetet med Unescos How-to-guider i Bergslagen. Stockholm: Riksantikvarieämbetet. Hämtat från <http://www.diva-portal.org/smash/get/diva2:1234637/FULLTEXT01.pdf>

Riksantikvarieämbetet. (u.d.). Riksintressen för kulturmiljövärden - Stockholms län (AB). Riksantikvarieämbetet. Hämtat från https://www.raa.se/app/uploads/2024/09/Stockholm-AB_riksintressen.pdf

Seul Metropolitan Government. (u.d.). Seoul Hanok - Bukchon hanok . Hämtat från Hanok.seoul.go.kr: <https://hanok.seoul.go.kr/front/eng/town/town01.do>

Stadsbyggnadskontoret. (2020). Stockholms byggnadsordning. Stockholm : Stockholm stad.

Stockholm stad. (1978). Planbeskrivning - Staden Mellan Broarna . Stockholm .

Stockholm Stad. (2018). Översiktsplan för Stockholm stad. Hämtat från <https://vaxer.stockholm/siteassets/stockholm-vaxer/tema/oversiktsplan-for-stockholm/oversiktsplan-for-stockholms-stad-godkannandehandling-2020-10-03.pdf>

Stockholm Stad. (2023). Områdesfakta Storkyrkan stadsdel. Hämtat från <https://start.stockholm/globalassets/start/om-stockholms-stad/utredningar-statistik-och-fakta/statistik/omradesfakta/inre-staden/sodermalm/storkyrkan.pdf>

Stockholm Stad. (den 30 augusti 2024). Stockholm blir en stad. Hämtat från Stockholms källan: <https://stockholmskallan.stockholm.se/teman/stockholms-aldsta-historia/stockholm-blir-en-stad/>

The Bukchon plan. (u.d.). Hämtat från <http://www.kahoidong.com/bukchon1/index.html>

UN tourism. (u.d.). UN Tourism . Hämtat från Global an reginal tourism preformance - Power BI Report: <https://www.unwto.org/tourism-data/global-and-regional-tourism-performance>

UNESCO.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 Paris: UNESCO.

UNESCO. (2012). UNESCO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Hämtat från <https://whc.unesco.org/uploads/activities/documents/activity-669-7.pdf>

World Bank.(den 7 February 2018).Feature story-Achieving the Twin Goals Using Cultural Heritage, Urban Regeneration and Sustainable Tourism:Lessons Learned from Seoul.Hämtat från World Bank Gorup:<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8/02/07/achieving-the-twin-goals-using-cultural-heritage-urban-regeneration-and-sustainable-tourism-lessons-learned-from-seoul>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박물관의 몰입적 전환: 텐진⁸⁵의 과거 조계지

Maria Gravari-Barbas*, Yue Lu**, Chensi Shen***, Sandra Guinand****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교수*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부연구원**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박사 과정; 텐진 대학교***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도시지역연구소****

*교신저자: maria.gravari-barbas@wanadoo.fr, +33675506770

PP.
136-
155

1. 서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패배한 후 19세기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나타난 중국의 과거 조계지들은 “반식민지”로 규정되어 왔다(Goodman 2004). Osterhammel은 “반식민지” 상태를 “대도시 국가가 비대칭적 관계 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주변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공식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했다(Osterhammel 1986: 308).

텐진은 1860년부터 1945년까지 9개의 외국 조계지가 도시에 공존하여 동아시아 조계 제도의 패러다임을 대표한다(Gravari-Barbas et al., 2023; 2024)(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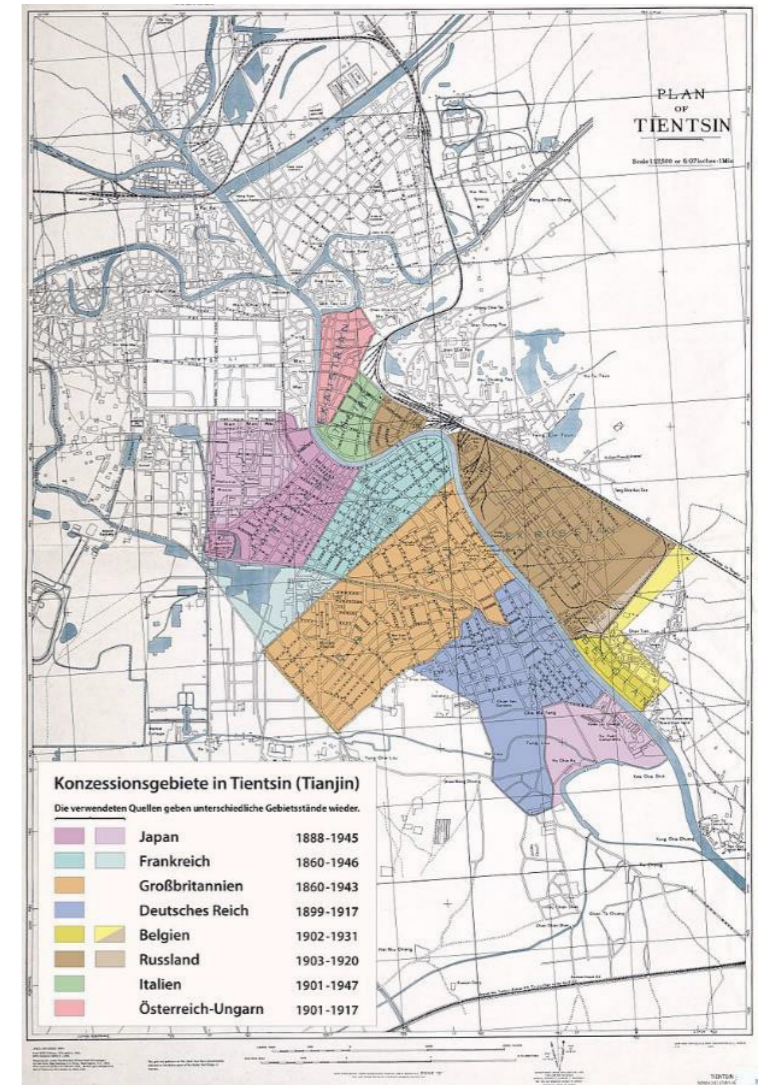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텐진의 외국 조계지 지도, 미국군 지도 서비스, 워싱턴 DC, 1945, Maximilian Dorrbecker 수정 및 컬러화. Khu' hamgaba Kitap(CC BY-SA 4.0)

⁸⁵ 본 연구는 2023년에 시작되어 출판된 프로젝트의 제2부이다.



그림 2.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조계지. 업서

공간 규모로 보면 조계지들의 면적은 텐진 구시가지의 9배가 넘었으며 기존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각 국가는 자국의 계획 기준과 건축 양식에 따라 텐진에 조계를 건설하여, 자국의 전통과 특성(식민지 개척자의 계획, 건축 기법, 문화)을 반영하고 재현했다(그림 2). 역사학자 Pierre Singaravelou(2017)에 따르면 “초국가적” 도시 경관인 “코스모폴리스”가 탄생한 것이었다. 최근 중국 국가 및 지방 당국에서 이러한 조계지들을 유산으로 인정했지만, 수십 년 동안 9개 외국 세력이 텐진을 “식민지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텐진의 박물관과 해석 센터가 주로 중국 대중에게 국제 조계지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 조계지에 위치한 8개 박물관의 분석 결과에 따른 KNUCH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주요 내러티브를 포착하고 분석했다(Gravari-Barbas et al, 2024).

- 첫째, 조계 시대를 중국에서 근대성의 시작에 대한 증거로 재조명하여 근대 도시 요소의 출현을 높게 평가한다.
- 둘째, 조계를 “타인들”의 꿈같은 과거로, “외국”으로, 그리고 중국의 현대 생활



그림 3. 텐진의 장원(왼쪽)과 장쉐량 사령관 저택(오른쪽). © M. Gravari-Barbas, 2023

과는 이질적인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과거는 서양 건축의 주제화(thematization)와 여가(leisure)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 셋째, “적색 내러티브(Red narrative)”를 포함하여, 중화민국과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웅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장쉐량 사령관 저택(Commander Zhang's Mansion)과 구 영국 조계지에 위치한 장원 저택(Zhangyuan), 2곳의 텐진 박물관에서 두가지 몰입형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그림 3).

본 논문은 불협화음 유산(Tunbridge and Ashworth, 1996)의 관점에 따라 이들 박물관의 담론과 경관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불협화음이란 조계 국가의 도시 모델을 재현한 건물의 물질성 및 건축뿐만 아니라 서구 조계 계획의 어려운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물질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무형의 차원들도 박물관 전시물의 근간을 이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과거 국제 조계지의 몰입형 방문을 뒷받침하는 주요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맥락에서 몰입형 방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몰입형 방문과 텐진의 불협화음 유산인 국제 조계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는 몇 가지 방법론적 도구가 사용되었다. 두 박물관의 몰입형 활동 개발자 또는 관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장쉐량 사령관의 옛 저택 관리를 담당하는 케이터링 그룹 관리자(2023년 9월과 2024년 10월)와 장원을 관리하는 국유 공연단 관리자(해당 회사 소유)(2024년 10월)를 인터뷰했다.

투어 가이드(장쑤량 사령관 저택의 몰입형 투어 가이드와 4번의 인터뷰)와 방문객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장쑤량 사령관 저택의 몰입형 게임/관람(2023년)과 장원의 몰입형 방문(2023년) 및 몰입형 극장(2024년)에도 참가했다.

이론적 틀의 목표는 문화유산 관광을 중심으로 현재 관광의 변화와 연계하는 것이다. 관광의 체험적 전환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진정성 개념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 연결하고, 현대 박물관학의 특징인 몰입형 접근법과 최근 박물관의 발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본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문화유산 관광에 대한 체험적 접근법의 함의에 초점을 맞춘다. 2장에서는 체험을 진정성과 연계한다. 3장에서는 박물관 전시회의 몰입형 전환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과거 조계지에 대한 2건의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2.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적 접근법

2.1. 관광 및 새로운 문화유산 소비 체험

체험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느끼거나 배우는 것”(옥스퍼드 영어 사전)으로, 참가자가 느끼는 주관적 정신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Otto와 Ritchie(1996: 166)는 체험을 “개인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서비스나 행사에서 “참가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로 정의한다(Bigne & Andreu, 2004: 692).

따라서 ‘체험’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신 상태(Beeho & Prentice, 1997)로, 관광객이 방문한 문화유산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감정, 감각, 소비자의 생각(흥분, 스틸, 재미, 공포, 도전 등)과 같은 관광의 체험적 요소는 관광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었다.

O'Dell과 Billing(2005: 13)에 따르면, 우리는 관광 경험이 “단순히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에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관찰한다.

소위 “체험 관광”은 소비를 ‘관광객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데(Urry, 1990: 219), 관광객은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그곳’에 참여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Beeho and Prentice, 1997).

체험 관광은 문화유산 관광을 방문 유적지에 대한 엄숙한 감상과 감탄에서 유적지와 교감 및 행사에 따른 공감 관계로 바뀌게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접근법에서 보다 해석적이고 질적이며 성찰적인 탐구 방식으로 관광객의 관행이 변화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Ateljevic et al., 2005).

관광 경험에 대한 현재의 분석은 박물관, 유적지, 무형유산 공연과 같은 공식적인 생산자만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상상력에 의해 상품이 생산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관광에서 상상은 성찰적으로 보는 체험 관광의 일부다. 체험 관광은 분명히 차별화되고 참여적인 소비다. 생산자 주도의 표준화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대량 판매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대신 관광객은 “놀라움이나 ‘숨겨진’ 세계를 찾고, 모험을 추구하고, 장엄함을 감상하고, 비밀을 공유하고, 맛보고, 냄새맡고, 미스터리를 밝히거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개인적으로 ‘탐험’하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권유 받는다(Prentice, 2001).

주요 접근법 중 하나는 발견, 더 정확히 말하면 감각적 발견이다. 체험 관광은 기존의 “접근 금지 - 손대지 마세요” 접근법과 정반대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할 놀이, 냄새 맡기, 배우기, 듣기, 말하기가 중심이 된다. 체험형 유산 관광 홍보자는 방문객이 자신의 감각을 충분히 탐구하기 위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라고 권유한다. 체험형 문화 관광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체험형 문화 관광은 관광 공급자와 관광객의 공동 생산으로 이루어지며, 관광객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목적지의 관광 상품을 선택하고, 개발하며, 때로는 바꿀 수도 있다.

2.2. 일상적인 내러티브와 체험 관광

내러티브 재구성은 장엄한 내러티브(Lyotard, 1984)에서 일상적인 체험으로 초점을 옮긴다. 1960년대 이후 역사가들은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범한’ 체험에 주목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있는 역사는 공감적 반응을 강조한다.

박물관학 및 문화유산 맥락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감각적 체험을 활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은 역사 학습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학문적 지식 체계에서 국민, 과거, 현재 간 공통점을 강조하는 폭넓은 주제로 전환하는 것을 이해의 기초로 설명하는 문화유산 문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감정(connoisseurship)에 대한 강조를 검토한 결과 ‘문화적 상대주의’로 전환되게 되었으며(Pearce and Perring, 1994: 25-27), 모든 주제는 고립된 평면이 아니라 과거의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위인(우월)과 대중(열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여 둘 다 가치 있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거나 역사성보다는 그들의 인간적 상태를 강조하여 역사적 인물을 제시했다.

역사 내러티브의 재구성은 사람, 그들의 역사, 삶, 관계에 중점을 두고 평범한 사람의 체험을 과거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역사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

로 공감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인 학문적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소통을 뜻한다.

이러한 과거 표현은 전반적 사회의 현재 체험과 관련성이 있다. 소통의 유일한 기반으로 삼던 지성주의에서 벗어나고, 교훈주의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더 효과적인 교육의 목표에 중점을 둔다.



그림 4. 장혜량 사령관 박물관에서 20세기 초 옷을 입고 촬영하는 방문객
© MGB, 2023년 9월

표 1. 경제적 구분과 체험 관광의 장소

Economic Offering	Goods/ Products	Services	Experiences
Economy	Industrial	Service	Experience
Economic function	Make	Deliver	Stage
Nature of offering	Tangible	Intangible	Memorable
Key attribute	Standardised	Customised	Personal
Method of supply	Inventorised after production	Delivered on demand	Revealed over duration
Seller	Manufacturer	Provider	Stager
Buyer	User	Client	Guest
Factors of demand	Features	Benefits	Sensations

(출처: Pine and Gilmore(1998: 9))

이는 단순히 교육을 통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의적, 사회적, 영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활동이다(Matton- Howarth, 1990: 177).

이러한 체험 학습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촉진을 통한 체험적 지식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는 현재 신체, 감각, 자신과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의 재구성과 연결된다. 감각과 인지 및 정서를 결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그림 4).⁸⁶

체험 학습은 신체와 감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문화유산에 특히 중요하다. 관광 분야는 이러한 체험형 전환에 커다란 관심이 있다. 체험 관광에서는 체험을 서비스로 제공한다(표 1).

“체험 경제에서 박물관의 일반인은 길거리 게임, 야외 및 ‘비밀’ 영화 행사, 방탈출 게임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문화 체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Kidd, 2018).

“몰입형 경험”은 체험 경제의 일부이며 박물관과 문화유산 기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었다.

3. 체험 관광 및 체험 진정성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체험 중심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체험 관광 분석에서 진정성은 핵심어이다. 관광의 진정성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구분한 Selwyn의 논문(1996)은 여기서 매우 유용하다.

“차가운 진정성(cold authenticity)”은 지식을 뜻하며, “뜨거운 진정성(hot authenticity)”은 느낌을 뜻한다. Selwyn은 관광객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뜨거운) ... 그리고 선택한 관광지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지식(차가운)”을 모두 추구한다고 설명하면서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Selwyn, 1996: 8).

Selwyn의 뜨거운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관광객과 관광 대상 간의 동일시 과정과 “따뜻한(warm)” 문화유산에서 일정한 표현 기제를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Selwyn,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 기억은 자아의 체험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Wang(1999)은 더 나아가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개념을 모색한다. 그는 ‘실존적’이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진실하고자 하는 특별한 상태로 정의한다. 그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진정성과는 거리를 둔다*. 그는 관광객들이 실존적 상태를 찾는 데 몰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정성은 “문화의 요소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이고 카타르시스적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Wang, 1999: 350). 관광

⁸⁶ <http://www.tandfonline.com/doi/pdf/10.1080/10548400903276897>

객은 “관광지의 진정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활동이나 관광 대상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Wang, 1999: 356).

이 접근법에 따르면 유산의 진정성은 대상(가짜일 수 있는)에서 대상과 맺을 수 있는 관계(진짜인)로 이동한다. 또한 이는 관광 방문의 중요성의 중심을 다른 사람이 상상하고 제공한 상품(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정확성에서 최신성을 존중함)에서 방문객이 방문한 장소와 맺을 수 있는 공감적이고 통합된 개인적인 관계로 이동시킨다(Breathnach, 2006).

우리는 방문객이 내러티브 전달을 “직접”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진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감각은 시뮬레이션된 진정성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종류의 진정성은 그 자체로 지식의 새로운 형태이며 과거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른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체험이 융화되어 생성된다.

Kirshenblatt-Gimblett(1998)은 시뮬레이션된 진정성은 기존 박물관 전시물처럼 사람의 체험을 축소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험을 강화한다고 강조한다. 오락과 관련된 미디어 또는 활동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체험이 반드시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참여는 동시에 체험하며 서로를 촉진할 수 있다.

체험 진정성(Penrose, 2018)에는 시각, 촉각, 음성 및 청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방문객이 다른 방문객이나 재연자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도 일어난다.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체험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자극을 받는다. 또한 과거는 유물과의 교감을 통해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Lowenthal, 1985).

이러한 분석에서 McIntosh와 Prentice(1999)가 소개한 ‘통찰력(insightfulnes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흥미롭다.

통찰(insight)이라는 용어의 사전 정의(콜린스 영어 사전)는 “명확하거나 깊게 지각하는 능력과 자신 또는 타인의 정신적 과정을 이해하는 역량”이다. 통찰력(insightfulness)이란 방문객이 유산 맥락에 대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고유한 심리적 결과 또는 이점이며, 방문객의 개인적인 의미와 인식에 있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또는 “의식적인” 질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찰력은 문화유산 방문을 통해 얻은 개인적 통찰의 최종 상태를 정의하며, 방문객은 감동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환경을 체험한다. 여기에는 관광객의 상상력과 장소에 대한 몰입과 관심에서 비롯된 참여, 이해, 의미, 감각적 느낌이 포함된다(Moscardo 1996).

4. 실존형부터 몰입형 박물관까지

4.1. 박물관의 몰입적 전환

박물관은 “뜨거운” 진정성과 체험적/실존적 진정성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문화유산의 발전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물관은 과거와 체험적 만남을 하도록 연결해 준다.

지난 20년 동안 박물관은 “정서적”, “참여적”, “몰입적”, “감각적” 경험과 같은 개인화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창출하여 방문객을 늘리고 다양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문객 중심적 변화”를 해왔다(Bertrand and Salter, 2024).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박물관은 보다 감성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다감각적인 박물관 및 문화유산 체험을 선호하여 박물관학자 Laura de Caro(2015)가 묘사한 “서구적 시각주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박물관에서 대표적 변화 중 하나는 최근 개발된 “몰입형” 체험 활동이다. 예를 들어, 반 고흐 “몰입형 경험”은 방문객을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으로 초대한다.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에 제안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Jenny Kidd는 “3가지 박물관 전환”에 대해 말한다(Kidd, 2018).

1. 내러티브 전환
문화유산 맥락에서 표현되는 목소리와 이야기의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등 박물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의 범위가 넓다.
2. 정서적 전환
박물관의 느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건(또는 그렇지 않은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놀이적 전환
다양한 활동에서 놀이와 게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4.2. 박물관의 몰입형 문화유산 실천

몰입형 문화유산 실천은 스토리 중심, 방문객과 참여 중심, 다중 방식, 다감각, 환경에 맞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idd, 2018).

모든 문화유산을 몰입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몰입형 전환은 최근 몇 년 동안 박물관에서 채택한 특정 접근법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시각적 및 텍스트적 자료만 아니라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운동적 몰입형 경험을 모색했다.

몰입형 경험은 체화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의미 만들기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노력이 되기를 원한다. “체화된 박물관학”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사

고 방식이다(Kenderdine et al. 2014).

하지만 이러한 몰입형 내러티브는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박물관 안팎에서 어떠한 종류의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을까?

- 몰입형 내러티브와 박물관의 일반적인 내러티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몰입형 내러티브 방문이 다른/새로운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 몰입형 관광은 사실과 허구의 전통적인 경계를 어떻게 바꾸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5. 텐진의 과거 조계지 박물관의 몰입형 전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은 크게 성장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성장은 몰입형 및 상호작용 기술의 등장에 따라 제공된 여러 체험이 현장 및 온라인 방문자 수를 늘리게 된 결과이다(China Daily, 2019).

몰입형 상호작용 박물관 체험은 방문객에게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Cornacchio, 2021, Kwon et al, 2023 인용).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이 역사적 콘텐츠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으로 진행되어(Allen et al., 2020) 전시물과 관객 간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Kwon et al, 2023).

5.1. 장쉐량 사령관의 저택: “놀이적” 전환의 예

장쉐량(1901~2001)은 중국의 군인이자 군벌 지도자였다. 아버지 장쥘린(1928년 일본인이 암살)의 뒤를 이어 “봉천군벌”의 수장이 되어 만주와 중국 북동부 지역을 사실상 통치했다. 그는 시안 사건을 조직한 후 장개석이 반평생 이상(1937~1990년) 포로로 잡아놓았다. 중국에서 그는 국민적 영웅으로 여겨진다. 그의 별명은 “젊은 원수”였다.

하지만 장쉐량은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딴 별장에 산 적이 없었다. 장쉐량의 가족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장쉐량이 실제 살았다는 증거는 없다. 어린 시절 기억에 장쉐량이 이곳에 살았다고 말한 조카 때문에 장쉐량과 연관되게 되었다. 따라서 장쉐량과의 연관성은 판매 전략이 되며 중국의 영웅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수단이다.

박물관은 상인이 당시 살았던 대령의 집과 가까운 또 다른 옛 저택에서 정기적으로 몰입형 경험을 진행한다. 방문객(체험 관광 상품에서 “손님”)은 전통 의상(남성은 중국 전통 의상, 여성은 치파오)을 입는다. 참가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그림 5. 장쉐량 사령관의 저택, © M. Gravari-Barbas, 2023년 9월

않는다. 주택의 배치도를 설명하는 가이드북과 짧은 배경 설명이 제공된다. 이야기는 1930년대 공화정 시대 텐진을 배경으로 한다. 참가자는 텐진에서 발생한 여러 충격적인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음모를 밝혀내는 데 참여한다. 일반인에게는 유적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몇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그런 다음 참가자에게 살인 사건 해결과 같은 미션이 주어진다.

참가자는 배우 및 다른 참가자와 상호작용하며 단서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그림 5).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장쥘린(장쉐량의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관련 인물이 처형된다.

배우들은 시대착오적 내용을 제외하고 중화민국 시대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맥락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다. 참가자가 게임에서 재현된 전통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은행에 보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게임은 참가자 간 소통을 독려한다. 매 게임마다 “미스 텐진”을 선발하고 무도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게임은 4~5시간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한 게임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가자는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와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 게임에서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주 참여하는 참가자의 포인트는 로비에 표시된다.

박물관은 텐진의 역사를 낭만화하여 조계의 건축적 수준, 유명인의 호화로운 생활, 화려한 의상, 현대적 생활의 편리함(냉장고, 정수 및 난방 시설) 등 조계지 생활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장쉐량 사령관 저택은 영웅적인 사령관의 화려한 과거와는 거리가 있는 텐진의 과거가 게임의 배경이 된다. 도시의 과거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문화유산 몰입형 경험을 구축했다. 조계지는 “몰입형” 명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시공간적으로 이국적인 환경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서구의 지배와 관련된 정치적이고 불협화음적인 측면은 게임으로 중화되며, 이는 과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2. 장원: “내러티브” 전환

장원은 1916년 청나라 말기 후베이성 총사령관이었던 장바오의 개인 저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1924년 12월 쑨원은 텐진에 와서 장원에 머물렀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퇴위된 청나라 황제 푸이가 장원에서 살았다. 1935년 일본군이 중국 내 일본 주둔군 사령관의 관저로 장원을 점령했고, 기존 규모를 확대했다. 1947년 장원은 국민당(KMT) 텐진 주둔군 사령부가 되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CPC) 텐진위원회가 입주했고 같은 해 텐진군관리위원회도 위원회와 합쳐져 입주했다. 1949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 텐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었고 장원은 중국공산당 텐진위원회의 첫 번째 관저가 되었다.⁸⁷

따라서 이곳은 20세기 초반 중국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박물관은 2018년에 개관했다. 국가 소속 극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몰입형 투어와 몰입형 극장 공연이 제공된다. 장원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4가지 몰입형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원의 여러 방과 정원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연극 작품을 여기에서 소개한다.

연극은 특히 중국의 연극 수용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틀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전통적인 극장이 아닌 장원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시도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극장은 문을 닫았고, 극단에서는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들은 극장 외부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의 “슬립 노 모어(Sleep No More)”(Ohanian R., 2000)와 같은 해외 몰입형 연극에서 영감을 받은 것 외에도, 그들이 첫 공연 사업을 시작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공연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장에 갈

87 장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림 6. 승메이링의 귀걸이. 몰입형 극장 공연, 장원 © M. Gravari-Barbas, 2024년 11월.

수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재개관이 빨랐던 박물관과 전시관은 방문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극단은 청년의 시청 습관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2~3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 준비 시간이 긴 공연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청년은 집에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집중 시간이 짧아졌고 시청 습관도 변화되었다. 극단은 공연자와 관객 간 관계를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인터뷰, 2024년 11월).

장원에서는 장개석의 아내인 쑹메이링의 귀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몰입형 극장 체험을 선보였다. 참가자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각 그룹은 특정 역할을 맡아 누가 귀걸이를 훔쳤는지 밝히려고 시도한다. 귀걸이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일반인이 박물관을 돌아다니게 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구성된 4개의 연극 장면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장개석과 그의 아내는 장원에서 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인물들은 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문객이 몰입할 수 있는 역사적 및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6. 고찰

본 논문의 1~3장에서 개발한 이론적 틀을 통해 2가지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6.1.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향수

문화대혁명 이후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도시화의 방향을 “인민이 향수를 기억할 수 있게(ji de zhu xiangchou 记得住乡愁)”(Hu, 2013) 설정하였으며, 과거를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미적 감성의 포스트모던적 확장에 대응했다(Cui, 2023).

6.2. 중화민국(Republican China)의 특정 시대에 대한 향수

대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민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출신 인물(여성, 정치인, 과학자, 사회주의자, 심지어 일반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1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맞아 1949년 이전 중화민국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문헌은 최고조에 달했다.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소장 자료를 일반 공개하는 해외의 도서관이 늘고 있다)(예: 1990년대 중반 대만의 장개석 기록 보관소가 일반 공개되어 장개석과 그의 아들 장징궈의 삶이 공개되었다)(Shen, 2016).

6.3. 향수의 중심으로서 조계지

국제 조계지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과거에 몰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장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 극단의 관리자(인터뷰, 2024년 10월)에 따르면 조계지의 건축과 몰입형 극장 간에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 “텐진은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 비해 몰입형 공연이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역사적 배경이 풍부하고 조계가 많이 있어 공화정 시대를 주제로 한 몰입형 공연에 적합해요. 텐진의 많은 작은 서양식 건물은 복잡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풍부한 스토리의 소재가 됩니다. (...) 전반적으로 텐진은 텐진만의 역사적 배경과 풍부한 문화로 인해 몰입형 공연 사업에 매우 적합해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역사적 건물을 보호하고 활용하고 방문객에게 텐진만의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텐진과의 정서적 연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시한 틀에 따르면, 몰입형 방문은 방문객의 체험에 따른 “뜨거운 진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계지는 이렇게 해석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스토리텔링에 이상적인 배경이 된다!

7. 결론

우리는 대체로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는 결정적이지 않다
몰입형 관광 문헌은 주로 몰입형 방문의 디지털 측면을 강조하지만,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서는 두 박물관의 건축, 디자인, 도시 설계의 “실제” 물리적 환경이 주로 두드러진다. 즉, 기술(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니다. 텐진의 몰입형 경험은 오히려 역사, 참여, 환경 자원(건축, 가구, 의류, 액세서리, 배우...)을 강조한다.
2. 내러티브는 역사와 거리를 두긴 하지만 역사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두 박물관에서 내러티브는 순수한 허구다. 중화민국(장쉐량 사령관의 저택)의 텐진 또는 장개석(장원) 치하의 중국 역사를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상상 속 인물의 귀걸이가 아니라 쑹메이링의 귀걸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스토리는 (실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3. 몰입형 방문은 불협화음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사례에서 과거 조계지는 치파오, 융합된 건축과 가구, 국제 음모를 바탕으로 상상의 과거를 기리고 상상력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세계를 조성한다. 과

거 조계지는 방문객에게 적절한 무대가 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톈진에 이러한 저택을 지을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몰입형 방문은 긍정적인 “적색(red)”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환상과 상상한 것이라는 점 외에도 이러한 방문을 국가가 기획, 제공, 조직(장원) 또는 장려(장쉐량 사령관 언급)하며 정치적 측면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낭만적인 이야기를 넘어 두 유적지 모두 국가 선전과 적색 관광(Red tourism) 방문의 기반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Aoki, N., Gravari-Barbas, M., Mengin, Ch., Xu S. (dir.), 2023, *Tianjin, transferts mondiaux et appropriations locales. Architecture et aménagement urbain dans la Chine moderne*. Paris : Editions de la Sorbonne.

Ateljevic, I., Harris, C., Wilson, E., & Collins, F. L. (2005). Getting ‘Entangled’: Reflexivity and the ‘Critical Turn’ in Tourism Stud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0(2), 9–21. <https://doi.org/10.1080/0/02508281.2005.11081469>

Beeho, A.J. and Prentice, R.C. 1997, Conceptualizing the Experiences of Heritage Tourists: A Case Study of New Lanark World Heritage Village, *Tourism Management*, 18, 75-87. [https://doi.org/10.1016/S0261-5177\(96\)00103-3](https://doi.org/10.1016/S0261-5177(96)00103-3)

Bertrand S. and Salter Ch., 2024, Reconfiguring the Viewer. Modes of Perception and Attention in Immersive Museum Experience, in M. Shehade & Th. Stylianou-Lambert, *Museums and Technologies of Presence*, London: Routledge

Bigné J. E., Andreu L., 2004, Emotions in segmentation: An Empirical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ume 31, Issue 3, p. 682-696, <https://doi.org/10.1016/j.annals.2003.12.018>.

Bisaha, D. (2021). Immersive Witches: New York City under the Spell of *Sleep No More* and *Then She Fell*, *Theatre History Studies* 40, 172-186. <https://dx.doi.org/10.1353/th.2021.0010>.

Breathnach T. 2006, Looking for the Real Me: Locating the Self in Heritage Tourism,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 1, No. 2. P100-120.

Cui J., 2023, *Whose Nostalgia? Reconstruction, Re-creation & Rebuilding of Lost Heritage Si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sertation presented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ngineering Science (PhD): Architecture.

De Caro L. 1996, Moulding the Museum Medium: Explorations on Embodied and Multisensory Experience in Contemporary Museum Environments, *ICOFOM*, 43- 5p. 55-70 <https://doi.org/10.4000/iss.397>

De Caro, Laura. 2015. “Moulding the Museum Medium: Explorations on Embodied and Multisensory Experience in Contemporary Museum Environments.” *ICOFOM Study Series: New Trends in Museology* 43B. 10.4000/iss.397.

Goodman B. 2004, Semi-Colonialism, Transnational Networks and News Flows in Early Republican Shanghai, *China Review*, Spring 2004, Vol. 4, No. 1, Special Issue: *Transnationalism and the Chinese Press* (Spring 2004),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pp. 55-88.

Gravari-Barbas, M., Guinand, S., and Lu, Y. 2021. Hybridisation and circulation of models in Tianjin's former concession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6(5), 513-532.

Gravari-Barbas, M., Guinand, S., and Lu, Y. 2024, Les mondes ‘exotiques’ de Tianjin : Patrimonialisation, mise en tourisme et thématisation des anciennes concessions occidentales en Chine. *Teoros*.

Gravari-Barbas, M., Guinand, S., Lu, Y., and Li, X. 2023. Heritage and tourism development in China's former international concessions. Tianjin as a plac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Available on: <https://doi-org.uaccess.univie.ac.at/10.1108/IJTC-05-2022-0133>

Gravari-Barbas, M., Guinand, S., Lu, Y., and Shen, C. 2024, Museographic narrating of dissonant heritage in Tianjin's former international concessions, *Built Heritage*, 8(47).

Gravari-Barbas, Maria, Sandra Guinand & Yue Lu, 2020, « Eat, play, visit: Tianjin's former western concessions as new hubs for creative cultural tourism », dans Saurabh Kumar Dixit & Joan C Henderson (dir.), *Tourism in Asian Cities*, Londres, Routledge.

Hu, K. 胡勘平 (2013) 'Be Able to See Mountains and Rivers and Remember Nostalgia – Summary of the Chinese Ecological Development in 2013 望得见山、看得见水、记得住乡愁——2013年中国生态文明建设述要', *Guangming Daily* 光明日报, 23/12/2013. (Chinese) Available at: https://epaper.gmw.cn/gmrb/html/2013-12/23/nw.D110000gmrb_20131223_2-12.htm

Kidd J., 2018, "Immersive" heritage encounters, *The Museum Review*, Volume 3, Number 1 (2018)

Kidd, J., 2014, *Museums in the New Mediascape: Transmedia, Participation, Ethics*. New York and Oxon: Routledge.

Kidd J., and Nieto E., 2019, Immersive Experiences in Museums, Galleries and Heritage Sites: A review of research findings and issues. *Discussion Paper* 2019/02 November, 2019, School of Journalism, Media and Culture, Cardiff University ISBN: 978-1-913095-16-1

Kirshenblatt-Gimblett B. 1998,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won H., Choi Y., Zhao X., Min H., Wang W., Garaj V., Lam B., 2025, How Immersive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Affect the User Experience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Museum and Gallery Sect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Inclusive Museum* Volume 18, Issue 1, 2025. ISSN: 1835-2014 (Print), ISSN: 1835-2022 (Online). <https://doi.org/10.18848/1835-2014/CGP/v18i01/135-160>

Lowenthal David, 1985,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tard J.-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110 pages

McIntosh A. J., Prentice R., 1999, Affirming authenticity: Consuming cultural herit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ume 26, Issue 3, p. 589-612, [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010-9](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010-9).

O'Dell T., Billing P. 2005, *Experiencescapes: Tourism, Culture and Economy*,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ess DK

Ohanyan R., 2000, *The Theatre of a Thousand Plateaus*, a Thesis Presented for the Master Degree of Fine Arts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Umeå School of Architecture.

Osterhammel J., 1986, Semi-Colonialism and Informal Empire in Twentieth-Century China: Towards a Framework of Analysis, in *Imperialism and afte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 ed. by W. J. Mommsen, London, Allen & Unwin, , pp. 290 – 314.

Otto, J.E. and Ritchie, J., 1996,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 165-174. [http://dx.doi.org/10.1016/0261-5177\(96\)00003-9](http://dx.doi.org/10.1016/0261-5177(96)00003-9)

Pearce, D.W. and Perrings, C.A., 1994. Threshold effects and incentives fo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Environ. Resour. Econ.*, 4: 13-28.

Penrose, J. (2018). Authenticity, authentication and experiential authenticity: telling stories in museums. *Social & Cultural Geography*, 21(9), 1245–1267. <https://doi.org/10.1080/14649365.2018.1550581>

Prentice R., 2001, Experiential Cultural Tourism: Museums & the Marketing of the New Romanticism of Evoked Authenticity,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Volume 19, Issue 1, Pages 5-26, [https://doi.org/10.1016/S0260-4779\(01\)00002-4](https://doi.org/10.1016/S0260-4779(01)00002-4).

Prentice R., Witt, S., Hamer C., Tourism as Experience. The Case of Heritage Park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5, No. 1, pp. 1-24, 1998

Prentice, R.C. and McIntosh, A. (1999) Affirming authenticity: Consuming cultural herit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 (3), 589–612

Kenderdine S., Leith K. Y. Chan, and Jeffrey Shaw. 2014. "Pure Land: Futures for embodied museography," *ACM Journal of Computing and Cultural Heritage* 7:2.

Selwyn T., 1996, *The tourist image: myths and myth making in tourism*, Chichester: John Wiley & Sons

Shen, C.. 2016 "Nostalgia for Republican China: The Year in China." *Biography*, vol. 39 no. 4, 2016, p. 592-597. *Project MUSE*, <https://dx.doi.org/10.1353/bio.2016.0070>.

Singaravelou P., 2017, *Tianjin Cosmopolis: Une autre histoire de la mondialisation*, Paris : Le Seuil.

Tunbridge J.E. and Ashworth G.J.,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Wiley.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ondon: Sage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 (2), 349–370.

Willson, G. B., & McIntosh, A. J. 2007, Heritage Buildings and Tourism: An Experiential View. *Journal of Heritage Tourism*, 2(2), 75–93. <https://doi.org/10.2167/jht024.0>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톈진 조계지의 공원: 역사, 복합화, 그리고 소비(제2부)⁸⁸

Yue Lu^{89*}, Maria Gravari-Barbas⁹⁰, Chensi Shen⁹¹
톈진 대학교

*교신저자: luyue_2009@hotmail.com, +33665322339

PP.
156-
203

초록

공원은 현대 중국 도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 공간이다. 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장소로 서양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사생활과 내향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을 통해 대중이 현대 도시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만든다(Zhang et al., 2012). 제 2차 아편전쟁부터 20세기 초까지 9개국이 톈진에 조계지를 조성했다. 톈진은 중국에서 조계지가 가장 많은 도시다. 식민지 지배자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0개의 독특한 공원을 조계지에 조성했으며, 이러한 공원은 당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조계지 공원은 톈진의 근대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반영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일부 정원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문화유산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Meng & Chen, 2014). 따라서 급속한 경제 발전과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원래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원을 보호하고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의 수요를 충족하며 도시 내 조계지 공원만의 특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톈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에 대해 조성, 개발, 개보수 등 역사적 발전, 중국과 서양의 영향에 따른 공간의 복합적 특성, 과거와 현재의 공원 소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연구했다. 연구 결과 각 조계지는 신중한 공간 배치를 통해 중국과 외세에 있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톈진의 조계지는 단순히 이식되거나 합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배경에서 현지화되고 변화되어 풍부하고 특별한 경관과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⁸⁸ 본 연구는 2023년에 시작되어 발표된 과제 2부다.

⁸⁹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부연구원*

⁹⁰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교수

⁹¹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박사 과정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서구에서 공원은 산업화가 도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 편의 시설이다. 1833년 영국 의회 보고서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개방된 공간의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19세기 후반 들어서는 공원 운동의 영향력이 커졌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총독은 1853년 파리 시내의 전체 공원 체계를 계획했고, 1858년에는 올름스테드(Olmsted)가 뉴욕 센트럴 파크의 설계를 완료하여 미국 도시 계획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공원의 개념은 이후 점차 아시아로 확산되었다. 메이지 시대 중반에 일본 정부는 도쿄를 근대 도시로 바꿀 계획을 세웠고 1885년 도쿄 도시 정비 조례에 공원을 명시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외국 조계지들이 조성되어 톈진 등 중국의 조약 항구에 첨단 편의시설로 공원이 도입되었다. 외국 조계지의 공원은 근대 중국 도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이 되었다. 사생활과 내향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인 정원과 달리 공원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여러 오락 및 스포츠 시설을 통해 대중이 현대 도시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고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므로 숨겨진 사회적 통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Wang et al., 2014). 당시 서양인에게 공원 야외 방문은 필수 여가 활동이 되었다.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 계획에서 거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근대에 톈진이 개방하고 중국과 서양의 건축 문화가 교류하면서 톈진의 조계지에 공원이 등장했다. 1880~1930년대 톈진 조계지에는 10개의 공원이 조성되었다. 조계지 공원의 양식은 식민지 국가의 정원의 미적 특성과 공간 조성 전통이 담겨 각국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며, 중국과 서양 문화가 결합된 경관이 많다.

사회주의 전환, 문화대혁명, 탕산 대지진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세월이 지나면서 공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공원 중 일부는 복원되었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철거되었다. 조계지는 많은 중국인에게 암흑, 침략,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2000년 중반부터 톈진 정부는 톈진만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조계지의 보호 및 개보수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 따라서 이러한 조계지 공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하고, 재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시급해졌으며, 역사적 발전, 공간적 특성, 소비 패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계지 공원은 중국의 전통 정원에서 근대 공원으로의 전환점이었으며, 중국 공원, 광장, 도시의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근대에는 공원이 조계 거주자를 위한 지역 시설이 되었으며 국가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계지 공원이 과거에 어떻게 발전했으며 오늘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분석하여 근현대 중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톈진의 과거 조계지의 공원을 사례로 역사적 발전, 공간의 복합적 특성, 방문객의 활동과 체험을 분석하여 중국의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의 필요에 맞게 공원을 보호하고 개보수하는 것이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 과제의 첫 번째 단계로 공원의 역사, 복합화, 소비 패턴 일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원의 소비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공원별 자료의 가용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원이 동일한 깊이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1.2. 이론적 틀

1.2.1 공간 소비

좁은 의미에서 소비는 다른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다. 비판적으로 보면 소비라는 용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상황을 체험으로 “소비”하는 폭넓은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 채택되었다(Jayne, 2006). Urry는 장소가 소비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라는 현재 포스트모던적 맥락에서 이 개념을 설명한다(Urry, 1995). 체험적 소비를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에서 공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체험 마케팅에 대한 모든 작업은 소비 체험을 지원하는 공간이 “체험적 맥락에서 완전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Carù and Cova, 2006: 103).

1.2.2 관광 경험

Boorstin은 관광 경험을 대중 소비 행위로 정의했으며(Boorstin, 1964), 관광은 체험 경제의 일부다. 관광 경험은 실제로 “다중 상태(multi-conditional)”일 가능성이 크다. 관광 경험은 특정 생산자들의 성과만이 아니라 유적지의 개별 방문객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들 간 상호작용이 특정 관광 경험을 생성한다(Shaw et Williams 2004: 35). Cohen은 관광객마다 다른 체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Cohen 1979). 이는 행동 관련 관광객 체험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다. 이에 대해 관광 경험을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을 포함하는 다기능적인 여가 활동으로 본 Ryan이 요약했다(Ryan (dir.) 1997: 25).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리학과 사회과학의 기존 연구 방법론을 결합한다. 연구에는 유적지 심층 관찰,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라는 두가지 기존 방법을 사용했다.

1) 관찰

관찰은 유적지의 풍부한 공간과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적지 전반을 살펴보는 1차 관찰의 장점은 지역의 분위기, 거리의 모습, 지역의 건축적 정체성에 대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행동 관찰은 사전 관찰 그리드 구축을 바탕으로 방문 상황(혼자,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공간적 행동(걷기, 휴식, 사진 찍기, 경관 감상), 방문객의 일반적인 태도(속도, 시각적 초점, 표정) 등 3가지 주요 측면을 따라 수행했다. 이러한 관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방문객의 상황을 담은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2) 인터뷰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주요 주제와 진행한 여러 인터뷰와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 이러한 인터뷰 기법은 연구에 중요하다. 초기 목표는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자, 즉 생산자 및 소비자(방문객)의 관점을 수집하고 비교하여 공간의 생산과 소비 활동 및 체험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1.4. 보고서 개요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분석과 문화지리학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재구성된 문화유산 공간에 대한 세가지 해석(문맥적, 공간적, 사회적)을 제안한다. 따라서 분석은 본 연구의 3개 부분에 해당하는 각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제시하고 전체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이러한 질문을 맥락화하여 텐진 내 이러한 공원의 배경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음으로 배치도, 건축, 식생 측면에서 이러한 서양 공원이 중국 상황의 영향을 받아 복합적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적응하여 과거의 관행과 현재 개발된 활동의 기능과 양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검증된 공간에서 방문객의 체험적 측면과 이러한 공원이 겪는 문제와 갈등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전반부는 텐진 조계지 공원의 역사와 공간의 복합화 등을 이전 보고서에서 작성하여 발표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나머지 연구, 공간 활용, 체험,

공원의 문제에 집중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2024년 현장 관찰과 현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현장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했다. 공원 내 공간의 상태와 특성, 방문객의 동기와 의견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찰을 수행했다. 사전 준비된 질문으로 유적지 방문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거주자/방문객이 이러한 유적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체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현장 조사 결과와 SNS에 올라온 방문객의 의견에 따라 공원의 공간 활용, 방문객의 체험과 인상, 공원 내 공간 사용에 대한 긴장과 갈등 등 공원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2. 텐진 조계지의 공원 개발

2.1. “복합화”: 중국의 조계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일부에서는 국제 조계지가 생겨났으며,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중국 전역에 27개의 외국 조계지(그림 2-1)가 분포했다(Liu & Deng, 2000). 외국 세력들이 조계지를 조성한 3대 주요 도시는 상하이, 텐진, 한커우다. 연이어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도시의 일부는 여러 식민지 제국 출신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따로 조성되어 독립적이고 확립된 행정, 사법부, 도시 계획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억압과 저항이라는 제국주의 패러



그림 2-1. 1902년 중국의 조계지 (LU Yue, 2023)

다임과 달리 Osterhammel(1986)이 “반식민지”로 명명된 이들 도시 영토는 협상과 타협, 대립을 통해 현지인과 외국인, 서로 다른 제국 간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공간적 긴장을 보여주며, 세계화의 대안적 역사를 제시한다(Singaravélou, 2017). “근대성의 실험실(laboratory of modernity)”의 성격으로서(Marinelli, 2009: 417), 도시 계획 및 건축 설계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실험과 서구 계획가의 관련 인프라, 물품, 기법(Falser, 2021)도 중국 도시 개발 근대화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었다. 조계지는 “서구 모델”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열망, 필요, 투쟁의 절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Li, 2013).

조계지는 세계화 맥락에서 도시 및 건축사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며, 식민지 문화유산의 변화를 형성하는 핵심은 역사적 공간적 특성이라는 상상적 가치에서 도출된다. 조계지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1990년 이후 도시 개발에서 중국의 개방, 세계화, 현대화라는 내러티브를 견인하는 경제적 및 상징적 자본의 역할을 했다(Gravari-Barbas et al., 2021). 조계 지역은 지방 정부가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원, 변형, 재배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지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국적인 문화 테마공원로 재구성했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창의적 소비지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탈식민지 관계에는 과거 식민지 열강과 과거 식민지 간 문화, 경제, 권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사회 변화 과정으로 인한 역학 관계의 변화가 존재한다. 조계지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세계화 순환, 특히 디지털 도시 경관 맥락에서 관광 개발과 비판적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성찰에 있어 비판적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2. 텐진의 외국 조계지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강가 도시인 텐진은 근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하며 경제적 역동성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이며, 오래된 조계지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교한 문화유산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 보호와 강화는 “굴욕의 세기”를 지우려는 욕구, 20세기 초 지어진 건축 건물로 유행에 부합하는 여가지를 조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와 같은 상충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 아편전쟁 말기에 텐진은 서양의 조계를 받아들여야 했던 중국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으며(그림 2-2), 그 중에서도 조계지가 가장 많았다.

1860년(2차 대전)부터 1945년 일본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9개 열강(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 벨기에)이 조계지에 주거지, 호텔, 공장, 은행, 학교, 병원, 기업 등을 조성하여 텐진은 세계의 축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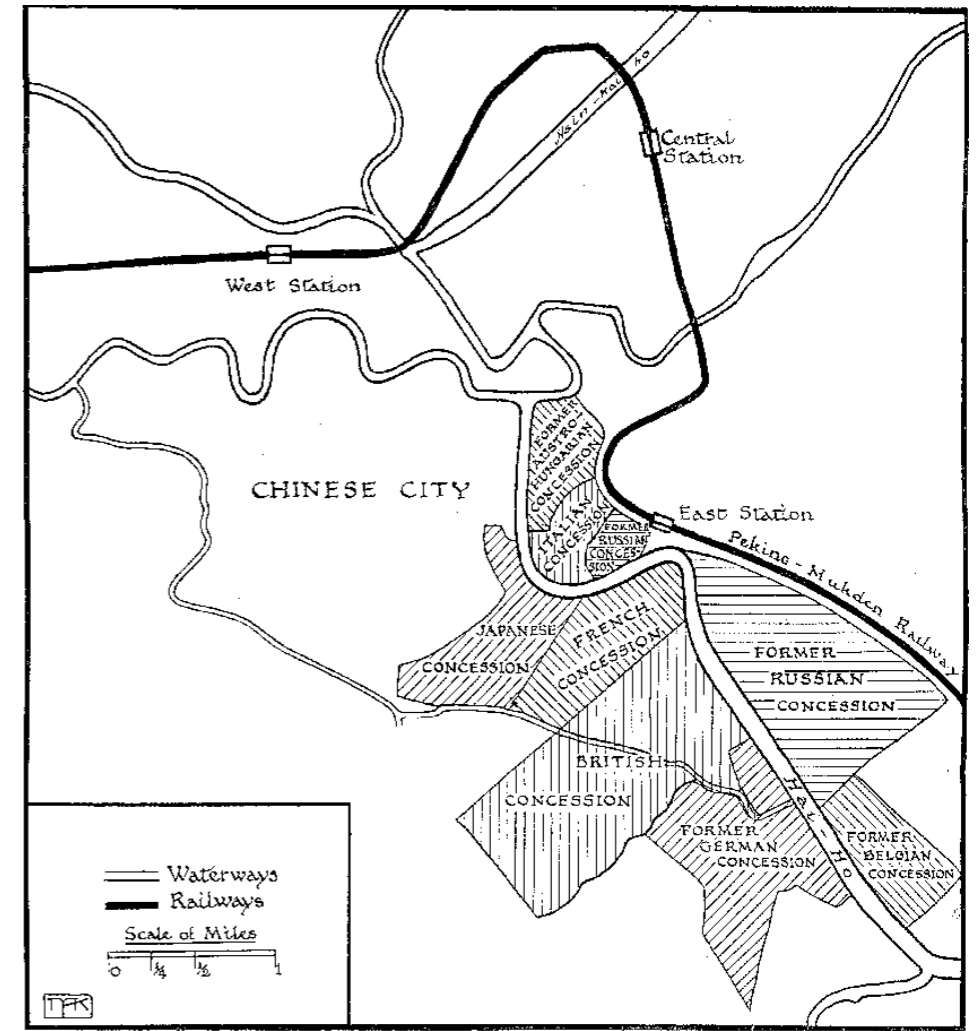


그림 2-2. 조계지가 표시된 텐진 지도(1940년) 출처: (Jones, 1940, Marinelli, 2009)

이 되었다(Singaravélou, 2017). 100년에 걸쳐 텐진은 대도시였으며 서구 열강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인과 도시 관계자에게 있어서도 근대성의 실험실이 되었다.

텐진은 대조적인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1986년 이후 지방 정부에서 과거 조계지의 보호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서야 실제 유산화 및 개보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 문화유산 강화의 공통된 특징에는 국가 정체성과 내수 소비가 주요 경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빠른 관광 개발 및 독특한 역사적 및 문화적 특성 추구 등이 있다.

2.3. 텐진 조계지 공원의 탄생과 발전

1860년 텐진이 조약 항구로 개항한 이후 서구 열강은 텐진에 조계지를 하나씩 조성했

다. 텐진은 중국 북부에서 개항의 최전선이자 근대 중국의 “서구화” 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근대의 근대화 외에 철도, 전신, 전화, 우편, 광업, 근대 교육, 사법부 구축을 통해 중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텐진은 당시 중국에서 산업 및 상업의 2위 도시이자 중국 북부에서 최대 금융 및 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텐진에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구시가지는 서구화된 도시로 발전하였고 중국인의 생활 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서양 음식, 양복, 춤, 영화, 경마, 서양식 별장, 생활 양식이 도입되어 과거 중국인의 개인 정원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공원도 텐진에 나타나게 되었다.

조계지가 조성된 후 각 나라에서 10곳의 공공 정원을 건설했다(Tianjin Municipal Editorial Board of Local Chronicles, 1996).

빅토리아 공원, 퀸즈 공원, 주빌리 공원, 엘진 공원 등 영국 조계지의 4개 공원, 프랑스 조계지의 타코우 로드 공원과 프랑스 정원, 일본 조계지의 야마토 공원, 이탈리아 조계지의 이탈리아 공원, 러시아 조계지의 러시아 공원, 독일 조계지의 독일 공원이 있었다(그림 2-3).

1880년 프랑스 조계지(타코우 로드 공원)에 텐진 최초의 조계지 공원이 조성되었다. 텐진 최초의 공공 공원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조계지의 확장에 따라 타코우 로드 공원은 사라지게 되었다. 빅토리아 공원은 영국 조계지 최초의 공공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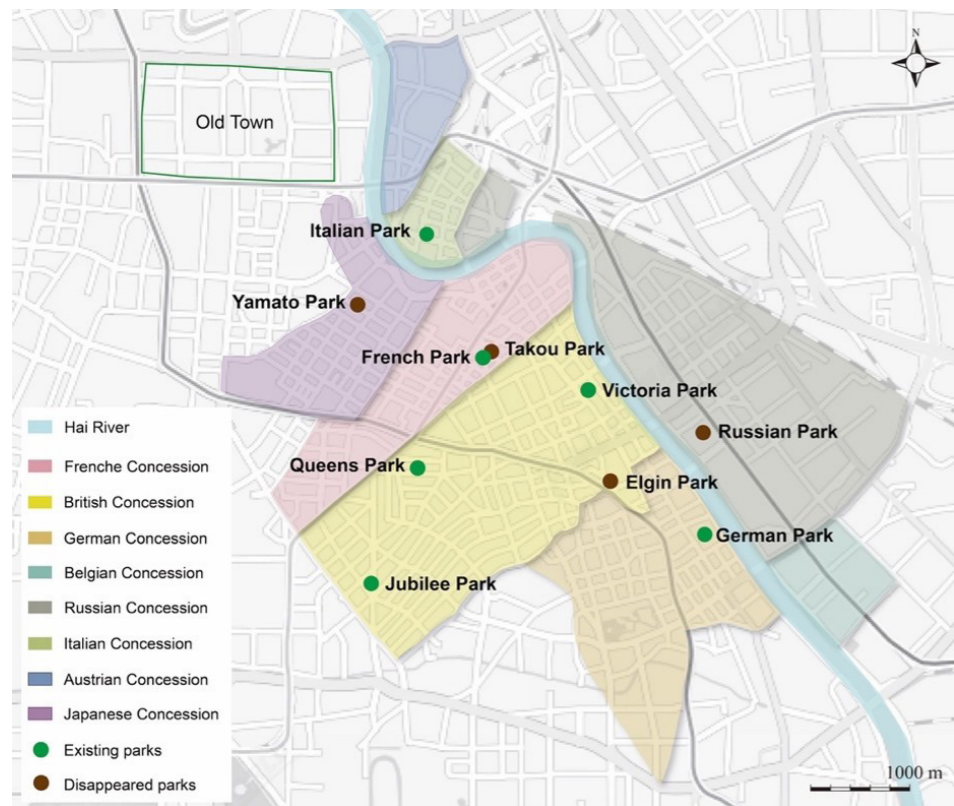


그림 2-3. 텐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LU Yue, 2023)

표 1. 텐진⁹²의 조계지 공원

조계	명칭	조성 날짜	현재 주소	지역 (hm2)	현재 명칭	현재 상태
프랑스	타코우 로드 공원	1880	허핑구 다구로와 치핑로의 교차 지점	1.57	-	공원은 조계의 확장에 따라 철거되었으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영국	빅토리아 공원	1887	허핑구, 지팡 북로와 타이안로 교차 지점	1.23	지팡 노스 공원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육각형 정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독일	독일 공원	1895	헝시구 지팡 남로와 향저우로 교차 지점	0.76	지팡 사우스 공원	수리, 재구성, 재사용되었다. 석조 정자, 조경석, 나무 포장로 등이 추가되었다.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	엘진 공원	1897	허핑구 난징로	0.4	-	공원은 난징로의 확장에 따라 철거되었다. 현재는 콘서트를 앞 광장이 되었다.
러시아	러시아 공원	1901	-	7.0	-	1939년 일본군이 징발하여 현재는 철거되었다.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일본	야마토 공원	1906	허핑구 안산로 28	0.47	-	1961년, 건물은 철거되고 베이이 극장이 원래 자리에 지어졌다.
프랑스	프랑스 공원	1917	허핑구 가든로	1.33	중앙 공원	재건 이후 새로운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배치도와 고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원래의 석조 정자는 남아 있지 않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공원	1924	허베이구 민즈로 47	0.54	이공 공원	이탈리아 조계는 개보수하여 이탈리아 양식의 거리가 되었다. 공원 북서쪽의 광장은 마르코 폴로 광장이 되었다.
영국	주빌리 공원	1927	구이저우로와 청두로의 교차 지점	0.74	투산 공원	여러 번 개보수 이후 원래 양식이 유지되었다. 언덕과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	퀸즈 공원	1937	허핑구 시안로	0.95	푸싱 공원	여러 번 개보수 이후 원래 양식이 유지되었다. 고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다. 188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영국 공원”라고 부르기도 한다. 1895년 처음 지어진 독일 공원은 현재의 “지팡 사우스 공원(Jiefang South Park)”다. 1949년 이후 준정다면체 배치로 이루어진 지양난 정원 양식으로 변화했다. 현재는 인구 정책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엘진 공원(Elgin Park)은 1897년 조성되었다. 자연스러운 배치도와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는 거리 공원이었다. 1901년 조성된 러시아 공원(Russian Park)은 과거 상업국 창고와 보관 및 운송 회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야마토 공원(Yamato Park)은 1906년 일본 조계에 조성되었으며, 일본 정원의 자연스러움이 강하다. 당시에 “조프레

92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공원 6곳(빨간색으로 표시)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광장(Joffre Square)”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프랑스 공원은 1917년에 조성되었다. 공원의 전체 배치도는 동심원과 방사형 도로로 구분된다. 이탈리아 공원은 1924년 조성되었으며 마르코폴로 광장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후에 “퍼스트 팰리스 앤 가든(First Palace and Garde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영국 조계지에는 2개의 다른 공원, 주빌리 공원(Jubilee Park)과 퀸즈 공원(Queen’s Park)이 있다. 주빌리 공원은 중국의 자연 정원 경관을 본 딴 것으로 “투산 공원(Tushan Park)”이라고도 불린다. 퀸즈 공원은 1937년에 조성되어 잔디, 관목, 나무 등 많은 식물적 요소를 조경에 사용했다. 퀸즈 공원은 이후 “푸싱 공원(Fuxing Park)”으로 이름이 바뀌었다(Meng & Chen, 2014).

3. 텐진 조계지 공원의 공간 전용 및 현대 활동

텐진의 역사 공원은 개인 정원의 변형, 조계지 공원의 조성, 중국의 공공 공원의 출현을 겪었다. 전쟁, 문화대혁명, 1978년 지진 등으로 인해 공원은 큰 피해를 입었고 공원들은 크게 쇠퇴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 공원이 복원됨에 따라 일부는 살아남아 “오래된 것을 오래된 대로 수리한다(repairing the old as the old)”는 원칙에 따라 수리되었다. 부분적으로 보존 및 개보수된 공원도 있고 도시 개발에 맞추어 재건된 공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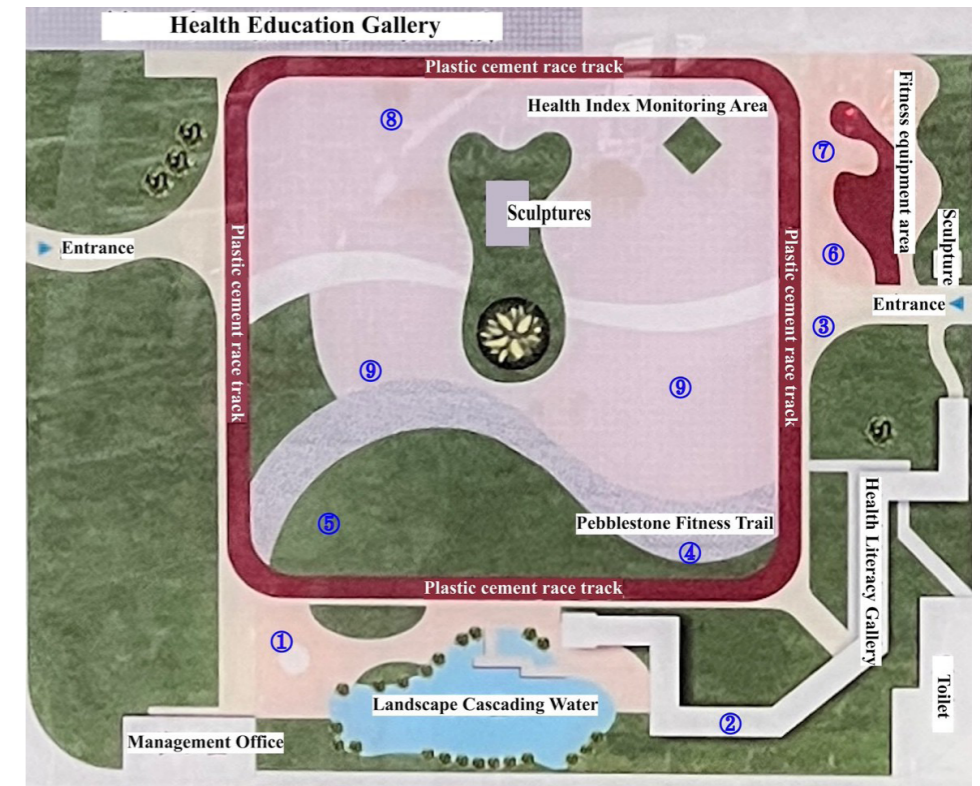
현재 문제는 현대 도시 생활의 필요에 따라 오래된 조계지 공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개보수할 것인가, 원래의 공간과 활동을 어느 정도 보존할 것인가, 어떠한 새로운 장소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특별한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심층 관찰을 바탕으로 개보수된 여가 공간으로서 조계지 공원의 공간 활용과 현재 활동을 살펴보고 한다. 과거 조계지 공원 소비에는 근대 공원의 고전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의 요구와 지방 정부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개보수되거나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재 주요 기능에 따라 일상적인 시민 생활을 위한 근린공원, 집단 활동을 위한 장소, 선전용 공간 등 세가지 분류의 공간이 있다.

3.1. 일상생활을 위한 근린 공원

일반적으로 공원은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배치되었다.

3.1.1 기존 기능

푸싱 공원(구 퀸즈 공원)은 현재 여가, 휴양, 운동이 융합된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



① 체조, 노인 여성 / 여러 그룹을 위한 음악 댄스 ② 음악, 노인 남성 ③ 스파링, 노인 여성
④ 댄스, 중년 여성 ⑤ 태극권, 노인 여성 / 양가 / 검술 ⑥ 어린이 놀이 ⑦ 성인 스포츠 장비 ⑧ 체조, 노인 여성 ⑨ 배드민턴, 노인

그림 3-1. 푸싱 공원 내 활동 배치 및 분포
(출처: Maria Gravari-Barbas, 2023의 초안을 바탕으로 Yue LU, 2024)

고 있다. 공원의 전체적인 공간은 잘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능 구역으로 구분된다. 녹지 공간 및 경관: 공원에는 갖가지 나무와 꽃이 있는 넓은 녹지가 있다. 산책로 및 보행자 시설: 공원 내에는 방문객이 걷거나 조깅하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산책로와 조깅 공간이 있다. 휴양 시설: 공원에는 여러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 공간과 운동기구가 있으며, 여가 및 운동을 위한 시설이 많다. 휴식 공간: 공원 곳곳에는 방문객이 휴식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3-1은 다양한 활동과 연령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때로는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한 푸싱 공원의 공간 배치를 보여준다. 노년층을 위한 활동(체조, 댄스, 태극권, 카드), 가족 활동(어린이 놀이), 여러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배드민턴, 걷기/달리기, 휴식)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구역(일반 공원 구역, 배드민턴 구역 등)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가지만, 특정 성별 및 연령대에 대한 특정 활동용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과 연령에 따른 활동을 반영한 계획적인 공간 배치임을 보여준다. “분쟁”은 지정된



그림 3-2. 옛 영국 조계 텐진 푸싱 공원에서 활동
(출처: Yue LU, 2023)

공간 내에서 갈등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된다(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 경관 환경은 주로 정원 소유자, 즉 소수를 위한 것이었다. 근대 도시 공원은 중국 전통 정원의 영향에 따른 이러한 생활 양식 요소를 무너뜨려 공원의 활동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주민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은 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찾으려 한다. 근대처럼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이러한 공공, 휴양, 장식 공원은 사람들에게 휴식, 재미, 친구와의 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텐진에서 근대 공원의 중요성과 이후 도시 경관, 문화, 생활에 미친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준다(Yang, 2019).

텐진의 조계지에 외국인이 조성하고 남겨둔 작은 공원은 이제 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앉거나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이나 셔틀콕을 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들과 놀러 가는 장소가 되었다(그림 3-2). 공원 조성의 원래 의도와 상당히 부합한다. 공적이고 여유롭고 친숙하며 무료이며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장소지만 현재 주요 이용자는 중국인 주민이다. 한 주민은 푸싱 공원에 대한 추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원이 도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면 푸싱 공원은 여러 세대의 텐진 시민들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1940년대 초, 푸싱 공원은 표준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고 이후 여러 세대의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 되었죠. 1987년 공원 서쪽에는 방문객이 감상하도록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예가와 유명한 42명의 글씨를 모은 기념 갤러리가 열렸어요. 2010년 지방 정부에서는 푸싱 공원을 정비하고 개보수했죠... 이후 공원은 전체 경관에 암석과 물로 역사와 문화를 도입하였고 국민이 여가 및 휴양 활동에서 전통 정원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푸싱 공원은 여러 차례 개보수되고 바뀌었지만 푸싱 공원은 여전히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체스를 두거나 춤추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주들은 주변을 신나게 뛰어다니죠. 따라서 푸싱 공원은 옛 시절을 보존하고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⁹³



그림 3-3. 푸싱 공원에서 카드와 체스를 즐기는 시민들
(출처: Yue LU, 2023)

3.1.2 독창적 활동

역사 공원은 녹지와 열린 공간이 부족한 복잡한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역사 공원은 대부분 도시의 소관이다. 따라서 역사 공원은 주로 현대의 특수 용도 기능을 한다(Sun, 2009).

전통 시민 문화

신중국 건국 이후 도시 공원은 중국 국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공원 내 일부 장소와 공간(특히 시민 이용에 가장 적합한 공간)은 전통적인 시민 생활 공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공원에서 시민 활동은 사회 생활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다. 일부 개방된 공간, 울창한 나무 그늘, 자유로운 산책로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관습 및 습관과 부합한다(Liu, 2016).

예를 들어, 전통 마을에서는 거리 예술가들이 도로와 광장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사람들은 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둥글게 모인다. 따라서 푸싱 공원(구 킨즈 공원), 지팡 노스 공원(구 빅토리아 공원), 중앙 공원(구 프랑스 공원)과 같은 일부 과거 조계지 공원에서는 중국 경극이나 무술의 현장 연습과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하거나 개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본다. 또 다른 예로는 나무 그늘 아래 또는 공원의 빈 공간에서 카드나 체스를 두거나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모여” 이를 보는 모습이 있다(그림 3-3).

광장무

2013년부터 “광장무”는 중국 인터넷 검색에서 인기 검색어가 되었다. 광장무



그림 3-4. 푸싱 공원에서 광장무를 추는 주민들
(출처: Yue LU, 2023)

는 광장 또는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주민이 운동을 목적으로 추는 리듬이 있는 춤이다. 보통 중국 본토의 인기 발라드나 팝송을 리믹스한 전자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광장무는 높은 시설이나 역량,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에게 인기가 많으며, 중국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관찰에 따르면 광장무는 에어로빅, 양가, 소수민족 춤, 무도회 춤 등 여러 종류가 있는 조계지 공원에서 매우 인기 있는 활동이다(그림 3-4). 연습이 자주 진행되고 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통 또는 현대 관습이 도시 공원의 공간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이 조계지 공원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텐진의 전통과 현대의 “시민 생활”은 공원 공간에 미묘하게 반영되어 지역 및 국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텐진의 조계지 공원을 재창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Liu, 2016).

3.2. “혁신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배치

두 번째 분류는 광장, 입구 등 중요 공간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활동이다.

3.2.1 행사 개최

중양 공원의 전신인 프랑스 공원은 옛 프랑스 조계지의 대표적 여가 공간이었다. 공원은 지름이 약 135m인 원형이다. 중양 공원 내 도로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도로 체계는 조계 시절의 중양 방사형 구조로 이어진다(Yang, 2019). 현재 상태



그림 3-5. 텐진 중양 공원에서 열린 중국 열사기념일 행사
(출처: Yue LU, 2023)

는 그림 4-7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말 개보수된 공원 중앙의 문화 광장은 시민들의 주요 여가 공간이다. 중심에는 음악 분수가 있고, 광장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 도로가 뻗어 있으며, 정원로에 6개의 출입구가 있고, 공원에는 7개의 음악가 동상이 있으며, 지홍창의 옛 저택 앞에는 지홍창 동상이 세워져 있다.

중양 공원(구 프랑스 공원)은 집단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1995년 중양 공원 옆에 저택을 두었던 항일 중국 장군 지홍창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양 공원 남동쪽에 원래 잔다르크 동상이 있던 자리에 말을 타고 검을 든 지홍창의 동상을 세웠다.

따라서 중양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와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곳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애국 교육 장소가 되었다.⁹⁴

중요 기념일에는 공원에서 교육 및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30일 제10회 중국 열사기념일에 중양 공원에서 열사 기념 행사를 주최했다(그림 3-5). 지역 위원회에서는 지홍창 동상 앞 광장에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항일 영웅이자 애국 장군으로서 지홍창의 위대한 업적을 듣고 “각 열사를 깊이 추모하고 혁명 전통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진행했다.⁹⁵

3.2.2 자발적인 상업 활동

중국의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공 서비스 및 공공 복지 시설로 간주되며 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LIU Hongjie와의 인터뷰, 2024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발전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공원 입구에서는 “유연한 일자리”를 찾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현상으로 노점상을 볼 수 있다.

공원은 보통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기에 좋은 장소이며 유동 인구가

94 https://csgl.tj.gov.cn/zl/cslhjs/qsgy/202009/t20200922_3777807.html

95 https://www.tjnh.gov.cn/ztl1/ztl/nhqjwmsq/202210/t20221002_6001657.html



그림 3-6. 문안공원 앞 캐소노점 및 자동차 트렁크 커피숍
(출처: Yue LU, 2024)

많아 판매 기회가 많다. 또한 매장과 비교하여 노점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높은 임대료와 매장 유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텐진의 여러 지역, 특히 공원 근처 노점상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 관리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이러한 “소매” 노점 행위는 보통 산업상업부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문제가 있다. 차 트렁크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인터넷 연예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물건을 팔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한다(그림 3-6). 이 판매자는 이동식 “노점”은 매우 유연하며 도시 관리 직원이 점검하러 오면 즉시 차를 몰고 달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3.3. 주제별 선전과 교육에 중점을 둔 공원

2010년대 이후 텐진의 과거 조계지의 일부 공원은 특정 주제로 공식 선전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공원 곳곳에 홍보 게시판과 선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는 건강, 마약 통제, 반부패, 인구 통계 등 다양하다. 정책은 지팡 사우스 공원 및 투산 공원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다.

3.3.1 지팡 사우스 공원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 동안 텐진 헝시구는 선진 문화 발전에 인구 문화를 반영하는 정책에 높은 수준의 지지와 선호를 나타냈다. 인구 가족 계획 서비스 센터, 여러 구와 지역사회의 인구 문화 서점, 인구 문화 공원 건설 등에 5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했다. 2010년에 완공된 “인구문화공원”은 지팡 사우스 공원(구 독일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000m²이다. 공원에는 13개의 인구 문화 조형물과 6개의 인구 문화 게시판이 있다(그림 3-7). 헝시구 정부에 따르면 지팡 사우스



그림 3-7. 지팡 사우스 공원의 인구 문화 관련 게시판
(출처: Yue LU, 2023)



그림 3-8. 투산공원 내 마약방지 게시판
(출처: Yue LU, 2023 & 2024)



공원은 시민을 위한 독특한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풍부한 인문학 조각품이 공원에 문화적 분위기와 삶의 우아함을 불어넣어 휴식을 취하면서 인구 문화의 영향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헝시구의 예술인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⁹⁶

3.3.2 지팡 투산 공원

또 다른 예로는 투산 공원(구 주빌리 공원)이 있다. 허핑구에 마약 방지 시범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허핑구 마약관리실은 지방환경공원관리위원회와 함께 허핑구 정부가 1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투산 공원에 야외 “마약 방지 선전교육지”를 조성했다.

공원 내에는 마약 방지 역사 공간을 조성하고 도로 양쪽에 20여 개의 마약 방지 지식 및 규제 게시판을 설치했으며(그림 3-8), 마약 전시 공간도 조성했다. 공원은 초중등 학생, 자원봉사자, 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중요한 마약 방지 교육지

96 <https://news.yuanlin.com/detail/72386.htm>

가 되어 “구의 마약 방지 선전 활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모두 마약 방지 노력에 참여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의 마약 방지 사업이 한층 발전했다.”⁹⁷

4. 공원 소비의 체험적 차원

텐진의 조계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해석을 넘어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활동의 의미, 특히 그러한 유형의 공간을 선택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동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문객의 관점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문화유산 맥락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이러한 공간과 관련하여 무엇을 상상하는가? 개인이 다른 유형의 도시 공원에서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가? 이러한 공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체험과 상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감각을 해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 SNS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공원의 중요성과 인식을 초기에 파악했다. 여러 방문객 집단과의 인터뷰에 따른 정성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 텐진의 과거 조계지 공원을 방문하는 체험적 차원을 특징짓는 4가지 주요 측면을 파악했다.

4.1. 접근성이 좋은 유적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3~1957년) 동안 텐진의 공원과 녹지 조성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고 거리에 조성된 작은 녹지 공간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3가지 작은 시공”(작은 녹지 공간, 작은 정원, 작은 거리 경관)이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시공 끝에 1988년까지 도시 내 총 92개의 중형 공원(면적 2~10헥타르 미만)과 소형 공원(면적 2헥타르 미만)이 조성되었으며, 총 면적은 68.07헥타르에 달했다. 이러한 중소형 공원들은 양식과 기능이 각기 다르다. 조사에 따르면 텐진의 대형 공원의 연중 평균 방문객 수는 m2당 하루 0.05~0.2명인 반면, 중소형 공원은 m2당 하루 0.5~1명으로 대형 공원에 비해 5~10배 높다(Sun, 2009). 특히 서양식 패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된 조계지 공원은 도시 녹지 공간의 중요한 장소이다. 기존 역사 공원은 녹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복잡한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대부분 현대적 기능을 수행한다.

방문객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일상 생활에서 공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많은 방문객들이 여가 및 친목 활동을 위해 걸어서 또는 일상적 이동을 쉽게 해주는 전기차를 통해 공원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러한 접근성은 공원 방문의 전반적인 체험 수준을 높이며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공원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양식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야외 스포츠를 즐기거나 녹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방문의 전반적인 체험을 크게 제고한다. 또한 자연을 즐기고 바람을 쐬 수 있는 기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서 정신 건강과 웰빙 개선에 기여한다.

인터뷰 방문객 6, 남성, 40~60세, 푸싱 공원

“공원이 넓고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러한 공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거나 교통 수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특히 아침 운동 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 지역 공원에서 아침 운동이나 조깅을 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원이 가깝다는 편리함 덕분에 멀리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일상 생활에 신체 활동을 쉽게 포함시킬 수 있죠. 또한 청년이나 장거리 러너들의 경우 넓은 러닝 코스가 있는 대형 공원을 선호하지만, 가볍게 운동하려는 이들 대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요. 이들은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을 찾은 많은 방문객이 고령자여서 공원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공원 접근성에 우려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경우 어려움 없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과 지역사회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는 걷기, 가벼운 조깅, 친목 모임 참석 등 여러 신체 활동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호는 단순히 편의성만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노령 방문객들은 공원이 가까우면 피로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거리 이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 활동을 위해 지역 공원을 선택할 경우 규칙적인 운동 루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60~80세, 투산 공원

“사실 이러한 공간은 어린이, 가족, 특히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멀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는 노인에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지역 공원을 더 많이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많은 고령자에게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는 것 등 일상적인 활동도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대형 공원은 다양한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체력이나 이동 수단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번잡한 도심 내에서 넓은 공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은 동네에 융합될 수 있는 작고 세심하게 설계된 녹지 공간이 중요함을 보여주죠. 주거 지역 내에 지역사회 공원, 도시 정원 또는 소규모 녹지를 조성할 경우 전반적인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간은 지역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어 노인과 어린이 모두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죠. 반면 도시 경관이 교외에만 위치한 제한된 대형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도시민 사이에서 소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주민이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97 <https://www.app.tjyun.com/jinyunhao/system/2023/06/20/054033439.shtml>

4.2. 쾌적한 장소

공원의 체험을 설명할 때 방문객들의 응답에서 “쾌적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쾌적하다라는 단어는 방문객이 공원에 머무는 동안 갖게 되는 전반적인 정서적 및 감각적 참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위해 “쾌적한” 공원 체험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체험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방문객에게 공원은 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 위치한 공원은 대대적인 재투자과 개보수를 거쳐 현대적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발전을 넓은 녹지와 보행자 친화적인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여 촉진된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공원을 다시 활성화하고 주변 지역의 미관도 크게 개선했다. 고민이 담긴 경관, 공공 편의시설, 현대적인 건축 요소 등이 조화되어 지역의 시각적 매력을 제고했다. 방문객들은 무성한 녹지, 관리가 잘 된 화단, 탐험 및 여가를 장려하는 산책로 등 활기찬 분위기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응답자들은 피드백에서 조계지 공원의 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공원이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방문객들이 도시 개발에 따른 밀도와 크게 대조되는 자연에서 즐거움을 발견함에 따라, 이러한 공간의 아름다움은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방문객 11, 여성, 20~40세, 지팡 노스 공원

“3일 전에 텐진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공원은 처음 방문했어요. 오자마자 저는 매력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배치도는 매우 체계적이며, 각 구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명확하고 공원 내 다양한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방문객이 쉽게 둘러볼 수 있어요. 휴식과 휴양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디자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아요. 녹지가 무성하고 생기가 넘쳐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근처에 크고 정교한 공원이 없다면 이곳을 자주 찾았을 것 같아요.”

많은 방문객들은 공원의 풍성한 녹지와 개방된 공간이 전반적인 체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그림 4-1). 무성한 잔디, 생기가 넘치는 화단, 관리된 잘 나무는 도시의 콘크리트, 아스팔트와 대조를 이루며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자연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조성하여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된다. 다양한 식물의 존재는 공원의 미적 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점도 있다. 녹지는 공기를 정화하고 소음 공해를 줄이며 더운 여름에 시원한 미기후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방문객들은 시간을 내어 자라나는 경



그림 4-1. 녹지 공간이 정리된 지팡 노스 공원
(출처: Yue LU, 2024)

관을 거닐며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지저귀는 새소리, 피어나는 꽃의 향기 등 자연의 광경과 소리에 몰입하여 여러 감각으로 동시에 느끼는 몰입형 경험에 빠져든다. 이는 “쾌적하다”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뷰 방문객 6, 남성, 40~60세, 푸싱 공원

“최근 텐진에 조성된 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은 아직 녹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공원의 나무와 식물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무성하지 않아요. 신규 식재 지역 중 상당수는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되지 않아 기존 공원 대비 다소 비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대형 공원이 성숙하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규모가 작고 오래된 공원을 보면 보다 성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무들은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성장하여 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녹색 경관을 자아내죠. 이러한 공원의 넓은 수목은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죠.”

또한, 이러한 조계지 공원에서 흔한 “쾌적한 규모”라는 개념은 방문객의 반응에서 자주 나타난다. 공원을 둘러싸고 입지해 있는 과거 조계지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적으로 친근하고 매력 있는 동네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그림 4-2). 이러한 건축 규모는 지역 특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공간이



그림 4-2. 투산 공원 주변의 상대적인 소규모 건물
(출처: Yue LU, 2023)

된다. 이러한 공원의 매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작은 건물들이 자연과 인간 거주지 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균형 잡힌 배치를 언급한다.

방문객은 소형 규모의 배치가 주변 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느끼고 공원을 즐기고 오래 방문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이러한 공원을 둘러싼 작은 주택은 쾌적한 분위기에 크게 기여해요. 옛 건축과 낮은 높이는 공동체 의식을 일으키는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러한 배치는 공간에 인간적인 느낌을 불어넣어 방문객이 공원을 산책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요. 반면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동네의 성격이 크게 바뀌고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높은 건물은 녹지 공간을 가리고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사람들이 위축되고 주변 환경과 단절되게 느끼게 해요.”

4.3. 친목 분위기

일부 방문객에게는 공원이 중요한 친목의 장이며 각 개인이 인맥을 맺고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지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녹지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거



그림 4-3. 지팡노스 공원에서 만나는 나이든 친구
(출처: Yue LU, 2023)

나 연인과 야외를 즐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그림 4-3). 공원은 사회적 친목에 도움이 되는 친근한 환경을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의미 있는 대화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문객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은 공원의 활기찬 분위기 구성에 보다 기여한다. 공원 내 산책로, 휴식 공간, 활동 구역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연령과 관심사가 각기 다른 방문객은 각자의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배치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 충족에 매우 중요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족부터 활동을 하는 노인까지 남녀노소 공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원 내 다양한 활동은 사회적 체험을 더 풍부하게 한다. 운동 교실, 문화 공연 등 기획 행사부터 소풍, 어린이 놀이까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인다.

일부 방문객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은 활기찬 이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전반적인 매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활기가 넘친다(그림 4-4).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모습,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은 활기와 따뜻함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활기찬 환경은 각 방문을 독특하고 즐겁게 만들



그림 4-4. 푸싱 공원과 투산 공원의 여러 활동의 공존
(출처: Yue LU, 2023 & 2024)

어 역동감을 더해 공원 내 모두의 체험을 높인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공원 경관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방문객들이 운동, 댄스 수업, 즉흥 게임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낸다. 웃음, 음악, 대화 등 상호작용과 갖가지 소리는 공원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기존 및 신규 방문객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이 공원은 크지는 않지만 모든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활동이 있어요. 작지만 완벽하다는 말이 딱 맞죠. 공원 내에는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지정 공간이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더해요. 아이,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기 좋죠. 경쾌한 음악에 맞춘 활기찬 댄스 그룹, 태극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은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요. 많은 이들이 모여 친해지고 공원 내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러워요.”

인터뷰 방문객 10, 남성, 60~80세, 푸싱 공원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는 많은 사람이 많아 활기가 넘쳐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람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죠? 주위를 보세요. 다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들, 공놀이하는 아이들, 그늘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죠. 멋지죠? 한 공간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오후에는 여럿이 모여 카드놀이 하거나 웃고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한다는 느낌은 삶에서 친목과 여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염성이 있죠. 특히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만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죠.”

또한 많은 방문객은 공원이 개인에게 중요한 사교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 여가 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사교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이 공원에서 노인들은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사교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유대감을 맺을 수 있다(그림 4-5). 다른 노인들이 있으면 소속감이 높아져 노화에 따른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은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된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그림 4-5. 지팡노스 공원의 사회적 분위기
(출처: Yue LU, 2023)

그네를 타거나 놀이터를 타는 등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기찬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아이들이 팀워크, 공감, 의사소통 등 중요한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사교적 분위기는 공원을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교류의 역동적인 중심지로 바꾼다. 방문객은 이러한 공간에서 우정을 쌓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단 운동이든 즉흥 댄스든 단순히 카드 게임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공원은 방문하는 모든 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친목을 유도한다.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20~40세, 투산 공원

“역사적 동네에서 이웃 간 관계는 보다 끈끈하고 의미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친목하여 고층 주거 환경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죠. 고층 건물에서는 이웃의 이름도 모르죠. 교류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짧은 대화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고립된 거품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반면 오래된 동네, 특히 역사 공원이 있는 동네에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공 공간이

많이 있어요. 공원은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이웃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이러한 환경의 분위기는 친근해요. 사람들은 친근하고 다가가기 더 쉬워요. 소규모의 친밀한 환경은 대화를 유도하고 친목을 증진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죠.”

인터뷰 방문객 5, 여성, 20~40세, 푸싱 공원

“공원에는 아이들이 많고 서로 노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요. 공원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친목 공간이 되죠. 상대적으로 어린이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주 지역과 달리 공원은 보다 넓고 다양한 놀이 친구가 있죠. 주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소수의 또래와 교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체험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는 다양한 이웃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또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요. 여러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성을 높이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4.4. 향수

톈진 조계지의 역사적 유적들은 중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Liu, 2013). 이러한 지역은 외국의 존재에 따른 문화적 영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크게 형성하게 되었다. 조계의 역사적 산물인 이러한 공원은 자연이 아름다운 고요한 공간이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적 의미가 풍부한 보고이다.

공원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과거와 그 안에 공존했던 다양한 공동체를 상기시킨다. 방문객은 녹지 공간을 거닐면서 여러 문화적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공원 건물, 산책로, 경관 디자인에서 동서양 건축 양식의 융합을 구현한 경관을 보게 된다. 이러한 영향의 조화는 자연 환경과 그 주변의 복합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공간에는 나무, 동상, 기념비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여 방문객의 체험을 풍성하게 하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으킨다(그림 4-6). 이렇게 공원은 조계 구역의 사회 구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성찰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히 과거 조계지에 살았던 60세 이상의 지역 방문객에게 과거에 대한 “감탄”이 무시할 수 없는 체험이 된다. 인터뷰에 응답자들은 무언가 향수에 젖었고 동네의 역사적 분위기와 경관에 감각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객 대부분은 공원의 오래된 물건과 경관이 사라지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절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방문객 8, 남성, 18~20세, 푸싱 공원

역사 지구의 공원은 옛날 양식과 분위기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공원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는데,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반영하는 디자인 요소와 경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향수와 진정성을 환기시켜서 공간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림 4-6. 중앙공원 주변 역사적 건물
(출처: Yue LU, 2023)

인터뷰 방문객 3, 여성, 20~40세, 투산 공원

“저는 역사적 동네에 사는 데 익숙해요. 오래된 동네가 더 좋은 이유는 첫째, 문화적 환경이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층 주거 건물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에 나가고 집으로 오죠. 역사 공원 등 오래된 동네의 경우 작은 공간이 많지만 편안하고 특히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반대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공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방문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공원의 풍부한 역사적 내러티브와 방문객의 일상적 체험 간에 단절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지식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문객 중 한 명은 “과거 조계지의 일부이며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인터뷰 방문객 15, 남성, 60~80세, 지팡 사우스 공원).

이러한 감정은 공원의 문화적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역사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다른 방문객들에게서도 보인다. 응답을 보면 그들은 공원의 미적, 휴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깊은 역사적 내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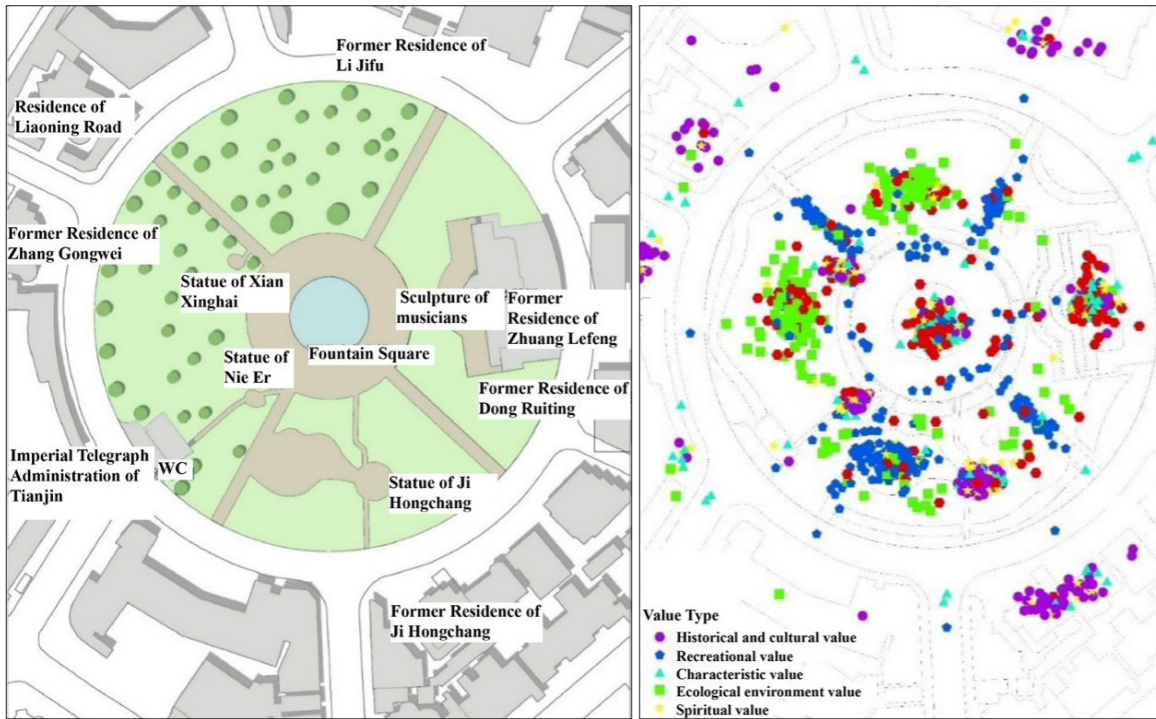


그림 4-7. 중앙 공원의 배치와 방문객의 경관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분포
(출처: Zhang, 2017)

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러한 지식의 격차는 공원의 역사적 중요성과 방문객의 이해 간 간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 표지판과 같은 더 나은 국민 참여 전략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텐진 중앙 공원의 가치 인식을 조사한 박사 학위 논문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원이 역사적 맥락과 문화유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상당수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인식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당 논문(Zhang, 2017)의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5%가 중앙 공원이 오래되었고 공원 내 환경이 역사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홍창 조각상이 가장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했고 다음으로 음악 관련 조형물 3점이 가치가 있다고 했다.

셋째, 공원 주변의 역사적 건물에는 지홍창, 리지푸, 장공의 옛 저택 등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도 있다. 혁명 열사인 지홍창의 동상은 애국심 교육을 위해 주로 세워진 것이며, 음악 관련 조형물 3점은 공원의 역사와는 무관하다(그림 4-7). 따라서 공원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 것도 인터뷰 참가자들이 중앙 공원이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관 랜드마크의 일부는 후속 선정 및 개보수 과정에서 시공되거나 상상한 것이다.

5. 텐진 조계지 공원의 문제와 갈등

문화유산 경관의 표현은 그 위치와 가치 측면에서 다르고 각기 다른 이념을 제시한다(Tunbridge and Ashworth, 1996). Maria Gravari-Barbas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커다란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Gravari-Barbas, 2013). 따라서 오래된 지역 개보수의 가치와 부가가치가 지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할 경우, 문화유산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입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개보수의 질에 대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반발을 잊지 말아야 한다. 텐진의 조계지 공원은 조계 기간에 지어졌으며 이후 몇 차례 개보수했다. 앞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사용 및 변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까? 본 장에서는 방문객이 소비 체험에서 보인 비판과 불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텐진의 도시 공원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Meng and Chen, 2014) 기존의 근대 조계지 공원도 어느 정도 개보수되었다. 도시 지역의 녹지 면적은 확보되었지만 조계지 공원은 역사적 특징의 상실,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의 획일화와 같은 문제가 있다.

5.1.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부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역사문화지구에 소재해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텐진 조계지 공원의 정비에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보호 개념이 부족하며 유지관리가 부적절하여 역사적으로 고유한 근대 도시 공원의 특징과 경관을 잃는 문제가 있다.

5.1.1 도시 개발에 뺏긴 조계지 공원

역사 공원의 보호와 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 경관의 특성을 보다 부각시켜 도시만의



그림 5-1. 아마토 공원의 원래 모습과 현재 모습
(출처: https://www.sohu.com/a/517985335_121123801(왼쪽) 및 Yue LU, 2023(오른쪽))



그림 5-2. 지팡 노스 공원의 훼손된 역사적 요소
(출처: Yue LU, 2023)

특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Yang, 2019). 하지만 도시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원래의 조계지 공원 중 일부는 “무고하게” 철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샤오바이루 지역에 위치한 평안 공원(구 옐진 공원)이 있다. 1974년 난징로 건설로 인해 공원에 남은 유일한 녹지 공간이 철거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하이허 중학교의 건물 건설로 인해 원래 토지의 일부를 뺏긴 옛 독일 조계지의 지팡 사우스 공원이 있다(Meng and Chen, 2014). 원래 일본 조계지에 있었던 야마토 공원은 원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그림 5-1).

텐진은 역사 및 문화 분야 보호에서 역사적 건물에 중점을 두었고 역사 공원에 대한 연구와 복원은 다소 간과했다(Meng and Chen, 2014).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텐진에서는 옛 이탈리아 조계지를 개보수하여 마르코 폴로 광장을 복원하고 평화의 여신상을 재건했지만, 당시 광장의 중요한 요소인 옛 이탈리아 정원은 전혀 복원하지 않았다. 현재 공원이 위치한 환경은 엉망이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원래 양식은 사라졌으며 복원 및 재건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5.1.2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파손된 문화유산 요소

텐진의 조계지 공원의 문제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공원 문화유산의 파괴와 손실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과거 조계지에 살았던 일부 주민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원의 옛 경관이 사라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문화유산의 손실과 파괴 외에도 일부 경관이 사라지고 일부 시설이 파손되어



그림 5-3. 지팡 노스 공원의 도난당한 돌사자
(출처: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r3vA>)

일부 주민의 불만을 일으켰다(그림 5-2).

인터뷰 방문객 12, 여성, 60~80세, 지팡 노스공원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곳에 자주 왔어요. 목조 정자는 오랜 세월 동안 상태가 좋지 않고 파손되어 버렸어요. 고장난 의자는 수리되지 않고 그냥 세워져 있고요. 이 공원은 원래 지방당위원회 정원이었어요. 나중에 옆에 있는 건물은 호텔로 바뀌었고요.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원이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기 고장 났는데 수리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요. 의자 2개를 보세요.

지금은 달라요. 과거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에 큰 모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모란은 그릇만큼 크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수영장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나무를 심었죠. 수영장에는 물이 있는 적도 없었고 이후 철거되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오래된 유물이라고 정자 2개뿐이며, 관리조차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 물건, 시설, 심지어 공원 전체가 문화 유적이어야 하지만, 유지보수 담당자는 거의 없고 입구에 유산 및 보호 표지판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문화유산 요소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팡 노스 공원에서 도난당한 돌사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그림 5-2).

“허핑구 지팡 노스 공원 육각정 앞에 있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돌사자가 도난 당했어요. 높이는 약 1.3m, 무게는 약 1톤이죠. 두 돌사자는 원래 1887년 지팡 노스 공원 북쪽에 조성된 옛 영국 조계 건물인 고든 홀에 있었던 것이죠. 1970년대 초 새로운 시 청사 시공으로 인해 원래 건물이었던 고든 홀이 철거되었고 두 돌사자는 지팡 노스 공원으로 이전했어요. 역사가 100년이 넘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2010년 8월 초 지팡 노스 공원에서 도둑이 돌사자 한 쌍을 훔쳤는데요. 펜치로 공원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다음 공범들과 함께 나무 판자랑 맨손으로 돌사자 한 쌍을 밀어 내려 소형 트럭에 싣고 달아났죠.”⁹⁸

98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r3vA>

한 달 후 사건은 해결되었다. 돌사자 한 쌍이 발견되었지만 역사 공원의 제자리로 이전되지 않았다. 실제 원래의 돌사자가 회수된 후에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지 않은 것이다. 대신 새로운 돌사자 2개가 만들어졌지만 역사적 의미를 잃고 조금 가짜처럼 보였다.

인터뷰 방문객 12, 여성, 60~80세, 지팡 노스공원

“돌사자 2개를 도난당했어요. 문화 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있을 거예요. 돌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를 만드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사람이 많이 만져서 반반해졌고 역사가 느껴지는 유물이었어요. 이후 찾았지만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죠. 가짜로 교체했는데... 가짜는 원래 보다 크고 비율이 조금 안 맞아요.”

5.1.3 부적절한 개보수로 인한 고유한 특성 손실

일부 중요한 역사적 요소나 경관을 부적절하게 수정 또는 교체하여 역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텐진은 2009년 이후 일부 역사 공원을 개보수하기 시작했지만, 주로 노후 시설 교체, 식물 심기, 바닥 보수 등 “하드웨어”에만 집중했고 역사 문화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 시공사, 설계자 모두 공원의 기능을 강조하고 현대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역사성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공원만의 특성을 잃게 하기도 한다(Yang, 2019).

표 5-1. 텐진 중앙 공원 지역의 보호 및 개발 역사

날짜	보호/개발	사업명	주요 내용
1985년	보호	“텐진 지방 일반 계획”, 중앙 공원 문화유산 보호 구역	텐진의 8대 문화유산 보호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지홍창의 옛 저택이 있는 곳이기도 한다 지방 문화유산
1996년	보호	“텐진 지방 일반 계획”의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	11개의 역사 문화 도시 중점 보호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3년	개발	텐진 프랑스 건축 관광 구역 사업 개발 계획	프랑스 건축 관광 구역의 출발점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	개발	하이강 종합 경제 개발 사업 2단계	보호 복원을 위한 4가지 경관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4년	개발	텐진 허핑구 “노스 파이브 애비뉴” 계획	CRD의 3대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04년	보호	“텐진 지방 일반 계획(1)”의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수정안)”	14개의 주요 역사 및 문화 보호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013년	보호	“중앙 공원 역사문화지구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중앙 공원 역사문화지구의 토지 용도, 건축 밀도, 높이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문화 지구
2015년	보호	“중앙 공원 지역 보호 및 활용 계획”	정책에 따라 보호 및 활용 방식이 결정되며, 부분적인 정비 및 활용으로 전체 구역의 개발을 진행한다 프랑스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고급 상업, 문화, 여가 산업 소개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출처: Yang, 2019: 57)



그림 5-4. 과거와 현재의 텐진 중앙 공원 조감도

(출처: Sun, 2009(왼쪽) 및 <https://tj.sina.cn/news/2019-11-04/detail-iicezrr7033270.d.html>(오른쪽))

예로 들어 중앙 공원 지역의 보호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공원 주변의 정원 주택과 공공 건물이며 중앙 공원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발 계획은 대부분 관광 개발, 상업 확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중심으로 하며, 개보수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경관과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관련 담당 부서는 보호 인식이 부족하고 조계지 공원의 백 년 된 경관 문화 유산으로서 풍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Meng and Chen, 2014). 과거 조계지를 개보수하는 동안 공원 경관의 일부 핵심 요소가 바뀌게 되었다. 중앙 공원은 예전에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배치의 프랑스 고전 정원 양식이 특징이었다. 중심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유럽식 석조 정자가 있고 주변에는 프랑스 정원의 기하학적 패턴의 특징을 반영한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개보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철거되어 현재는 건식 분수 광장으로 바뀌었고 프랑스 정원의 특징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그림 5-4). 녹색 식재 형태는 풍부하지 않고 일부 방문객은 활동을 위한 그늘이 부족하고 녹색 식물 품종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원의 계절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방문객 14, 남성, 60~80세, 지팡 노스공원

“예전이 더 좋았어요. 땅이 없는 오래된 공원이었어요. 중앙 공원의 변화는 끔찍할 정도예요. 당시 중앙 공원에는 작고 낮은 담장이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담장이 사라지고 사방으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없어요. 좋은 나무는 모두 베어버렸고요. 저희도 애국심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관찮은 걸까요? 그냥 베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제 조카가 호주에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 심은 나무도 함부로 베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5-5. 지팡 사우스 공원에 추가된 새로운 경관 요소
(출처: Yue LU, 2023)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주제로 정비된 조계지 공원도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지팡 사우스 공원(구 독일 정원)이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7,000m²가 넘는다. 현재의 지팡 사우스 공원은 2008년 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인구 문화 중심으로 13개의 조형물과 12개의 선전판을 추가했다. 하지만 공원을 개보수하면서 공원의 원래 양식을 무시하였고, 공원 중앙에 새로 지은 유럽 고전 양식의 정자와 잔디밭의 다양한 모양의 조형물은 어색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그림 5-5).

5.2. 과거 조계지 공원의 주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오래된 동네에서 오래된 건물은 잠시 머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곳으로 물리적 및 심리적 고향이라 할 수 있다. Jane Jacobs는 1960년대 초 작은 가게는 상업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중심지이며, 따라서 이를 대형 상업 공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Jacobs, 1961). 이러한 공간이 철거되면 지역사회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슬립화”와 “다양성의 자기 파괴” 과정, 즉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Ibid.). 안타깝게도 일부 조계지 공원의 주변 지역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5.2.1 주변 지역에 새로 시공된 고급 건물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지팡 노스 공원 주변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76년唐山 대지진 이후 빅토리아 공원 옆에 있던 고든 홀은 1981년 파손되어 철거되었다. 원래 부지에는 텐진 인민정부의 새 건물이 들어섰다. 당시 고든 홀 뒤에 있던 텐진 영국 조계 소방서 건물만 보존되어 있는 상태다. 2010년 지팡 북로의 대규모 건물 개보수가 시작되었다.

고든 홀 부지에 지어진 지방 건물은 철거되었고, 원래 고든 홀 동쪽에 있던 옛



그림 5-6. 오래된 역사 속 고든 홀과 현재의 리츠칼튼 호텔
(출처: Liu, 2016(왼쪽) 및 <http://rwtj.tianjin8.com/pic/view/type2/55/id/131.html>(오른쪽))



그림 5-7. 타이안로 파이프 코트야드 사업
(출처: Ji, 2018(왼쪽) 및 Yue LU, 2023(오른쪽))

영국 조계지 소방서도 철거되었다. 2013년 고든 홀 부지에는 커다랗고 고급스러운 리츠칼튼 호텔이 들어섰다(그림 5-6). 건물 정면의 원래 파란색 벽돌 벽은 붉은 벽돌 판으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원래 건축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 2층 규모의 고든 홀이 4층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확장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디테일이 비례를 벗어나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⁹⁹

또한 원래 고든 홀의 서쪽과 남쪽에는 타이안로 파이프 코트야드라는 이름의 고층 건물이 지어졌다. 실제 5성급 리츠칼튼 호텔은 텐진의 현대 금융, 사업 관광, 서비스 산업의 핵심 지역을 목표로 하는 타이안로 파이프 코트야드 사업의 일환이다. 2000년대 초 텐진에서는 51억 위안을 투자하여 타이안로를 따라 텐진 영국 양식 지구(타이안로 영국 양식 지구라고도 함)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공원과 5개의 코트야드를 기본 단위로 지역의 배치를 구성한다. 텐진 영국 양식 지구의 상업 형태는 주로 고급 상품 판매, 부티크 호텔, 본사 사무실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프 코트야드 시스템에는 주로 5개의 코트야드가 있다. 코트야드 1호와 3호는 고급 주거 지역, 코트야드 2호와 5호는 사업 및 상업 지역, 코트야드 4호는 텐진 리츠칼튼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 단지다. 코트야드 1호는 8~9층으로 된 하이강 경관 주

99 <https://mp.weixin.qq.com/s/yh2cNGgNXIPPSyF6Uygag>



그림 5-8. 옛 영국 조계 소방서 재건
(출처: Ji, 2018)

택으로 200~400㎡의 아파트가 있다. 코트야드 3호는 4~8층 건물로 된 170~700m²의 아파트가 있으며 일부 세대에는 보모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그림 5-7).

타이안로의 5개의 코트야드는 보호 구역에 위치해 있다. 사업에는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정비, 주변 경관에 대한 신축 건물의 조화, 환경 분위기 개선을 중심으로 한다.¹⁰⁰ 하지만 고층 신축 건물, 고급스러운 외관, 비싼 집값, 고급 상점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 버렸다.

이후 앞서 언급한 구 영국 조계 소방서는 호텔 북동쪽에 재건되어 고층 건물에서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이는 외롭고 비어버린 회색의 작은 건물이 되었다(그림 5-8).

지팡 노스 공원 주변만큼 잘 살진 않았지만 투산 공원도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 방문객 4, 남성, 60~80세, 투산 공원

“투산 공원에는 나무 몇 그루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 작은 언덕도 있긴 하죠. 해방 이후처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까지는 좋았지만 1980년대에는 좋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러한 건물도 없었고 주변 환경도 좋았죠. 과거에는 작거나 낮은 건물만 있었지만 모두 철거되었어요.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요. 모든 것이 비즈니스에 자리를 빼앗겨 버렸죠. 전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예전처럼 트여 있지 않아서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고층 건물만 있는데 실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돈 없이는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파트는 200m²가 넘어요. 웨양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군이고요.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은 m²당 4만 위안 이상이고 6만 또는 7만 위안은 되어야 해요.”

5.2.2 공공 시설이 사라짐

현재 지팡 노스 공원은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와 함께 새로운 도시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재탄생”하면서 많은 주민의 어린 시절이 담긴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공원에는 1980년대부터 대형 벽화 조형물, 원형 분수, 화단, 암석 등이 점차 추가되었다. 나중에 공중 화장실도 설치되었다. 공원 남쪽의 잔디밭은 어린이용

¹⁰⁰ <https://www.zmcat.com/mweb/community.html?id=646>



그림 5-9. 한때 스포츠 공원이었던 지팡 노스 공원
(출처: <https://mp.weixin.qq.com/s/w-F1fJMih1yscapunr3vA> and https://mp.weixin.qq.com/mp/appmsg/show?search_click_id=13089547197487586387-1701014071914-3328631807&biz=MjM5MDA1OTQ3OA==&appmsgid=10013155&itemidx=1&sign=d11c72dcf136c68216643d89bbdbbfa8#wechat_redirect)

휴양 시설, 탁구대 등 스포츠 시설을 추가하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 주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공원에 자주 가서 놀았고 방과 후 반 친구들이랑 공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그 시절 공원의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라고 말했다(Ji, 2018). 2010년 지팡 노스 공원은 철거되고 초기 “빅토리아 정원” 모습으로 재건되면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원래 있던 오락 시설도 사라지게 되었다(그림 5-9).

재미있는 사실 11 - “코끼리 미끄럼틀과 뽕뽕이”

“제 기억에 “지방당위원회 정원”의 커다란 정자 근처에 어린이용 철제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높이가 1.8m로 그리 크지 않고 미끄럼틀의 길이는 3m였어요. 주위 아이들은 줄을 서서 미끄럼틀을 타고 재빨리 달려와 다시 줄을 서곤 했죠.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 시설이었어요. 나중에는 철제 미끄럼틀을 철거하고 시멘트 주조 미끄럼틀을 새로 만들었죠. 코가 긴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미끄럼틀은 높이가 약 3m에 달하고 계단이 12개가 넘죠. 모두들 코끼리 엉덩이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 코끼리 머리 안에 서서 한 명씩 미끄럼틀을 탔죠. 미끄럼틀은 약 4~5m의 코끼리의 몸통이고 표면은 시멘트로 광택 처리했어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많이 타다 보니 미끄럼틀은 매끄러워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좀 자라서 담력이 생겨서 서서 미끄럼틀을 타기도 했죠. 위험하긴 했지만 재밌었죠. 저처럼 미끄럼틀 타는 용감한 아이들도 있었죠. 미끄럼틀 옆에는 철제 프레임으로 만든 뽕뽕이도 있었어요. 뽕뽕이에는 양머리, 말머리, 소머리가 있었죠. 미끄럼틀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은 뽕뽕이를 타곤 했어요. 부모님이 뽕뽕이를 돌리면 아이들은 그 위에 앉아 즐겁게 빙글빙글 돌았죠. 더 커서 용감해진 저는 빠르게 회전하는 뽕뽕이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죠. 수십 번씩 돌기도 했어요.” (Zhang, 2021)

이전 이탈리아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이 있었지만 이후 대부분 철거되었다. 나중에 우포 시장이 되었다. 현재 공원은 마르코폴로 광장의 조형물과 그 주변의 빌라를 볼 수 있는 작은 광장이 되었다. 새로운 이탈리아 양식 마을의 일부로 텐진에서 가장 활기찬 밤문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¹⁰¹ 하지만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사라졌다.

¹⁰¹ <https://mp.weixin.qq.com/s/DBkCk1cssCvC-zt-IH66Xw>



그림 5-10. 과거 지팡노스 공원과 유사한 코끼리 미끄럼틀
(출처: Zhang, 2021)

5.3. 조계지 공원의 사회적 갈등

사회적 갈등은 특정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유럽에서 조성된 이래 공공 공간으로서 공원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공원이 공공 공간으로 도입되면서 공원의 사회적 갈등은 다양해졌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인종, 경제 집단,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다(Sun, 2016).

5.3.1 과거 중국인과 서양인 간 문제

중국의 조계지 공원은 중국과 서방 간 갈등의 주요 장이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조성된 이래 중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조계지 공원은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중국인과 개 출입 금지”와 같은 규칙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원 운동”으로 인해 중국인에게 조계지 공원은 식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인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식민주의 정책의 존재를 중국인이 실감하게 되었고 깊은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Ibid.).

톈진 최초의 공원인 빅토리아 공원은 사회적 갈등의 장이 되었다. 베이징-톈진 타임즈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빅토리아 공원에 관한 기사를 10건 이상 내며 공원을 사례로 여러 측면의 사회적 갈등을 풀어갔으며 사회적 갈등이 공원의 물질적 공간에 미친 영향과 변화 또한 기록했다.



그림 5-11. 옛 이탈리아 공원의 사용 구분 구역
(출처: Liu, 2016)

빅토리아 공원은 원래 영국 조계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아름다운 환경과 밴드 공연이나 축하 행사로 인해 조계 밖 중국인들의 관심을 점차 끌기 시작했다. 지방 의회에서 처음 발표한 공원 규정에는 중국인의 공원 입장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었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중국인은 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조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인이 많이 조계에 거주하게 되면서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1895년 7월 두 독자의 편지가 베이징-톈진 타임즈에 게재되었다. “백인”이라는 이름의 독자는 공원에 들어온 중국인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괴롭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서구 문명”의 일부로서 공원을 중국인 증가에 잠식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기를 바랐다. “어머니”라는 또 다른 독자도 빅토리아 공원이 톈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며 상류층이 아닌 중국인이 공원에 “넘쳐나”

어머니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1895년 8월 중국인은 하루 전에 지방의회 외무실에 가서 입장권을 받아야 공원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오후 5시 이후에는 공원에 입장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발표했다. 입장 규정으로 인해 중국인과 외국인이 섞일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Zhang, Li and Sun, 2012).

또한 텐진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이 조성한 대부분의 조계지 공원은 당시 중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 규정이 있었다. 일부 조계지 공원에는 “식민지 색채”가 강한 동상과 기념물이 없긴 하지만 조계 문화의 식민지적 성격이 남아 있다(Liu, 2016). 예를 들어, 이탈리아 공원의 배치도, 정원 조성 방법, 정원 조각은 실제 이탈리아 정원과 많이 유사하지만 중국과 서양으로 기능적 구역을 구분하고 두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했다(그림 5-11).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계 문화의 영향에 따라 중국인과 서양인이 따로 사용하는 공원이 되었다.

이후 “중국인과 개 출입 금지” 등 문제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공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계는 중국인의 인식 속에서 금단의 구역이자 식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인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식민주의의 정책이 있다는 점을 중국인이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을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로 승화시켰다. 공원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점차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넘어섰으며 공원 문제로 형성된 사회적 기억은 민족주의적 감정과 관행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공원은 당시 중국과 서구 간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다(Sun, 2016).



그림 5-12. 푸싱 공원의 다양한 이용자 간 논쟁
(출처: Yue LU, 2023)



그림 5-13. 중앙 공원 주변 중매 코너
(출처: Yue LU, 2023(왼쪽) 및 Salabert, 2013(오른쪽))

5.3.2 현재 이용자 간 갈등

오늘날에는 조계지 공원의 사용과 관리가 각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공원의 설립과 관리는 권력자와 관리자의 생각을 반영하고 실제 다자간 사회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계층마다 공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은 관리자와 일반인이 함께 설계한다.

여러 개보수 이후 기존 공공, 휴양, 장식 공원은 사람들에게 휴식, 재미, 친구와의 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푸싱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앉거나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이나 셔틀콕을 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이들과 놀러 가는 등 다양한 집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조화로운 장면 뒤에는 갈등도 존재한다. 연구 기간 동안 논쟁을 보게 되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원이 주로 여가와 운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 음악은 상대적으로 시끄러웠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음악 소리를 낮추거나 빨리 나가라고 했다. 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원은 모두의 것이며 공원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일부 “열성적인” 주민들도 논쟁에 끼어들었다(그림 5-12). 논쟁은 경찰서 직원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공원의 기능 영역 배치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다툼 두 집단을 비판하고 교육했다. 결국 양측 모두 실망한 채 자리를 떴다.

인터뷰 방문객 13, 남성, 60~80세, 지방 노스 공원

“공원에는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등 다른 이용자들도 많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나고 춤추는 장비에서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서로 참아야 해요.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원이 자신의 집이 아니며 원하는 만큼 조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참아야 해요. 노래를 부르고 나는 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원하는 대로 걷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림 5-14. 텐진의 연례 베고니아 축제 장면, 지팡 노스 공원
(출처: 2024년의 첸시 셴)

단체 행사와 일일 활동 이용자 간의 충돌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중앙 공원을 텐진의 랜드마크로 만든 특별 활동 중 “중매 코너”라는 것이 있다. 부모가 미혼 자녀의 “이력서”를 걸어두고 결혼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부모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공공 구역이다. 주말에는 각 지역에서 온 부모나 “중매인”이 몰려 들어 자녀나 고객의 짝을 찾으러 중앙 공원 주변에 자발적으로 소개팅 시장을 형성했다(그림 5-13). 해당 지역을 처음 현지 조사했을 때 우리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나이, 키, 경력, 주민등록, 소득, 성격, 재산 소유, 배우자 선택 요건 등 개인 정보가 적힌 종이를 자전거나 판자에 줄로 매달아 놓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곳은 “중매”를 위해 주말에 만나는 장소로 사람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직 미혼인 가족의 자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주말 소개팅 행사로 인해 중앙 공원은 시끄러워지고 원래 활동 공간을 방해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일부 방문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인터뷰 방문객 14, 남성, 60~80세, 지팡 노스 파크 방문객

“공원은 비교적 좋고 비교적 조용해요. 공원에 도입된 변화 중 일부는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 중앙 공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매 활동을 진행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매우 혼잡해요. 도로가 막혀 교통이 나빠졌어요.”

관광객과 주민 간의 갈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히 관광 축제 기간 동안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 기간에는 야외 시장 또는 팝업 스토어 등 상업 활동이 공원 등 공공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일상 여가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한정된 공간 자원을 두고 경쟁이 발생하여 공원을 즐기려는 방문객과 현지인 간 긴장이 높아졌다.

또한 축제 활동에 따라 사람과 차량이 많아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심해진

다. 이러한 교통 혼잡의 증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이웃을 돌아다니거나 필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이 기간에는 공동체 공간의 즐거움이 방해받고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 위의 사례에서 공공의 필요가 공원 관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의 사용과 관리하는 한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의 참여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 성별, 집단이 각자의 휴양 필요와 선호를 공원 이용에 반영한다.

6. 결론

근대 텐진은 격렬하게 충돌하던 서구와 아시아 민족이 한동안 공존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세계의 축소판으로 변모했다(Singaravélou, 2023). 이렇게 특별한 시대만의 존재였던 텐진 조계지의 공원은 중국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에 개방하여 서양 문화와 생활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후 공원의 설계와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 남아 있는 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를 위해 개보수 및 정비 사업을 거쳤다.

한편 여러 연령과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에는 산책, 휴식, 스포츠, 친구와의 만남, 아이들과의 놀이 등 여러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원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과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일부 단체 행사, 자발적인 상업적 관행, 정치적 선전 등 새로운 시대에 공원 공간의 특별하거나 “혁신적인” 용도 및 이용을 발전시켰다. 즉, 공원의 기능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용도는 배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조계지 공원에서 공간 활동의 용도를 해석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관행의 의미, 공간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문객의 체험을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접근성, 자연스럽게 편안한 공간, 친목 분위기, 향수 등에 따라 공원의 환경과 분위기로 인해 노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이 모여든다. 공원은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상호작용과 문화 관행의 핵심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함께 작용하여 텐진의 과거 조계지에 있는 공원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공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공원을 시공하고 사용하는 동안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며 공원의 물질적 공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은 단순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 도시적 및 국가적 의미가 있으며 특별한 지위가 있다(Sun, 2016).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조계지 공원들은 중국에서 고유한 역사적 배경,

발전 과정, 의미 특성이 있는 독특한 유형의 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은 각 단계마다 사회의 발전 상황과 이념을 반영하여 다양한 현대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다. 20세기 전환기 텐진에 대한 본 연구는 제국주의 세계화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밝혔다. 텐진은 중국이 아니지만 중국의 정치가들이 영감을 얻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현대화/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텐진은 중국의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곳이다(Singaravélou, 2023).

참고문헌

Boorstin Daniel J.,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64). Carù Antonella & Cova Bernard, “Expériences de consommation et marketing expérientiel” (Consumption experiences and experiential marketing), *Revue française de gestion*, Vol. 32, No 162 (2006): 99-115.

Cohen Erik,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al Research*, Vol. 13, No 2 (1979): 164-182. Gravari-Barbas Maria, *Aménager la ville par la culture et le tourisme*, (Paris: Le Moniteur, 2013).

Gravari-Barbas Maria, Guinand Sandra, & Lu Yue, “Hybridisation and circulation of models in Tianjin’s former concession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16, No.5 (2021): 513-532.

Hou Guoying, “Wudadao yihui yangfang huayuan yanjiu” (Study of the destroyed house gardens on Five Roads), (ME diss., Tianjin University, 2010).

Jacobs Jane,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1961). Jayne Mark, *Cities and Consumption*, (Abingdon, Routledge, 2006).

Ji Cheng, “Zou weiduliya huayuan, zhuyi xiri gedengtang” (Walking through Victoria Gardens and reminiscing about the old Gordon Hall), *Zhucheng tongjian*, (online, 2018, <https://mp.weixin.qq.com/s/yh2cNGgNXIPPSyIF6Uygag>)

Jones Francis Clifford, *Shanghai and Tientsi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reign Interests* (Londron: Humphrey Milford for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Li Tian, “Tianjin fazhuan chengshi fazhan yanjiu (1861-1943)” (Study on the History of Urban Development of the French Concession in Tianjin), (Ph.D. diss., Tianjin University, 2015).

Li Yingchun, “Planning the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fragmented municipality and contested space, 1843-1937”, (Ph.D. diss., Hong kong University, 2013).

Liu Jingkun & Deng Chunyang, 2000, “Guanyu woguo jindai zuzhe de jige wenti” (Certaines questions sur les concessions modernes en Chine),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Philosoph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o. 6 (2000): 22-31.

Liu Junhai, “Diyu wenhua yingxiang xiade Tianjin chengshi yuanlin fazhan yanjiu”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ianjin Urban Landscape Shaped by Regional Culture), (ME diss., Tianjin University, 2016).

Marinelli Maurizio, “Making concessions in Tianjin: heterotopia and Italian colonialism in mainland China”, *Urban History*, Vol. 3, No. 36 (2009): 399-425.

Meng Jin & Chen Liang, “Youji gengxin yu chixu fazhan — Tianjin yuan zuzhe gongyuan fazhan duice yanjiu” (Organic Renew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o Explor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ianjin the Original Concession Parks), in Chinese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ed.), *Proceedings of the 2014 Annual Meeting of the Chinese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1, (Beijing: China Architecture and Building Press, 2014: 75-78).

Mengin Christine, “Tianjin dans les guides anciens (1866-1937)”, in Aoki Nobuo, Maria Gravari-Barbas, Christine Mengin et Xu Subin (eds.), *Tianjin, transferts mondiaux et appropriations locales. Architecture et aménagement urbain dans la Chine moderne* (Paris: Edition de la Sorbonne, 2023: 389-406).

Osterhammel Jürgen, “Semi-colonialism and informal empire in twentieth-century China: Towards a framework of analysis”, in Mommsen Wolfgang J. (ed.), *Imperialism and Afte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London: Allen & Unwin, 1986: 290-314).

Ryan Chris (dir.), *The Tourist Experience: A New Introduction*, (Londen, Cassell, 1997).

Shaw Garenth & Williams Allan M, *Tourism and Tourism Space*, (Londres, Sage, 2004).

Singaravélou Pierre, *Tianjin Cosmopolis. Une histoire de la mondialisation en 1900*, (Paris: SEUIL, 2017). Singaravélou Pierre, “Tianjin en 1900, un laboratoire de la mondialisation?”, in Aoki Nobuo, Maria Gravari-Barbas, Christine Mengin et Xu Subin (dir.), *Tianjin, transferts mondiaux et appropriations locales. Architecture et aménagement urbain dans la Chine moderne*, (Paris: Edition de la Sorbonne, 2023:73-84). Sun Yuan, “Cong chengshi gongyuan kan Zhongguo xiandai jingguan de chansheng yu fazhan” (The Generation and Developments of China Modern Landscape from the View of City Park), (ME diss., Tianjin University, 2009).

Sun Yuan, “Jiedu Tianjin yuan yingzuzhe – Weiduoliya gongyuan” (Interpretation of the former British concession in Tianjin -- Victoria Park), *Jindai Tianjin* (online, 2016, <https://mp.weixin.qq.com/s/fG-918MRouRoOFLbcLEWDw>)

Sun Yuan, “Jindai Tianjin rizuzhe dahe gongyuan quyu kongjian guihua ji jingguan yuansu yanjiu” (Research of Regional Planning and Landscape Element of Yamato Park in the Original Japanese Concession in Modern Tianjin), *Zhongguo yuanlin*, Vol. 35, No. 4 (2019: 140-144).

Tianjin Municipal Editorial Board of Local Chronicles, *Monograph of Tianjin. Appendix. Concession* (Tianjin: Tianjin Social Sciences Academy Publishing House, 1996).

Tunbridge J.E. & Ashworth Gregory John,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Chichester: Wiley 1996).

Urry John, *Consuming Plac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Yang Lan, “Wenhua fazhan shiye xia de Tianjin jindai chengshi gongyuan yishu yanjin” (Research on Tianjin Modern Urban Park Art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evelopment), (ME diss., Tianjin University, 2019).

Zhang Jingjing, Tianjin lishi gongyuan de fazhan bianqian he jingguan jiazhi yanjiu (The Development of Historic Parks in Tianjin and the Cognition of Landscape Value), (ME diss., Tianjin University, 2017).

Zhang Tianjie, Li Ze & Sun Yuan, “Hunza xiandaixing yu gongong kongjian – Qianxi jindai Tianjin de gongyuan fazhan” (Hybrid Modernity and Public Space: An Investigation on Public Park Development in Modern Tianjin). *New Architecture*, No.05 (2012): 33-40.

Zhang Yichi, “Victoria Park in Tianjin: British Urbanism Shaped by Interaction during China’s Modernization”, in AISU, *La città globale: La condizione urbana come fenomeno pervasivo*, Proceeding of conference, section A, (2021): 395-403.

Zhao Jing, “Chengshi kongjian diaocha – Tianjin xinyijie” (Survey on City Space – the Xin Yi Street in City of Tianjin), *Gonggong yishu* (Public Arts), No.12, (2011: 42-47).

부록

부록 1. 텐진의 조계지 공원

조계	날짜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면적(헥타르)
영국	1860~1945년	32.6	108.7	270.7	412.1
프랑스	1861~1945년	29.3		133.4	162.7
미국	1862~1902년	8.7			
독일	1895~1919년		69.0	211.2	280.1
일본	1896~1945년		111.2	32.7	143.9
러시아	1900~1924년			365.1	365.1
이탈리아	1902~1945년			54.7	54.7
벨기에	1902~1931년			49.9	49.9
오스트리아	1903~1919년			68.7	68.7

부록 2. 텐진의 조계지 공원

방문객	성별	나이	공원	조계	날짜
1	여성	60~80	중앙 공원	프랑스	2023년 9월
2	남성	60~80	중앙 공원	프랑스	2023년 9월
3	여성	20~40	투산 공원	영국	2023년 9월
4	남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2023년 9월
5	여성	20~4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6	남성	40~6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7	여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8	남성	18~2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9	남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10	남성	60~80	푸싱 공원	영국	2023년 9월
11	여성	20~4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2	여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3	남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4	남성	60~80	지팡 노스 공원	영국	2023년 9월
15	남성	60~80	지팡 사우스 공원	독일	2023년 9월
16	여성	20~40	지팡 사우스 공원	독일	2023년 9월
17	여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10.2024
18	남성	60~80	투산 공원	영국	10.202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2024년 유네스코 석좌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식민지 이후 문화유산의 유산화 및 관광화의 “왕홍” 역사: 톈진 우다다오

Chensi Shen*, Maria Gravari-Barbas**, Yue Lu***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박사 과정; 톈진 대학교*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교수**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 EIREST 부연구원***

*교신저자: chensi.shen.tju@gmail.com

PP.
204-
235

초록

과거 영국 조계지였던 톈진 우다다오는 특유의 건축 양식과 유명 정치 및 문화 인사들이 거주했던 저택이 남아 있어서 현재 중국의 중요한 역사 지구이며 관광 명소다. 톈진의 산업과 경제적 지위가 쇠퇴하면서 지방 정부는 SNS를 중심으로 우다다오를 도시 홍보와 발전의 중심에 두고 관광을 발전시켜 이른바 왕홍 관광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때는 애용하고 치욕스럽게 여겨졌던 식민지 역사가 “서구적 특성”을 지닌 관광지를 광고하는 소재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우다다오의 관광화와 유산화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우다다오가 SNS 관광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했는지 전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확립된 문화유산 이미지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문화유산 관광 개발과 도시 개발의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했다. 본 연구는 민족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관광 활동에서 역학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지역 문화유산의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 서론

1.1. 배경

본 연구는 “왕홍 도시화의 영향을 받은 변화하는 문화유산 경관: 인터넷 인기 관광지로서의 과거 조계지”라는 제목의 전년도 연구의 연장선이며, 2023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유네스코 석좌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했다. 이전 연구는 우다다오를 비롯한 과거 조계지의 왕홍 도시화 현상을 중심으로 했지만,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사전 및 후속 연구로서 그 결과를 확대하고 맥락화한다.

1.2. 연구 목적

- 사전 연구 관점: 왕홍 도시화의 뿌리 추적
본 사전 연구에서는 우다다오가 왕홍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된 유산화와 관광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는 광범위한 도시 개발 목표에 맞게 문화적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재해석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후반 우다다오의 식민지 시대 건축과 국제적 근대성 간 연관성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재평가되고 재조명되었다. 이 지역의 변화는 문화유산과 관광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며 소셜 미디어 이전 시대에 우다다오의 다층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한 과정을 반영한다. 본 사전 연구는 중국이 식민지와 현대사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따르고자 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다다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식민지 이후 시대라는 맥락에서 나타났으며, 지역의 “이국적인” 조계지의 역사는 과제이자 기회가 되었다. 유산화는 새로운 범주로서 역사적 감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관광화는 과거를 경제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홍 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지역 내러티브가 국가적 및 세계적 열망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 후속 연구 관점: 포스트 왕홍 시대의 과제
동시에 본 연구는 왕홍 중심의 인기가 정점을 찍은 후 우다다오에서 현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하는 후속 연구이기도 한다. 틱톡, 샤오홍슈와 같은 플랫폼으로 형성된 왕홍 도시화의 폭넓은 영향은 지난 5년 동안 관광 관행, 문화유산 내러티브, 경제 패턴을 재정의했다. 왕홍이 초기 유행했을 때 우다다오에 커다란 인지도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피상적인 참여, 과도한 상업화, 지속 불가능한 개발 모델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했다.
또한 본 연구는 포스트 왕홍 시대로 볼 수 있는 현재에 떠오르는 기회와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소셜 미디어 중심의 관광이 포화에 이르면서 문화 창의성과

문화유산 관리를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성, 진정성,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창의적인 문화 산업이 왕홍 관광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의 동일한 상품화와 획일화를 영속시킬 위험이 있는지 살펴본다.

2. 배경

2.1. “복합화” 분야: 중국의 조계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 일부에서는 국제 조계지가 생겨났으며,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이어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도시의 일부는 여러 식민지 제국 출신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따로 조성되어 독립적이고 확립된 행정, 사법부, 도시 계획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억압과 저항이라는 제국주의 패러다임과 달리 Osterhammel(1986)이 “반식민지”로 명명한 이러한 도시 영토는 협상과 타협, 대립을 통해 현지인과 외국인, 서로 다른 제국 간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공간적 긴장을 보여주며 세계화의 대안적 역사를 제시한다(Singaravélou, 2017). 2009), 도시 계획 및 건축 설계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실험과 서구 계획가의 관련 인프라, 물품, 기법(Falser, 2021)도 중국 도시 개발 근대화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었다. 조계지는 “서구 모델”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열망, 필요, 투쟁의 절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Li, 2013).

조계지는 세계화 맥락에서 도시 및 건축사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며, 식민지 문화유산의 변화를 형성하는 핵심은 역사적 공간적 특성이라는 상상적 가치에서 도출된다. 조계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1990년 이후 도시 개발에서 중국의 개방, 세계화, 현대화라는 내러티브를 견인하는 경제적 및 상징적 자본 역할을 했다(Gravari-Barbas et al., 2020). 조계지는 지방 정부가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원, 변형, 재배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지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국적인 문화 테마공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창의적인 소비지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탈식민지 관계에는 과거 식민지 열강과 과거 식민지 간 문화, 경제, 권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변화 과정으로 인한 역학 관계의 변화가 있다. 조계지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세계화 순환, 특히 디지털 도시 경관 맥락에서 관광 개발과 비판적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성찰에 있어 비판적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2. 텐진의 외국 조계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강변 도시인 텐진은 근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하며 경제적 역동성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이며, 오래된 조계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교한 문화유산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 보호와 강화는 “굴욕의 세기”를 지우려는 욕구, 20세기 초 지어진 건축 건물로 유행에 부합하는 여가 지구를 조성, 세계유산 등재 준비 등 상충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2차 아편전쟁이 종료했을 때, 텐진은 서구 조계를 받아들여야 했던 중국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다. 9개 열강(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 벨기에)이 조계지에 주거지, 호텔, 공장, 은행, 학교, 병원, 기업을 지어 1860년부터 2차 대전까지 텐진은 “세계의 축소판”이 되었다(Singaravélou 2017). 텐진은 대도시이자 50년에 걸쳐 서구 열강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인과 도시 관계자 이후 일본 식민주의자(1937~1945년)에게도 근대성의 실험실이 되었다.

빈하이 신구가 해안에 조성되어 베이징(정), 텐진(진), 인근 허베이성(지)을 잇는 “징진지”로 불리는 주요 경제 중심지의 일부인 주요 산업 항구이다. 항공, 통신, 화학, 제약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같은 이름의 도시와 교외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텐진의 영토는 약 12,000km²(일드프랑스와 동등한 규모)에 달하며, 총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다. 베이징, 충칭, 상하이처럼 텐진도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텐진은 대조적인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21세기 초 이후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 문화유산 강화의 공통된 특징에는 국가 정체성과 내수 소비가 주요 경제 이슈가 된 상황에서 빠른 관광 개발과 독특한 역사문화적 특성 추구 등이 있다.

2.3. 텐진 우다다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텐진 남부의 즈주린 주변 지역은 영국 조계지로 지정되었으며, 초기 규모는 460에이커였다. 1870년 텐진에서 반가톨릭주의가 등장하였고 조계지로 외국인이 몰려들었다. Alexander Michie는 1888년 영국 조계지를 “두 줄의 느릅나무가 늘어선 길고 곧은 중앙 거리... 크고 아름다운 외국 주택의 출현으로 조계만의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했다(Tianjin Local History Editorial Committee, 1996: 21). 1947년에 영국 조계지는 버려졌다. 영국 조계지는 일본이 지배하던 1941년부터 1947년까지를 제외하고 85년 동안 텐진 경계와 독립된 사실상의 분리된 영토로 영국 의회와 영국 노동부가 관리했다.

우다다오 지구는 1903년 영국 조계지의 3차 확장에 포함되었다. 영국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공학자 Henry McClure Anderson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정원 도시라는 개념으로 지역을 설계했다(Tianjin Local History Editorial Committee, 1996). 에딘버러를 모델로 삼아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유동적이고 질서 정연한 배치로 구역 설

정과 건축 관리를 추구했다(Gravari-Barbas et al., 2020). 영국 조계지에는 발전소, 지하수망, 그린벨트와 같은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했다. 효과적인 계획과 설계로 당시 중국 북부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 지역이 되었고 주택이 조성되었다. 주민들은 화장실, 난방 보일러, 욕조, 전기, 폐기물 처리, 화재 방지를 포함하여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관리와 생활 환경을 누렸으며, 진정한 “귀족의 영토”이자 “근대 생활의 실험실”이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아름다운 생활 환경과 조계의 특별한 정치적 지위로 인해 근대 중국 시대의 정치, 군사, 문화 분야의 중요 인사가 이곳에 모여 살면서 중국 근대사의 중요 무대가 되었다.

2.4. 우다다오의 관광화 및 유산화 과정의 간략한 역사

2.4.1 “귀족의 영토”라는 가면 해체: 1949~1976년

1948~1949년 우다다오의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이주했고 부동산은 새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부문 사무실과 노동자 숙소로 바뀌었다. 신규 노동자 주택이 조성되어 산업용 토지의 비율이 증가했다(Yang, 1996). 우다다오에서 “상류층 은둔지”는 점차 사라지고 일반인의 공동 생활 및 생산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텐진 역양 이용자” 공동체가 “비텐진 역양 이용자”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Feng, 2007). 우다다오 영토의 특성이 해체되고 공간의 특성이 크게 바뀌었다.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파손으로 일부 건물은 상태가 악화되었다. 주택 소유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면서 많은 빌라 세대들이 다수의 거주자에게 배정되거나 임대되었다. 다락방, 지하실, 주방도 침실로서 배정되거나 임대되었다. 우다다오의 생활 공간은 일반 텐진 주민이 욕실, 주방, 기타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 공간이 되었다. 거주 공간 확장을 위해 주민들은 건물 주변의 화단, 울타리, 유럽식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롭고 단순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Guo et al., 2017). 1976년 텐진에서 100년 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크게 손상되었다. 피난처를 찾아 우다다오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Zhang & Han, 2014). 지진 발생 이후 손상되지 않은 건물들은 측면 빔으로 보강했다. 그 결과 건축 양식과 경관 이미지는 완전히 폐쇄된 부유층을 위한 공간에서 시민의 공동 생활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2.4.2 관광 마을의 전략으로 문화유산 유적지의 이미지 정의: 1976~2005년

1978년 경제 개혁 이후 관광은 “경제 근대화를 위한 전략적 부문이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시험지”로 여겨졌다(Chauffert-Yvart et al., 2020). 반면 당국은 통합 관리 시스템과 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Qiao, 1994).

1994~2002년 텐진 당위원회와 지방 정부는 8년 동안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 및 사업 제도 혁신, 현대적 기업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 선진 기술 및 경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Party History Research Office of the CPC Tianjin Municipal Committee, 2018). 2003년 이후 텐진은 현대적인 국제 항구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Dai, 2006).

식민지 유산은 텐진의 근대화와 변화 및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역사적 사례로서 텐진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동력이자 기회가 되었다(Lu et al., 2019). 2005년 다이샹룽 시장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이고 식민지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Zhang and Han 2014). 2006년 발표된 제11차 텐진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텐진의 급속한 발전을 국내외 대중에게 소개하고, 관광 자원을 통합하며, “텐진과 현대 중국”이라는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우다다오 등 여러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Dai, 2006).

“보편적 건축 박물관”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닌 우다다오는 도시 변화의 맥락에서 현대성과 경제 변화 내러티브에 진입했다. 1984년 텐진 시장 리루이환은 우다다오에 도시계획관리실 수립을 제안했다.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는 텐진에서 제출한 계획 초안을 승인하고 우다다오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같은 해 허핑구 조사 결과 높은 건물 및 인구 밀도, 낮은 생활 수준, 시설 부족, 불법 건축이 주요 도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Qiao, 1994). 그 결과 우다다오 지역의 산업체들은 철거되었고 주거용 토지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토지 용도를 상업, 사무실, 교육으로 변경했다(Li, 2009). 허핑구는 휴양 장소와 쇼핑 센터가 밀집되어 텐진에서 가장 국제적인 지역이 되었다(Liu and Chen, 2004). 우다다오는 신흥 상업 지구로 도시 구조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독특한 지역이 되었다.

우다다오는 문화유산 유적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1993년 지방 정부 총국에서는 샤오양로우(XiaoYangLou)를 “소중한 양식과 문화유산의 역사적 건축물”로 자리잡게 한 작은 서쪽 건물로 정의하고 공공 소유의 샤오양로우를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샤오양로우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Yang, 1996). 1994년 우다다오를 완전한 역사 지역으로 간주한 “우다다오 건설관리 보호계획”에서는 보존, 건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철거와 신축을 제한했다.

1999~2000년 마련된 우다다오 개선 계획에서는 지구에 대한 개보수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우다다오를 특별 보호 조항이 있는 역사 보존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진 이후 16만m²의 신축 건물을 무단 건축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Zhang and Han, 2014). 2006년 텐진시 정부는 “역사적 건물 보호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역사적

건물”을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보호 대상 건물을 분류하고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관광 및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제가 시행될 것을 예상하여 거리의 역사적 건물들은 개보수하고 상점과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인프라를 개보수하여 지하화했다. 이러한 조치로 우다다오는 조계 시절의 모습으로 일부 복원되었다(Zhang and Han, 2014).

2.4.3 분쟁 중인 부동산 개발과 관광: 2005~2014년

2008년 초 텐진 정부는 우다다오에서 약 113,000m² 규모의 “주커마오디(JuKeMaoDi)”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 문화, 박물관, 휴양이 융합된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다수의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 경관의 완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의 바람과는 맞지 않았다. 2000~2010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2004년에는 “텐진의 기억(Memory of Tianjin)”이라는 자원봉사단이 결성되어 “잃어버린 텐진 복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위챗,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역사적 이야기를 공유했다. Feng Jicai 등 엘리트 학자들은 학문적 및 사회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텐진의 역사적 건물 보존을 위한 현지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2008년 7월 1일 발효된 “역사 도시 보호를 위한 국가 규정의 보존 완전성”이라는 개념에 위배된다고 중앙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문화유산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사업을 검토하고 검증했으며, 결국 “주커마오디”의 개발은 중단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우다다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생겼고 우다다오의 보존 계획은 국가적 수준으로 올라갔다.

2010년 초반 “우다다오 보호 및 이용 시험 구역”은 텐진의 10대 핵심 관광 사업 중 하나로서 “주커마오디”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공식 대체했다. 사업 면적은 3.3헥타르, 건축 면적은 36,500m²이며, 칭왕푸 부지와 셴농 부지로 구분되었다. 대규모 사업은 마침내 소규모 개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THARD는 고급 클럽하우스인 칭왕푸(2010~2011년 시공), 시민 문화 여가 센터인 민위안 경기장(2012~2014년 시공), 레스토랑 및 창작 기업 셴농 코트야드(2008~2013년 시공), 민위안시리 문화예술지구(2009년 시공) 등 여러 대표 사업을 진행했다. 개보수 단계에서 철거된 건물은 없었지만, 지구는 전체적으로 재편되었다. 예를 들어, 셴농 코트야드에는 개방된 공간에 새로운 “샤오양로우”가 들어섰다. 민위안 경기장 내부는 침몰한 광장과 열주가 있는 로마 양식의 광장으로 재건되었다.

자원봉사단은 반발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했다. 2011년에는 텐진 역사 문화지구 보호 계획이 도입되어 “모든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

고 역사적 건물의 특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보호 원칙이 승리했다(LaoMuCaoTang, 2012). 반면 THARD는 “법적 틀 안에서 보존과 과학적 이용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보고 있다(LaoMuCaoTang, 2012). THARD는 건물에 “현대적인 도시 생활 양식”을 부여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와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또한 “이후 4A 관광 부문 신청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 문화 보존 정책의 요건과 높은 개발 비용, “느린 사업 투자 회수율과 기업의 거부감”은 THARD 진행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였다(LaoMuCaoTang, 2012). 한편으로는 우다다오의 복잡한 부동산 권리, 높은 땅값,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문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에 소속된 텐진 문화유산국, 토지자원주택국, 텐진 계획국은 상호작용과 소통이 제한되어 있어 보존에서 여러 기관의 구분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들 기관과 관광 기관 간 공동 업무는 거의 없고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Chauffert-Yvart et al., 2020).

이 단계에서 방문객의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국민의 비판은 크게 3가지다. (1) 샤오양로우의 대부분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거리에는 문화 정보와 관광 가이드가 부족하다. (2) “지역 상류층”을 위한 고가의 클럽과 레스토랑, 비싼 “특수” 레스토랑 등 지역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3) 상류층 개발 모델로 인해 “텐진”의 이미지가 지워져서 개보수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았다.

일반 거주민의 기억은 개보수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위안 경기장은 텐진 타이다 팀의 홈구장이며 텐진 시민들이 도시와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민위안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저렴한 여가 활동이었다. 하지만 경기장의 “로마 양식” 개보수와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고가의 카페와 마트의 등장으로 텐진 시민들은 “옛 민위안”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되었다(2022년 우다다오 주민 인터뷰).

2.4.5 창의적 담론을 통해 관광의 변화 추구: 2014~2019년

2013년 우다다오의 역사적 건물들이 포함된 “텐진 우다다오 현대건축단지”가 종합적인 경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화유적보호법」과 「역사도시보호규정」에 따라 7번째 국가 중점 문화유적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Tianjin Daily, 2013). 2014년 국가여유국은 “우다다오 문화관광특구”에 관광 부문 4A 등급을 부여했다.

방문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다다오의 관광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우다다오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300만 명이었다. 하지만 2014 텐진 통통계연보에서는 시장

수요가 강하지 않고 경제 운영의 자율적 성장의 내적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텐진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반등의 기반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09년 텐진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조정 및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소프트 및 창조 산업”을 제시했다(Liu, 2009).

2.4.6 “왕홍 도시”에서 왕홍 관광지 조성: 2019~2021년

“창의적인 도시”와 “왕홍 도시”의 융합은 우다다오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2019년 7~8월 “민위안”, “창조 바자회”, 여러 홍보용 전문 레스토랑과 함께 “인플루언서” 및 “틱톡”이라는 검색어가 우다다오의 위챗에 게시되었다(WeChat Wudadao platform, 2018).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음악 축제, 야시장, 창의적인 바, 공예품 노점 등 이미지가 대표 건물과 함께 반복 게시되었다. 또한 우다다오는 “아이스크림 공모전”(WeChat Wudadao platform, 2019년), “가장 아름다운 우다다오 사진 찍기 1000명 프로젝트”(WeChat Wudadao platform, 2019년)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여 영향력 있는 도시로서 우다다오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또한 우다다오는 “진청 야시장 소비 축제”의 일환으로 “본 맥주”와 “센농 여름 문화 시장”과 같은 소비자 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Sina Tianjin, 2020). 2021년 4월, 우다다오 관광특구는 5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 공모 및 공개 투표에서 “새로운 텐진 랜드마크”의 첫 번째 장소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 네티즌과 유명인은 온라인 광고에 촬영지를 “홍보”하고 “도입”하여 실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Tianjin Daily, 2021).

이러한 “왕홍”의 물결 속에서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민위안 경기장 근처의 한 서점은 베스트셀러 판매를 거부하고 웹 유명인의 내부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우다다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다. 양식 레스토랑 “디센트”의 주인은 유명 후기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친구의 추천을 통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서양 음식 문화를 홍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플루언서”라는 이미지에 반발하는 주인에게는 강력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예: 디센트 주인은 국민당 고위 인사였던 차오쿤의 증손자였다). 그들은 우다다오를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3. 방법론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인류학적 및 사회학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사회적 역학 관계로서 관광화 과정과 건축 및 도시 경관의 공간적 유산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

구의 목표는 1980년대 이후 중국 관광 발전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역학 관계의 역사, 경관 공간의 외부화 및 중첩, 이에 따른 관광과 유산의 공간 정비 간 상호작용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텍스트 분석과 현장 조사로 구성된다.

- 텍스트 분석

- 1) 영국 조계지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우다다오가 역사적으로 조계 양식 특징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장에는 텐진 출판사에서 출판한 영국 조계지 기록 시리즈를 담았다.
- 2) 수년간 텐진 정부의 정책 자료와 법규를 분석하여 정부 내 권력 관계, 권한과 책임의 속성, 협력 패턴을 텍스트 관점에서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장에는 텐진 역사 연감과 텐진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했다. 정책과 고유명사의 변화를 정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다다오 유적지의 이미지 변화를 조사했다. 철거 공고, 투자 문서, 관광 홍보 자료 등을 분석해 공간 개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기업 광고 및 자체 홍보, 관광객의 SNS 댓글 등 텍스트를 통해 우다다오에 어떤 공간 이미지가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공간 주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했다.
- 3) 기존 학술 연구 자료도 포함하고 학계의 주요 연구 관심사 및 키워드를 검색하여 학계가 우다다오 개발을 어떠한 관점에서 개입했는지 살펴보았다.

- 민족지학적 접근법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인터뷰와 민족지학으로 나누어진다.

정성적 인터뷰는 주로 반구조화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 1) 방문객 방문객은 우다다오를 일상적인 소비 장소로 이용하는 텐진 주민, 중국 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 등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2) 계획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공무원(예: 기획국, 주택국, 문화유산국, 관광국 소속).
- 3) 우다다오에서 활동하는 상인.
- 4) 거주민. 공화정 시대의 주민과 그 후손, 1949년 이후 주민, 2000년 이후 새로 이주한 주민의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5) 행정 기관의 소유자 대표.
- 6) 전문가 및 연구원.
- 7) 텐진 추억 팀 등 자원봉사자 보존 팀.
- 8) 이미지 홍보에 관여하는 디자이너, 장인, 자비 출판자 등 문화 종사자.

참여 관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관찰, 게스트 하우스, 바, 카페, 아트 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 실험, 계획 및 의사 결정 기관에서 관찰이 이루어졌다.

공간 관찰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1) 도시 규모 - 도시 규모에서 도시 경관 및 방문객과 거주민의 활동
- 2) 근린 규모 - 이웃 간 통합 및 배치, 관광지 및 방문객 경로 선택
- 3) 개별 건물 규모 - 건물 정면의 변화 및 특성, 내부 공간의 사용, 특성, 방식. 단지 공간 사용, 건축 변화의 논리, 공간을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행동
- 4) 간판 및 상징적 규모 - 로고, 브랜드, 내부 이미지

4. 우다다오의 유산화 및 관광화 사업: 왕홍 관광의 이전 역사

4.1. 텐진의 역사 보호의 발전

텐진일보의 역사 경관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는 “역사 경관(历史风貌)”이라는 용어는 1984년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내용이 텐진이 아니라 후난성의 유적지인 악양루에 대한 것이었다. 글에서는 1984년 3월 문화적으로 유한 옛 건물인 악양루는 “오래된 것을 그대로 수리한다(repairing the old as it was)”는 원칙에 따라 개보수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에서 역사적 경관의 개보수와 보호가 역사 무대에 등장했음을 보여준다(Tianjin Daily, 1984).

6개월 후 1985년 텐진일보에는 텐진의 옛 건물 보호에 관한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주로 지역 여신의 궁전인 천후궁(1326년 건립), 도교 사원인 옥황각(1427년 건립), 공자 사당인 문묘(1436년 건립), 대묘(1703년 건립), 텐진의 민간 신앙 사원인 루주궁(1719년 건립) 등 텐진 구시가의 옛 건물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건물들은 텐진의 지역 문화와 민속 전통을 주로 보존하고 있다. 사설은 전통 식당과 신발과 모자를 파는 상점 등 무형 문화유산 보호도 언급했다. 사설은 경제 개혁과 고층 빌딩의 부상 속에서 역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5).

같은 해 텐진의 첫 역사 건축물 보존 사업인 옛 문화 거리 사업이 완료되었다. 해당 사업은 구시가지의 3개 강이 교차하는 지점 근처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청나라 양식의 건축물이었다. 보고서에는 첫째, 사업이 관광객을 위한 것이며, 둘째, 국가 문화, 정신,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역사적 예술 형식의 가치를 논의한다는 두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텐진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문화유산 담론에서 중요한 화두인 현대화와 완전한 서구화 간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5).

1986년 8월 텐진은 지방에서 각 지역으로 분권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과 개보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해당 지구에 상업용 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역사 지역에서 거주민을 이주시킬 공간을 조성하였고 시에서는 건설을 위한 기금을 축적했다. 둘째, 개혁은 거리와 역사적 건물 개보수와 위생 및 환경 조건 개선과 같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Tianjin Daily Database, 1986).

1986년 말 구이 거리(4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텐진 최초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는 복원을 진행하고 전통 양식의 건물을 추가로 완공했다. 이러한 개보수를 통해 거리의 역사적 특성이 복원되었으며, 전통 건물 수는 12개에서 106개로 9배 증가했다. 상업용 매장 수는 60개에서 13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텐진의 상업 역사에서 한때 유명했던 첸샹이 및 루이푸샹 등 많은 유명 옛 상점에 철제 꽃 차양, 큰 처마, 개방형 복도 등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복원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도록 했다. 현재 구이 거리에는 50,000여 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중국 전국의 특산품과 브랜드 제품이다(Tianjin Daily Database, 1986년).

1987년 국무원은 텐진을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으로 선언했다. 9월 사설에서는 옛 건물의 복원과 박물관으로 전환을 문화 보존 노력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이 단계에서는 텐진이 옛 역사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과 함께 관광이 공식적인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 단계의 담론이 강조한 것은 문화적 인사의 거주지 등 텐진만의 역사적 건물이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7).

“산차커우 경관구(이어지는 지역)를 개발하여 텐진의 초기 정착지 관광지와 융합해야 한다. 천호궁은 옛 운하 운송 수단을 소개하고, 다구포대에서는 방문객이 반외세 전투를 돌이켜 볼 수 있다. 문묘는 초기 교육 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저우가 조상당을 통해 베이양 산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옛 상공 회의소 부지는 국가 부르조아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 옌시우, 옌푸, 량치차오, 장포링, 마치앤리, 리수통 등 문화 인물도 있으며, 이들의 거주지를 보존하거나 동상을 세워 이들을 기려야 할 것이다”(Tianjin Daily Database, 1987).

같은 기간 동안 난먼와이 거리를 따라 전통 양식의 건물이 건설되어, 난먼와이 거리는 호텔, 레스토랑, 기타 명소를 위한 거리로 변화되어 관광객을 위한 도시 경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도시 지역을 개보수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필자는 최근 독일 도시 협회의 베를린 지부에서 주최한 도시 건물의 신중한 복원에 관한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크게 감동했다. 옛 도시 건물을 개보수한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피상적으로 유행하는 건축 장식을 따르기보다는 각 건물의 새로움, 양식, 개성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과 도시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건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실제 계획은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건축 이미지와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자, 전문가, 지역 대표, 이용자의 반복적인 연구, 비교, 검증을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중한 접근법은 맹목적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텐진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며 다른 국가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 복원 방법론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신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적절한 대로 참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Tianjin Daily Database, 1987).

1989년 *지역 경관 - 관광 문화 개발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관광 개발 시 텐진의 역사적 특징과 투쟁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유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역동적인 홍보 방법이 부족하여 관광객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Tianjin Daily Database, 1989).

텐진 정부가 도시 전역의 역사적 건물의 보호, 관리, 계획, 개보수, 교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8년이였다. 이 작업은 처음에 텐진 주택 관리국에서 실시했다. 1999년 우다다오(오대로) 지역 개보수에 착수했다. 우다다오 건물의 악화는 3가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1. 1949년 이후 변화: 1949년 이후 우다다오 지역에 거주하던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인물 중 일부는 떠나거나 재산을 새 정부에 넘겼다. 서양식 주택의 대부분은 정부 간부를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구가 한 집을 공유하게 되었다.
2. 추가 정치 개혁과 격변: 이후 정치 개혁과 불안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서민이 우다다오로 이주하여 주택은 더욱 구분되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 계급 가정이 우다다오로 이주하여 인구 구성은 엘리트에서 일반 시민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
3. 1976년唐山 대지진 이후: 1976년唐山 대지진 이후, 우다다오의 넓은 안뜰과 공터는 피해 주민이 임시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지역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혼합되게 되었다(Zhu, 2012).

이 기간 동안 우다다오의 일부 토지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같은 신규 건설에 사용되었다.

1998년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의 발언은 텐진의 역사 경관 보호 담당자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우다다오는... 20세기 초 중국 해안 개항 도시에서 고급 주거 건축물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중국이 전통 폐쇄 사회에서 현대 개방 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중국 주거 건축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희귀한 살아 있는 역사이다”라고 말했다(2024년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추진단 단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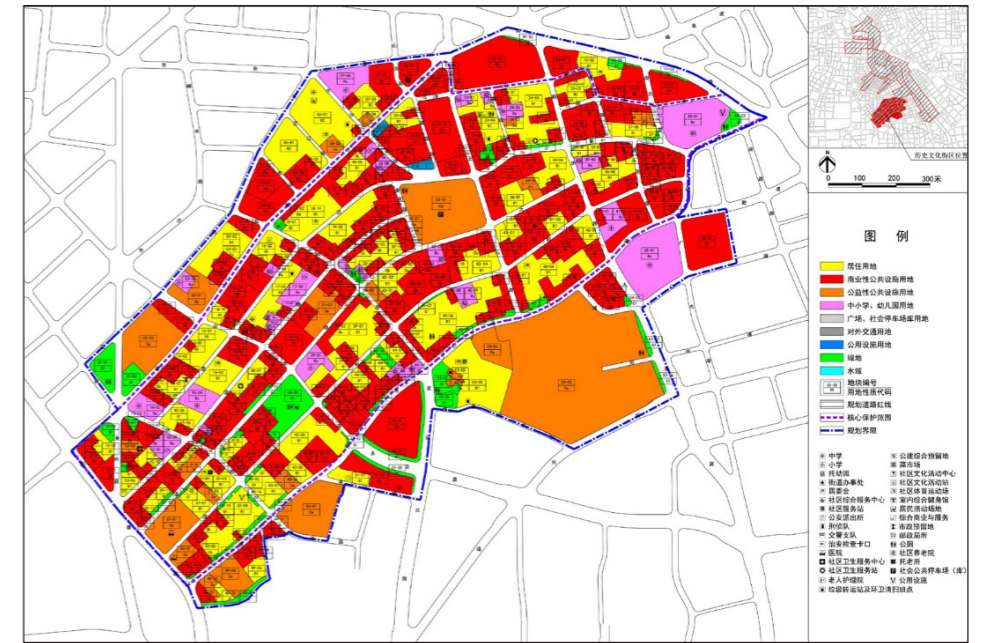
중국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 이후 텐진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지역, 민속, 반식민지 유산에 집중하는 것에서 식민지 요소가 있는 조약 항구 양식의 건축물을 유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텐진 지도부의 이러한 관점 변화는 구시가지의 인구 밀도, 심각한 파괴, 과밀화로 인한 것이지만, 우다다오는 상대적으로 보존되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효과 때문에 격변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실 이미 1994년에 우다다오의 역사 보호 계획은 시작되었다. 1994년 우다다오 건설관리보호계획에서는 우다다오를 “서양 고전 양식 경관 보호 구역”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다소 자의적이어서 모더니즘 운동의 반영 등 지역 건축의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계획은 우다다오를 전체 역사 지구로 취급하여 보호, 건설, 관리 조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역사경관보호추진단이 설립된 후 우다다오의 개보수는 1999년 공식 시작되었다. 첫 개보수 사업은 문난가에서 진행되었고, 같은 해 우다다오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이어졌다. 2000년에는 마창가 개보수가 시작되었고 2001년에는 달리가, 창더가, 충칭가가 복원 대상이 되었다. 2001년 기존의 우다다오 건설관리보호계획이 수정 및 개선되었다. 2003년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실이 주택국 관리하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도시 전역의 역사적인 경관 건축물의 보호, 관리, 계획, 개보수, 교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텐진 지방 인민대표대회(텐진 입법 기관)의 한 의원이 최초로 역사 경관 건축 관리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입법 작업이 곧 시작되었으며, 역사적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정부, 주택국, 지역사회 관리 단체가 다양한 교육과 동원에 노력을 기울였다(Cai et al, 2016).

2004년부터 징위안, 우다다오, 지팡 북로 등 역사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보호 구역에 대한 지도를 파악하고 검증하며 작성했다. 당시 텐진 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역사 보호 노력과 입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건설부에 제출되어 “중국 거주환경상”을 수상했으며, 텐진을 국제 무대로 진출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에서도 홍보되었다(담당자 인터뷰, 2024).

2005년에는 텐진 역사경관보호추진단은 텐진 역사경관보호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우다다오의 비역사적 건물 철거, 집 수리, 지역 내 상업 활동 관리를 공식 시작했다. 우다다오는 중국 텐진 경제협력투자박람회에서 “텐진 역사경관건축자원전시회”를 통해 텐진의 상징이 되었다. 같은 해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규정이 공식 통과되어 323개의 역사 건물이 처음 승인되었다. 동시에 해당 행정 규정인 텐진 역사경



노란색은 주택 지역, 빨간색은 상업 지역, 주황색은 도시 서비스, 분홍색은 학교다.

그림 1. 텐진 우다다오 역사 계획, 텐진 계획 정보 센터, 2014.
(출처: https://ghhzrzy.tj.gov.cn/ywprd/cxgh_43015/ghgb/202012/t20201206_4507430.html)

관건축활용관리조치가 발표되어 합법적으로 주민의 이주를 허용했다. 또한, 텐진 역사건축복원개발공사(THARD)를 설립하여 징위안과 같은 곳에 주민 이주를 시작했다(Cai et al, 2016).

2006년 우다다오의 거버넌스는 거리 관리에서 코트야드 내 불법 구조물 대응으로 확대되었다. 205개의 역사적 건물이 두 번째로 승인되었고, 첫 번째 역사적 건물에는 명판이 부착되었다. 지방 정부는 우다다오, 지팡 북로, 중앙 정원, 취안예창, 이공 정원, 옛 문화 거리 등 6개의 역사 경관 건축 구역을 지정했다(담당자 인터뷰, 2024년).

2007년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위원회, 텐진 대학교, 지방 토지자원주택관리국은 공동으로 역사 건축 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08년에는 우다다오의 경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특별 실무 그룹을 수립하는 것부터 법안을 제정할 때까지 7년이 걸렸다. 우다다오 개보수 시작부터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완성될 때까지는 13년이 걸렸다. 우다다오의 개보수는 몇몇 핵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담당자 인터뷰, 2024).

4.2. 민위안시리의 사례

엘리트 개인 주택 외에도 우다다오에는 당시 텐진에 공장과 회사가 있던 중국 및 외국 기업이 여러 건물 단지를 지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직원을 위해 중국과 서양의 고전적인 장식 양식을 혼합한 모더니즘 양식의 미니멀리즘 기숙사를 지었다. 특히 이러한 건물들은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 욕실, 개인 침실, 업무 공간을 통합하는 등 현대적인 기능적 계획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조계 구역은 현대 건축의 시험장이었던 것이다. 민위안시리(Minyuanxili)와 셴농 코트야드(Xiannong Courtyard)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위안시리 문화창의지구는 텐진시 허핑구 우다다오 창더로 29-39(구 영국 조계 콜롬보 로드)에 위치해 있다. 1939년 지어진 해당 건물은 저명한 현대 건축가 셴 리위안(Shen Liyuan)이 설계했다. 건물 단지는 계단식 영국식 선형 주택의 두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주택에 각각 독립된 코트야드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단지는 노출된 회색 벽돌로 지어졌고 건물 대부분이 정문 뒤 안쪽을 향하고 있어 사생활이 보호되어 있다. 선형 주택의 대표적인 예로서 각 주택에는 코트야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하인 숙소, 식당, 창고 등이 있으며 나무 바닥과 기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건물은 2층 벽돌 목재 구조로 일부는 3층까지 있고 어두운 금속 문으로 가려져 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민위안시리의 두 건물은 유형 문화 유적이며, 텐진에서 일반 보호 대상인 역사 경관 건물로 분류된다. 총 대지 면적은 1,693.05m², 총 건축 면적은 1,848.86m²이다. 원래 각 주택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상수도가 있는 독립 주거 공간이었다. 별장은 아니지만 층간 간섭이 없는 사생활 및 독립성 등 별장과 같은 생활 공간을 제공했다. 민위안시리는 루무 자이 가족 기업인 텐진 지안 부동산 회사에서 재원을 지원하였고 주로 중산층과 및 상류층 지식인에게 임대했다. 중국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되어 텐진의 역사적 건물 단지를 대표하는 독특한 곳이다(THARD SITE, 2013).

“민위안시리는 잘 보존된 골목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첫 개보수 사업 대상으로 민위안시리를 선정했다.”(THARD Director, 2022년). 민위안시리의 개보수 사업은 2009년 2월 시작되어 5월에 완공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3개월 만에 문화와 창의의 거리로 바뀐 것이다.

개보수 과정에서 시공 팀은 건물의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 권고를 융합하여 **텐진 역사경관건축보호규정**의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했다. 개보수는 “오래된 것은 그대로 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경사 지붕, 외부 유약 벽돌 외관, 내부 및 외부 문 및 창문 양식, 내부 처마, 스트립 바닥재, 굽도리판, 목재 계단 등 원래 건물의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원 후 이곳은 우다다오에서 일반에게 개방된 문화 예술 지구가 되었다.

2009년, 민위안시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업체가 입주했다.

- 뉴욕 상점가 건축 아트 갤러리
- 팝업 3D 갤러리
- 후이농 아가우드 미술관
- 51 부티크 호텔
- 31컵스 카페
- 엠마 와인 셀러
- 로모 카메라 전시 및 체험 센터
- 시보 컨설팅
- SPOT 국제 광고 회사
- 민위안 33 부티크 호텔
- 카페 삼발(말레이시아 레스토랑)
- 베드바
- 글로벌 트래블 리포트

건축 박물관, 미술관, 부티크 호텔, 카페, 고급 호텔, 국제적인 미디어, 컨설팅 회사 등이 입주하여 고급 상업 지구가 되었다. “상점가 건축 미술관 포스터 회고전”과 “페트리스 버틀러 트라이시티 아티스트 전시회” 등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열렸다(THARD Director, 2022).

초기 계획은 민위안시리를 고급 문화 창작 지구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텐진에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진 않았고 소비자 수요가 부족해 민위안시리는 기대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2017년, 텐진 역사건축복원개발공사(THARD)는 민위안시리를 보다 “접근성이 좋은” 문화 창조 지구로 바꾸기 시작했다. 첫째, 보다 저렴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엠마 와인 셀러가 철수한 후 현지 유명 문화 브랜드인 “상구 서점”이 들어와 민위안시리에서 문화적 자리를 잡는 것에 성공했다. 2017년 민위안시리의 관리실이 설립되었고, 주이 카페와 빈티지 상점 등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여 인기 있는 문화 관광지가 되었다. THARD SITE, 관리실,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독립 장인과 기업가를 초청하여 민위안시리 거리에서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창작 시장인 “간상지(Ganxiangzi)” 시장을 개설했다. 이 행사의 인기로 인해 민위안시리에서 창작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관광지이며 SNS상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자 THARD는 임대료를 높였고 서점 등 창의성 업체에 경제적 압박이 높아지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나가게 되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그림 2. 민위안신리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출처: Chensi Shen, 2024)

민위안시리의 개보수는 예술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다. 초기 고급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지만, 문화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빠르게 성공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은 또 다시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위협했다.

4.3. 셴농 코트야드

1901년 영국인 기업이 덩지아리가 리홍장, 차이샤오지, 허버트 후버(나중에 미국 31대 대통령이 됨) 등 저명한 인사를 포함한 7명의 대주주가 셴농 엔지니어링 주식회사(Xiannong Engineering Co., Lt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텐진에서 외국 자본이 설립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부동산 회사였다. 영국 엔지니어인 리드가(Reed)가 설계한 셴농 코트야드는 1925년 완공되었다. 기능적이고 편안한 배치가 특징인 이곳은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이었다. 건물 외관은 이중 경사 붉은 기와 지붕과 붉은 벽돌 벽으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우아하며, 따뜻한 서양식 건축 미학을 형성한다. 셴농 코트야드에는 여러 역사적 건축 양식이 녹아 있으며, 절충주의 서양식 빌라, 영국식 계단식 주택, 영국식 독립형 빌라, 중국식 아르데코 양식의 빌라, 현대식 건물이 혼

합되어 있다. 단지의 비율은 쾌적하여 큰 나무와 고요하고 우아한 환경이 특징이다. 넓고 밀집된 코트야드는 화합적 세대로 재개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THARD SITE, 2024년 검색).

복원 전에 셴농 코트야드는 130명의 주민과 5개의 법인이 거주했으며,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건물 외관이 손상되었고, 여러 가정이 한 건물을 공유하여 내부도 심각히 손상되었다. 또한 해당 단지에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했다. 2006년 셴농 코트야드 계획이 시작되어 주최된 건축 공모전에는 상하이 및 텐진뿐만 아니라 미국 및 덴마크 회사들도 참여했다. 제안서에는 철거 및 재건, 현장 복구, 부분 철거 등 여러 전략이 제시되었다. 건물의 일부 철거를 제안하는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텐진의 역사 건축물 보호 자원봉사단은 강력한 반대했다. 자원봉사단은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면 우다다오의 역사적 특성과 거리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무원에서는 이러한 반발로 인해 우다다오를 중요 역사 경관 지역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셴농 코트야드 개보수는 8년이 걸렸으며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시공 면적은 8,600m²로 셴농 코트야드와 후난 9로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시공 면적 16,400m²로 샤오광밍선, 후난로, 허베이로가 포함되었다. 건물의 열화가 심해 개보수는 복원에 역사적 청사진을 참고하여 건축 측량부터 시작하여 외관 수리와 담수화를 진행했다. 또한 개보수 과정에서 우다다오에 있는 같은 시대의 다른 건물들을 참고하여 비슷한 양식을 파악하여 창의적인 복원을 진행했다. 시공 과정에서 원래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옛 건물의 벽돌을 해체하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벽돌을 잘라 벽에 재사용하는 세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지하 배관을 다시 설치하여 인프라 배관도 정비했다. 개보수는 원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일부는 타협했다(THARD SITE, 2013).

셴농 코트야드의 상업적 입지는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는 “문화 중심지”로 설명된다. 지역에는 스타벅스 북중국 대표 지점, 홍콩 레전드 광둥요리 대표 지점, 지중해 레스토랑,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 고급 레스토랑이 입주했다. 또한 지역적 및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 교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명품 가정용품 업체와 선도적인 문화 및 박물관 업체도 입주하도록 유치했다. 상업 및 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건축과 현대 생활 양식 측면에서 영국 조계지 시대의 상류층 생활 양식과 사회적 교류를 재현하는 것이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하지만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는 잘 되었지만 지나치게 고급화 입지로 인해 지역의 전반적인 상업적 성공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급 매장은 점차 교체되었다. THARD는 독창적인 생활 양식 제품을 중심으로 간단한 생활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친환경 생활 양식 시장 “첸량지(簡良集)”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했다. 창작

레스토랑, 인기 매장인 상허 페이스트리 가게, 수제 은제품 매장, 가죽 제품 매장 등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여 삶의 질을 강조하고 보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생활 요소를 반영하게 되었다. 한편, THARD는 시장 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 “샤오리지 연구 학회(Xiaorizi Research Society)”와 협력하여 셴농 코트야드에서 여러 창작 시장을 주최하여 인기를 높이고 있다(Director of Xiaorizi research group, 2024).

2018년 이후 시작된 셴농 코트야드 개보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첨단 인터넷 기업이 입주하여 사무실이나 브랜드 쇼룸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의 변화를 꾀하려는 텐진의 목표와도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빌라 환경은 이러한 업체의 대규모 사무실 수요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공실이 많았고 활용도가 낮은 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 2022년 이러한 접근법을 바꾸어 THARD는 생활 양식 브랜드 “멘리(Mianli)” 커피를 출시했다. 멘리는 커피 브랜드로 미술관, 창작 상점, 친환경 헬스장, 기타 사업에 진출하여 야외 콘서트, 오페라, 반려동물 시장, 기타 행사를 주최했다. 그 결과 셴농 코트야드의 2단계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현재 창의적 호텔이 오픈할 예정이다. 셴농 코트야드는 대부분 간과되다가 인기를 크게 얻으며 고급 소비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창의적인 문화 명소로 발전하는 변화를 겪는다(멘리 카페 인터뷰, 2023).

4.4. 칭왕푸와 산이리

칭왕푸(칭나라 황태자의 저택)는 텐진시 허핑구 충칭로 55에 위치해 있다. 1922년에 지어진 칭왕푸는 원래 칭나라의 환관인 샤오더장이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이다. 후에 칭나라 왕실의 4대 황태자 자이젠이 가족과 함께 저택을 구입하여 “칭왕푸(Qingwangfu)”라고 명명했다. 저택의 건물 면적은 4,327m², 연면적은 5,922m²이다. 코트야드 배치는 2층으로 벽돌과 목재 구조(지하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건축물은 서양적인 요소를 채택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 이미지를 담고 있어 우다다오의 빌라에서 볼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다.

칭왕푸의 건축 양식은 중국과 서양의 요소들이 융합된 절충주의 양식이다. 유향 벽돌로 지은 외벽과 붉은 기와의 경사진 지붕 등 절충주의가 본관의 특징이며, 웅장하면 우아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내부는 정교하게 조각된 디테일로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본관 중앙에 있는 공용 홀이다. 12m 높이의 천장과 350m² 면적으로 독일에서 수입한 포도 상들리에로 장식되어 고급스럽고 낭만적이다(THARD SITE, 2024년 검색).

칭왕푸가 원래 있던 자리에는 현재 칭왕푸 문화전시관이 있다. 벽돌 및 목재 구조와 서양식과 중국식 혼합 저택 양식으로 3층이며, 건물 면적은 4,325m²다. 건물 중앙에는 부채 모양의 돌계단과 높은 단상이 있다. 1층과 2층은 복도가 있으며, 3층



그림 3. 셴농 코트야드에 있는 쉐랑지 브랜드 매장
(출처: Chensi Shen, 2022)

에는 조상을 기리는 공간이 있다. 저택에는 테라조 바닥, 무늬 천장, 원목 문과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특징이다. 동쪽의 정원에는 암석, 동굴, 육각형 정자가 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1949년 칭왕푸는 텐진 군 사령부의 본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1949년 이후 중국 소련 우호회 텐진 지부, 텐진 인민외교회, 텐진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텐진 상무위원회, 텐진 외무실에서 사용했다(THARD SITE, 2024년 검색).

2010년 텐진 역사건축혁신부(THARD)는 진정성, 완전성, 가역성, 인식 가능성,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2년 동안 칭왕푸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복원 과정에서 건물의 원래 외관, 코트야드 식생, 경관은 원래 그대로 보존되었다. 내부의 소중한 목재 조각, 테라조 바닥, 나무 바닥, 문, 금속 부품, 유약 칠한 중국 기둥,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등 역사적 요소도 개보수를 통해 신중하게 보호했다. 건물의 외관 복원에 있어 모래 주입 세척 기술을 사용했으며, 손상된 부분은 엄격한 재료 규격에 따라 수리하여 복원된 벽이 원래의 질감과 색상을 유지하도록 했다(THARD 관리자 인터뷰, 2022).

하계 다보스 포럼과 제30차 국제행동위원회 연례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를 칭왕푸에서 개최했다. 또한 칭왕푸 저택은 식사, 연회, 다기능 홀 등 다른 기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칭왕푸는 지역의 다른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부족하고 자원 활용이 낮아 어려움에 처했다. 박물관으로서 기능은 남아있지만 다른

상업적 용도는 좋지 않았고 주변 상점은 공실이 많았다.

칭왕푸에 인접한 산이리(Shanyi Li)는 33개의 계단식 빌라가 7열로 이루어진 코트야드식 단지이며, 면적은 5,000m²에 달하고 건물 면적은 8,009.62m²이다. 이는 텐진에서 일반 보호 대상인 역사적 경관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산이리(원래 이름은 산이리)는 1937년 중국의 근대 시멘트 산업가이자 치신 시멘트 회사의 대표였던 천이푸가 그의 아들 천관유, 천다유와 함께 세운 건물이다. 건물은 베이양대학교 토목 공학과를 졸업한 천관유가 설계하고 감독하였으며, 초기에는 사무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주거 지역이 되었다.

칭왕푸와 산이리는 낮은 방문자 수와 자원 활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각기 다른 전략을 택했다. 칭왕푸는 바 카페인 “이스트게이트(Eastgate)”를 도입하여 저택을 SNS에서 인기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칭왕푸의 정원 쪽에 있는 양식 레스토랑은 저택을 요가 또는 결혼식 같은 행사를 위한 장소로 바꾸어 축하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산이리는 처음에는 부티크 호텔로 운영되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이후 사무실 공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산이리에 입주한 많은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여러 부동산이 재정 부족과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했다. 2022년 산이리는 고급 아파트 개발을 통해 고급 산업과 유명 기업가가 모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소규모 서양식 건물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었다 (THARD SITE와 인터뷰, 2022).

2024년 이후 텐진 현대예술문화교류서비스센터의 전문가 팀을 불러와 칭왕푸의 문화 운영을 보다 강화했다. 전문가 팀의 목표는 저택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텐진만의 통합 문화 및 관광 개발 모델을 홍보하는 것이다. 칭왕푸의 운영 관리를 위해 THARD는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해 전문 기관을 참여시켰으며, 서비스센터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는 “중국 좋은 관광지” 시리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실크로드 세계 이미지 전시회”와 같은 국가적 및 지역적 행사를 주최했다. 서비스센터는 “칭왕푸 연회”, 몰입형 전시, 라오메이화, 정완홍, 귀순자이 등 텐진의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계획으로 창의적인 문화 상품 개발, 몰입형 전시, 우다다오 주변의 지속적인 성장 등이 있다 (THARD SITE와 인터뷰, 2024).

칭왕푸와 산이리는 고급 공연장에서 보다 접근이 쉬운 문화 및 창의적 관광지로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발전은 현대의 문화적 및 상업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유적지를 개보수하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인 민위안시리, 셴농 코트야드, 칭왕푸, 산이리는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도시 개발의 융합이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사례는 유적

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현대적인 상업, 문화, 주거 용도로 개보수하는 것 사이에 섬세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대 및 고전 건축 양식이 독특하게 혼합된 민위안시리는 처음에는 고급 문화 창조 지구로 기획되었다. 첫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 예상했던 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폭넓고 접근성이 높은 일반인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지역 문화 브랜드, 창작 시장, 지역사회 활동의 도입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고 인기 있는 문화 관광지가 되었다.

절충주의 건축 양식의 중산층 주거 단지인 셴농 코트야드도 복원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 건축 측량, 외관 수리, 기존 자재 재사용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원래 목표는 영국 조계 시절의 역사처럼 지역을 첨단 기업과 고급 문화 활동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역사적 건물의 규모는 현대 사무 공간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이러한 구상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멘리 커피 등 문화 및 생활 양식 업체가 들어서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돌게 되었다. 단순하면서 풍부한 생활 양식 브랜드가 인기 있다는 것은 지역이 공동체 중심적이고 창의적인 용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및 서양 건축 요소가 풍부하게 융합된 칭왕푸는 역사 보존의 독특한 사례다. 저택을 신중하게 복원하여 건축적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용도의 다기능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커다란 규모와 중요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는 상업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칭왕푸는 고급 다이닝, 결혼식, 전통 오페라 공연 등 SNS 중심의 체험과 문화 활동을 도입하여 인기 관광지로 변화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휴양과 SNS에만 점차 집중하게 되었다.

부티크 호텔과 사무실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던 산이리는 고급 아파트와 창작 공동체 중심지로 변신했다. 산이리의 문제는 관리와 장기 투자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역사적 건물을 적응시켜 재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인 것이다. 원래 고급 상업적 지위(역사적 이미지로 회귀)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유적지가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 중심 모델로 전환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문화 활동, 창작 시장, 생활 양식 브랜드가 도입되어 역사적인 공간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활기찬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관광 및 역사 내러티브의 지나친 단순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유적지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래 재료와 외관을 복원하는 등 역사적 보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원은 대응의 일부일 뿐이다. 오늘날 도시 맥락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적응과 관리도 필요하다.



그림 4. 텐진 칭왕푸, THARD SITE
(출처: <https://www.thard.com/?lm2/> . 2024)

5. 유적지 내 왕흥의 과제

5.1. 칭왕푸

칭왕푸의 공간은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관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었지만, 운영권은 민간 자본이 인수하여 수익 위주의 박물관으로 변했다. 박물관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 업체가 들어섰다. 카페 및 맥주 바는 독특한 메뉴와 디자이너가 만든 인테리어로 왕흥(인터넷에서 유명) 사진 명소로 인기를 크게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는 유명세에도 실질적으로 재정 수익을 창출하진 못했다. 카페는 운영 손실과 건물주의 공간 회수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어 왕흥 유명세도 끝이 났다.

한편, 칭왕푸의 옛 정원은 서양식 레스토랑과 결혼식 및 상업 행사를 위한 장

소로 변모했다. “왕푸 정원”으로 브랜드화한 이 사업은 텐진 전역에서 활발히 홍보되어 재정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하여 회원을 위한 특별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참가자는 자신의 체험을 SNS에 공유했다. 칭왕푸의 고급스러운 건축물과 역사적 배경은 이상적인 배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인기와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칭왕푸의 외관은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방문객과 수익을 유치하고자 민간 운영자가 역사적 진정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식 요소를 외관에 도입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SNS 친화적인” 변경에 대해 온라인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반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유적지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문화유산 보존과 상업적 이해관계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5.2. 민위안시리

민위안시리의 개보수는 최소한의 개입과 저비용 복원 원칙에 따라 주요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민위안시리는 좁고 깊은 산책로가 특징인 원래의 골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부각되는 상업적 왕흥(인터넷에서 유명) 대신 조용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예를 들어, 텐진에서 제일 유명한 문화 서점 중 하나인 상구 서점과 민간 석조 박물관은 민위안시리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지만 민위안시리는 왕흥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골목길은 창작 시장에 사용되었다. 2024년 THARD는 민위안시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 기금을 확보했다. “트렌디한” 상점이 등장하여 업체는 상점 장식을 변경하고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민위안시리 인근 거리에는 밝은 색으로 칠한 푸드 트럭들도 있어서 고객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성공으로 민위안시리의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 그 결과 서점 등 문화 시설은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전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민위안시리와 같은 문화유산 지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과 상업적 성공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5.3. 쉰농 코트야드

상업 단지로써 1단계의 성공에 이어 쉰농 코트야드의 2단계에서는 텐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원래 목표로 했지만 결국 이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단계에서는 “멘리” 브랜드를 운영하며 왕흥(인터넷에서 유



그림 5. 선농 코트야드의 일부 사업인 멘리의 창작 시장.
(출처: 멘리의 미디어에서 인용.)

명) 관광지로 거듭났다.

멘리 브랜드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왕홍 매력을 확립하고자 여러 전략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레스토랑, 카페, 미술관, 극장, 어린이 예술 교육 센터 등 다양한 업체가 포함되었다. 조형물, 벽화 등 창작 설치물이 코트야드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텐진”을 주제로 한 대형 배너는 휴가철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다.

또한 멘리는 빈티지 가구 박람회, 반려동물 시장 등 주제별 창작 시장을 개최하여, 특별한 사진 촬영과 쇼핑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코트야드에서는 가끔 야외 콘서트와 오페라가 열려 문화적 분위기를 강화했다. 멘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행사를 홍보하고 SNS 플랫폼으로 연계를 강화했다.

멘리는 왕홍 인기 관광지로서 수익과 관심을 성공적으로 창출했지만, 제공하는 문화의 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비판자들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문화 상품과 체험은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6. 결론

우다다오의 발전 역사를 보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만의 도시화 맥락에서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도시 개발 모델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반식민지 지역이던 우다다오는 오늘날 “왕홍” 문화유산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문화유산 법률 제정과 하향식 복원 노력은 우다다오가 암울한 역사적 성찰의 장소가 아닌 문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도시 개발의 여러 단계를 거쳐 문화유산 공간은 현대 도시 필요에 맞는 수단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는 도시 브랜드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재조성되었다.

특히 왕홍 문화의 영향에 따른 정책 지침과 SNS는 우다다오의 유산화 및 관광화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했다. 문화유산 복원은 왕홍 활동의 배경과 장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엘리트”라는 의미가 함축된 문화적 참조를 제공한다. 하지만 하향식 개보수는 대규모 건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SNS와 창의적인 문화로 버는 관광 수익은 민관 자본의 협력을 유도하여 보다 작은 규모로 문화유산 공간의 변화를 촉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역사적 진정성이 약화되고 문화적 의미가 상품화되는 단점이 있으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사이에 긴장을 일으킨다.

또한 우다다오의 개발은 심각한 사회 계층화를 드러냈다. 신흥 중산층은 창조 산업과 상업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경제를 장악하였지만, 원래 주민은 경제적 및 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소외되어 버렸다. 한편, 왕홍 경제는 방문객 수와 경제적 이익을 급격히 늘려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상업적 모델의 짧은 수명 주기와 문화 상품의 획일화로 인해 문화유산 유적지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지나치게 휴양에 초점을 맞춘 내러티브는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다다오의 사례는 문화유산이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의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 보존, 상업적 발전, 문화적 보급,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Cai, et al. A Glimpse of Tianjin: An Apprecia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Protection, to Mark the Ten-Year Course of Historical and Stylistic Architecture Protection of Tianjin. Tianjin University Press, 2016.

Chauffert-Yvart, B., Ged, F., Lu, Y., Mengin, C., & Rousseau, É. (2020). Tourism and heritage in the enhancement of Tianjin. *Built Heritage*, 4(1), 1-20.

Dai, X. 戴相龙. (2006). [Report on the outline of the eleven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ianjin.] 关于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的报告. [Tianjin Political Daily] 天津政报, 000(002), P.2-13.

Falser, M. (2021). Habsburgs going global. The Austro-Hungarian Concession in Tientsin/Tianjin in China: from a history of failure to a heritage of fake?.

Feng, J. 冯骥才. (2007). [Explaining the Five Avenues] 阐释五大道. [Architecture and Culture] 建筑与文化(03), 102-103.

Gravari-Barbas, M., Guinand, S., & Lu, Y. (2020). Hybridisation and circulation of models in Tianjin's former concession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1-20.

Guo, Y. Zhang, M. & Qin, D. 郭友琪, 张萌, & 秦迪. (2017). [A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Building Use in the Five Avenues Area of Tianjin - Centered on Chongqing Road. Urban Development Research] 天津五大道地区建筑使用现状调查——以重庆道为中心. *城市发展研究*(04), 136-139+149.

Han, X. & Zhang, F. (2014, October 21). The Five Avenues: a landmark Chinese documentary. China Social Science Network. 韩晓.晶., & 张帆. (2014, October 21). 《五大道》：中国纪录片里程碑之作. 中国社会科学网. http://news.cssn.cn/st/st_whdgy/201410/t20141021_1371308.shtml

Lao Mu Cao Tang. (2012, March 28). The Tianjin model for the commercial operation of Qing Wangfu. Sina Blog 老穆草堂. (2012, March 28). 庆王府商业运营的天津模式. 新浪博客. http://blog.sina.com.cn/s/blog_4bcf27130102dvqn.html

Li, Y. (2013). Planning the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fragmented municipality and contested space, 1843-1937. HKU Theses Online (HKUTO).

Li, Z. 李哲. (2009). [Research on Land Replacement in the Dynamic Protection of Tianjin Wudadao] 天津五大道历史街区动态保护中的土地置换研究 [D] (Doctoral dissertation, 天津大学).

Liu, Fengyin, and Zhongxin Chen, eds. 2004. *Tianjin Tourism Guide*. Beijing: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Liu, S.Y. (2009). Report on the work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Tianjin Municipal People's Congress - January 13, 2009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15th Tianjin Municipal People's Congress. Tianjin People's Congress, 000(001), 5-12. 刘胜玉. (2009). 天津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工作报告——2009年1月13日在天津市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 天津人大, 000(001), 5-12.

Lu Yue, Gravari-Barbas Maria & Guinand Sandra (2019) Simulacra heritagization: the Minyuan stadium in Wudadao, Tianjin,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7:1, 55-68

Marinelli, M. (2009). Making concessions in Tianjin: heterotopia and Italian colonialism in mainland China. *Urban History*, 36(3), 399-425.

Osterhammel, J. (1986). Semi-colonialism and informal empire in twentieth-century China: Towards a framework of analysis.

Party History Research Office of the CPC Tianjin Municipal Committee. 中共天津市委党史研究室.(2018). [Tianjin reform and opening up factual record] 天津改革开放实录.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天津人民出版社.

Qiao, H. 乔虹. (1994).[Tianjin Urban Construction] 天津城市建设志略.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中国科学技术出版社.

Sina Tianjin. (2020, July 18). Tianjin people are going to have a “festival”.新浪天津. (2020, July 18). 天津人要过“节”啦. <http://tj.sina.com.cn/news/2020-07-18/detail-iivhvpwx6055572.shtml>

Singaravélou, P. (2017). Tianjin Cosmopolis. Une histoire de la mondialisation en 1900. Média Diffusion.

THARD Website for Historical Projects. Available at: <https://www.thard.com/>.

THARD. Centennial Pictures: Dreamland of Xiannong. UED Magazine, 2014.

THARD. Qing Wang Fu Restoration Record. Tianjin University Press, 2014.

Tianjin Daily Database (1984-2024), Tianjin Library.

Tianjin Daily. (2013, May 5). 13 cultural preservation units in Tianjin promoted to “national level”. Sina Tianjin. 每日新报. (2013, May 5). 津13处文保单位晋升“国家级” 五大道列其中. 新浪天津. <http://tj.sina.com.cn/news/m/2013-05-05/085124561.html>

Tianjin Daily. (2021, April 29). New landmarks in Tianjin. Xinhua.com. 天津日报. (2021, April 29). 津门新地标出炉. 新华网. http://www.tj.xinhuanet.com/news/2021-04/29/c_1127390306.htm

Tianjin Local History Editorial Committee. 天津市地方志编修委员会. (1996). [History of Tianjin: History of the Concession.] 天津通志 租界志. [Tianjin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ess.] 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

Wudadao. 五大道. (2018, December 15).[If you are visiting Tianjin, please take this list of the most “in” attractions in the Heping District!] 如果来天津旅游, 请收下这份和平区最“红”的景点清单!. [Wudadao Wechat Platform] 五大道微信公众平台. <https://mp.weixin.qq.com/s/PRYh3vNWQPWRCET8d69gA?>

Wudadao. 五大道五大道. (2019, July 20). [“Five Avenue Ice Cream Festival Tiktok Contest”, record the sweet time together] “五大道冰淇淋节抖音大赛”, 一起记录甜蜜时光. [Wudadao Wechat Platform] 五大道微信公众平台. <https://mp.weixin.qq.com/s/yUBR5W7bQK-WTpHhQWC0nw>

Yang, S. 杨书焯. (1996). [Tianjin City Civil Public Housing Management Journal] 天津市民用公房经营管理志. [Tianjin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ess] 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

Zhu, Xuemei, et al.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of Historic Area. 2012.

도서명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주최/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유산협동과정

협조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출판일자

2025.12.31.

편집자

김영재, 박지은

인쇄편집자

(주)디자인인트로

표지 사진

© 마리아 그라바리-바르바

발간등록번호

11-1833112-100007-10

ISSN

2983-3051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연구: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

